

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제1집

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재덕 신부

(成載德 PIERRE SINGER)

성가소비녀회 역사자료실 편

편 찬 사

초창기의 서울 성가소비녀회 수녀원은 현재 가톨릭 교리 신학원 건물이 서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설자이신 성 재덕 신부님께서 그곳 혜화동 본당 주임으로 계실 때에 본회를 세우셨는데 그곳이 마침 대신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호혜적인 위치였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수녀원에 입회할 때만 해도 아직 본원과 수련소가 그곳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 신부님께서 남기신 말씀, 행적, 기타 자료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내놓게 된 지금, 그분과의 지난날들의 일들이 마치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1968년 1월에 본부를 혜화동에서 정릉으로 이전하였고 그 이듬해 인 1969년 1월, 성가소비녀회 창설 25주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당시 수련자였던 우리는 선배수녀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 신부님께서 대단히 열심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때마침 우리 회의 25주년 경축 행사의 하나로 소비녀회 창립 과정을 그린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에 열중하는 거룩한 사제의 모습과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몇몇 동정 소비녀들이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나환자를 모셔다 돌보아 드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는 성 신부님의 역을 맡게 됨으로써 창설자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회를 창설한다는 일의 의미가 그러하듯 처음부터 이 분은 분명 범상치 않은 남다른 면이 있으리라고 짐작한대로 성 신부님은 무언가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몰두하는 분이라는 인상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성 신부님은 정말 단순하시고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긴 분입니다. 결코 어떠한 일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 같았고 그래서 복잡한 세상사에는 문외한인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천진난만한 유모어 감각을 지닌 분이었지요. 때문에 어느 때는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의 한 측면이 경건한 신앙심을 투과하면서 빚어내는 고지식하고 순수한 반사작용의 모습들이었다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제일 좋아 하시는 것은 구령(救靈)이었다.” 라고 성 신부님을 오래 모셨던 어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다니,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성 신부님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한 가지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셨던 거지요.

성 신부님은 소비녀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나, 소비녀들 하나 하나 다 안아주고 뽀뽀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유감이요.” 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께서 성 요셉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하신 권고 중에 “주께서 참다운 예지를 내려주신 영혼은 이승에서만 존속하는 사랑을 그 가치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뿐더러 그 가치조차도 알아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대방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애정인 것이니 그 외의 다른 사랑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덕의 길6장9)”라고 하셨듯이 그의 사랑은 오로지 영혼 구령(救靈)을 위한 차원의 것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성 신부님을 가까이 대하기가 쉽지 않았고 더욱이 허물없는 친분을 가져보기란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 신부님은 카리스마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20여년의 삶을 통해서 알려 주신 것들과 사제로서, 창설자로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료집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분의 삶과 말씀들이 한결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당신 자신의 말씀과 행적의 일치성이라든가 그 인물됨의 표현과 가르침들이 모두 소비녀들의 영성과 그에 따른 사도직의 특성으로 이어지는 한 가지의 주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창립된 지5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해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자료집이 나오게 된 것이 그 무엇보다 특기(特記)하여 경축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의 이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는 보고(寶庫)입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꺼낼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보고와 같이, 소비녀들의 삶의 끊임없는 쇄신과 정진을 위한 본회의 영구적인 자산이요 희망입니다. 우리의 창설자에 관해 그동안 많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모두 모두 어서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그를 만나고, 바로 알게 되며 그 정신과 사도직의 사명을 배우고 따르며 보다 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가소비녀회가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로 성령께서 주신 은총을 꽃피워 더한층 번영함으로써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느님의 영광을 길이 현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기쁨을 전 회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총원장 김 정 자 레오 수녀

축 사

주님, 내 마음 다하여 님을 찬양하오리니
몸소 하신 장한 일을 다 전하오리다
주님 두고 기뻐하며 춤 추오리다.

서울 성가소비녀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축사를 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쓴다는 것은 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도 됩니다. 물론 이 영광과 이 책임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시작한 일이니, 완성에도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책임을 나누게 된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 재덕 신부님께서 성가소비녀회 창립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되풀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유서에 “아버지, 성 신부”라고 서명 하셨으니 창설자의 마음을,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50주년 축제를 기다릴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빛나는 자리에서 참석하고 강복하면서 빛 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신 것은 아닐까요?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기름과 심지를 다 태우시고, 83년 전에 영세 받을 당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상의 새 기름으로 도유 받을 때가 된 것이었지요. 어쨌든 성 신부님께서 남기신 것은, 성가소비녀들을 비추어 주는 밝은 빛입니다. 신부님이 쓰신 글은 이제는 서랍의 어둠을 떠나 빛과 영적 양식이 됩니다. 더 이상 신부님의 것이 아니고 성가소비녀회의 가족이 받은 유산입니다.

창설자에게 빛과 힘이 된 것이 소비녀들에게도 빛과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 신부님께 대한 나의 추억들로부터 수녀님들에게 50주년 선물을 꺼내드리지요.

1-성 신부님께서 1982년도에 쓴 유언서(법적인 유언서.1972년도에 쓰신 유언서는 영적 유언서임)에 “선교사로서, 나는 부자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썼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일 테지요. 부와 복음이 뚜렷하게 대조적입니다. 신부님 묘석위에 새긴 말은 역시 가난으로 강생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신부님은 어린이들이 하느님 사랑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전례까지 마련하셨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를 따를만한 후 계자를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 어린이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그 관심,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 등 성 신부님이 글로 써 놓은 것보다는 몸으로 사셨던 그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생활함으로써 기념이 되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비녀들이 앞으로 갈 길에 빛이 되기를 빕니다.

주님,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에게 “축하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성 신부도 좋아하겠지요. 당신께서 시작한 일이시니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50주년을 맞이하여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소비녀들 위에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내리소서.

서봉세 신부

일러두기

1) 이 책은 창설자 성 재덕(PIERRE SINGER 1910.9.13-1992.2.26) 신부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집하여 수록한 것이다.

2) 이 책은 성가소비녀회의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성가 소비녀회 역사자료실’에서 편찬했다.

3)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원문의 외국어나 지명, 인명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다 그 해당 표기를 적어두었다. 또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4) 이 책은 제5부로 나뉘어 서술했다.

제1부 성 신부가 직접 쓴 기본 자료를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방문일지, 기고문, 성가 번역 등으로 나누어 집 필순에 따라 수록하였다.

제2부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강론을 수록하였다.

제3부 성 신부에 관한 회고담을 수록하였다. 이 회고담은 서한문, 인터뷰기록, 기고문 등 여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 수녀, 사제, 평신도 순으로 수록하였다.

제4부 성 신부에 관한 영성강해 및 기고문과 기사 등을 수록하였다.

제5부 화보: 서울 성가소비녀회 역사 자료실에 소장된 성 재덕 신부에 관한 사진자료 1,400여장 가운데 그의 행적으로 중심으로 169장을 뽑아서 편집했다.

제2부 성마리아와 성요셉에 관한 말씀

| | |
|------------------------------|-----|
| 1. 성모마리아 | 159 |
| 1) 원죄없이신 잉태(1976,1979) | 159 |
| 2) 성모영보(1979,1981) | 162 |
| 3) 정결례(1973) | 167 |
| 4)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다(1977) | |
| 5) 성모승천(1968) | 172 |
| 6) 성모승천(1974) | 176 |
| 7) 성모승천(1976) | 179 |
| 8) 성모승천(1975,1981) | 183 |
| 9) 모든 성인의 어머니 마리아(1981) | |
| 2. 성요셉 | 196 |
| 1) 성요셉(1953,1971,1974,1981) | 196 |
| 2) 성요셉(1965,1967,1977) | 199 |
| 3) 성요셉(1976) | 201 |
| 4) 성요셉(1966,1975) | 203 |
| 5) 요셉 성인을 공경하는 이유(1972,1978) | 207 |
| 6) 성요셉의 친구 | 210 |
| 7) 성요셉과 노동 | 212 |

제3부 회고담

| | |
|---------------------------|-----|
| 가족 | |
| 엘리사벳 생제(Elissbeth SINGER) | 219 |
| 2. 수녀 | 223 |
| 명 마지아 수녀 | 223 |
| 김 돌로로사 수녀 | 228 |
| 이 레오날드 수녀 | 231 |
| 정 다니엘 수녀 | 237 |
| 김 베아트릭스 수녀 | 240 |
| 김 화밀리아 수녀 | 250 |
| 3. 사제 | 252 |
| 목제르몽 신부 | 252 |
| 구인덕 신부 | 257 |

| | |
|--------|-----|
| 장금구 신부 | 262 |
| 유영도 산부 | 267 |
| 윤종학 신부 | 269 |
| 최승용 신부 | 272 |

| | |
|-------------|-----|
| 4. 평신도 | 276 |
| 김천식 | 276 |
| 석용산 스님 | 278 |
| 김홍신 | 279 |
| 한현석 | 281 |
| 김석배 | 283 |
| 박귀우 김만석 나종관 | 285 |
| 김막달레나 | 287 |
| 윤승길 | 288 |
| 이일범 | 290 |
| 김창룡 | 291 |
| 김사겸 | 292 |

제4부 성 재덕 신부의 영성

| | | |
|---------------------------------------|---------|-----|
|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 김레오 수녀 | 297 |
| 창설자 성 베드로 신부 | | 297 |
| 성가소비녀회의 영성 | | 301 |
| 유언서강해 | | 310 |
|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 김미리암 수녀 | 321 |
| 성가소비녀회의 창설과정과 성 재덕 신부 | | 321 |
| 성 재덕 신부와 혜화동 본당에서의 사목활동 | | 328 |
| 성 재덕 신부와 논산 본당 | | 334 |
| 홍산 본당과 성 베드로 신부 | | 340 |
|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 | 346 |
| 제4대 성 베드로 신부 시대 | | 346 |
| 4. 심문기사 | | 362 |
| 시청각 교재 작성 (가톨릭 신문 1970.8.30) | | 362 |
| 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 재덕 신부 선증 (가톨릭 신문 1992.3) | | 362 |
| 가난함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라 (평화신문 1992.3.18) | | 363 |

| | |
|------|-----|
| 찾아보기 | 366 |
|------|-----|

제5부 화보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11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1) 가뻘하라 소비녀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라
네 정신과 육신이 못생겨도 기뻐하라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하라
네 뜻이 정해지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말쑤로 두어도 기뻐하라
너를 한 번도 참여시키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하라
너를 모든 사람 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아도 기뻐하라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하라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일이 뿐이고
순명으로 하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2) 예수님의 도구¹⁾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일가친척은 아니었지만 둘 다 똑같은 김 서방이었습니다. 두 집마다 그러저러 실아 나가는 형편이었는데 하루는 갑이라는 김 서방이 해수욕을 하려고 대천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을이라고 하는 김 서방이 같은 날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튿날 이미 죽은 을이란 김 서방의 울고 있는 과부가 전보를 받은 것입니다. 전보인즉슨 “무사히 도착했소. 여기 꼭 답다우. 당신도 빨리 오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을 김 서방의 과부는 매우 놀라면서 죽은 남편이 지옥이나 연옥에서 보낸 전보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보는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고 갑이란 김 서방의 부인에게 온 전보였습니다. 우편배달부가 잘못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소생의 은경 일에 이같이 소생을 위하여 꾸며 주시고 마련하여 주신 모든 것은 사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홀로 영원하신 사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재덕이라는 사람은 원래 흠 뿐이며 죄 많은 사람이며 세칭 멧구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 생긴 성 재덕이가 신품성사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 겨우 신부라는 명칭으로 25년간 예수님의 도구 노릇을 하였을 뿐입니다. 25년 동안 만일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덕택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나쁜 일을 하였다면, 사실 많이 있었습디만, 그것은 성 재덕이라는 인간이 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저의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생의 은경 일에 여러 가지 축하의 말씀과 많은 예물을 받고 보니 신부로서 매우 감동하여 감사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15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우편배달부처럼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주소, 성명을 잘 보아서 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게로 와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오로지 천주님께 바쳐야 되는 예물입니다. 천주님께만 감사하며 영광을 바칩시다. 다만,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잠깐 제가 보관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라리보 주교님께 감사합니다. 팔순이 가까우신 주교님께서 오늘 저 때문에 일부러 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여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만나 뵈 수 있음으로써 제가 확실히 교황과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일치되었다는 표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과 일치하려면 먼저 본당 신부와 주교님과 교황님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품성사 안에서 같은 형제를 맺은 성직자께서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 또한 참으로 감사하며 기쁩니다. 매우 바쁘신 여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로마 백남익 신부님께, 그리고 또 내빈 되시는 여러 어른들, 교우 되시는 분, 수도자 되시는 분들께

1) 원래 제목없는 강론이나 편집자 편의에 의해 편집과정에서 제목을 붙였다.

감사합니다. 특히 또 내가 언제나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는 멀리 서울 혜화동 본당에서 오신 장금구 신부님과 여러 회장님과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당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 회장님 특히 기성 회장님, 복사님, 수녀님, 대건 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감사를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 압부스음을 용서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제로서 아직 미완성인 채로 감히 은경 일을 맞이하고 또 이런 누추하고 무더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피시게 되니 참으로 죄송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 못난 신부가 앞으로 남은여생을 실 수 없이 교회 사업에 봉사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답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60년 6월 29일 성 신부

16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3) 영적 유언1)

성가소비녀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전조로써 내가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꼭 해 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몇 마디 남기어 둡니다. 주님이 무슨 병을 부실지 또 무슨 고통을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결정하신대로 모든 경우를 받아들이렵니다. 다만 그의 성총의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이제껏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무수한 은혜에 대하여, 부모님의 은혜와 나를 불러 당신의 도구로 써주신 그 성소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1935년 7월 7일 신품성사 받던 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한국에 보내시고 오늘날까지 마음변치 않고 끝까지 이 임무를 계속하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인 내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를 보여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범한 무수한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교황성하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바칩니다. 나는 나의 동료 사제이자 만형이신 교황 성하를 존경하고 그 명에 따르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내 영적 딸들인 성가회 소비녀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들, 나로 인한 죄의 유혹과 그 마음의 갈등들에 대하여 모두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니 비록 부족함이 많았던 나이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구하여 주시길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나는 참 행복합니다. (책의 내용)

(유언서 보완) - 원문 전체

성가회소비녀들에게 일동!

1) 1972년도에 작성하여 파리의방 전교회에서 보관 하였던 것을 장례미사(1992.2.28) 때 총원장 김 에오 수녀가 발표했다.

어려가지 전조로써 내가 오랫동안 살지 못 할 것과 같고 마지막 큰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몇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슨 병, 무슨 고통을 주신가 물론 내가 모르나 결정하신 대로 내가 미리 모든 경우를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의 성총의 도움을 겸손히 청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무수한 은혜에 대하여- 부모님과 나의 성소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935년 7월 7일 신품성사 받는 날 천주께서 이웃 사람을 통하여 그날 또 한국에 보내시고 마음변지 않고 끝까지 계속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이보다 사랑의 더 큰 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무수한 죄에 대하여 용서 해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희망 다만 주님의 인자하긴 마음이 뿐입니다. 나의 신덕은 다만 교황 믿는 것 뿐입니다.

성가회 소비녀들 여러분...나의 영적 딸들아!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잘 못을- 나의 최악의 유혹을 다 용서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완전하시니 사람뿐인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구해주시기를 애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행복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내하여 참아 주셨고 수십 가지 방법으로 잘 지내도록 뭇 마련하셨고 효성까지 바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나시오 수녀와 베아드릭스 수녀 또 잊지 않겠습니다.

성가회 창립 문재대하여 25주년 인쇄한 조그만 책에 할 말이 기록하였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을 다시 읽어보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열심중에 살으시오. 마음속부터 열심히 앓으시면 수도생활 절대 헛될 일이며, 또 위선한 일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친하게 지낸 일이니 날마다 묵상시간에 천주님과 대화 합시다. 그때에 수십 번 주님께 사랑하시는 말씀을 올려드리시고 그의 본뜻을 더 잘 알게 연구하십시오.

수도원에 온 목적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다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러 왔습니다. 물론 수도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가시가 있지만 신성의 유일한 길을 그 것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야만 양심평화, 직분의 완성된 만족, 자유의 취미를 잘 알겠습니다. 일할 때보다 묵상하다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2. 서로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들 착한 수도자 되게 노력하신 것 내가 직접 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주 기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은 가족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너희 본 가족은 지금 성가수녀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면 천당 같고 서로 미워하시면 지옥 같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난사를 당합니다. 더구나 요세 시기가 여러분 것과 같으니 다 같이 서로 손을 맞아 잡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언니, 자매 수녀들 사랑하며 서로 도와 드립니다. “합

심”은 너희 문장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힘이며 우리행복입니다. 받는 자보다 바치는 자에게 기쁨이 더 큼니다.

3. 가난함과 가난한자 미소환자들을 사랑하시오. 그것이 소비녀 본 생황이며 또 특히 우리 사랑하온 예수의 본 모범과 원의입니다. 이러한 청신을 특히 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비한 몸인 데 그러나 가난한자들을 물리치면 예수의 신비한 몸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성교도 아니라 왜냐하면 성교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우리의 재산 이입니다. 돈을 너무 쳐다보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이 주립니다. 돈만 욕심 많은 자 중에서 일부러 자유로이 가난함을 선택하신 수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만큼 주님의 강복을 더 받고 더 많은 결과를 거둘 것이며 일반 사회의 사람과 인심을 얻을 것입니다.

소비녀들아! 해보시오! 주님의 안배를 꼭 믿어주시오.

주님의 강생을 계속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까지 내려야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교만한 자와 악한 부자들을 싫어하셨습니다.

4.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범적 잘 공경하시오. 저들에게 순명하시오. 특히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주 거룩한 성직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극기, 희생 많이 바치시오. 신자들의 열심은 대개 항상 성직자들의 열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천주님 앞에 다시 만나 보자. 안녕

아버지 성 신부 1972.12.25日

성가회 시작한지 29주년 후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19

4) 법적 유언서

내가 소지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받은 작은 농토. 이 땅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 유언장은 빠 드갈래 헤당에 거주하는 공증인 르애르(Maitre Marc LEMAIRE) 씨가 보관하고 있다.

이 서류들에는 관여하지 말 것.

2. 나의 사제관 및 대표부에 소지하고 있는 사유품을 위해, 서울의 성가 소비녀회(La Sainte Famille) 원장 수녀님을 수유자(受遺者)로 정하며, 에밀 프로망투(Emile Fromentoux) 신부를 유언 집행자로 정한다.(사장에 의하여 그가 불가능할 때에는 파리의외방 전교회 지부장이 그를 대신한다.)

나는 예의 집행자에게 재산 분배, 매각에 따르는 일체의 권하며, 만일 약간의 여분이 있다

면, 집행지는 그것으로 나의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나를 위해 미사 몇 대를 부탁하는 미사 예물로 사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회이 창설기금으로 사용한다.

나는 포교사업 안에서 무척 행복한 삶을 살았으며, 또 그 안에서 숨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 천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가 소비녀회 원장 수녀님이 허락한다면, 나는, 베아트리스(Beatrice) 수녀가 원하는 놀라운 헌신에 대한 나의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빕니다. 또한 나를 기꺼이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나의 형제, 자매, 조카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20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부디 여러분들이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합니다. 곧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하직하여야겠습니다.

1982년 2월 12일
성 재덕 신부

5) 수련소 강의1)

1983년 3월 28일

종교는 그 설립자를 보고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도 마호멧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은 부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답게 죽으셨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와 같이 죽을 수 없다.

예수 수난(감동사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우도(착한 강도)는 사도들과 같이 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없고 기적도 못 보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달았다. 그는 예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였고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21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가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1) 수련소 소장.1983년도 당시 수련자가 신부님 강의를 요약한 것.

예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예수의 나누어 갖는 것, 제비 뽑는 것, 초와 쓸개, 창에 찢리시는 것 등 구약의 예언과 복음 성경이 다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유로이 죽음을 택하셨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에서 조차 주인이시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죽음’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드릴 것인가.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상의 죽음을 택하셨다. 당시로마 풍습대로 노예처럼 돌아가셨다.

그러나 잘 생각하라. 이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위에 계신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원수들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시었고 또 체포되지도 않으시고 자진하여 원수들 앞으로 가셨다. 예수 수난기를 보면 이렇게 하느님이신 당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 순명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22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청빈 정결 순명의 3대 서원을 하셨다.

세 번이나 배반하는 베드로를 보시고도 아무 말 않으셨다.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도 감동하여 돌아갔다.

얼마나 착한 예수님인가?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으니 실로 지극하신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사랑을 죽음으로 갚았다.

예수 수난 중 기이한 것은 그 극심한 고통 속의 ‘침묵’이다. 거짓고소, 갖은 욕설, 침 뱉음, 거짓증언 등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너그러우신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셨다. 이것은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예수 수난 때 일어난 기적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오후 3시에 캄캄해졌다.

- 성전회장이 위에서부터 두 쪽으로 찢어졌다.
-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아직도 있다.)
- 무덤에서 옛 성인들이 부활했다.

오후 3시에 캄캄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은 우주가 조상(弔喪)중에 있다”고 했고 또한 이 기적은 사도들만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며 신앙을 고백했다.
-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우연서 23

—파스칼은“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의 죽음이다”라고 했다.

부활

기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 부활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때 신문이 있었다면 보도되었을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 하나가 분명히 사형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또 그들과 얘기했다. 이것이 신덕 도리이다.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믿기에 넉넉하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들도 있다.

부활의 첫째 조건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다. 오후3시에 돌아가셨으니 무려 15시간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다. 피땀을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보자.

둘째 증명은 아리마태아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에게 내주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원수, 친구— 유대인, 로마사람들은 모두 공적으로 예수가 죽었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11번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성경은 작은 책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이 담긴 역사책이다.—성경에 기록은 못했지만 분명히 성모님께도 나타나셨을 것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은 매우 많다. 72명이나 되는 부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사도들에게도 적어도 다섯 번은 나타나셨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24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셋째 증명은 빈 무덤이다. 유대아 유지들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 사도들은 시체를 훔쳐 갈만한 용기도 없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무서워하기만 했다. 로마 규칙에 시체를 훔쳐 가면 큰 벌을 받게 되

므로 만약 사도들이 시체를 훔쳐 다면 그들은 멀리 도망하였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올리브 산과 아침 호숫가에 나타나셨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곳에 나타나셨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

베드로는 군중을 향한 설교에서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도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였기에 모두 치명하였다. 관리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두려움 없이 이를 증거하고 전하였다 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예수의 원수들은 군인들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 지내오면서 오묘한 결과가 많이 생겼다. 수많은 치명자. 동정녀, 독신자, 박사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들처럼 교회를 빛냈다. 부활은 큰 사건이다. 이를 못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할 따름이다.

예수는 하느님이시다.

예수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거짓말로써 어떻게 행복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조배드릴 수 있겠는가? 만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성교회 역사 또한 잘못된 것이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우연서 25

그러나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참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예수께서 하느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불행하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제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굳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존재는 물론 모든 것을 의심한다. 의심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함정이다.

예수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꼭 믿어야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성호경

성호를 잘 하면 외인들이 놀랄 것이요 잘못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살 것이다.

성호는 하느님께 드리는 인사의 몸짓이다.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예우가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께, 군인이 자기보다 상급자에게, 그리고 웃어른들께 드리는 절, 이 모든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몸짓이 있다. 그리고 각 나라, 각 지방마다에도 그곳 문화가 낳은 고유한 인사법이 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짓’이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자연법이기

도 하다. 불교에서는 합장하고 절을 올린다. 우리는 하느님과 악수를 할 수도, 경례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인사의 방법이 바로 성호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임이 드러나기도 한다. 초창기 성교회 시대에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성호를 잘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임을 믿고 따르며 우리 자신이 그분의 아들, 딸임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성호는 국기와 같은 것이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어 그 나라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이념들을 담아 표현하는 것처럼,

26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그리고 또 이를 소중히 여기듯이 성호경 역시 그러하다. 성호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딸됨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존경의 몸짓이기도 하다.

성호경의 오묘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성교회 도리에는 3가지 큰 것이 있는데 천주성삼, 천주강생, 구속사업,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친다. 성녀 세실리아는 치명 당할 때 성삼을 믿는다는 표시로 손가락 세 개를 펴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성녀의 손가락은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로지 조물주이신 하느님만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성녀의 고결한 신앙을 나타내신 것이다.

성호경은 정성스럽게 잘 해야 한다. 너무 크게도 작게도 하지 말아야 하며 쓸데없이 여러 번 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경망되이 하여 마치 과리를 쫓듯이 해서는 더욱 아니 될 것이다. 이마에서 배꼽까지 그리고 양 어깨로 정확히 십자 모양을 이루도록 하여 성호를 그어야 한다. 성호경은 십자 모양의 입장이다

1983년 5월 4일

성서

성서는 성신의 감도를 받아 기록된 책이다. 세상 어디에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미국의 호텔에는 방마다 성서를 비치해 두고 있을 정도이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느님의 말씀이 천주성삼의 제3위이신 성신의 감도를 받아 양피지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4-500년 동안 기록만 되어지다가 후대에 와서야 정리되고 있는 책이 바로 성서이다. 신약 27권 구약 46권해서 모두 73권으로 되어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그중 7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서는 아주 이상한 책이다. 모세는 토라를 기록했지만 창세기를 보지는 못했고 얘기만 들었다. 유대인들은 토라만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27

성경의 저자는 여러 명이다. 또한 어느 한정된 기간 내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15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기록되어진 것이다. 즉 구약의 모세시대 때에 시작하여 신약의 마지막 사도 때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동안 기록된 책이다. 이러한 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더할

수 없이 완전하시며 지혜롭고 참 생명의 샘이심을 알 수 있으며 그분 하신 일 또한 그리함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은 계단과 같다. 돌-동물-사람-천사 -하느님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순서가 바뀌면 이 계단은 불안정하여지고 더불어 불행한 세상이 된다. 성서는 이 계단과 같은 세상에서의 사람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준다. 성서 공부는 참 재미있다. 날마다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

신앙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방을 준비하듯이 하느님을 내안에 모시고 살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성서의 제일 첫머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감돌았다는 성총의 얘기가 나온다. 마지막 얘기 또한 성신이 모든 이에게 내리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세 때에 우리는 성총을 받는다. 이는 소학교 과정이다. 신자는 항상 성총을 지니고 살아야한다. 이는 중학교 과정이다.

성총이 있고 없음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느님께서 왜 강생하셨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성총을 도로 주시려고 하심이다.

성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총을 주려고 이룩되었고 또 존재한다. 성인들의 삶을 보면 저 잘 알 수 있다. 성 이냐시오는 하루에 2번 성사를 보았으며 성 필립보는 한 주일에 2번 성사를 보았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육신에게 필요한 수만 가지 좋은 물건을 다 만들어주셨다. 쌀, 과일 등... 그러나 하느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만드신 우리의 영혼은 육신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육신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영혼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총이다.

28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성총은 볼 수 없고 만지지 못하나 참으로 존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총을 주실 의무가 없으며 우리 또한 이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어 이것을 거저 주신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또 선하신 아버지이시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나 미흡하고 약하며 더럽고 미련한 존재임을 깨달아야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오로지 2가지만을 원하신다. 이 모든 영육의 은혜를 하느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잘 사용할 아는 것이다. 이를 깨달으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성총을 잘 알아듣기 위하여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로 상존성총과 조력성총이 있다. 이 두 가지 성총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상존성총은 하나이며 조력성총은 수만 개이다.

조력성총은 영혼 밖의 은혜로 지나가는 은혜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비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보내주신다.

성 이냐시오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로 상존성총과 조력성총을 설명하였다. 조력성총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조력성총을 잘 사용하면 상존성총을 더욱 잘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상존성총은 하나 뿐인 큰 은혜이다. 조력성총과는 완전히 다르다. 천당 가는 입장권과 마

찬가지이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의인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즉 신덕으로 예수님과 결합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또한 신앙이 깊을수록 이 성총은 커진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 안에 상존성총이 있으면 큰 부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 큰 죄를 범하지 말고 고해 성사를 자주 보도록 하라.

1. 강론, 가의, 훈화, 및 유언서 29

죄

우리가 범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함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열 가지 지켜야 할 계명을 부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라.”

죄란 외면적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을 위반하는 불순명, 무질서, 무례함 등을 뜻한다. 내면적으로 볼 때 죄를 범함은 영혼이 더러워짐을 뜻한다. 석탄을 만지면 그 손이 검게 더러워지듯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꼴이 된다. 실제적 죄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범하는 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 드리게 된다. 물질적 죄는 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자유의사에 반해서 범하게 되는 것으로서 책임이 없다.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만물, 즉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닌 조물을 주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는 부모 친척을 버리고 먼 외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한다. 성녀 대 테레사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많은 가도를 드렸다.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은 약해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 깨끗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상이 더럽혀지고 그 모양이 일그러져 보기에 추해진다. 죄인은 마치 나병환자와도 같아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 흉한 모습을 띠게 되며 고름이 많이 나와 나쁜 냄새를 풍기므로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된다. 바로 죄로 인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30.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요한 비안네 신부는 코로 그 냄새를 맡아보고서 죄인을 알아보았다. 죄인은 마음의 자유가 없어지고 카인, 아담, 에와, 유다가 그러하였듯이 양심이 굳어진다. 죄를 한번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천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낫다. 어떤 죄라도 무한히 깨끗하고 지순하신 하나님께는 엄청난게 큰 욕이 될 것이며 예수님께는 그 손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 될 것이다. 그러할진대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범하는 그 많은 죄를 다 헤아려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 아니겠는가?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으니 적어도 10가지가 있는 셈이다.

(마르 7,21-22)

대죄란 중요한 계명을 위반하는 것, 알고도 범하는 것, 온전히 자유의사로 하는 불 순명,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 순명, 맹세 위반, 반역, 비평 등이다.

죄는 연대성을 지녔다. 죄인은 범죄를 반복한다. 핑계에 의해서...

성 요한 금구는 “당신 침대에 뱀 한 마리가 있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소?”하며 죄를 뱀으로 표현했다.

소죄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 마구 범해도 상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의 교만으로 7만 명의 백성을 죽게 하였다. 성 알로이시오는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통회하라고 했다. 소죄로 인해 생기는 나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존성충이 줄어든다. 즉 하나님께서 덜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조력성충 또한 덜 주신다.
2. 착한 자녀로서의 기쁨이 없어진다. 눈 속의 티끌 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 것이다.
3. 하나님을 덜 무서워하게 된다. 카인도 처음에는 동생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탓에 동생을 죽인 것이다.

소죄, 대죄를 구별하지 말라. 모두 다 사람에게 해롭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31

1983년 6월 8일

지옥 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부하다. 그러나 성서에 자꾸만 언급되는 것은 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도 14번이나 언급하셨다.

“손이나 발이나 높이 죄를 범하면 내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천당, 지옥, 상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천당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천당이 혹은 지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옥은 뜨거운 불이다. 작은 그림의 불이 아니다. 지옥불은 세상의 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 용광로에 비할 수도 없다. 또한 캄캄한 불이다. 지옥 불빛은 보기만 하여도 소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불이다. 우리가 죄를 범한 만큼 받아야 할 벌이니 얼마나 두려운가!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당하여야 하는 가장 큰 벌이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하다. 그러나 지옥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옥은 오로지 암흑과 절망과 미움뿐이다.

단테의 신곡에 이런 이야기다 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으므로 그를 찾기 위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가보았다. 그러나 지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려면 바깥의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에 희망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 있다. 희망이 없는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옥의 고통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고통만 보인다.

32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2. 음악을 들을 수 없다. 다만 불꽃 튀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3. 코로는 불 냄새와 사람의 살갓이 타는 냄새만 맡을 수 있다.

4. 입으로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고통뿐이다.

5. 손에는 감각이 없다.

이러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라면 하고 얼마나 애통해 할 것인가! 하느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벌써 지옥에 갔을 것이다. 성 요한 금구는 벽에 지옥 그림을 붙여 놓고 유감이 있을 때마다 쳐다보며 죄의 유혹을 없이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져 불 속이 던져지리라.”

1983년 6월 15일

성경과 창조

창세기1,2-4. 2,4-3장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확실하다. 하느님은 현존하신다. 삼위일체로서 살아계신다. 삼위일체 반대자의 부류는 다음5가지로 구분된다.

1. 무관심자들.

2. 실없는 자들, 그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증명할 수 없으니 그만두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3. 무신론자, 유물론자로서 물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 물질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 계심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 도리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급할 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33

“하느님 맏소사.”라고 하며 저 나름대로 하느님을 찾게 된다. 또한 철학, 과학의 모든 지식과 학문 등 수도자, 성직자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증명 되어 진다.

고대 도시인 아테네와 이집트 등지에서도 옛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어떤 절대적인 힘을 지닌 신을 섬겼다. 그들이 우리에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전해준 것이다.

하느님을 왜 믿는가? 두려워서인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본능이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은 양심으로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등은 성경 없이도 하느님 계심을 알았다. 또 해, 달, 별, 사람, 나무 등이 움직이는 근본은 무엇인가? 기계에서 발동기가 움직이면 기계 전체가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움직여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은 근본이 있다. 닭의 근본은 알이듯이 우리의 근본은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에는 규칙과 법이 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되고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진다. 이 모든 것의 입법자는 하느님이시다.

6) **훈화**1)

예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고통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 보면서 그 고통을 참아냅시다.

진리를 연구하시오. 예수께서도 “진리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하셨습니다.

34 제1부 성체덕 신부가 남긴 말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사랑」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절정이십니다.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3. 3. 29 화요일)

세상의 여러 나라 역사를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수도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수를 버리겠습니까?(성 수요일)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봅시다. (성 목요일)

주님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다른 때와 똑같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부활절)

천사가 말하시기를 “가서 전하시오. 소식을 전하시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교회와 함께 이를 전해야 하며 성교회와 일치하고, 성교회 안에서, 성교회를 위하여 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 기도합시다.2) ('83. 4. 4)

막달레나는 “나는 주님을 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미사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뵈었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레나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큰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만나 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83. 4. 5)

1.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35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그들이 서로 무근 이야기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임에 대해서 얘기한다

1) 미사 강론이나 영성체 후 묵상중에 또는 고백소와 평상시 말씀들.

2) 성 신부는 매일 지향을 정해놓고 영성체 후 묵상 끝에 기도하였다.

고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에 대해 이야기 합시다. 하느님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부모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84. 4. 7)

예수께서 일러 주시는 대로 사도들이 그물을 쳤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직접 보았으므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 하느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시라는 을 믿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항상 풍성하고 온전히 주십니다. 오만 명에게 빵을 나누어 주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풍족하여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 죄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83. 4. 8)

36 제 1부 성 재덕 심부 남긴 말

“ 너희는 언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하자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며 우이로 하여금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인사하십시오.(’83. 4. 12)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는 예수께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원을 위해서, 장상과 사업과 예비수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83. 4. 14)

늘 복음 에 예수께서 호수 의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보고 사도들은 놀랐습니다. 성교회는 생활하는 예수입니다. 성교회를 보면 이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교회가 세속 한가운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맘 속에 계시는 동안 성모님께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성모 마리아께 인사드립니다. (’83. 4 .17)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37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나 자신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83. 3. 18)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혼의 양식, 행복과 충만함으로 가득 찬 생명의 빵이심을 믿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십니다.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83. 4 .19)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리의 기반과 총체를 부여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지없이 기쁜 일입니다.

부모, 친척, 형제, 성가회 수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83. 4 .20)

필립보와 에디오피아 내시

외교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필립보가 다가가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도 여러 번 이와 같은 일을 하길 것입니다. 외교인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깨우쳐 주도록 하십니다. 수녀들도 선생님입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있으니 충분히 선생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립보와 같이 외교인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38 제1부 성 재덕 신부 남긴 말

성가수녀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83.4. 21)

바로 사도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 후에 주의 제자들을 이협하며 박해하던 사울 즉 바오로 사도에게 하느님께서 발현하신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였습니다. 그를 사도적인 소명으로 불러 내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에서도 그러하지만 미사 때마다 성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님 자체인 것을 의미합니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하고 하신 말씀은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시다.

각 수도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83. 4 . 22)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전 문 곁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앓은뱅이를 걷게 하여 주셨고 다비타라는 과부도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를 증거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리고 슬픔을 당하지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83. 4 .23)

예수께서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착한 양’입니까? 과연 내가 나의 목자이신 하느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느님의 양이 아니하면 하느님께 그 무엇을 원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83. 4. 23)

1. 강론, 강의, 훈화, 및 우연서 39

성 마르코 축일입니다. 봉사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83. 4. 25)

우리는 예수님의 양 무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 마음을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튼튼하게 길러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83. 4. 26)

야고버 수녀에게 강복하여 주십시오. 자애로우신 하느님.(’83. 4. 27 야고버 수녀님 장례미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순명하여 아버지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골고타 언덕 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그 명하시는 바를 따르게 하여 주소서.(’83. 4. 28)

예수님은 항상 천주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또 그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이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3. 4. 30)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보면 성부이신 하느님을 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를 복 그 말씀을 들은 것은 곧 하느님을 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성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모께서는 예수님을 모시는 동안 고통도 컸지만 기쁨 또한 컸습니다. 하느님을 옆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은총을 입으셨으므로 말입니다. (’83. 4. 30)

40 제1부 성 계덕 신부 남긴 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폴레옹 이승만 등을 드렁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하냐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학교의 교과서나 그 밖의 책에서도 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살인 죄인이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타고 방방곡곡 전해지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활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홀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교우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에수를 말하는데(달력과 철타포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우가 에수님을 모르고서야 어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신자도 많은 반면 원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당이 바로 에수님이 살아계심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84. 5. 1)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계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나는 본 사람은 성부이신 하느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83. 5. 3)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에수님과 결합하면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41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여, 부모님의 영육 또한 당신과 함께 합하게 하소서.” ('83. 5. 4)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신 에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인 되게 하소서.('83.5. 5)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으며 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의 제일 큰 벌 역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미움의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에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으뜸가는 계명입니다.('83. 5. 6)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쫓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에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스러운 생활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저에게도 이런 정신을 심어 부십시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 마십시오. 오히려 고통은 다음에 올 기쁨을 크게 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기 까지 합니다. ('83. 5. 7)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83. 5.8)

티아디라 출신의 여인 리디아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하고 사도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교우들도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 됨을 증면합니다.

교황님을 이하여 기구합시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83. 5. 9)

바오로와 실라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로와 실라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죄수들이 이를 듣고 있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사슬이 다 풀리어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도와주심을 보여 부신 것입니다. 사람은 포로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83. 5. 10)

오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성신께 9일 기도를 바칩시다.

우리들의 부모와 자안 식구들이 모두 서령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83. 5.11)

천당에 가려고 성가수녀원을 택하여 왔으니 성가수녀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결점을 고치게 도와주소서. 청빈의 정신을 굳건히 심어 주십시오. 공동생활의 정신을 더 잘 지켜가게 도와주십시오.(’83. 5. 12)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43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것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83. 5. 13)

주께서 주시는 은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은총을 잘 쓰지 못 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무서운 벌을 부실 것이고 또 잘못 쓰면 주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시면서 더불어 여러 영혼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83. 5. 14)

오늘은 천상의 행복을 생각합시다. 주여, 거기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성모님도, 성인들도, 천사들도 다 보고 싶어요.(’83. 5. 15)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성신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당신 믿음을 굳게 하소서.(’83. 5. 17)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일하는데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각기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주여, 성가수녀회 모든 식구들이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해 주소서.(’83. 5. 19)

유치원 아이들에게 훌륭한 박사가 와서 높은 지식이 담긴 강의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 중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신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신께 9일 기도를 바칩시다. ('83. 5. 20)

44. 제1부 성 계덕 신부 남긴 말

그림을 그리려 하면 3가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종이, 연장, 사람의 손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당신 모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제각기 그림을 그리라 하십니다. 소비녀, 성자, 성신...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애덕행실들을 조금씩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씩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83. 5. 21)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담긴 서그을 주셨고, 성신을 각 사람에게 내려 주심으로써 성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83. 5. 22)

천당에 가려면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그 행위나 결과보다 그 삶의 마음을 먼저 보시므로 한층 더 높이 올라가서 계명을 지키십시오.('83. 5. 23)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난과 부활은 오직 한 가지 의의미, 즉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83. 5. 25)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원자님께 순명합시다. 순명의 기초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순명은 성가수녀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83. 5. 29)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주인을 잡아 죽이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주여!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83. 5. 30)

1.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서 45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서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이지 죽은 자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 역시 육신이 다시 부활함을 믿어야 합니다.

성가수녀원을 위하여 기구합시다.('83. 5. 2)

아프리카 사람 중 처음으로 난 성인이 가롤로 왕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부

르셔서 당신의 양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미도 따를 때 동쪽에서 남쪽에서, 온 세상 곳곳에서 성인이 많이 새길 것입니다. ('83. 6. 3)

오늘부터 산상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의 새 정신을 가르쳐 주시비니다. 가난한 이는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강복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됩니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구합니다. ('83. 6. 6)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도자는 특히 좋은 표양과 특별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83. 6. 7)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혼신을 다 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형제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랑하기에도 혼신을 다하였습니까? 형제 자매에게 나쁘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욕하거나 미워하지 말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성가수녀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수녀원의 식구들도 잘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46. 제1부 성 제덕 신부 남긴 말

하느님께 그것 또한 용서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83. 6. 9)

누가 예수의 큰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만이 성체성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성가수녀원과 많은 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성심 대축일('83. 6. 10)

하느님께서 직접 바라빠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이며 만약 내가 잘 못 한다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실로 나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83. 6. 11)

오늘 예수의 말씀대로 이웃을 단 한 번이라도 나쁘게 판단하지 맙시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죄는 바로 그들의 교만과 허영이었습니다. ('83. 6. 12)

예수님께 추수할 일꾼을 청하십시오.('83. 6. 13)

예수께서 부탁하신대로 착한 행위를 남모르게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일 뿐이다. ('83. 6. 15)

교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공산국가를 방문하시는데 평화 속에 다녀오시도록 기도합니다. ('83. 6. 16)

1. 강론, 강의, 훈화, 및 유언 47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예수 성심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83. 6. 17)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은 하느님만이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을 인간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을 하느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쁘다고 절대로 판단하여 말하지 맙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3. 6. 20)

주여! 당신께서 몸소 보여주신 좋은 표양을 따를 수는 없지만 내 죄에 대하여 보속하는 정신을 심어 주소서.('83. 6. 21)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에는 거짓말쟁이가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주십시오. 착한 부모를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83. 6. 23)

하느님께 기도할 때 “주여, 주여!”하며 부르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 할 일입니다.

성가수녀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83. 6. 23)

아브라함의 믿음, 백인대장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십니다. 외교인인 백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낮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 위해 기구합니다. ('83. 6. 25)

48 제1부 성 재덕 신부 남긴 말

우리 수도자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위해서 우리는 청빈, 정결, 순명의 삼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를 잘 지키지 못 한다면 참된 수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83. 6. 30)

세관원이었던 마태오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 오라.”고 부르시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태오처럼 우리 역시 다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주여!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83. 7. 1)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사악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저는 예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3. 7. 2)

거룩한 사제를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83. 7. 4)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귀국하기 위하여 압록강 어귀에서, 혹은 산중에서 때를 기다리며 숨어 계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수많은 양떼들을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서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수녀로서 험난하고 먼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83. 7.5)

하느님께서서는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같은 하찮은 것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승낙 없이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83. 7. 9)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이 교만한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1. 강론, 가의, 훈화, 및 유언서 49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3. 7. 11)

예수께서 홀로 성부를 아시고 성부 홀로 성자를 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83. 7. 13)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원장 수녀님을 위한 미사에서-

세상의 모든 동정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기 위해서는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용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를 귀하게 여기고 실행해야 합니다.(’83. 7. 16)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고기의 뱃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큰 기적들을 우리 부위에 많습니다. 나무와 꽃들을 보십시오. 겨우내 죽은 듯이 보이지만 봄이 되면 푸른 싹이 돋고 온갖 색의 꽃이 펴

이다. 이것이 바로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교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이십니다. ('83. 7. 18)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저버릴 생각이 없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십니다.('83. 7. 20)

오주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오주 예수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50 제1부 성 재덕 신부 남긴 말

유대철 베드로는 모진 박해를 이겨 내며 끝까지 예수를 증거한 증거자입니다. 이 어린 순교자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소비녀들은 순명의 덕을 닦아 형제자매들에게 그 덕을 베풀면 예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묵묵한 가운데 주님을 향해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다른 걱정은 떨쳐 버리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 일하며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몹시 더운 날, 신부님께 답지 않으시냐고 여쭙었을 때 하신 말씀)

이 그림은 성모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아드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서도 성모님께서 울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상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모칠고를 마음에 새기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결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자매가 수녀원에 오기까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원기 시절에, 성소에 대한 확고한 자신을 잃어 마음이 흔들일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해 줄 때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좇아 생활하긴 성가정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로서 바로 성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서를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성가정 안에서 하신 가난의 생활, 그 청빈의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착한 행실로 주님께 희생으로 봉헌 하십시오.

십자가에 친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고난, 죽음, 부활과 성신을 보내셨음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보십시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보속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성모님을 거둬들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첫 사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라” 하시자 모두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따라나섰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셨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주님께서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방인처럼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52 제1부 성 재덕 신부 남긴 말

십자가는 큰 책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복음 삼덕과 겸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40일 동안만이라도 십자가와 친구가 되어 오주 예수를 자주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지은 죄에 대한 보속과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노력과 착한 행실로써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고통을 체험해 봅시다. 그 산 위에 있던 세 개의 십자가 중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쁜 강도는 예수를 모욕하고 비웃었다.

착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보속하며 고통을 참아 받는다.

예수의 오상을 무심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오상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오상을 바라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 부활절은 예수님의 수난 공로로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즐거운 날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에게 고해성사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도록 아니 영원히 하느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도록 하십시오.

1.강론, 가의, 훈화 및 유언서 53

성신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신의 힘으로 성자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심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것처럼 애쓰시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항상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간청하여야 하며 그 지순하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7) 십자가의 길

제1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을 죄인으로 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온갖 명령을 마음속으로부터 옳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침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순명을 천주께 바치겠습니다.

제2처 예수 십자가를 지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용감하게 모든 고통을 참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모든 고통을 천주 성부의 손에서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고통을 참겠습니다.

54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제3처 예수 기진하여 제1차 넘어지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나의 약함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유감에 빠진 후에라도 즉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제4처 길에서 예수 성모를 만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성모님께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성모님의 눈길을 찾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짐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나를 도와준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겸손히 다른 이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6처 한 성녀 흰 수건으로 예수의 성면을 씻음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항상 체면을 무릅쓰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사랑으로써 사랑을 갚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내 마음 속에 예수의 얼굴을 새기어 두도록 힘쓰겠습니다.

제7처 예수 기력이 쇠진 하사 2차 넘어지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유감에 넘어지는 망신을 참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나의 죄와 죄인들의 죄를 모속으로 갚겠습니다.

제8처 예수 예루살렘의 부녀들을 위로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나의 죄를 아파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다른 이를 비추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고통 중이라도 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1. 강론, 가의, 훈화 및 유언서 55

제9처 예수 3차 넘어지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무거운 고통을 받기로 승낙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고통 중에서도 겸손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천주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제10처 악당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초담을 마시움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나의 것을 빼앗으면 승낙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정결허원을 지키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고통이 또 생기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11처 악당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온갖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어려워도 나의 직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내 속의 나쁜 습관들을 못 박겠습니다.

제12처 예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청빈허원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나에게 고통을 준 이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구하겠습니다.

제13처 예수의 성시를 십자가에서 내리움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하느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성모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56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제14처 예수의 성시를 장사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 -결-1)

그리스도 안에서 : 나의 진정한 죽음으로써 새 생명이 솟아나도록 힘쓰겠습니다.

2. 신부님 대 방문 일지 57

2. 신부님 대 방문 일지¹⁾

1) 1984년도 방문 일지²⁾

1984년 8월 22일

「신부님의 겸손」

신부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우리 수련자들은 모두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우리가 동그랗게 둘러 선 가운데 앉으신 신부님께서 200주년 화보를 보여주셨는데 한 자매가 말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교황님과 비슷하게 닮으셨어요.” “신부님께서 그것 참 영광이여!” 하셨다. 그러나 곧 눈을 커다랗게 뜨시고는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왜 교황님을 욕해요?”

교황님께 대한 신부님의 사랑. 그리고 신부님의 타고 난 겸손은 그 조그마한 비유조차도 허락하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결레와 소비녀」

한 번은 우리가 신부님께서 입으신 옷이 멋있다고 했더니 신부님은 “여자들은 결레 얘기만 잘 해.”하고 하셨다. 신부님의 짧은 응답 속에 숨어 있는 청비의 혼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웃었다. 신부님은 결레라는 말에 문득 생각이 나셨는지 빨아서 세워 놓은

58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청소 마대를 보시고 그것이 꼭 수녀같이 보인다고 하셨다. 결레처럼 친한 일에 기뻐하는 착한 소비녀로 살아 주길 원하시는 신부님의 마음이 얼비치었다. 그러나 신부님을 일만 하는 소비녀로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다.

어느 날 예쁜 꽃이 핀 화분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수녀들은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해.”

「어린이와 같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우리들이 신부님 댁에 들어서며 드리는 인사에 신부님은 늘 “안녕!” 혹은 “찬미예수!”로 응답

1) 원문에 이 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이라 표시했다.

2) 수련자들이 신부님 댁에 가서 들었던 말씀

하셨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를 귀찮아하시지도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힘차게 “안녕!”하고 답해 주셨다.

수련장남과 함께 인사를 가면 우리를 보고 “병아리 같아요.” 하시며 귀여워하셨습니다.

어떨 때 손수건으로 귀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튕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 아이처럼 웃으시며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그런 신부님의 모습은 천진스런 아기 같았다. 선하신 눈동자, 가끔 수줍어하시며 우리와 악수만 해도 얼굴이 금 새 붉어지고 마는 신부님. 한번은 그런 신부님께 “신부님, 애기 같으셔요.”하고 말했더니 우리들의 무례함에 언제나 너그러우신 신부님은 밝게 웃으셨다.

“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린 아기 같이 되어야 해요.”그러시고는 “나는 오늘 잠 많이 잤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라고 웃으시는 신부님은 정말 그대로 순수한 하느님의 아기셨다.

어느 날 우리는 신부님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잡지 표지에서 세 꼬마가 티 없이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부기만 해도 그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싱싱한 얼굴들이었다. 우리는 “야! 정말 예뻐요.” 하고 소리쳤다. 그때 신부님께서 “ 상존 성충이 있기 때문이에요.”고 말씀하셨습니다.

2. 신부님 댁 방문 일지 59

여름 날 해 질 무렵, 한 낮의 뜨겁던 열기도 가신 맑은 저녁이었다. 사제관 앞 잔디밭에 아주 오래 쉰 둥근 안락의자를 내어다 놓고, 신부님께서도 소매 달린 메리야스를 입으시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앉아 계셨다.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는 신부님의 옛날이야기가 한창 무르익는 중이었다. “영리한 소년과 공주의 배필을 구하려는 임금님의 멋진 수수께끼” 이야기였는데 가장 아슬아슬한 대목에 와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하시며 그만 일어서신다. 우리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다음 주 이시간위 만남을 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다.

「신부님의 유년 시절」

신부님은 고향과 부모님을 펍 사랑하셨습니다. 가끔 고향을 회상하시고 유년 시절의 추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 오셨을 때 무엇보다 큰 보속은 고향 성당의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아주 어린 적의 일이다. 비가 많이 와서 성당에 못 가는 날이 더러 있었다. 그런 날엔 아침 일찍 미사를 드리고 오신 부모님께서 많은 형제(9남매 정도)을 모아 놓고 당신들 가슴에 입 맞추도록 하셨다고 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가슴에 입 맞추면 바로 예수님께 친구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신 어머니의 독실하고 섬세하신 신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 드릴 때면 부모님께서도 막대 동생을 가운데 앉히고 아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 아기를 중심으로 기도드리자고 하셨단다. 것처럼 따뜻하고 신앙 깊은 가족에 대한 신부님의 애정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우리가 처음 입회해서 신부님 댁에 갔을 때 “여러분도 부모님 생각나는 것 내가 다 압니

다.”라고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려던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리고 명절 때 세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60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여러분 부모님께 대단히 미안해요! 내가 도둑놈이여.”

늘 손에 들고 계시는 목주를 보여 주시며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주신 것이라고 몹시 소중히 여기셨다.

겨울이었나 보다. 입고 계신 웨타 색깔이 좋다고 하였더니 신부님께서서는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불편한 몸으로 누워 계시면서 짜 보내 주신 거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모습이셨다.

「일 할 때나 놀 때나 노래 부르자」

신부님께서서는 노래를 좋아하셨다. 라틴 성가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한 번은 신부님께서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길 원하셨다. 신부님과 함께 “민사오나...”를 합창하고 나자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셨다.

“잊지 않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요즘도 부르시나요?”

“요즘은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 솔직한 대답에 신부님은 말없이 웃기만 하셨다. 노래에 각별한 사랑을 가지셨던 신부님은 당신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일할 때나 놀 때나 눈비가 쏟아질 때나 항상 즐기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노래 부르자.” 우리가 동그랗게 입을 모아 울동 까지 곁들여 이 노래를 불러 드리면 신부님은 무척 행복해 하셨다. 때때로 틀린 음정이나 박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시려고 애쓰셨다. 신부님이 “오해 버드로” 라는 노래도 가르쳐 주셨고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하셨다.

1절: 그전에 젊은 뱃사공 그전에 젊은 뱃사공

처음으로 배, 배, 배를 탔네 처음으로 배, 배, 배를 탔네

후렴: 오해 오해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 마라

오해 오해 베드로 두려워하지 마라

2절: 여름 하루의 아침에 여름 하루의 아침에

멀리 가서 태, 태, 태평양까지 멀리 가서 태, 태, 태평양까지

2. 신부님 대 방문 일지 61

3절: 며칠 후에 지나서 며칠 후에 지나서

음식이 다, 다 없어졌네 음식이 다, 다 없어졌네

4절: 사공 중에 누가 먹었나 사공 중에 누가 먹었나

제비를 뿔, 뿔, 뿔습니다. 제비를 뿔, 뿔, 뿔습니다.

5절은 정확치 않고 6절도 있는 것 같다.

5절: 마리아 우리 성모여 마리아 우리 성모여

사공들이 나, 나, 나 보겠다고 사공들이 나, 나, 나 보겠다고

6절: ?

반찬하고 잘, 잘, 잘 먹었다고 반찬하고 잘, 잘, 잘 먹었다고

「소비녀 사랑」

안나 수녀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며칠 되지 않은 날이었다. 성체강복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얼마 지나면 안나 수녀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도 신부가 와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분들은 고백성사도 영적지도도 나보다 더 잘 해 주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은 나를 따라 오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신부님께 병문안을 갔을 때였다. 첫 질문이 바로 “고백성사 누가 주나?” 이었다.

그때 입원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에 아직 성사를 못 보았으니 신부님께서 빨리 오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신부님은 그냥 웃으셨다. 병석에서도 소비녀들의 영혼사정에 마음을 쓰시는 신부님의 모습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한참 후 신부님은 창밖을 보시며 하얀 건물이 보이냐고 하셨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죽으면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 성당엘 갈 수 없어요, 성당에서 장례미사 드릴 수 없어요.” 하셨다.

어느 주일 저녁 식사 후 우연히 신부님 댁에 가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신부님을 뵈고 노래를 불러 드리자 신부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다.

62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잠시 후 신부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셔야했기에 그만 나오려고 하니 “나 상관없어요, 전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나 식사하는 것 애들도 다 보았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시고는 「야훼는 나의 목자」를 선창하셨다. 노래가 끝나자 “이것은 불란서 성가입니다.” 라고 좋아하셨다. 그날 신부님은 우리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에 기쁘게 웃으시며 식사하셨다. 식사하시다 말고 우리 노래에 따라 지휘도 하셨다. 수녀님께서 신부님 후식으로 딸기와 바나나를 접시에 담아오셨다. 신부님은 그것을 포크로 하나씩 찍어 우리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셨다. 도중에 수녀님께서 우리들 뒤편으로 딸기 한 접시를 보시고는 “벌써?” 하시며 눈을 동그랗게 뜨시곤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셔서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신부님은 우리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무엇보다 사랑하셨다. 신부님 댁에 가면 우리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려 하시는 신부님을 뵈 수 있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교황님 추기경! 내 동생이여.”라고 하시며 모두 웃었다. 껌을 나누어 주시고 난 뒤 쓰레기통을 돌리시며 “애궁하시오”하고 하셨다. 한 번은 새로 사진 듯이 보이는 여름 슬리퍼를 신으셨기에 손가락으로 만졌더니 “오! 내 감자 만지지 말아요.” 하신다. 나는 얼른 내 발 뒤꿈치를 들이대며 말씀드렸다.

“신부님. 저는 고구마예요.” 그러자 신부님은 큰 소리로 웃으셨다.

또 한 번은 신부님께서 “내가 누구니까? 나는 약입니다.”라고 하셨다. 건강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란다. 조배시간에 신부님께서 성당 문을 여시더니 지원자 쪽을 한참동안 바라보고 계셨다. 손짓으로 오라고 하시며 갔더니 “나 아스피랑하고 약속했어요. 빨리 오라고 해요.” 하셨다. 고백성사 약속이었다.

「나 정결 지키고 싶어요」

그 때는 베아뜨릭스 수녀님이 9일 피정 중이라서 본원에 와 계실 때였다.

2. 신부님 댁 방문 일지 63

“신부님, 수녀님이 안 계셔서 허전하지요?” 하고 여쭙자 신부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나 정결 지키고 싶어요.”

때때로 신부님 댁에서 텔레비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TV에서 사람들이 옷을 벗은 차림의 모습이 나오면 신부님께선 즉시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종종 이런 말씀도 하셨다. “여자는 죄의 시작이요, 에와로부터.”

「기도와 신심」

어느 주일 오후 우리는 한 가지 실수를 했다. 신부님 댁에 인사 가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데 그날은 그만 유혹에 빠져 TV앞에서 2시간을 소비하고 말았다. 신부님께서는 가라고 하시지는 못하고 우리의 표정을 살피시다가 목주를 꼭 쥐신 채 밖으로 나가셨다. 신공시간이셨던 것이다. 신부님께서는 응접실을 거닐으시며 목주신공을 바치셨다.

신부님은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들이 입회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성체거동 행사가 가까운 날이었다. 성체거동의 유래에 대해 신부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아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야외에서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성체가 날아가 버렸다. 미사를 드리던 신부님이 외쳤다. “오 주 예수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복사가 말했다. “곳곳에 계십니다.” “아니, 오 주 예수 말고 내 천주 말이오!”

신부님은 신자들과 함께 날아간 성체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찾아낸 성체를 모시고 성가를 부르며 돌아왔다. 이것이 성체거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셨다.

한 번은 미사가 끝난 후 제의방에서 복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미사가 끝났으니 우리도 같이 미사를 지냅니다.” 이 말씀은 신부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내리는 생활”을 뜻한다.

64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성탄 때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참 이상하셔. 내려오시기만 좋아하시니.”

신부님은 기쁘고 순수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길 원하셨다. “성모님께 목주기도 하는 것을 계산하지 말아요! 하루에 한 번씩하면 되는 것이니 걱정 말아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때 큰 컵을 갖고 가야 합니다.”

3월의 추운 어느 날 신부님께서는 베아뜨릭스 수녀님의 부축을 받으시며 성체 조배를 하러 오셨다. 건강이 무척 나빠지셔서 걷는 일조차 어려우신 모습이 걱정되었다. 성당에 들어와 앉으시라고 권해도 장례는 못하시고 성체 앞에 한동안 서 계셨다. 돌아가시는 길에 굳이 사양하시는 신부님을 모셔다 드리게 되었다. 신부님은 당신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어 여간해서는 허락하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옆에서 조심스럽게 따라만 가고 있었다. “신부님, 성체 조배 하실 때 예수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어요?” 하고 여쭙었더니 “뭐 할 말이 있어요? 오직 항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망·애덕송 드렸어요.”라고 대답하셨다.

성 신부님께서 정해주신 오일별 미사 지향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교황님을 위하여

수요일: 부모 친척을 위하여

목요일: 성가회를 위하여

금요일: 성모님의 의향대로

「소비녀들에게」

병원 소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사에 “오!” 하고 손을 들어 반갑게 웃으신다.

“오늘 여러분들 애덕실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 쳐다보며 웃기만 했더니 신부님은 이렇게 당부하시기를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환자들에게 기쁨 많이 주고 애덕 실천 많이 해야 해요.”

용문 희망의 집 수녀원 기공식에 참석한 이야기를 해 드렸을 때 신부님은 수녀원이 커진

2. 신부님 댁 방문 일지 65

다고 걱정하셨다. 수녀원 부엌의 지붕이 새어 하늘이 보이는 데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 들리자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오 주 예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처음 입회해서 지원자로 신부님께 인사를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1년 동안 집에 못가요. 여기서 많은 것 배우고 오 주 예수 사랑하시오.”

청원기 휴가를 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다.

“사복 입어보고 그 옷이 좋으면 오지 마시오. 처음 입회 할 때는 애기 같은 마음으로 왔지만 요번에 휴가 갔다 다시 올 때는 어른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신부님께서 자주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말씀들이다.

“소비녀 겸손하시오.”

“기뻐하시오 소비녀! 오 주 예수 사랑하시오!”

“수오원에 왜 왔소? 성인 안 되려면 지금 가시오.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가도하며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나, 창설자 아니오, 창설은 하느님이 하셨오.”

“소비녀에게 순명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소비녀 중에 소비남!”

“문이 되시오”

“공심판을 생각하시오. 당신은 교우요.”

신부님 형님 내외분이 오셨을 때였다. 두 분이 경주에 여행을 가셨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소비녀가 아니오.” 하시며 웃으셨다.

신부님께서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몹시 힘들어 보이셨다.

“신부님께서서 힘드시죠?” 하고 여쭙었더니 신부님은 머리를 흔들시며 대답하셨다.

“힘든 게 어디 있어.” 이 말씀으로 신부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잘 봉헌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2) 1985년도 방문 일지

1985년 9월 1일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았다. 노래를 불러 드리니 조금씩 따라 부르시기도 하셨다. 신부님의 금경축 때문에 과리에서 동생 두 분이 오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 지난밤에 한 잠도 못 주무셨다고 총장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공항에 나가시려면 지금 좀 쉬셔야 한다고 총장수녀님께서 말씀드리자, “소비남, 순명하겠오.” 하시며 우리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 가 쉬셨다.

1985년 9월 13일

금경축을 맞으시는 신부님께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앞에 심판,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1985년 9월 29일

신부님 댁 거실 창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비추어고 있었다.
신부님께서 부시고는 “저렇게 성신이 오신다.”고 하시며 그 햇빛처럼 밝게 웃으셨다.

1985년 12월 8일

검은 모자를 쓰시고 소파에 앉아 계셨다. 비교적 건강하신 모습으로 소비녀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모두 다 들어오자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나요?” 하고 물으셨다. “신부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세요?” 하고 여쭙자 “아니.” 하고 대답하시며 웃으셨다.

2. 신부님 댁 방문 일지 67

“서품 받으신 후에 주무실 때 수단을 입고 주무셨나요?” 누군가 이렇게 여쭙었더니 신부님께서 “네, 수단을 입고 잤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다 낡은 슬립퍼를 신고 계셨는데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시며 좋아하셨다. 그럼 낡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사고 했더니 골동품이라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 모두 웃었다.

“오늘도 산보 하셨나요?”

“했지.”

“언제 하셨나요?”

“9시30분에서 9시40분까지 했지.”

연이은 우리의 질문에 고분고분 대답해 주시던 신부님께서 갑자기 “당신들 경찰이요?” 하고 되물으시는 바람에 우리는 죄송스러운 폭소를 터뜨렸다.

영등포에 있는 성당에서 성체현시를 하는 것을 보신 후 이곳에서도 성체현시를 시작했노라 하셨다. 조배할 시간이 되어 우리들이 일어서자 신부님께서도 성당에 조배하러 가신다며 목도리, 코트로 무장을 하신 후 함께 방을 나섰다.

1985년 12월 15일

방금 조배를 다녀오셔서인지 몹시 추우신 듯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모습이셨다. 우리들이

“신부님!”하고 부르며 들어서자 의자에서 일어자시며 “춥지요?” 하고 맞아 주셨다. 우리에게 따뜻한 라지에타 위에 앉으라고 권하셨다. 할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며 성탄이 가까운 때여서인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성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산타 할아버지는 거짓말이야.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소홀하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신부님께서서는 건강도 기분도 모두 좋아 보이셨다. “일할 때에나...”를 선창하셔서 같이 불렀다. 미사의 감사경을 라틴어로 독창하셨는데 마치 성악가처럼 잘 부르셨다. 마리 루시 수녀의 ‘마로니에’노래를 무척 좋아하셨다. 앙콜을 청하셔서 ‘유다와 마리아’를 부르며 그 특유의 제스처어를 보이자 굉장히 즐거워하셨다. 우리는 함께 ‘자유의 길’ ‘받아주소서’를 합창으로 불러드린 후 신부님의 강복을 받고 돌아왔다.

68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1985년 12월 22일

온통 성탄 카드로 장식된 신부님의 방안에는 벌써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같았다. 신부님은 소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건강은 비교적 좋아 보이셨다. ‘그리스도 오셨다’를 먼저 선창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자고 하셨다.

1985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 방안이 온통 성탄 축하 카드로 장식되어 있었고 자리가 모자라 두 줄로 겹쳐져 있었다. ‘경사롭다’를 부르시며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다.

3) 1986년도 방문 일지

1986년 1월 1일

새해 인사를 드렸다. 4명씩 차례로 인사를 드리고 나니 “거룩하다”하시며 웃으셨다. 수련자라서 거룩하게 보였나 보다.

1986년 1월 5일

건강하신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다. 오늘 삼왕 축일에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셨다. 본당 신부님이 왕으로 뽑혔다고 말씀드리자 웃으며 재미있어 하셨다.

2. 신부님 댁 방문 일지 69

1986년 1월 12일

동생 수녀님한테 받으신 슬립퍼를 신으시고는 우리에게 자랑하셨다. 따뜻하게 생겼다며 수녀들이 만져보자 부끄럽다며 웃으셨다. 내내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1986년 1월 26일

소파에 앉아 계신 신부님은 여전히 건강이 좋아 보이셨다. 모자를 보여 주시며 내일 한국 순교복자수녀회의 방 신부님 장례미사에 쓰고 가실 것이라고 하셨다. 수녀들에게 고백성사를 주셨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다.

1986년 2월 9일

민속의 날인 구정이다.

아침부터 가다리고 계셨다며 우리들의 방문을 무척 반가와 하셨다. 마침 저녁식사 시간이 곧 일어서려 하자 더 있다 가라고 우리를 붙드셨다. “신부님 식사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으셔요?” 하고 여쭙었더니 “아니, 전혀”라고 하시며 식사를 시작하셨다.

어제까지는 죽을 드셨는데 오늘부터 고기를 잡수신다고 하시며 다른 때보다 많이 드셨다. “수녀들이 보고 있으니 더 맛이 있어.”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신부님의 사랑이 엿보였다.

1986년 3월 9일

소파에 앉으셔서 목주의 기도를 하고 계셨고 건강은 좋아 보이셨다. 성모송을 6번 할 동안만 기다리라고 하시며 기도를 계속하셨다. 마침내 신부님께서 기도를 끝내시자 우리는 노래를 불러드렸다. 고음에서 소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자 웃으셨다. 가만히 눈을 감으시면서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사랑어린 충고를 잊지 않으셨다.

70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1986년 3월 16일

신부님께서 목주시도를 하고 계셨다. 며칠 후에 아스피린이 들어온다고 하시며 아주 기뻐하셨다. 얼마나 기쁘시냐고 여쭙었더니 두 손을 커다랗게 펼쳐 보이셨다. “저희들이 입회할 때는 어떠셨어요?” 하고 여쭙자 이번엔 두 손을 크게 벌리시는 바람에 자매 수녀가 넘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마치 샘 많은 아이들처럼 신부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가 이렇게 샘내는 것을 보시고는 옛날에는 싸우고 거짓말도 했다고 하시며 웃으셨다.

1986년 3월 30일

동생 수녀님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계셨다. 무척 기쁜 표징이셨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잘 간직하고 전하십시오.”라고 부활 인사에 답해 주셨다. ‘그리스도 오셨다’를 우리와 함께 부르시며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셨다.

1986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방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가득한 카드들과 천장 장식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었다. 신부님께서 흔들의자에 앉아 계셨다. 활짝 웃으시며 “어서 오시오.”하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들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성탄노래를 불러드렸다. 신부님께서도 따라서 노래를 부르셨고 몇 번이나 앙콜을 청하시며 더없이 즐거워하시는 신부님과 함께 예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했다.

4)1987년도 방문 일지

1987년 1월 1일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설날을 노래하며 신부님께 새배를 드리러 갔다. 신부님은 몸이 조금 불편하시 듯 앉아계셨다. 머리에 쓰신 검은 모자가 아주 멋있었다.

1987년 1월 18일

아주 오랜만에 신부님을 뵙게 되었다. 신부님은 소파에 앉아 수녀님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우리들을 보고 빙그레 말없이 웃어주셨다. 수련자들을 사랑하고 있노라 하는 웃음 같았다. 우리들은 그동안 같고 닳은 노래 실력을 신부님 앞에서 마음껏 발휘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무척 힘들어 보이셨다.

1987년 1월 25일

‘일할 때에나 놀 때에나...’ 신부님께서 지어 주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 노래를 항상 감사와 찬미의 노래로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 신부님께서 “고맙소.” 하시며 웃으셨고 “열심히 사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1987년 2월 8일

혼자 목주의 기도를 하시면서 응접실에 앉아 계셨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여쭙자 활짝 웃으셨다. 그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밝아 건강이 좋아지신 듯 싶어 기뻐했다.

신아리랑, 님의 전 생애, 태양의 찬가, 아베마리아를 불러 드렸더니 “너무나 잘해요. 언제 들 배웠어요?” 하시며 기특해 하셨다. 연거푸 하시는데 양끝에 우리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신부님은 몹시 기뻐하셨다. “신부님 얼마나 좋으세요?” 하고 여쭙자 “이만큼”이라고 두 팔을 벌리시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아버지 사랑의 깊고 넓은 감히 짚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72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1987년 3월 22일

신부님은 소파에 앉으셔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권투가 한창이었다. 신부님의 표정과 얼굴색을 보니 건강하신 것 같았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 드린 후 오랜만에 방문하였기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렸다. 이야기 끝에 신부님은 “요즈음 열심히, 가난하게 살아요?”하고 물으셨다. 신부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가르쳐 주시려 하셨다.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며 신부님께서 좋아하시는 곡으로 한 곡 불러 드린 후 “또 불러

드릴까요?” 하고 여쭙었더니 웃으시며 “노우”하셨다. 우리는 신부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는 줄 알고 또 다시 노래를 불러 드렸더니 다 들으신 후 “왜 순명들을 안해요?” 하고 전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뜨끔해진 우리에게 신부님께서 “소비녀들! 순명해야 합니다.”하고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다.

1987년 4월 19일 부활 대축일

굉장히 기쁜 모습이셨다. “예수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전하시오.”하시며 우리들 얼굴을 하나 하나 쳐다보시는 신부님의 표징에서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사셨던 당신의 삶처럼 우리들도 향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합하여 부활의 기쁨을 노래 불러 드렸더니 “고맙소.”하셨다.

2. 신부님 댁 방문 일지 73

1987년 5월 8일 어버이날

“신부님!”

어버이날이라 우리 소비녀들이 아버지 신부님을 부르며 들어섰을 때 신부님께서 가슴에 한 묶음의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소파에 앉아 계셨다. 건강하신 모습이셨다. 우리들은 신부님께 노래 선물을 잔뜩 드렸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더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셨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대신해 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건강을 비는 마음을 모아 더욱 즐겁게 노래를 불러 드렸다.

74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3. 기고문¹⁾

1)성가소비녀들에게

나는 가끔 ‘성가회 설립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당신 사업을 위해 잠깐 동안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는 그 연장이 좋지 못하였기에 바로 내버리셨습니다. 성가회를 세우신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느님이시니 설립자란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훔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느님만이 이런 영광을 받으심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림을 볼 때 그것을 그린 훌륭한 화가를 칭찬하지 않고 그 화구만이 좋다고 할 자가 어디 있겠으며 또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노대주교님의 공로나 치명하신 공 신부님과 이 요셉 신부님의 은공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안배로 25년 전에 심은 미소한 씨앗 하나가 이처럼 자랐으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성모마리아와 같이 마니피캇으로 찬송 드리는 바입니다.

성가수녀원을 시작할 때 기억에 남은 몇 가지를 여러분께 간단히 이야기하고 장차 성가 소비녀들이 할 바에 대해 조마조마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5년 전 1943년 일제시대, 대동아전쟁(세계 제2차 대전)이 치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식량문제, 자녀 교육문제, 어떤 이는 군인이나 징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생명문제, 또 이들의 가정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가고 도고, 정든 고향 가정을 등쳐야만 하였습니다.

그때 누구나 다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부상자,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가 생길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성교회가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에 계시던 공 안또니오 신부님, 이재현 신부님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 가끔 이야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선 많은 일꾼, 특히 수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서울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만 있었고, 갈멜 수도원은 있었으나 관상생활을 하여 주교님께서 여러 번 다른 나라에 수녀들을 청하였지만 전쟁 중이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헛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기에 임박하여 부득이 국내에서 일꾼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혜화동 본당신부로 있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여러 처녀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수녀가 되려 올라온 모양이지만 교육이 부족하다든가, 바오로 수녀원에 자리가 없어 입회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서울 이곳 저 곳에서 일하고 살면서 열심한 신심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 신부님과 이 신부님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그들을 속히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물들을 내버리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혜화동본당은 수도 서울에 있고, 또 신학교 옆에 있어 여러 사제들의 보살핌과, 갈멜 수도원이 바로 곁에 있어 그들을 돌보는 데에도 좋을 뿐 아니라, 그들이 완전한 가톨릭 정신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 생각하였습니다.

76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이리하여 하루는 이들 처녀 중 몇을 불러

“여러분이 혼자 지내면 위험도 하고, 어렵게 일을 해도 큰 결과를 거두기 어려우나 함께 뭉치면 많은 공로도 얻을 수 있고 완전한 수도생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런 관계인지, 이들은 나의 제안을 쾌히 받아들여 오늘날의 성가수녀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1943년 12월 25일 성탄축일 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네 명의 지원자는 순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주님의 종이오니”와 복녀 김 콜롬바·김아네스가 재판장 앞에서 대답한 것을 생각하여 《소비녀》라 부르기로 하고, 또 그 후에 《성가소비녀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웅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웃으시겠지요? 이들은 집도 직업도 돈도 없었습니다. 나 역시도 전쟁으로 프랑스에서 한 푼도 원조 받을 수 없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녀들은 용감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병자를 찾아 대세를 주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잔전 사람의 집에서 일하고 품값을 받아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중에서 차차 집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같이 기도하고 동부하며, 특히 애덕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께서는 이들의 가혹한 마음씨와 굳은 신념 속에서 하는 노력을 보시고는 강복하사 지원자를 점점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프랑스 신부들을 포로수용소에 수감할 것이라는 말이 나서 내가 수감된다. 하여도 소비녀들이 함께 뭉쳐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학교 이 재현(요셉) 신부님과 규칙을 만들어 주교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이 같은 소비녀회가 공적으로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3. 기고문 77

합법적으로 수련 수녀원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원장수녀와 수련장 수녀 두 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지구장 베아드릭스 수녀님이 수도자의 넓은 정신을 베풀어 주시어 (그 후에 인민군에게 죽음의 행진하다 학살 당하셨음) 우리에게 훌륭한 강 떼끌라 수녀님과 김 아델라 수녀님, 두 분을 보내 주시어 그때부터 정식 수도원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전쟁이 끝나자 사정에 의해 프랑스에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충남 논산본당으로 이동이 되어 나의 미약한 간섭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성가 소비녀회 시작된 내력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 여러분이 가끔 성가 소비녀회 설립 목적과 정신, 또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그야 성가회를 설립하신 분은 천주임. 그러기에 천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고자 하는데 불 때...” 성가회에 대한 천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첫째로, 천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확실히 당신 사랑입니다. “이는 가장 높고 제일 으뜸계명이니라...” 초대 수녀들도 천주를 사랑하고 더욱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서로 모여 공동생활 속에서 일하였습니다. 천주께 대한 사랑은 성가회의 주춧돌이며 기초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천주의 사랑이 없다면 절망뿐이요, 우리성업도 모두 속된 사업이 되고 회의 목적은 세속 영광에 그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회원들이 천주를 더욱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항상 힘쓰고 연구하고 기구하며 착한 행실을 날마다 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속에 머무르라.”(요한15,9)

사랑은 성삼의 생명입니다. 사랑은 성부께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오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이 마음속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니 그 사랑 또한 우리 성가회의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강을 막으면 우리에게 양화로다...

78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둘째로 성가회 설립 당시, 여러 처녀들은 혼자만의 힘을 믿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혼자 힘으로는 복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뿐,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함을 밝혀 주셨습니다. 천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생활양상은 공동생활입니다.

보십시오! 공동생활의 좋은 빛을! 25년 만에 이 같은 성가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오! 성가의 소비녀들이여, 그 공동생활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준주성법」에도 “공동생활은 큰 보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로써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바칠 수 있고 또한 수만 배나 더 큰 결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수녀들의 공동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경탄하며 하느님과, 영혼, 천국 등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공동생활이 어렵다 말고 항상 서로 화목하고 복음 삼덕을 지키며 일의 필요성을 깨달아 이것 또한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가회의 힘도 클 것입니다.

셋째로 처음 성가회를 설립할 때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뚜렷한 생각도 없이 다만 장차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 이것은 아름다운 정신이며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루가12,37)

성가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인의 뜻뿐입니다. 성가소비녀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뜻만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나 미래나 성가회의 목적은 그 뿐입니다.

3. 기고문 79

넷째로 모든 수도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와 인간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교회의 요구는 변합니다. 예컨대 왜정시대에는 국가에서 어린이 교육에 힘쓰지 않았고 병자들을 돌보고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사업, 의료사업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오늘날은 국가에서 아동교육에 또는 병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수도자들은 그러한 봉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이나 의료사업에 무료로 봉사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소 돈을 받고 있으니 하느님의 일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직업처럼 보입니다. 물론 수도자들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세속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세속 사람들이 그런 활발한 일을 함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구도자들이 할 일이란 그런 세속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것 대신 더 큰 애덕행위로써 하느님의 백성을 도와주며 그 사람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어 그들 스스로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속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수도자들이 하면 어떠할까요?

무의무탁하여 버려진 노인들이나 불치의 병을 가진 불쌍한 환자들과 불구자, 정신병자, 정신박약자들을 돕는 일도 있겠고 혹은 공장에서 하루 품을 팔아 사는 노동자들과 생활이 극빈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수도자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물질문명이 극에 달하도록 발달한 이즈음의 세상에는 이렇게 버려진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도자들, 특히 성가소비녀들은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된 형제를 위하여 일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가회의 창립 당시의 원의가 바로 교회와 하느님 백성을 도울 목적이었으니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그 뜻이 완성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80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여러분은 성가회의 식구가 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딸입니다. 본회이전에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하느님 대전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이 네 가지입니다.

1. 애주애인
2. 공동생활
3. 봉사준비
4. 가난한 자들

2) 성 신부님과의 대담1)

유수녀: 신부님. 서품은 언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신부님: 나는 파리 외방전교회 성당에서 1935년 7월 7일 신품성사를 받았습니다.

수녀: 그때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부님: 내가 1910년 9월 13일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만 24살 안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25살이었지요.

수녀: 소속은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그러셨죠?

신부님: 네, 그렇습니다.

수녀: 한국에 나오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신부님: 즉시 파리를 떠나 1935년 11월 초하룻날 부산에 도착했고 바로 대구로 가서 거기서 첫 미사를 드렸습니다.

수녀: 한국에 오셔서 처음 부임하신 곳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3. 기교문 81

신부님: 맨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서는 나에게 주교택에 몇 달 머물면서 한국말을 배우라고 하셨지요. 또 한편으로

는 주교님께서 이 새 신부님사람됨은 어떠한가 아시고 싶으셨던 것도 같습니다.

1936년 4월 30일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본당의 보좌신부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첫 임지가 구합덕본당이었지요. 그 당시 본당신부임이셨던 백 필립보 신부님은 6·25 동 한때 인민군한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합덕에서 2년을 보내고 1938년 6월 초하룻날, 인천 답동 본당의 보좌 신부로 부임 되어 왔습니다. 그곳 본당신부님은 임 중국 바오로 신부님이셨습니다.

수녀: 그러면 혜화동 본당 신부로 부임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신부님: 1939년 7월 7일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수녀: 전쟁이 일어난 그때부터 언제까지 혜화동에 계셨습니까?

신부님: 1948년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수녀: 혜화동에 계실 때에 수녀원을 설립하시고 싶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신부님: 처음부터 나에게 수녀원을 설립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처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성사를 청했고 그러던 중에 알아보니까 그들 중에는 수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서울에는 바오로 수녀원과 갈멜 수녀원이 두 수도원 밖에 없었고 이 수도원에서는 지원하는 이가 많아서 더 이상 수용할 능력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 가혹한 처녀들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준 것 뿐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도,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느님께서 하셨고 실제로 실천한 것은 그 가혹한 뜻을 지닌 처녀들이었습니다.

82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수녀: 수녀원을 처음 세우시고 제일 먼저 지원자를 모집하실 때의 사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부님: 우리 집에 오는 처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지요. “아무리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니 모여서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면 한 보름 후에 와서 그 뜻을 전하십시오. 지금 있는 수도원은 이미 인원이 차 갈 수 없으니 우리, 수도원을 새로 하나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한데 모여 새 생활을 시작한다면 우선 나한테 수명하겠다고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이 지나서, 한 다섯 명이 왔습니다.

수녀: 누구 누구 입니까?

신부님: 김 루시아(엠마누엘) 수녀, 장 마리아 수녀와 그리고 김 구두라(요셉) 수녀 또 남가밀라 수녀와 이 말따 수녀가 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 수녀와 요왕 수녀가 되서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처녀들끼리 무슨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소문

이 나서 두 명이 더 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는 순서대로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는 12사도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기로 하였지요.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일하신 성녀 말파와 성 가밀로의 이름도 따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3.기고문 83

수녀: 신부님, 수도생활을 원하는 지원자를 처음 모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부님: 1943년 여름, 나니 겨울이었던 1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의 와중이라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지요.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니 로마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수도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단 한 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녀들도 자연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말파 수녀는 병원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가밀라 수녀는 어느 집에서 일했고, 엠마누엘 수녀는 비단장사를 했어요. 날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각자가 일해서 받은 품값이니, 이익금을 다 내놓고 공동생활을 꾸려 갔습니다. 빨감도 사다 써야 하고 밧을 거리도 장만해야 하는 모두를 그 돈으로 충당하였지요. 그런 먹고 사는 일 이외의 시간에는 조금씩 수도자들이 하는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경책을 마치 문답처럼 주루루 주루루 배웠더랬습니다.

수녀: 물론 신부님께서 가르치셨겠지요?

신부님: 예, 어떤 때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외워서 나한테 와서 확인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는 대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갔지요. 날이 몹시 추울 때는 정말 딱했습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나무 한 짐 살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병 속에 뜨거운 물을 넣어 이불 밑에 넣고는 추위를 이기려고 했었어요.

한번은 나병환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 왔는데 수녀들이 아주 잘 보살펴 주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 주었지요. 아마 그 사람 죽을 곳을 찾아 왔나 봐요, 또 어느 날엔가는 수녀 한 사람이 와서 “신부님,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대요.” 하므로 집에 모시고 와서 돌봐 드리라고 하였어요.

수녀님들이 따뜻한 방에 모셔다 돌봐 드리던 중에 그 할머니는 돌아 가셨고 때는 저녁이라 갑자기 장사 지낼 수도 없고 해서 하룻밤 모두들 그 할머니와 같이 지냈던 기억도 있어요.

84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수녀: 두 번째 죽은 사람이예요?

신부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되었던 일이었어요. 또 나중에는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미국사람이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여러 신부님들의 덕으로 미국사람들의 빨래를 가져다 빨기 시작했지요.

수녀: 빨래?

신부님: 세탁 말입니다. 그래 이 같은 일이 생겨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수녀: 신부님께서 처음 지원자들을 모아 놓고 성당에서 하느님께 약속을 드린 날이 언제였습니까?

신부님: 1943년 성탄절이었습니다.

수녀: 예, 1943년 12월 25일이었군요.

신부님: 또 그날에 그 일을 서행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시려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가소비녀회 수녀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 사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날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1943년 성탄 침례 날, 혜화동 성당 성모 동고상 앞에서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냥 보통 약속이었습니다. 성교 공식적 약속이 아니고 그냥 양심대로만 발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 일을 나 혼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무섭기도 하였고 또 젊은 신부가 경험도 없이 수녀원을 시작할 자격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고 연로하신 공 안또니오 신부님께 여러 가지를 문의 하고 또 신학교에 계시던 이 재현(요셉)신부님(후에 치명하심)께도 가서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 소상히 의논도 드리고 했습니다.

3. 기고문 85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와서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만 두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 어찌 해야 할지, 아주 조그마한 일까지도 의논드렸습니다.

물론 두 분 모두 어렵지만 여기서 시작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본당이 명동, 약현, 혜화동(그때 백동이라 했음) 세 곳이었는데 명동성당에서 바로 수녀원이 있으므로 거기서는 시작할 수 없었고 또 약현 성당에는 신부님이 한 분 뿐이셨으므로 그곳 또한 어려웠고 여기 혜화동에는 가까이 신학교 신부님도 계시고 갈멜 수녀원도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도 되겠고 영혼적으로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이니 더 적합하다고 격려해 주셔서 이것 혜화동에서 수녀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가소비녀회에게는 공 안또니오 신부님과 이 재현 요셉 신부님이야말로 참된 설립자 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나 젊어서 경험도 없었고 경륜이 높으신 선배 신부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수녀: 신부님 그때의 연세가 서른 셋이셨던가요?

신부님: 서른셋인가?

수녀: 1910년 생 이시니까 서른셋이 맞겠습니다.

신부님: 아마 그랬겠는데요.

수녀: 성가회 정신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신부님: 강생 정신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리셨으니 제자들인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수

도회 창립 당시 사정은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전제 때문에 여러 가지

86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때라 잘 먹지 못하고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랬지만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을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합당한 시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가수녀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냄으로써 한층 더 하느님과 닮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과 가난 중에서도 하느님의 안배하심을 믿고서 이회를 시작하고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느님의 크나크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원 규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수도회가 시작된 다음인 1944년에야 규칙을 정하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독립되기 전인 일제말기여서 일본사람들이 점점 극악해지던 때였습니다. 나도 그때에는 참으로 수용소로 자거나 추방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부들, 미국신부들이나 캐나다 신부들, 그리고 아일랜드 신부들 모두 추방당하거나 잡혀 갔어요. 불란서 신부만은 아직 추방당하지 않았는데 암만해도 사태가 예상되지 않았고 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수도회의 규칙이 없어서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주교님께 말씀드렸더니 주교님께서 로마에서 받은 모범적 규칙을 나에게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생각을 보태서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달리 참고할 만한 책도 없었고 했으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요. 이렇게 작성하여 주교님께 보여 드렸더니 주교님께서 싸인(Sign)해주셨어요.

3. 기고문 87

수녀: 싸인?

신부님: 싸인. 서명이요, 도장을 찍는 일 말입니다. 보통 수도원 규칙을 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차 작성되면 로마에 보내어 그 적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대개 여러 차례 걸쳐 수정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 고치라고 해서 고쳐 보내면 저거 고치라고 보내고...그런데 우리 수도회는 그때 사정이 사정인 만치 노 주교님께서 금방 허가를 주셨습니다. 전쟁 와중에서 로마와 연락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셨던 주교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내가 유치장을 가더라도 수녀님들께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혜화동을 떠나 논산으로 가게 되었지요.

수녀: 논산으로 가시기 전에 노 주교님께서 수도회 규칙을 인가하셨던 것입니까?

신부님: 내가 논산으로 간 후, 주교님께서 로마에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성가 수녀원 이야기를 물론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마 로마에서 주교님께 수도회 규칙을 라틴말로 번역해서 보내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내가 멀리 논산에 있었기 때문에 노 주교

님께서서는 이것을 다른 신부님에게 맡기셨어요. 신학교에 계시던 이 재현 신부님은 소신학교 교장이 되어 용산에 가 계셨으므로 그분은 아니겠고 하여튼 다른 어느 신부님이 라틴말로 전역하였는데 그것이 수도회의 규칙으로 승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1950년 무렵이었지요.

수녀: 교황청으로부터 회칙이 정식 인가된 것이 1949년 2월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던데요.

신부님: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허가를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녀: 여기 계셨다면서요?

신부님: 그러나 몇 해 전에 내가 대사관에 가서 그 허가받은 복사본을 받아왔는데 아마 여기 본원에 있을 것이요.

수녀: 신부님께서 수녀원을 설립하실 때 협조자가 되어주셨던 준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분들을 은인으로 길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88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신부님: 가장 큰 은인들은 수녀님들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품삯을 벌기 위해 손수 빨래 감을 찾아서 빨래도 하였고 농사일도 하였으며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수도회가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 중에 다들 궁핍하기는 매 한가지인 상황 아래에서도 공 신부님, 노 주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지요. 그리고 미군들과 미국의 군목 신부님들도 부족한 물자를 나누어 주시면서 여러 모로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가 정해진 규칙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의 수련자들을 위해서 떠끌라 수녀와 아델라 수녀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으로 부터 이곳에 왔습니다. 로마와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나는 즉시로 파리의 쉐다판스와 연락하여 수녀님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연락하던 서신은 아직도 있습니다.

수녀: 강 떠끌라 수녀님이 초대 명예원장으로 오신 것이 1945년 6월 1일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때 명예수련장은 김 아델라 수녀님이셨구요.

신부님: 이것도 성교 규칙입니다. 수도원이 설립되면 맨 먼저 그 수도회의 회원을 위해서 오셔서 새로운 수도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수련장이나 혹은 총장의 임무를 대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교회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수녀: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해서 신부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신부님: 그날은 성모 몽소승천 침례날이었지요. 그때 나는 혜화동 본당에 있었는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낮 12시인가 일본 천황이 무슨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방송을 잘 들으라고 하겠지요. 사방이 아주 고요하였습니다.

3. 기고문 89

혜화동 로타리에는 사람 하나 다니지 않았고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혜화동 경찰들이 모두 도망을 갔대요. 사람들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만세!”하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차마다 가득 타고서 기쁨에 넘치는 만세를 외치며 돌아다녔어요. 그날 전차가 많이 못 쓰게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경찰이 들어와 서울시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전차를 사용할 수 없어 하 신부님과 혜화동에서 용산에 있던 대신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거긴 원로하신 원 주교님과 다른 노인 신부님이 계셨으므로 그 분들을 만나 뵈려고 갔었지요.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용산에서 혜화동까지. 그런데 정거장에 사람들이 어떻게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미국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보름 후에야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하 신부를 미국 사람인 줄로 알고 따라오는 바람에 우리는 불란서 대사관까지 도망치듯 걸어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수 녀: 해방 후 신부님께서는 혜화동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신부님: 3년이었지요.

수 녀: 1948년까지 계셨습니까?

신부님: 그래요. 그때 그냥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비자들을 준비 시키고 각종 성사예절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까타콤바에서 나왔음을 사람들에게 잘 알리기 위하여 해마다 성체거동도 했습니다. 혜화동 로타리까지 성체를 모시고 나갔다가 돌아와 신학교 마당으로 올라가 그곳에 성체 강복이 있었어요.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어요.

90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수 녀: 신부님께서 혜화동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또 우리 수녀님들도 가르치셨지요?

신부님: 예, 그 일은 줄곧 계속하던 일이었지요. 교리공부 하면서도 수녀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빨래하던 수녀님들을 잊지 못 해요. 그 수녀님들 덕분에 생활이 점점 나아지게 되었지만...

수 녀: 혜화동에서 1948년까지 계시고 그 다음은 어디에서 사목활동을 하셨습니까?

신부님: 1948년 6월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행,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전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돌아와서는 논산으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교황께서 불란서 신부들은 서울을 떠나서 대전으로 가라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주교님께서 그리 명하신 것입니다.

수 녀: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부님: 1949년 6월이었어요.

수 녀: 그때 불란서에서 돌아오셨군요.

신부님: 예, 그때 돌아 왔습니다. 돌아와서 논산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주교님께 수녀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쭙었더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노 주교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 녀: 그렇다면 1950년 6. 25사변 때는 논산에서 계셨군요.

신부님: 예.

수 녀: 6. 25사변 때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부님: 1950년 6월 25일 바로 그날, 나중에 치명 당하신 모 신부님과 금사리 본당 신부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치과에 가기 위해 정거장에 가보니까 서울에 난리가 나서 갈 수 없으므로 차표를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날이 후 인민군이 점점 쳐내려온다는 소식만 전해지더군요. 서울 들어 왔다, 중앙본부에 왔다, 수원 왔다는 급급한 소식만 전해져서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3. 기교문 91

우리 집 옆에 노인 신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공주 본당의 지 신부님이셨고 또 한 분은 강경 본당의 목 신부님이셨는데 그 두 분한테 갔더니 “나는 노인이니까 다시 일 못할 것이지만 당신은 젊으니까 도망가시오.”하셨습니다. 그래서 목 신부님은 노인이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셨으므로 종부성사를 드리고 감실 속에 있는 성체를 다 영한 다음에 신부님께 하직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양심이 많이 걸렸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먼저 논산에서 남쪽에 있는 대털이라는 공소까지 갔다가 대포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불안해서 다시 논산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전거로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 전주 김 바르톨로메오 주교님 옆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음날 장성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광주로 갔는데 그때가 아마 1950년 7월 20일쯤 되었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거기에서 부산가는 아일랜드 신부님의 자동차가 마침 있어서 그 차를 얻어 타고 광주에서 순천, 하동, 진주, 마산을 거쳐 부산으로 갔습니다.

하동에는 큰 다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탄 차가 그 다리를 건너간 다음에 폭발로 다리가 부서졌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지요. 진주에 있을 때였는데 7월 15일 내지 20일 경, 그곳에서 마침불란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고 이북 포로 병원에 가서 일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대세를 붙이고, 그때 지금 광주에 계신 윤 주교님과 미국인 기 신부님과도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치명 침례날인 1950년 9월 26일 연합군이 인천으로 상륙하였고 인민군들은 다시 북쪽으로 밀려왔습니다. 나는 10월 초하룻날 다시 논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즉시로 목세영(Bermond) 신부님을 만나 뵈었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때 목 신부님과 공소방문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탄침례 지낸 다음 인민군이

92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중공군과 같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교님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대전으로 피난가라고 하시더군요. 대전에서 며칠 지나다가 중공군이 수원 밑 오산까지 내려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주교님, 신부 모두 트럭을 타고 갔지요. 부산에서 한두 달 머물다가 다시 논산으로 가서 부활침례는 그곳에서 지냈어요. 거기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빨리 평정을 찾았습니다.

수녀: 논산에서는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신부님: 1962년 2월 까지 있었습니다.

수녀: 계시는 동안 논산엿 하신 일이 많으시겠지요?

신부님: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 나 개인이 한 일이겠습니까? 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전쟁 때에 폭격으로 성당 건물이 많이 부서졌고 사제관도 불에 탔어요. 그래서 사제관을 새로 건축하였지요. 그리고 마침 성당이 너무 협소하였던 터라 이 기회에 새 성당을 짓기로 하였던 거지요. 또 거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도 시설이 너무 낡고 미비하였으므로 새로 크게 지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이도 많았고 재정 문제니 여러 문제들로 고통을 받기는 하였지만 주의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 일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사리 본당 신부님이셨던 모 신부님께서 논산뿐만 아니라 금사리 본당까지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셔서 주 곳 본당을 한 3년 동안 돌보아야 했어요. 그때 두 본당 공소가 무려 33개나 되었어요. 자동차도 없고 교통편도 마땅치 않던 시절이니 늘상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였습니다.

좀 힘들었던지 성당을 짓고 난 뒤 병이 나서 또 본국에 가야 했지요.

수녀: 논산 계실 때 양로원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3.기고문 93

신부님: 예. 그러나 사길 그 일은 모두 수녀님들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양로원뿐만 아니라 나병환자 마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그만 접어 두기로 합니다.

수녀: 불란서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신부님: 1962년 2월에 갔습니다.

수녀: 논산에서 바로 가셨습니까?

신부님: 여기서는 몸이 좀 좋지 않다고만 느꼈는데 불란서에 가서야 허리 병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산중에 있는 성직자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한 다음 6개월 정도 집에서 쉬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수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신부님: 부여군 홍산으로 갔습니다. 그 동안 논산에는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부님이 와 계셨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12-14년 동안이나 고생해서 지은 성당에 다른 신부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직 건강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큰 본당의 일을 볼 수 없었으므로 조그만 본당으로 보내 주신 거지요. 그래도 공소가 12개나 되는 본당이었어요.

수녀: 홍산에는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신부님: 1964년 6월부터 1969년 성탄 지난 후인 12월 30일 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 성가수녀원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수녀원 시작하고 22년 만에 돌아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된 셈이지요.

1970년 정월 초하루부터 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수녀: 우리 수녀들에게 신부님께서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수녀원의 장래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94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신부님: 그것 참 대답하기가 어렵겠는데...

내가 여기 성가수녀원을 시작할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틀림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교회에 이들을 도와줄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망신스럽기까지 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성가수녀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할 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오 5,3-10)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돌보아 주고 헐벗은 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이를 돌보아 주며,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 위로해 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과 같다.(마태오(25,35)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르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것은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요한 15,9)고 하신 말씀처럼 수녀님들도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기고문 95

즉, 날마다 목상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를 잘 실천하도록 다짐하며 성체조배,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읽으며 끊임없는 기도로 자신을 닦아 가야 하겠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의 생활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참아내는 생활로서 그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의 당부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녀님들이 되시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의 당부는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내는 수녀님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하더라도 이를 하느님께서 보내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어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교님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회라고 여기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수녀들은 하느님의 명령을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혹은 고아원에서, 혹은 양로원에서, 기숙사에서, 감옥소에서, 그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때이든지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기

다려야 됩니다. 소비녀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하녀들처럼 교회와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나, 수녀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수녀원 설립 25주년을 기념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성가 수녀원의 첫 번째 정신은 소비녀 정신, 즉, 종의 정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께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다 항상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합니다.

96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가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모마리아께서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주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노래 하셨습니다.

종, 소비녀의 정신은 종처럼 그 주인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정신이고 순명하는 정신이며 주인 앞에 자신을 낮추어는 겸손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께 대한 오롯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좋아하는 바를 좇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쓰십시오.” 혹은 사무엘같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당신 소비녀가 듣나이다.” 그렇지만 소비녀는 무식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다른 것도 배워야 하며 성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좋은 서적을 많이 읽어서 영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소비녀의 도리는 다름 아닌 정결, 청빈, 순명의 덕을 공동 생활 중에 꼭 지키는 것입니다. 아, 그만 합시다.

수녀: 신부님,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신부님: 장래, 성가 수녀들 무슨 일 할 것인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지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윗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장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 기고문 97

요즈음에 우리 수녀들이 여러 가지 큰일들을 시작한 것 같아요. 성가병원, 그리고 소명여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참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전과는 달리 나라에서도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고생해서 일구어 놓은 사업들이 정부가 하는 일과 같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관장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보다 좋은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을 해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녀님들은 주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일들은 정부와 같이 힘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곳에서 하고 우리 수녀님들은 아주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를 보자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군가 아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서 마음 놓고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윗 어른들이 명하시는 것은 따라야겠지만 말입니다. 요즈음에 새로 시작하는 수도원들에서는 아주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곳곳에 예수께서 계시는 감실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아지겠지요.

웃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느님 나라 건설에 힘쓰도록 노력하십시오.

수녀: 신부님.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시면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십시오.

신부님: 그렇다면 소비녀란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합시다.

소비녀란 이름이 별로 재미없고 좋지 않다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 깊은 이름이 어찌 좋지 않다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소비녀란 이름은 역사가 있어요. 소비녀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원만 해도 여럿입니다.

98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또 우리 한국 군란 때 성녀 김 골롬바, 성녀 김 아네스 자매가 재판을 받고 치명당하기 전에 관리가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성녀께서 대답하시기를 “저는 소비녀 김 골롬바입니다.” 그러자 다시 “너는 몇 살이냐?”는 질문에 “소비녀는 25살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소비녀란 이름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이름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나에게 수녀님들을 소비녀라 부른다고 좋지 않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소비녀란 이름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일치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자신 소비녀란 이름을 갖기 원할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소비녀가 되기를 소망할 것이며, 그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녀: 신부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수녀들이 성교회에 대해서 봉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사제들을 위해서 우리 수녀들이 어떻게 공경해 드려야 되는지, 혹은 그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신부님: 이것은 참 큰문제입니다. 사제들에 대해서 소비녀들은 반드시 큰 공경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나 또는 외양적인 면으로나 항상 예절을 갖추어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성직자들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 주십시오. 혹 사제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교우들 앞에서나 혹은 동료 수녀님들끼리 비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이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좋은 말로서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직자를 방문할 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여럿이 가도록 하십시오. 신부 역시 나약한 인간이니 유감에 빠지지 않도록 수녀님들이 애써 주셔야 합니다.

신부 한 사람이나 수녀 한 사람을 잃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만약 좋지 못한 이야기가 생긴다면 교회가 받는 상처는 도 얼마나 클 것입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고 이런 작은 규칙을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수녀님들의 직분 가운데 성직자를 도와 성대한 미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제대 위를 잘 꾸미는 일 또한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께서 감실 속에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녀: 신부님.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나의 성가 소비녀들에게¹⁾

모든 수도자들은 성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 계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도자들은 성교회가 원하는 바대로 정결, 청빈, 순명의 성원을 기쁘게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정숙한 수도자들을 보기 원합니다.

정결은 인간적이고 참된 사랑의 이름, 즉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정결 때문에 모든 이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모두에게 당신 사랑의 원천을 보여주며 알리도록 합시다.

100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이 세상에는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참된 가난한 자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제2차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조금도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들의 순명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순명을 잘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설사 수도자들의 순명이 곧 사랑의 행실인 것입니다. 성가회 소비녀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교회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성교회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며 당신이 바로 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서원의 양심적인 준수는 바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립 40돌을 맞아 본인은 이 말씀으로 여러 수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수녀님들이 더욱더 착하고 거룩한 수도자, 그리고 정결하고 가난하고 순명하는 수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4) 초창기 때의 회상²⁾

1) 성가정의 벗(창립40주년 기념특집 제10호), P.35

성가수녀회가 설립될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어렵고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도처에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 부상당한 군인들과 난치병 환자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가수녀회를 시작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하느님의 큰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 기고문 101

1910년 9월 13일에 태어난 본인은 1935년 7월 7일에 신품성사를 받고 바로 그날 저녁 파리 외방전교회의 총장님으로부터 서울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지난 그해 11월1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이곳에서의 사제직 수행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먼저 주교관으로 간 본인은 원 주교님으로부터 주교관에 머물면서 언어공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때는 일제 말기였으므로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먼저 배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36년 4월에 합덕의 보좌신부가 되었고 1938년 6월에는 인천의 답동 보좌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의 여러 공소를 방문하는 일이 좀 고되었던지 그때 나는 병이 들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 침대 위에 있으면서 백동(혜화동)본당 주임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날이 아마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난 날이었을 겁니다. 일본이 중국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서울에는 4개의 본당이 있었습니다. 약현(지금의 중립동)과 종현(명동), 그리고 백동(혜화동),영등포(도림동 본당의 옛 이름)본당들이었는데 그중에 한 본당을 내가 맡은 셈입니다. 혜화동 성당 옆에는 대신학교가 있었고 바로 이웃에 갈멜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혜화동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즉시 북경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에 나와 있던 나의 동료 신부 열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정들었던 본당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본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북경까지의 길은 순탄했지만 Moukden에 네 명의 동료 신부들이 있어서 그곳을 거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Moukden에서 동료신부들을 만나 그곳에 있는 대사관으로 인사를 갔었는데 그곳대사의 의견은 선교사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소임지에서 그들의 임무를

102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사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일행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한 달 후에 다시 동료 표 신부와 본인은 대사관으로부터 일본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도착한 날 프랑스는 독일군에 의하여 모드 점령되던 날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약 3개월 가량 일본에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가회의 전신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정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던 사정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야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내 심정은 무척이나 서

글쎄고 전쟁의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던 집안 식구들로부터는 단 한 줄의 편지 연락도 없었고 이곳 한국에서는 일본 경찰에 의한 심문만 계속되었고 패배한 프랑스, 승리한 히틀러, 중국과 일본, 구리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제2차 세계대전)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몹시 힘들었던 본인은 사제로서의 일 역시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교우들과의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해 보려했지만 미사 집전과 고해성사, 주일강론과 교리 등 위례적인 일에만 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혜화동 본당 관할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저 혼자 일하기에는 다소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본당을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누어진 본당이 지금은 40여개 본당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동쪽으로 제기동본당을, 북쪽으로는 미아리 본당을 분리 독립시키기로 계획을 세웠고 마침 후가중인 대신학교 교수인 동료 구 신부와 힘을 합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노 주교님과 구 신부의 도움으로 조금만 땅과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이로써 제기동본당을 분리 독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미아동 본당은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아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그 곳까지 걸어가서 고백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늦게 돌아와서는 다음날 주일을 위하여 본당의 업무를 보아야만 하는 일을 몇 해나 했지요. 그 몇 년 후에야 주교님께서 신부 한 분을 보내 주셨고 그래서 미아동 본당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3. 기고문 103

일제 말기 무렵이라 그러했던지 매사를 감시하는 경찰의 눈 때문에 외출을 하거나 공소를 방문하는 일조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무슨 일인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당으로 고백성사를 보러 오는 많은 고해자 중에 제법 나이가 든 젊은 처녀들을 주목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의해 본인은 그녀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피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들은 수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은 경험이 풍부하신 공 안또니오 신부와 아주 열심히 이 요셉 신부에게 그녀들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전쟁은 극성으로 심해가고 수많은 피난민과 부상자, 그리고 병든 이와 부모 잃은 고아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그때까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하나 밖에 수오원이 없었습니다. (갈멜 수녀원 있었지만 그곳은 봉쇄 수녀원이었기 때문에 직접으로 전교는 하지 않았음). 사실 그때만 해도 성교회에 대하여 유감일 만큼 선교단체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혜화동 본당이 서울의 4개 본당 가운데서 새로운 한국 여성들의 모임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동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은 헌신적으로 일해 온 기간이 50년이나 경과했었고, 영등포는 1935년에야 시작되었으며 중립동에는 단 한 명의 본당신부가 있을 뿐이었으므로 수도권까지 말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혜화동에는 근처에 신학교와 갈멜 수녀원이 있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무염시대 (현재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무렵이 어느 날, 조그마한 낡은 집을 한 채 구입하였고 수녀 되기를 소망하는 여성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교회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단지 허망한 것을 쫓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용할 뿐이어서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에 희생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들 자신들의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함께 가기를 제안합니다. 그리하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서 당신들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5일 이내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가능성에 따라서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15일 후 그녀들은 내 제안에 따라 공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김 루시아(엠마누엘), 장 바울라(마리아), 이 구두라(요셉), 이 테레사(말다), 남 안나(가밀라), 이 름다(베드로), 감 마리아(바오로)와 환자였던 김 발바라(후에 사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943년 12월 25일에 혜화동 본당의 성모 마리아 동고상 앞에서 순명의 서원을 하였고 매주일 성서 공부를 했고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노 주교께서 주신 ‘로마에서 온 규칙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수도원 창설에는 다른 허가받은 수도원에서 2명의 수녀들을 파견 받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가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나는 서둘러 교회법대로 이를 운영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원장 수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본인은 그분에게 나의 요구를 전달했고 원장은 주님의 계시를 받은 듯 동의했습니다. 강 떼끌라 수녀와 김 아텔라 수녀가 우리들과 몇 해를 같이 지냈습니다. 초기 성가소비녀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주분 수녀님들에게 주님의 은총 있기를 바랍니다.

3. 기고문 105

그들의 덕택으로 우리의 조그만 수도원은 차츰 수도원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갈멜 수녀원의 수녀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들은 좋은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고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가끔 신학교에 계신 교수 신부님들께서 우리 집에 오시어 강의도 해주셨습니다.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그리고 동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우리 수녀들을 위해 양식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였고 가끔씩 일감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빨래감도 주실 만큼 많은 도움을 주시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1,2년 후에 함덕과 수원 두 군데에 분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하고 미약하던 모임이던 우리 소비녀회가 이렇게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며 굳건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6명의 소비녀들은 첫 서원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례는 당시 해외에 나가신 노 주교님 대신 원 주교님에 의해 거행되었는데 그의 강론에서, 이 단체가 아직 조그맣고 연약하지만 틀림없이 크게 자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들에게 정기결, 청빈, 순명의 서원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 수도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노 주교님으로부터 수도원 허가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애석하게도 피난 시절에 잃어 버렸습니다.

1948년 본인은 프랑스로 약간의 도움을 얻고자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프랑스에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다만 방직기계 한 대만 갖고 이듬해 6월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원 주교님께서 대전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가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주교님께서 논산에서의 선교업무를 맡기시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한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쭙었지요. 원 주교님은 수도원이 서울교구 소속이니까 노 주교님께 부탁하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녀원에서 할 일이 많았지만 본의 아니게 수녀원을 떠나 논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106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해 왔었습니다. 본인은 그때 수녀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들을 돌보아 주시 못했지만 수녀들은 부산으로 훌륭하게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녀들은 어떤 교우 회장(김응주 아브라함)의 큰 방을 빌려 전선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휘하여 일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본인은 수녀들을 도울 수 없었지만 하느님의 도움심이 계셔서 수녀들은 수녀원을 독립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1969년에야 나는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를 회상하면서 성가회의 본정신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가회의 본정신은 무엇입니까? 성가회는 성탄첨례 날 시작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성가회 수녀들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어 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내려오셨고 인간인 마리아의 품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미사성체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대 받는 이웃들에게 내려야 하겠습니다.

5) 「성가정의 벗」 창간을 축하드리며¹⁾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마르1.41)

3. 기고문 107

주님 손으로 직접 나병환자를 만지시며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은 그가 비록 불치의 병이 들었거나 혹은 무거운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백성이며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의 식구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뜻을 받들고자 한국의 여러 처녀들이 모여 33년 전에 성가회라는 수녀원을 세웠고 지금은 이백 명이 넘는 식구가 모여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업이 지금에는 양로원과 보육원,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또 교육, 포교사업과 더불어 다른 많은 일들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많은 하느님의 일들을 하기 위

1) 원래 「성 신부님 강론」이란 제목이나 편집자의 편의에 의해 편집과정에서 제목을 붙였다.

해서는 우리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껏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형제처럼 살 수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쾌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생활을 더 많이 실천하기 위하여 성가회 소비녀들은 새로이 회보<성가정의 벗>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또 다른 주님의 일인, 이 작은 시작을 기뻐하며 이곳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회보를 통하여 하느님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수녀들을 많은 신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 이때까지 성가회 수녀원 내의 소식을 밖으로 전해드리지 못해서 수녀들의 많은 부모님께서는 주님의 귀한 딸을 바치고도 그 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가정의 벗>을 통하여 성가회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니 작게나마 그 은공에 보답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가회의 많은 은인들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08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우리 수녀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책자가 여러 은인들에게 그분들의 충고와 기도를 청하는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새 힘과 새 일꾼을 얻을 수 있는 샘이 될 수 있기를 자라마지 않았습시다.

특별히 더욱 크게 바라는 바는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4-35).

성가정의 벗 (창간호)1976. 3. 19

6) 성모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모승천 대축일은 세 가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성모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그 세 가지를 따로 따로 기념합니다만 성모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같은 날에 함께 기념합니다.

주음을 기념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죽음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축일로 정해 기념하는 것입니다.

1 성모의 죽음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은 온 세상 만물의 법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과 같이 죽으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모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크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을 무서워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특은으로써 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바리아 산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하셨습니다. 즉 성모님의 죽음은 아드님 예수와 함께 완전한 일치를 이룬 죽음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죽음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평화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병이나 노환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요 당신 아드님에 대한 크고 열성적인 사랑으로, 무르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성모님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신 것이며 편안한 안면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 가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죽음은 아드님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과는 전혀 다른, 진정 기쁜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마리아와 같이 성령의 품에서 일생을 보내고 그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기쁨 중에 죽을 것이니 우리 또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빛과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성모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땅은 진동하였고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굴러져 있었으며 그것을 일러준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부활은 아무런 표적도 없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의 부활은 이치적으로 보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신약의 퀘이션 성모님의 육신을 땅속에 내버린 채 그냥 둘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뜻을 헤아려 본다면 성모님께서서는 정신의 모든 역량과 마음의 모든 능력과 육신의 모든 기능으로써 하느님의 육화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천주성과 인성이 하나로 합치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한없는 고통으로써 세상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무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110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성령 안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던 분을 오롯이 모셔가 신적이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 가신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성모님의 영혼과 함께 육신도 하늘에 올림을 받아 당신의 아들 예수와 같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부활이며 성모 신심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신 성모님의 신심을 본받아 마지막 날에 성모님과 같이 기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성가정의 벗 (제2호)1976. 8. 1

7) 성 탄

예수 성탄! 예수 성탄!

이 땅 위에 천주성자 내리시는 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들의 참된 형제가 되시는 날. 온 인류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보다 더 크고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시기에 당신을 낮추어 내려오시는 일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아래에 천하 만물을 두고 계실 때문에 당신보다 높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비길손가, 드높이 앉아계셔 하늘땅을 굽어보시거늘?”(성영 112)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들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은 그분을 본성이십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4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3. 기고문 111

첫 번째는, 바로 예수 성탄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예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안하시는 확실한 표시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사랑 또한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천주 성부의 외아들께서 영원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때에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좋은 빵, 맛있는 빵의 모습을 취하고 오시는 하느님을 어떻게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느님은 빵처럼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맛있는 육신의 양식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빵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리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몸인 성체를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곁으로 재러오시는 것은 항상 계속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그리고 매일 매일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빵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내려오심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세상 마칠 때 “천주 성자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루카 21, 27)는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과 빵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잘 모신 사람은 그때에 하느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은 하느님의 자녀 된 우리들 마음 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될 이루는 신비체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같은 양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야들의 마음속에 까지 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불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성소, 특히 수도자들의 성소입니다. 우리들은 말과 모범으로 또 애덕 행실로써 그들을 우리와 한 형제 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방에 나아가 하느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느님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성가회 수녀들이 성소는 바로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어 사랑을 내려 보내는 성소입니다. 예수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먹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유 등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한 가지를 명심합시다.

“하느님께서 내려오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특히 예수께서 내려오심을 방해하지 마시오.”

성가정의 벗(제3호) 1977. 1. 15

8)세상의 변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었다. 종사나 사업에 실패를 했다. 집안에 불화가 있다 등등……

우리 수도자들은 이런 슬픔 중에 있는 아웃들을 특별히 잘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모르고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슬퍼하기에 앞서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3.기고문 113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길목에서 어떤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특히 갈바리아산에 있었던 그 세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강도의 십자가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착한 우도처럼 보속하는 뜻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참아 받을 것입니까? 혹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순명과 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몇 명의 부임들이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싸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로 갔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예수께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았고 장례도 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주의 몸에 향료를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 끝장이 난 것이었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 커다란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 중 특히 막달레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마구 울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유다스는 어떠했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날, 이를 알지 못한 유다스는 자신의 엄청난 죄를 생각하여 통분하였고 자책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께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히 다른 이들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제할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왕은 그 슬픔과 걱정 가운데서도 서로 신뢰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요왕도 큰 고통 중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도왔습니다. 돌은 굴러 무덤 입구도 막았습니다. 이러한 큰 슬픔 중에 있을 때 아침 일찍 생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던

114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그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호기심보다 은밀한 희망, 보다 벅찬 기대를 안고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왕은 예수의 몸을 싸매었던 수건이 잘 개켜져서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 즉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심 중에 있거나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슬픔을 견디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레나와 같이 울기만 하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슬픔과 근심을 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마다 부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끝을 모르는 미움이 들끓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헤어가지 못하는 빈곤함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슬프습니다.

그러나 울기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만하고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까? 유다스처럼 세상의 불행을 보고 화가 나서 반항일 분이며 지나가는 분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어 지지 않고 오로지 양심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왕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항상 가르치고자 하셨고 또 항상 바라고 계셨던 바가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참 생명을 더 많이 심어 주시려하셨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이 같은 주님의 원하시는 자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통이나 근심이 많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음란한 생각이 있더라도, 게으름이나 부족함이 많더라도 고백성사로써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냅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사악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는 맙시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활과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며 그 희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희망을 모데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가정의 벗 (제4호) 1977. 4. 10

9) 천당 가는 길

8월 15일 성모 승천축일이니 이날은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에 불러올림을 받아 성부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님께서 어떻게 사셨기네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으셨습니까?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오롯한 신덕의 길입니다.

예수RP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코16,16)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모님은 신덕의 힘들고 험난한 길을 하느님께 의탁하여 순명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으므로 영예의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I. 마리아께서는 나자렛에서 그의 첫 신덕을 노래하셨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께 오시어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루가 1,31-32)고 이르셨습니다.

116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란 말씀을 듣고 성모님은 이 말씀의 선언이 곧 자기 안에서 실현되리라는 것을 믿으셨고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가식이나 가장된 겸손 없이 단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살〇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한 한없는 신뢰함 안에서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마르1,38)라고 노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느님의 계획안에 선택되신 성모님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명백히 그리고 조금씩 그의 뜻을 가르치셨고 성모님은 그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성모님은 평생 동안 날마다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사셔야 했고 또 스스로 의문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기가 인태 된 그 순간에는 그 사실을 먼저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셨을 것이며 예수께서 자라시는 동안에는 이 아기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왜 외양간엿 나셨으며 목동들, 삼왕 외에는 왜 아무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고 왜 섬김을 받지 않으셨을까? 천사의 말씀은 “이 아기 위대한 분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왜 노인 시므온은 이 아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찢리듯 아플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아니되었을까? 천사는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나 왜 자그마한 고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목수 노릇을 하며 생활해야 했을까?

이 모두가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였을 것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하여 고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를 체포하여 갖은 모욕과 고통을 주고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를 주님 주님하고 따랐던 사도들까지도 모두 도망가 버리고 성모님 홀로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 예수의 참혹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성모님은 끝까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셨습니다.

3.기교문 117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마태8,10)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 보다 성모님께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II.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모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성모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 오히려 신적 도리를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격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가24,26)는 말씀과 같이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 수난의 공로로 성신의 빛을 받아 예수가 누구신지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우신 교회의 도움 아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쉬워졌습니다만 예수 수난의 공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 계셨던 성모님께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신 아들의 무수한 고통과 참혹한 죽음만을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하심은 이러한 그분의 믿음에 대한 마땅하고 충분한 댓가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모 마리아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1,45)

그리고 또 “성모님의 이 완전한 믿음 때문에 온 백성이 저를 복되다 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찬양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리 견디어 내기 힘든 지경에 처 하더라도 성모님께서는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앙을 보존하셨습니다.

118 제1부 성 계덕 신부가 남긴 말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머니의 신앙을 항구히 따르도록 합시다. 온갖 환난과 박해, 걱정과 의혹 그리고 유감 중에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평안한 손길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시다.

오늘날 세상은 극심한 어두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은 우리의 신앙만이 그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기구합시다. 성모님과 같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청합시다.

10) 사제서품을 축하하며

요즈음 여러 곳에서 사제식이 있었고 곳곳에서 첫 미사를 드리는 세 신부들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 수녀원에서도 새 신부님들에게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사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들의 성직을 충실하고 풍부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사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참 천주시며 참 사람이시며 또한 호로 참된 사제이십니다. 성직자는 예수님을 대신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므로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3.기고문 119

예수께서 전도하러 다니실 때, 하루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몇이 예수께 와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마태오11,3)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마태오114-6).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사제이셨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충직한 성직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1. 소경이 보게 됩니다. 이 소경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어두운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외교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비신자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 주겠습니까?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는 사제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사물을 비추는 태양빛이 아니고 마음을 비추는 은총의 빛입니다. 성직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속에 있지 않으리라” “온 세상에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진리의 빛을 보이라.” 하셨으니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사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복된 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과연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시도록 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습니다. 절름발이라 하심은 진리를 조금 알지만 용기가 부족한 탓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마귀에게 잘 속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대리자인 성직자들입니다.

120 제1부 성 제덕 신부가 남긴 말

3. 나병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이러한 병자도 역시 죄인들이며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독한 상처가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주님의 모상을 잃었던 자들이 많습니

다. 그러나 착한 사제를 만나면 성 아오스딩과 같이 다시 주님의 모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환자에게 “나하고 저가 하나이니 조찰하여져라.”하신 말씀은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4.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이들도 되 중에 머물기를 고집하여 지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회개하게 하려고 사제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 혹은 책을 통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권합니다. 예수와 같이 “에페타(열려라).”라고 수십 번 외쳐도 그 귀를 열게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때때로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러한 큰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5.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상존성충을 잃었던 자들입니다. 영혼 생명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한 말과 같이 그들은 죽은 아들입니다. 그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뿐이십니다. 혹은 하느님의 대리자이신 사제를 통해서 뿐입니다. 사제가 고백성사를 주실 때 “라자로여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신 예수의 말씀과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이 같은 기적은 지금도 사제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압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순명하며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압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3. 기고문 121

예수께서 가난에 애해 가르쳐 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가난함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 중에 가난한 자가 많이 있으면 그것 또한 큰 영광의 표징입니다.

면병과 가난한 이와 사제의 형상 안에 항상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합시다. 세례를 받은 모든 믿는 이들과 모든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다 사제직을 받았으나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고 특히 영혼 육신의 병을 고쳐야 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참 사제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구원주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참 사제를 많이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이 땅에 당신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성가정의 벗 (제6호) 1977. 12. 25

11) 생명의 축일 : 부활

부활축일은 생명의 축일입니다. 하느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성장시키며 재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고기의 알이나 나무 열매 씨의 수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마음에 언짢다.”(에제 18,32)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가르치는 k 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고귀한 생명마저 함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도밍고회의 신부님RP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 묵상한 “어떤 태아의 일기”를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일러나는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122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어떤 태아의 일기”

- 5월 1일 : 사랑으로서 오늘 나의 부모님이 나를 잉태해 주셨습니다.
5월 15일 : 나의 첫째 혈맥이 나타나고 육신도 크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 벌써 나의 입이 생겼습니다.
5월 21일 : 나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으니 나의 생명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5월 22일 : 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큰 걱정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월 28일 : 나의 두 팔과 두 다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펴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6월 8일 : 나의 손끝에 아주 작고 예쁜 손가락이 생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겠지요?
6월 16일 : 어머니께서는 오늘 비로소 내가 잉태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6월 20일 : 나는 여자아이로 태어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6월 24일 : 나의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나타났고 아픔도 느낄 수 있습니다.
7월 5일 : 머리털과 눈썹이 생겼으니 나는 이제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7월 8일 : 눈꺼풀을 감은 속에 나의 눈은 완전히 생겼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아름답고 큰 세상을 또 누구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게 될 것입니다.
7월 19일 : 나의 심장이 힘차게 뛰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걱정할 것 없고 기쁩니다.
7월 20일 : 오늘 나의 어머니는 돌연 나를 거부하시고 나의 몸을 산산조각을 내어 죽게 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3. 기고문 123

엄마는 이 어린 생명을 버리고 죽게 했으나 능력의 하느님께서 어느 날 이 생명을 부활시켜 엄마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12) 성녀 벨라뎃다의 칠고

벨라뎃다 성녀는 지금으로부터 백 오년 전인 1879년 4월 16일에 죽었습니다. 1858년 돌아가시기 21년 전에 만나 볼 수 있었던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이제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훗날이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벨라뎃다 성녀의 거룩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참으로 신비하게 여겨지는 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칠고를 기리는 것과 같이 벨라뎃다 성녀의 칠고 또한 깊이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벨라뎃다에게 발현하셨을 때 미리 그의 고통을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복을 많이 주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후 세에만은...” 하신 말씀과 같이 훗날 벨라뎃다는 정말 성모 마리아께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벨라뎃다의 칠고는 무엇이겠습니까?

124 제1부 성 재덕 신부가 남긴 말

그 첫 번째 고통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루르드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성모님을 죄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삼일간이나 기차를 타고 가야하는 먼 느베르읍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벨라뎃다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다른 세상에 간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고통은 딸로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도움을 주지 못 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성녀는 그 대신에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소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걱정이었습니다. 집안의 누군가가 병중에 있을 때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접할 때 특히 더 걱정하셨습니다. “딸로서 내가 법적 상속자인데 우리 지방 풍속대로 내가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성녀는 자신의 성소까지도 의심하여야 하는 심적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셋째 날마다 수십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성녀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쁘게 응접실로 나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넷째 활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기쁘게 살 구 있을 까?” 라는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야할 길은 다 따로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자. 그 뜻에 기꺼이 따르며 그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 여기자.” 하시고는 순명하셨습니다.

다섯째 수련장이나 장상 수녀님들에게서 받은 고통이 있습니다. 수련장 수녀님께서 벨라뎃

다 성녀를 어쩌나 엄하게 다루셨던지 그분을 묘사한 만화가 여러 책에 수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은 루르드에서 성모님을 만나 뵈 벨라멧다를 검은 속에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3. 기고문 125

사실 벨라멧다와 다른 수녀들과는 교육이나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자연히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벨라멧다는 윗 수녀들과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잘 참아내었고 또 이런 고통은 다른 고통과 비교하면 다만 부수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섯째 고통은 여러 병고에 시달림이었습니다. 몇 분의 증언을 들어 보면 벨라멧다는 죽기 2년 동안 가슴이 찢기는 고통, 피를 토함, 대동맥 확장 증, 위장장애, 무릎의 종기, 척추카리에스 등의 고통으로 시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결핵도 앓고 있어서 벨라멧다의 몸은 마치 온갖 병의 집합소 같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원장 수녀가 벨라멧다를 방문하였을 때 벨라멧다가 누워 있음을 보고는 “게으른 소녀여! 여기서 너 무엇을 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나의 소임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하고 벨라멧다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그 소임이 무엇이냐?” “병을 앓는 것이지요.”하고 벨라멧다는 정답게 대답하였습니다.

일곱째로 내적인 고통입니다. 벨라멧다는 여동생 율리아에게 “숨이 막히는 것도 대단히 괴로운 일이지만 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며 무시무시하기까지 하다.”라 하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면... 나를 위하여 기구해 주십시오. 아! 성모 발현은 지금 검은 밤 속으로 사라졌네!” 하였습니다. 성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주교가 다시 한 번 그 발현에 대해서 질문하러 오셨습니다. 벨라멧다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성은 지금부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며 또 저는 속이지 아니 하였습니다.” 성녀는 그 때 짙은 어둠 속에서 사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으로 얼룩진 인내의 밤들이었으나 그 밤은 하느님께로 향한 믿음의 밤이었고 하느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희망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항상 그 은총을 내가 잘 못 받을까 그래서 벌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성가정의 벗 (제11호) 1984. 12. 1

126쪽부터 156쪽까지 노래 때문에 못 읽.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1. 성모 마리아 159

1. 성모 마리아

1) 원죄 없으신 잉태

1976. 1979

원죄는 태초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구렁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한 남성 아담인 예수와 새로운 한 하와인 마리아가 구원의 역사 속에 존재하심도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하와이신 성모 마리아에게만 원죄로 더럽혀져 있지 않은 순결한 영혼을 지니게 하심과 그의 원죄 없이 잉태하심 또한 믿고 있습니다.

2세기에 살았던 성 이레네오는 말씀하시기를 “복극에는 24시간 내내 밤이 없고 낮뿐이다.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을 본다. 태양이 지지 않는 곳...” 마리아의 거룩함은 성 이레네오께서 북극에서 본 태양에 비길 수 있습니다. 죄 없이 잉태하셨고, 일생동안 죄 없이 살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밤도, 저녁도 없는 대낮같습니다. 아미아가 원죄 없이 잉태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었고 또 당신 아드님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셨으므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60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1. 하느님은 마리아 안에 원죄가 스며드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식들을 위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에 물듦 없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잉태하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리고 세레자 요하의 경우를 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맡길 임무를 생각하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을 만방에 전할 임무를 받았고 세레자 요하는 하느님의 다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닦아 놓을 임무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인들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바다를 갈라놓게 하신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실 분을 더러운 원죄에 물듦 없이 깨끗하게 보존하실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2. 마리아에게 스며드는 원죄를 하느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에게는 아들의

영광과 치욕이 곧바로 자신에게 더 큰 영광과 치욕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광과 치욕은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길을 향해 아들이 떠나도 어머니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가 나쁜 평판을 받음으로써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도 꼭 같은 것입니다. 정의의 태양이시고 절대적인 성성을 지니신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흠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마리아가 죄 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개 월 동안 그분의 몸은 예수님의 감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입 맞추었으며 미소를 교환하며 30년간 다정하게 함께 사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죄 없는 상태에 계셔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인들과 천사들보다 높으십니다. 만약 그분이 죄 중에 나셨다면 아담과 하와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며 천사들의 찬미를 받으실 자격이 있겠습니까? 천사들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도 주신 은혜를 천사들의 왕후이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거절하셨겠습니까?

1. 성모 마리아 161

3.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참 인간의 모습,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의 인간, 바로 하느님 당신의 모상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주셨고, 그 것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느님께서 뱀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창세3,15)하셨습니다. “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 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로들인 것 같아...”(로마5,12)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원조 아담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받게 된 엄청난 고통과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영혼은 나면서부터 원죄의 더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 그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라고 말한 것처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지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죄에 더럽혀졌다면 천사가 그 같이 인사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동안 아주 작은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만이 이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하시고 마침이 없는 빛나는 새벽이십니다. 밤도 저녁도 없는 대낮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잔다르크를 알고 계시지요. 그분은 군인들과 같이 기거를 했지만 아주 순결했으므로 그 여인 앞에서는 군인들이 감히 불순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마리아와 함께 살고 그분 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성모 마리아와 같이 순결한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에 좀 더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2) 성모 영보

1979. 1981

성탄에 대한 옛 날 이야기 하나 할까요? 성탄 밤이 지난 이른 새벽에 아기 예수 옆에서 마리아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아주 짙마르고 나이가 든 부인이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은 아기 예수를 보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에서 구유까지 바로 그 곁이었음에도 그 노인이 아기 옆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아기에게 몇 마디 하는 것 같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는 그의 주머니에서 빨간 사과를 꺼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원에서부터 이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것을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아기는 그것을 쥐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제야 그 노인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훨씬 컸고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아주 젊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 부인은 기쁨에 가득 차 마치 몇 천 년 전부터 끌고 온 굉장히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존경을 다하여 그 부인은 마리아에게 인사를 드리고 “마리아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하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인류의 두 어머니들이 예수 아기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 날 전설입니다.

1. 성모 마리아 163

1. 마리아와 하와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와와 마리아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같이 상존성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었으므로 물론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더욱 사랑하셨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으니 하와는 죽음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 하는 가운데 창조되어서 죽음과 고통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아담과 원죄 이후에 태어났으므로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으나 하느님께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세주의 모친은 시련과 근심 중에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초성생명을 얻어주셨습니다. 하와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되었다면 아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하와가 죄를 지으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와 역시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것은 빛의 천사가 아니고 어두움의 천사, 뱀의 모양을 한 천사였습니다. 우리들 보다 월등한 지성을 가졌음에도 물고하고 하와는 그 꾀에 빠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와는 하느님께 불순명했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과일을 먹었고 그녀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하느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 2,17)하와가 지은 죄의 열매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첫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첫 죄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눈물도, 고통도 없을 것이며 병원, 감옥 같은 것도 전쟁이나 원자폭탄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164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와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하느님의 아들, 딸들의 어머니는 되지 못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은 전해 주었지만 영혼의 생명은 전해주지 못 했습니다. 하와는 하느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3.수천 년 후에 하느님은 마리아와 함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생각 없이 빨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착한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상황에 접해서 마리아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몇 마디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임을 알았을 때 믿고 순종했습니다. 겸손되이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녀가 허락하심으로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댓가로 죄인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이 세상에 기쁨을 다시 주셨습니다.

결론 : 인류에게 두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영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상 낙원의 큰 나무 왼쪽에는 하와가 금지된 과일을 손에 쥐고 있고 오른쪽에는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어머니인 하와는 생명을 주었지만 죽음도 주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와와 같이 하느님을 거스르지 맙시다. 하느님께 다한 불순명은 영원한 죽음과도 같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마리아의 순명하시는 덕행을 본받으며 그분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공을 쌓도록 합시다.

1. 성모 마리아 165

3)정결례 (주의 봉헌 축일)

1973

미사 때마다 여러분 중에 두 분 수녀가 빵과 포도주를 사제께 드립니다. 이것은 작은 예절이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1. 이 축일을 이제 ‘성모취결례’라고 부르지 않고 ‘ 주의 봉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축일이 아니고 주님의 축일이며 예수님이 성부께 자신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들은 항상 아버지께 자신을 바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아들들 중에 가장 훌륭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희생 제물과 봉헌 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히브10,5-7)라고 사도 바오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봉헌을 혼자서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후 40일 되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공적으로 장엄하게 이 봉헌의 재현을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희생제물은 예수님이시고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 백 마리의 소, 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제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166.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2.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을 봉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 영혼, 당신의 생, 활동, 일, 고통, 기쁨, 수난, 성혈,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당시의 현재와 미래,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모든 신비체를 바치시고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해야 될 것과 내가 할 것, 당신들이 할 것, 이 모두를 바치셨습니다. 이 봉헌은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3.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만큼 거룩하게 바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것은 성부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용서 청함을 받기 원하셨고 하느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죄를 씻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용서와 구원을 얻어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4. 교회는 빛에 관해 수 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토요일 밤은 빛의 축일이며 공현 날이고 별의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빛의 축일로써 초를 축성하고 행렬을 합니다. 이 축성된 초를 집집에 가지고 가서 임종 자가 있을 경우 마귀의 유혹을 쫓기 위해 촛불을 켜 임종 자 곁에 놓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고 참된 빛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분 없이 참된 진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진정한 행복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봉헌 제물이 되신 예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1. 성모 마리아 167

믿음과 성세와 성체에 의해 예수님과 결합된 우리 사랑의 가장 훌륭한 증거는 우리를 하느

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서원 하는 날, 이미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하느님께 바치는 마음을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봉헌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이고 관대하고 기쁜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봉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가진 것 모두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을 바치셨듯이,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봉헌하려고 하였듯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얇은 속임수와 알팍한 희생으로 봉헌하지 말고 온전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칩시다.

4)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다

1977. 5. 31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루가1,42)

교회는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더 높이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축일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응되는 마리아의 축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축일과 마리아의 탄생 축일, 예수성심과 성모성심 축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축일, 예수 수난과 마리아의 통고 축일 등이 그렇습니다.

168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복음을 읽을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은 아담을 벌하셨으나 즉시 마리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죄악의 역사가 한 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구원의 역사 역시 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요나, 모세, 라헬, 유딧, 에스텔 등의 인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경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동들과 삼과 삼왕들은 마굿간에 계시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은 오로지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계셨고 그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맨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도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마리아께서 그 곁에 계시면서 제일 첫 번째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시며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신이 사도들의 머리 위에 내리시면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 또한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큰 은총을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마리아 이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바로 한 몸이니 예수님과 마리아 또한 한 몸이십니다. 아 두 분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사이임을 밝혀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지주의라는 구실 아래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은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겸손과 단순성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 성모 마리아 169

1. 마리아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온전히 아름답고 죄에 때 묻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를 그 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 하느님은 6일 동안이나 손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는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를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들이 모인 것을 바다라 이름 하셨듯이 모든 은총이 모인 것, 그러한 분이 바로 마리아이십니다. 우리 최초의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므로 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로 더럽혀졌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오로지 마리아만이 이 원죄에 물들 없이 나시어 마치 백합화처럼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뵈고서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날도 역시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그 분을 공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 분께 같은 찬미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분께 같은 찬미를 드리십니다. 우리도 그 분께 한번만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찬미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찬미하고 공경합시다.

둘째, 마리아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도구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 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그리고 당신 수난의 멍가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능력으로 능히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꼭 필요한 도구이셨습니다.

170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이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 혹독한 십자가의 형벌을 참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 주겠습니까? 오직 마리아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해 주시기를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사제란 누구인가?

사제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제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나도 사제입니다. 그러나 나 홀로로서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제입니다.

훌륭한 대성당에서 나는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제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성부께 제물로 바치셨고 이로써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사이를 원래대로 복원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몸을 제물로 바치신 거룩한 제사였으며 이 예식이 바로 미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제가 되신 대성당이며 예수님 자신을 봉헌하는 제단입니다. 사제이신 예수님은 이 거룩한 제사인 미사를 이 세상 마치는 말까지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우리 어머니이십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간구할 때마다 혹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거나 할 때나 하느님께 무엇을 바칠 때마다 우리는 제단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성당이고 제단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녀가 될 것입니다.

1. 성모 마리아 171

3.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에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라는 구절처럼 성령과 마리아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있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사랑스런 자녀가 되도록 성령과 마리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를 본받고 그 분과 잘 일치하면 착한 수도자, 성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올바른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알하는 데에 미온적인 사람들이 나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4. 마리아를 통해 성부께서는 당신의 큰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 한다 하시면 끝까지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은총을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의 조국을 위해, 여러분들의 수녀원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 하십시오. 그 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아 주셨는데 어찌서 다른 모든 축복을 줄 수 없겠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구 분께 기도드립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 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마리아께 인가 드릴 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놀랍니다.
내가 마리아께 기도 들릴 때 마귀가 도망치고 지옥이 떨립니다.

172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내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세상이 천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가 슬플 때 기쁨이 됩니다.
마리아께 기도드릴 때 신심이 증가되고 위로가 옵니다. 바람(ESPERANCE)이 커지고 성덕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5) 성모 승천

1968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1, 45)
엘리사벳은 성령의 은총으로 마리아의 영광을 우리보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들 눈에 그저 단순하고 가난한 보통 부인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그의 얼굴이나 말씨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선함과 거룩함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많은 공로 중의 하나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분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 했습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 안에서라도 그 분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가산이 망한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하는 어려움에 처하면 하느님을 믿지 못 합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하셨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는 성모님의 이런 신심에 대해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성모승천은 성모님의 믿음의 표징입니다. 성모님은진실로 믿는 이들의 왕후이십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라고 한 부인이 소리칠 때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 성모 마리아 173

예수님은 “또한 천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 더 복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

아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부터 예수께서 갈 바리아산에 돌아가실 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더 믿으셨기에 세상 누구보다도 복되신 분이십니다. 간혹 마리아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충분한 은총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읽어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확신하는 데에 더욱 큰 신앙이 마리아께 요구 되었었습니다.

천사의 방문 이전에 마리아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기도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방문하여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 게 될 것이다.”(루가 1, 35)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 38)라고 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믿으셨습니다.

한 치의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아기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자라나고 있을 때에 약혼자인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인간 세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시련을 마리아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 이것은 그리 큰 시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분은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믿으셨으므로 그 모두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루가1, 32)라고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였는데 왕이신 아기가 태어난 곳이 마굿간이라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아기는 메시아이다.” 마리아는 예수의 영광이 빨리 도래하기를 매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맹인처럼 여전히 믿어야만 했습니다.

174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에집트로 도망도 가야했습니다. 나자렛에서는 헤가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가고 하지만 언제나 별 특별한 것이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아기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보다 얹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며 걸음마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도와 줄 만큼 자라나자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인가? 어느 날 마리아는 그를 잃어버리고 큰 걱정을 하던 끝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 나선 부모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루가 1,49)하셨지만 그들 부부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셨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셔서 요한 세자를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으시고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가 저기서 당신을 만나시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섭섭하셨지만 이해를 하셔야 했고 하느님의 약속을 더욱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를 점점 적대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곤경에 처해 계실 때,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당신 아드님 예수가 처한 곤경이기도 하지만 저토록 무능하게만 보이는 아들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는 지독한 고통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고 천사가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아드님의 상황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1. 성모 마리아 175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모님은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당신 아들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신 안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배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고통을 마리아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의 재자들이 다 도망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루가 9,22)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더없이 강하였으며 이는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앙 안에서 정말로 고통을 받으셨고 마침내 아드님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거룩한 부인들과 사도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마리아는 그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중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께서 갈바리아에서 예수님과 고통을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에도 일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성모승천입니다.

믿는 자들은 진복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집시다. 비록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건디기 힘든 것이라 해도 교회도,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그 모두가 헛것으로 보일지라고 하느님 안에 신앙을 가집시다.

176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6) 성모 승천

1974

솔로몬은 그의 영광중에 자기 어머니를 모십니다.

솔로몬왕의 모친 바세바가 아들을 찾아갔을 때 솔로몬 왕이 즉시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큰 절을 하고 다른 어좌를 가져다 어머니를 자기 어른 편에 앉게 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오늘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과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인 바세바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들입니다. 마리아께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것은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을 찾아간 것과 같은 예입니다. 옛날에 동양에서는 왕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머니나 부인까지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관여하지 못 했습니다. 역시 에스텔도 왕실에 감히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은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 솔로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바세바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녀를 자기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이는 아들로써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는 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실 때 마리아는 왕후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지니고 가셨습니다.

1. 마리아는 왕후이시다.

교회는 마리아를 SALVE REGINA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혈통에 의해 왕관을 물려받음으로써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여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분은 자신을 항상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이 같은 최상급의 예우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 성모 마리아 177

그것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그의 순결한 육체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전혀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만이 하느님의 아들을 강생케 하는데 협력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만이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육신과 예수님의 육신은 같은 육체입니다 그들의 사랑도 같은 사랑입니다. 대천사가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할 때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가 되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과 어머니의 영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시면 마리아는 당연히 왕후이십니다. 교회가 그분을 왕후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공로로 얻은 영광이라 하느님의 영광과 같을 수 없습니다. 천주성의 영광은 전달되지 못 합니다. 교회가 “달처럼 아름다운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가 빛을 주는 태양은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영광을 빛내는 거울입니다.

2. 마리아는 하늘의 왕후일 뿐 아니라 어머니이십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은 마리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모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림을 받은 것은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또는 다른 종교에도 없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직접 무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심판자이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 오늘도,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에게는 자비로우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178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한심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께 기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과 마리아께서 모이신 모범으로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고아는 정상 아이들과 다릅니다.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때로 너무 엄하고 정이 없고 따뜻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종교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외에는 아무도 성부를 알지 못 한다.”라고 말씀했다면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성자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오랫동안 함 RP 사셨고 그를 가르치신 훌륭한 선생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와 오래 사신 것은 어머니로써 우리를 계속 교육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격히 다스리시는 아버지와 더불어 그 곁에서 순종을 하도록 조용히 타이르는 다정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없는 교회는 마치 꽃이 없는 장미나무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므로 우리를 위하여 천주께 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신 마리아는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변호인으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시며 또 우리를 교육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전심으로 어머니 곁에 머물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머니보다 더 좋은 옹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성모 마리아 179

7) 성모 승천

1976. 8. 15

마리아께 영광! 마니피캣!

오늘은 사도신경의 한 절인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목하면서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구원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또한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마리아도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과 마리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 매년 8월 15일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즐거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휴식의 기시, 즉 바캉스의 시기이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산으로 바다로 일광욕과 해수욕을 하는가 하면 시골로도 갑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 태양, 물, 땅 등 자연을 갈망합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한국은 더욱이 일제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나라의 독립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광복절이기에 더욱 기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동물이기에 육체의 건강 못 지 않게 영혼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육신이 원하는 만큼 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뵈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천국. 이것 역시 유쾌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는 크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지진과 홍수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들, 사고로 건지 못하거나 손이 굳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된 사람들, 병이나 상처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재앙을 지금은 당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그러한 재앙을 당할지 모르고 삽니다.

180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혹은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간에 누구나 한 번은 죽을 것이며 그리고 오래지 않아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것은 슬프고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행합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예수부활과 성모승천 축일이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성모 승천축일! 이 축일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이가 죽을지라도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육체의 변모로서 오늘 그분을 당신의 크나큰 영광으로 들게 하셨습니다. 성 요한은 “하느님께서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요한복 2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이 여성, 영혼과 육신에 흠이 없는 이 여성이 바로 마리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과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승천은 예외적인 은총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승천은 우리 부활의 예표이며 그로써 우리 영혼은 죽음의 암흑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 육신은 다시 꽃 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습니다.”를 외칩시다.

2. 오늘 복음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집안끼리 서로 돕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노부인 엘리사벳이 한 아기를 머지않아 갖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기에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마리아는 착한 소녀처럼 엘리사벳의 살림을 도와주러 갑니다. 가는 길에 마리아는 당신의 비밀을 생각합니다. 온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다니...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지만 그 마음 속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마리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다. 마리아는 외모로 아주 평범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왕후이시고 땅의 왕후이십니다.

1.성모 마리아 181

마리아는 승리의 부인입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구원된 인류와 새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리아의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광은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애기를 낳히는 작은 침대를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비록 요람이 금으로 된 것일지라도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기이지 요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은 예수님의 요람입니다. 마리아에 있어 가치를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애기를 바라보고 “엄마를 꼭 닮았구나!”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를 꼭 닮았구나!”가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를 닮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성모 승천은 마리아께서 쌓으신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부활은 우리 신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한 분이십니다. 늘 그분들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에서도 하느님은 마리아와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 묵시록 12장 끝부분에서도 하느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인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요한 12,1)그리고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리아께서 거기 계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온 인류가 구원되어 부활할 때에도 마리아께서는 거기 계실 것입니다.

182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3. 복음에는 마리아에 관한 조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구원된 인류의 해방을 노래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재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 설레 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루가1 46, 47)

이 노래는 신앙의 노래였습니다. 성신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훌륭합니다. 16살의 젊은 처녀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인용했고 시편을 인용하셨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이 하느님 백성을 대표한 다고 느끼셨고 더욱이 전 인류와 전 역사가 마리아에게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은 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고통 받는 보잘 것 없는 이들을 생각하십니다. 마리아가 알리는 복된 소식은 부자나 지식인으로부터 오지 않고 여종과 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로부터 옵니다. 이 노래 속에서 왕좌는 무너지고 교만한 자들이 넘어지며 부자가 굶어 죽는 것을 봅니다. 정이 많으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십니다. 그분의 냉정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진실한 신자나 수도자는 이 노래를 들으면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매들이여! 오늘 마리아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육신이 천국에 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 “이는 내 몸이니라...” 여러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은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의 확실한 희망에 축하드립니다. 마리아는 우리 운명의 약속이며 보증이십니다.

1. 성모 마리아 183

8) 성모 승천 (루가 1, 39-56)

1975. 1981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모 승천 날은 3가지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모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불러올림을 받으심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창조물로서 천사와 성인들의 영광뿐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영광까지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가 쌓은 공적에 따라 그 영혼에게 상을 재리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당신의 전 생애에 모든 성인의 공적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공적을 쌓으셨습니다. 마리아의 공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착한 구도자들이 쌓은 공적과 같은 공적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죄를 범하는 데에는 3가지 원천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재산, 눈의 쾌락을 좇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만과 관능과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3대 성원을 통하여 이 유혹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가장 순결하시고 가난하시며 순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도자 중에 가장 모범적인 수도자이십니다. 마리아가 오늘 받으신 상급은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184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1. 마리아는 가난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누가 그분의 겸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전 생애를 돌이켜봅시다.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집트 성전에서, 예수님과 나자렛의 숨은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3년간 공생활 중에도 그분은 한 마디 불평의 말씀도 자랑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가난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조용했고 숨어 계셨으며 부지런하셨습니다. 갈바리아 산에서의 그의 순명과 겸손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마리아는 구대로 계셨습니다. 마치 여종처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말W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놓지 않으시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첫째로 가장 높이 들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dfj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인이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 되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끊임없이 되를 범하고 있으며... 정말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모님의 그 한없는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들어 올림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정신과 가난한 생활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오르기 위해 먼저 내려가야 되는 것은 하나의 철칙입니다. 마리아는 내려가실 줄 알았기에 오히려 높이 들어 올려지고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1. 성모 마리아 185

2. 마리아는 정결하십니다.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많은 고통을 참아내셨고 그래서 큰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가 24,27)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마리아만큼 고통을 당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것보다 더 아프게 느낍니다. 또 성인은 죄인보다 죄에 대해 더 괴로워합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였고 또 성녀이셨으므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아픔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하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날, 시므온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루가 2,35)라고 예언하였듯이 마리아는 항상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아드님 예수께서 죽으실 갈바리아 산으로 가시면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 많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홀로 피로 물든 십자가 아래에서 한없이 우시고 계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고통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마리아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명합시다.

악한 부자를 생각해 봅시다. 매일 연회를 베풀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것은 다 하여서 고통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하늘에 쌓아준 공덕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옛날에 너는 고통을 받지 않았으니 오늘 고통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거절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며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당신께서 당하신 고통의 길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 갑시다.

3. 마리아는 순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언뜻 생각하기에 대단히 연약한 분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힘이 있으시고 강인한 분입니다. 온갖 고통을 다 참아내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진복자다.” 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순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묻고 따랐습니다.

186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항상 순종하셨기에 하늘과 땅의 왕

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은총의 분배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시므로 성모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욱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성인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여러분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안락함을 청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잃게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면 마리아처럼 사십시오. 순종과 순결함에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지금의 괴로움이 훗날에 크나큰 기쁨을 안겨다 줄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9) 모든 성인의 어머니 마리아

1981. 10. 21

우리 모두가 이 수년만에 입회한 것을 聖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모델이신 단 한 분의 聖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이시기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과 가련한 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끝없는 심연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감히 우리는 그 분을 우리의 모델이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그분의 덕은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답기에 우리로서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느님께서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므로

1. 성모 마리아 187

우리에게 다른 모델을 주셨습니다. 이 모델 역시 완전합니다. 우리처럼 꼭 같은 사람이시며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분은 마리아이십니다. 이 거룩함의 왕다운 길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경탄할 동정녀, 모든 聖인들의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분을 관상하십시오.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우리들의 모범이십니다. 그의 신덕, 망덕, 애덕은 너무나 커서 어떠한 인간도 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덕의 모범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3가지 영성 생활의 장애를 완전하게 극복하셨습니다. 부에 대한 애착, 욕망에 대한 애착, 자유에 대한 애착, 다시 말해서 청빈, 순명, 정결의 서원을 완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Ave gratia plena”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1. 그분의 믿음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탁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원으로부터 마리아를 생각하셨고 그분이 당신 외아들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으며 그의 부성을 마리아와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잉태 때부터 한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영혼을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탄생 이전에 성신 칠은을 충만히 받으셨고 유일한 특전으로 이서의 지혜와 비할 수 없는 천상적 지혜를 충만히 갖추셨으며 그분의 탁월한 믿음에 의해 빛을 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빛으로부터 탄생하셨으니 바로 태양을 입은 분이십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입으신 마리아가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사촌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비록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촌 자매였지만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45)라고 외쳤습니다.

188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마리아는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안나의 태중에서, 요람에서, 어린 시절에고, 처녀 시절에도, 요셉의 아내로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소, 성전에서나 집안일을 하던 중이나 독서 중에도 하느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어느 한 순간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했듯이 “Dominus te cum”-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위엄, 거룩하심, 그분의 무량하심,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간청의 노래를 그분께 올리셨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그의 외아들을 골고타 산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기에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 큼니다. 마리아는 사도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고 갈바리아 산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으로 사로잡혀 마리아르 따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 어떤 거룩한 여인들의 신앙보다 더 큼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무덤으로 가서 직접 당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리라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을 보고 나무랍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셨기에 가지 않았습다. 또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한 구절 구절, 그리고 한 마디 마디 모두가 구약성서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보다 실체적이며 깊고 확고하고 또한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루시아 성녀를 아시지요? 루시아를 좋아하던 사람이 그녀를 짐으로 끌고 가 추한 죄를 범하려고 했으나 동정녀 루시아는 동요됨이 없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다. 그는 다시 루시아 성녀를 12 마리의 소에 매달리게 하는 고문을 하였지만 성녀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루시아 성녀와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더할 수 없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보다 확

1. 성모 마리아 189

고한 자세를 지니고 계셨으므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하여 모든 이 가운데 홀로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들으셨으며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30여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오로지 모든 것을 침묵 중에 간직하셨습니다. 성신께 항상 순종하면서 초성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믿음만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원천이셨습니다.

2. 그분의 신앙이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면 그분의 망덕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흔히 하느님에 대한 의신이나 우리 자신이 겪는 고통, 혹은 하찮은 세상의 일들,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 등으로 과로와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에 어떤 욕망도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로 인도되는 넓고 빛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하느님과 친밀하셨기에 더욱 큰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그분의 생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했기에 치명자의 모후란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반면 그분의 망덕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함,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함, 임신하고 겸손한 생활, 예수님의 공생활을 위한 이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사건에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침묵 속에서 한결같은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분명한 설명을 요구한 적은 있으십니다. 아기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리아는 천

190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사에게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가 1,34)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찾아 헤매던 이들 예수를 만나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루가2,48)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물론 당연한 그분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 중에 하느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34)하고 가도하신 예수님처럼 마리아 역시 사형집행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테파노 서인은 치명의 고통 중에 가도하심으로써 바오로의 개종을 얻으셨고 어우기 슬픔 속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모든 이들과 성 Longin과 백인대장 착한 Larron의 회두를 마리아는 믿으셨습니다.

망덕의 특성은 기쁨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망덕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슬프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하느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결핍됨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항상 기쁨 속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마리아에게 관한 말은 단 6번뿐 이고 그나마 아주 간단한 말인데 한 가지 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인 마니피캇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이 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라고 마리아는 노래하십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모든 시련 중에서도 기쁨이 넘쳐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믿음과 희망의 여왕이신 마리아는 또한 애덕의 여왕이십니다.

누가 하느님에 대한 크나큰 마리아—이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신이십니다. 성신은 아들의 영원한 부성을 마리아와 같이 나누셨고 성부의 사랑하는 딸이신 마리아 몸 안에 말씀의 강생케 하셨습니다. 성신의 그드르심으로 성신의 짝이신 마리아를 덮어 주셨고 마리아로 하여금 동정녀로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주성삼과의 친밀함을 감지하시고 그분들의 사랑 속에 기도와 정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수 없이 일치될 이루셨습니다. 마리아는 5살 때부터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하느님의 아들이 나실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들은 이런 응답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마리아의 마니피캇과 같이 진실하고 타는 듯한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기도를, 십자가 아래에서의 기도 그 모두가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밤을 자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을 말할 만큼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과리가 불에서 도망치듯 마귀도 이 사랑의 불가마이신 마리아께 감히 접근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리 괴로운 것이 아니고 평안하고 기쁘고 평화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의 영혼도 자연적으로 그의 육신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육신이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간절히 이 결합을 갈망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지극했던 만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도 그러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와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셨고 하느님 아들의 강생을 우리에게 얻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자를 얻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점을 인식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측일을 혼합하여 만든 두 전례가 있습니다.

192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로 여기시어 사랑을 베푸시지만 특히 극심한 죄 중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자비와 애정과 선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의 다양함 속에서 그 모두를 포용하시는 큰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만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께서 갈바리아 산에서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이루어 내신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성모영보축일, 틀림없이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받아 들여야 할 미래의 고통을 보여 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만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 “술이 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드님의 능력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마리아는 당황하는 사도들을 모르시고 그들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성신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마

리아는 하느님의 계명을 가장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너의 힘을 다해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마리아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시고 가난과 순명, 정결의 삶을 충실히 사셨습니다.

4. 마리아의 가난

마리아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생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왕후이시고 하느님의 딸이신 마리아, 그의 영혼은 너무도 아름답고 풍부하셨기에 성부께서는 그분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분은 전 생애를 자진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이가 그분을 한낱 목수의 아내인 보통여자로 보았고 아무도 그분을 알

1. 성모 마리아 193

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분을 누구셨던가를 아는 데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이 가장주부 역시 여느 주부들처럼 부지런하셨고 가사 일을 돌보셨습니다. 샘에서 물을 기르셨고 집안을 비질하고 옷감을 짜고 바느질하며 빨래를 하고 밀을 찧고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인이 모든 성인들의 왕후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셨던 것입니다. 아, 누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외관상으로는 평범하셨지만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한 몸에 지니셨음을... 밖으로는 오로지 가난과 큰 겸손을 드러내시고 안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 누가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외적 가난은 거짓이나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애착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 나왔음도 그분의 가난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5. 마리아의 순결

그분의 하느님께 대한 감탄스러울 만큼 완전한 사랑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의 아름다운 순결이었습니다. 헛된 욕망이나 위험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당신 방에 들어 와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혼자였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의 동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와 원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순결이 그에게 있어서 더욱 고귀한 것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마리아는 요셉의 난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 자신의 잉태에 대한 경위를 말할 법도 한 대 마리아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의 잉태에 대한 신비를 하느님이 당신 원하시는 시기에 요셉에게 밝히시리라 믿으셨습니다.

194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그의 순결은 또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던 날 나타납니다. 산을 넘고, 바쁜 걸음으로 가시는 여행길, 그분의 애덕과 예의,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분의 고요함,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간단한 말씨, 숨은 삶, 이 모든 것이 또한 그 영혼의 순결을 증거 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느님만을 알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그 무엇도 그에게 짐

으로 생각되는 것이 없었고 그 무엇도 그를 낮추지 못 했습니다.

6. 무엇보다 마리아는 순종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에 관한 복음 말씀 중에 그 하시는 말씀 곳곳에 순종이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의 봉헌에 대한 복음에서 적어도 4번이나 순종에 대한 말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주님의 율법에 의해 2마리의 비둘기를 규정을 지키려고 아기를 선전에 데리고 왔다.”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순종은 외적으로는 강요된 순명이고 내면으로는 받아들이자 않고 중얼중얼 불평이 많은 순명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원의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원의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종이 비천한 신체를 돌보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하신 그의 노래에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이 말씀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 가장 완전한 희생이며 그 사랑을 표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원의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실행합니다. 마리아에게 순명함은 하느님 뜻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순명을 하셨기에 하느님

1. 성모 마리아 195

은 마리아르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小婢女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의 복종과 순명입니다. 마리아는 전 생애동안 순명, 인내, 포기의 서원으로 사셨습니다. 자매들이여!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르 본받고 사랑합시다. 성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닮은 사람, 하느님의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마리아가 성인 중의 성인인 하느님의 아기를 만드셨습니다. “이에 성령을 인하여 잉태하시도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신과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과 충고를 들읍시다. 그분의 삶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청합시다. 아멘.

196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2. 성 요셉

1) 성 요셉

요셉성인은 성가정의 가장이시며 또한 교회의 가장이십니다. 그것은 성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가정입니다. 그러니 요셉성인이 우리 교회의 가장이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그가 성가정의 진정한 호주(가장)이시 때문입니다. 성가정은 교회의 시초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 모두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 안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께서 예수의 어머니이시므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성 요셉 또한 예수의 아버지이시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녀들 중에 만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이시고, 수호자시며, 마리아와 예수를 부양하셨고 예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가장으로서의 해애 할 바를 다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로 요셉은 성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마리아가 동정녀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곳에서 요셉이 하느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의 부성은 성가정의 부족함을 메꾸었습니다.

2. 성 요셉 197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실 한 동정녀 어머니와 동정녀 아버지를 선택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아버지보다 더욱 열렬하고 깨끗하며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요셉이셨고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의 아버지 되실 자격을 이미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부성은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과 닮았습니다. 성 요셉은 진정한 예수의 아버지이시며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한 남자가 그의 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움을 받게 허락하셨고, 당신의 (하느님의)부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 주셨습니다.

요셉이 더욱 더 아버지인 것은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계약에 의해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시고 요셉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이유로, 요셉은 진정한 성가정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의 생명을 헤로데로부터 구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쓸 데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요셉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 안에서, 그가 그의 배필이신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후대 우리들의 모범이 될 그 성가정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집트에서, 나자렛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성가정을 보호하였습니다. 연약한 마리아를 위해, 어린 예수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무식하기조차 합니다. 요셉 역시 비록 배운 것은 없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가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지를 잘 아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며 또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넷째, 요셉은 하느님의 양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빵을 마련하였고 예수의 아버지이신 요셉은 하늘의 빵을 마련하였습니다. 에집트왕이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하고 말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198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마리아는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이유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슬며시 과혼하기로 마음 먹었던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묵묵히 그 뜻에 따랐습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님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만 하지 않고 고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십자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셉과 시작한 것을 마쳤을 뿐입니다.

다섯째, 요셉은 훌륭한 교육자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느님인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아이들과 같이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곁에서, 요셉 곁에서, 걸음마,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가난에 대한 고통, 핍박 등을 배웠습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덕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덕을 얻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을 모델로 노력하셨습니다. 가끔 성당 안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성호를 가르치고,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봅시다. 요셉 역시 마리아와 아들 예수와 함께 다른 모든 선량한 유대인들처럼 저녁에 식구가 한데 모여 성경을 읽었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활 중에 하신 모든 말씀과 보이신 모범된 행동들은 바로 요셉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토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스승 중에 스승으로 공경 받아야 마땅합니다.

요셉성인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교회(성가정)는 하느님의 적을 만났으나 요셉이 성가정을 그 적으로부터 모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매순간 하느님의 적을 만나고 삽니다. 우리를 그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요셉께 청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 작은 수녀원에 가득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2. 성 요셉 199

2) 성 요셉

1955-1967-1977

구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봅시다. 태양, 달, 별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인 성조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 요셉의 전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는 하느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였기에 태양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잘할 만큼 찬란하고 바라다보는 달보다 더욱 아름다우며 천사들과 성인들 중에 가장 훌륭하십니다.

요셉은 높이 올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예수의 양부였으며 성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I. 하느님이 어떤 이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는 항상 그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서 본다면 야곱 가문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은 그의 섭리로써 요셉을 에집트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파라오의 궁에서 공부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임금이 되기 전에 미리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마리아 또한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하셨고 그 홀로 모든 인류, 모든 천사들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동정설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어머니인 이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요셉에게 맡기실 것도 결정하셨습니다.

200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요셉의 마음도 함께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시집보내기 전에 먼저 착한 사위를 고릅니다. 하느님도 당신 딸 마리아를 위하여 사윗감 중에 가장 훌륭한 사위를 찾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에 마땅히 가장 훌륭한 사윗감을 고르셨으며 그뿐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의인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셉은 예레미야처럼, 또 세레자 요한처럼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룩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고 어떠한 죄악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진정한 아버지인 동시에 남편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세상 아버지들이 모델이 되었고 남편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II. 천사보다 더 순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보다 더 순수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천사가 일러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말을 믿었고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을 잉태하였고 요셉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께 요셉은 더없이 좋은 남편이었고 보호자였습니다. 요셉 또한 마리아와 한 가지로 더없이 순수한 분이셨고 하느님의 대리자이셨으므로 마리아의 사랑과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III. 마리아의 영광중에 가장 큰 영광 역시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영광중에 가장 큰 영광 역시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마리아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아드님 예수를 제외하고 마리아만큼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느님의 딸이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십니다. 요셉은 하느님 아들의 아버지요 은총 가득한 마리아의 배필이시니 참으로 영광중에 큰 영광을 입은 분이십니다.

3) 성 요셉

1976

복음에서 성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성인의 덕행은 우리의 신앙과 신심을 기르는 데 충분합니다. 오늘 중요한 3가지를 들어봅시다.

1. 성 요셉은 성령의 역사인 천주강생(육화)의 제일 첫 번째 증인이십니다.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마태 1,20)라고 요셉에게 일러주었으며 사도신경에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라는 구절과 또 세상이 창조될 맨 처음에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기 1,2)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마리아를 감싸고 계심과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을 알게 되신 첫 증인은 성 요셉이었습니다. (또는 사도가 그 증인이라고 말한 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 요셉은 천사를 통해 비밀을 알았고 마리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고 크게 경탄하였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수도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202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2. 순종하신 예수님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였듯이... 그러나 요셉은 곧 헤로데로부터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나자렛으로 돌아왔고 목수일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부양하였습니다. 요셉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위인은 아니었으나 성가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불평할 줄 몰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가장의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 자만한다거나 혹은 못마땅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 주신 소임은 다 다르며 또 그 나름대로 모두 유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눈이 손더러-너는 나에게 소용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너는 나에게 소용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고린토전 12,21)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 성 요셉 203

성 요셉처럼 됩시다.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나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을 가장 훌륭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3. 요셉에게서 감동할 만한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은 침묵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한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왜 요셉이 침묵을 지켰을까? 그것은 예수와 마리아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고 그 마음을 읽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비녀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침묵 중에 살으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의 침묵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몇몇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요히 침묵 중에 있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이 원하시는 바를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소비녀들이여 침묵하십시오.

204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4) 성 요셉

홍산 1966, 1975

천국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여야 합니다. 또 그분들의 덕행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 중에서도 특히 성모님이 가장 많은 공경을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틀림없이 요셉성인이실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 그 축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 그는 동정녀 중에 가장 순결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고 하느님 아들의 양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영혼에게 큰 임무를 맡기실 때 이미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마리아에게 풍부한 은총을 주셔서 그녀를 거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의 양부가 될 만큼 충분하고 훌륭한 인품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에 대해 ‘은총이 가득한’ 이라 표현하였고, 요셉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일컫습니다.

1. 겸손

“여종의 비천한 신체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루가 1,48) 마리아는 상신 자신의 겸손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말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음은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놓였으나 불평할 줄 몰랐고 오로지 침묵 중에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여, 저는 죄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가 아시를 잉태하였음을 알았을 때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의심하여서가 아니라 그 아기가 약

2. 성 요셉 205

속된 구세주임을 너무 잘 알았기에 요셉 자신이 마리아와 그 아기와 함께 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생활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 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오로지 하느님과 일치 되어 있음을 몰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셉 성인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신심 깊은 영혼은 행복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요. 요셉처럼 남이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만이 하느님과 우리를 일치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2. 정결

정결은 요셉에게 가장 빛나는 두 번째 덕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천사들의 여왕이시고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마리아의 남편이 될 분이시니 천사보다 더 순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아들과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의 품 안에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결해야 하지요. 거의 30여년 동안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그 가정은 고귀한 순결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그의 순결은 더욱 더 아름다워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는 전 생애 동안 동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던 덕이었습니다. 구약에 “사랑하는 사람 백합 속에 있네!” 라고 노래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순결한 영혼들만이 합당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성 요셉께 우리도 그분처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206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3. 순명

요셉의 3번째 큰 덕은 순명입니다. 그는 항상 하느님의 원하심과 명령에 순명하였습니다. 절대로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써 그 뜻에 따랐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결혼하였고 케사르에게 복종하여 만삭이 되신 마리아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하였으며 밤중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예집트로 피난 갔으며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 하느님께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집트에서도, 나자렛에서도, 그저 묵묵히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양식을 벌기 위해 일 했습니다.

순명은 참으로 값지고 필요한 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주 성 요셉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명하는 그분을 닮읍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 안에 들어가실 때는 그분의 십자가와 가시관을 같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하느님은 그에게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주셨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으셨을 때에 그가 친아버지처럼 애태우고 괴로워하심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으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루가 2,46)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 성 요셉 207

4. 애덕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사랑을 누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그에게 두 가지 보물을 맡기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잊고 오로지 그들을 위해 일했고 또 살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의 양부로 정하실 때 그에게 친아버지로서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마리아 다음으로 요셉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 착하고 충실한 하느님의 종 요셉이여! 당신처럼 마리아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처럼 겸손과 순명, 순결, 사랑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모두 진심으로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성모님의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요셉 성인을 공경하는 이유

1972, 1978

우리는 누구나 특별히 몇몇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은인 혹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존경하며 그분들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을 따라 행하기로 마음 먹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은 특별히 요셉성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청빈, 정결, 순명의 본보기이셨기 때문입니다.

1. 성체를 받은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성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라오왕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므로 그에게 모든 것, 왕궁과 그의 나라 그리고 옥새까지도 맡겼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느님 역시 요셉성인에게 그이 제일 소중한 모물이신 예수와 마리아를 맡기실 만큼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를 성가정의 수호자로 임명하셨고 그를 예수와 마리아 곁에 당신의 대리자로 두셨습니다. 한 인간에게, 한 피조물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지상에 오실 때,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만이 천주강생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수천만 사람 가운데 하느님은 오직 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심으로써 당신 사랑의 특별하심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와 그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스승이 되게 하셨으며, 하느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또한 요셉에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무능한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가능한 한 가정 유능한 사람을 자녀들의 스승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더더욱 그러하시리라 봅니다. 하느님은 가장 적합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현명하고 거룩하며 고요한 영혼을 아시고 예수님을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것처럼 신뢰하시고 믿으셨던 분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2. 요셉성인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이시기에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마리아 다음으로 하느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충실한 자를, 순결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요셉은 더없이 겸손하고 정결하였으며 충실한 하느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2. 성 요셉 209

아버지께서는 겸손하고 작은 자들에게 당신의 큰 신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 시에 예수님의 가슴에 그 머리를 기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성인은 이런 은혜를 얼마나 자주 가졌었는지요! 얼마나 많이 자신의 팔에 예수님을 안고, 입 맞추고,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한 가지로 요셉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크나큰 사랑을 요셉께 드렸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의 예수께 대한 사랑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빛이 될 만큼 성실하고 헌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며 크나큰 사랑을 가르치고자 했고 감사함과 보답하는 마음을 가르치고자 하셨으므로 당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3. 요셉성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느님께는 우리의 봉사, 우리 재산 등이 다 소용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므로 순종한다 해도 “우리는 무용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단지 우리의 직무를 다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 대해 아무런 빛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느님이 나에게 빛을 지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빛을 진 두 분이 계시니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니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필요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르시고 요셉은 노동으로 마리아와 예수를 부양하셨습니다. 더욱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신, 구세주 예수의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분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210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어떤 사람이 왕이나 왕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왕이 그에게 무엇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서에 에스델의 삼촌 모르드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암살자가 아하스에로스왕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왕께 고함으로써 왕을 구했고 후에 왕은 그 은혜를 크게 갚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요셉의 은공에 대해서야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요셉이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공경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녀님들, 요셉 성인께 가도 많이 하십시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성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비체입니다. 성세성사로 우리 역시 하느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드님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주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요셉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성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공경을 드립시다.

6) 성 요셉의 전구

홍산

며칠 후에 우리는 우리성당 주보인 요셉축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나 또는 수요일에 내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으나마 미리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성 요셉 211

하느님은 예수와 아리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요셉이 생존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 학자들, 왕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체쳐놓고 당신의 가장 귀중한 두 모물을 가난한 목수이며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일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그가 가진 재산이나 학식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며 오로지 그 마음과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에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느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았고 하느님을 열심히 섬김으로써 위대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된 법이며 예수님도 마리아도 또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야만 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은 아마도 행복한 죽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전 생애동안 아주 겸손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다른 모든 이들이 겪는 고통과 번뇌를 제거해 주셨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가 죽음을 잘 준비하시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구세주 예수를 맡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신 요셉에게 그가 받을 영광을 미리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감사와 순종이 훗날의 영원한 삶을 기약하였음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같이 오래 갈아 아드님 예수의 참혹한 죽음을 보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셨으며 아무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의 곁에 있어서 두 분의 간호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당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 마디, 하 마디가 그의 마음을 타는 듯 열렬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넘치는 사랑과 감사가 그의 영혼을 육신에서 고통 없이 분리시켰고 그 영혼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미 하늘에 올라 있게 하였습니다.

212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누가 d{수님과 마리아를 곁에 모시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에게 기도합시다. 머지않아 우리도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일 안에 순명과 감사와 사랑의 정신을 담아 행합시다. 그릇된 부를 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상의 것에 맞 들입시다.

옛적에는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끊임없이 돌보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주보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께 당신이 보여주신 모범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7) 성 요셉과 노동

부활 후 제4주일

5월 1일은 노동자들이 축일입니다. 성 요셉 축일 또한 이날입니다. 그것은 요셉께서 노동자들의 주보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노동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하는 수고가 없다면 휴식의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나 집에서 혹은 들에서 산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 바로 이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 뜻에 맞 갖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매일 같이 일찍 일어나야 하고, 때로는 일 때문에 밤을 새우며 늦게 자리에 들고, 늘 상 일에 매여 피로하며 힘듭니다. 일상적인 쉬운 일이 때로는 아주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요. 게다가 직장을 구하지 못 하는 때는 제 품삯을 받지 못하더라도 단 얼마를 벌기위해 무엇이건 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일할 것이 없으면 더한 악조건 아래에서라도 무엇인가 일할 거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며 착한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오로의 일에 관한 말씀은 살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이신 본당신부님조차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살기 위해, 밥 한 그릇 벌기 위해, 아무 흥미도 없는 고되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고통, 다른 사람이 우리 노동을 이용하여 자기 잇속만을 채우려 할 때 이는 마음의 분노, 만일 조금이라도 자기 준 밖에 나기만 하면 일거리를 빼앗고 내쫓겨야 하는 불안 속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나 하는지요?”라고 항변하고 싶지요. 그러나 형제들이여! 바로로가 “선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하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 역시 손으로 자리를 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주리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고린토후 11, 27)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바오로사도는 선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도 모자라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214 제2부 성 마리아와 성 요셉에 관한 말씀

최후의 심판 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35-40)라고 말씀하시며 착한 자와 악한 자를 가라라 놓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아내가 이웃 부인네를 위한 것은 마리아르 위한 것이 되고 아리들을 휘한 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 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은 우리가 얼마나 미사성체에 참여했고, 목주신공을 얼마나 드렸는가를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헤아릴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항상 원하게 되어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일한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비록 그 일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자 하시며 그 공로를 갚아 주시고자 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는 바로 우리의 노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나의 작은 노고가 이웃에게 보탬이 되어 질 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요셉은 예수를 위해, 마리아를 위해 목수 일로써 봉사하셨습니다. 요셉 성인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임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이웃을 위해 일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교황님, 주교님, 본당신부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 정의로운 메스콤의 활약을 위해, 신앙의 선교를 위해, 더 많은 성소를 위해, 나환자들을 위해, 등등... 이 모두는 항상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훗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저축이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2. 성 요셉 215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미사에 가고, 고백성사를 보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웃을 돕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십계명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가지입니다. 공의회 전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주로 말을 했습니다만 공의회 이후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최후 심판 날에 하느님은 우리가 행한 사랑의 무게로 우리를 저울질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웃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 요셉처럼 큰 의인이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자는 악한 부자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의 노고를 힘들다 하지 말고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합니다.

제3부 회고담 1. 가족 219

1. 가족

1) 성 신부의 어린시절¹⁾

1) 위의 회고담은 1993년 4월 성 신부의 여동생인 엘리사벳 생제가 성가소비녀회에 보내준 것이다. 번역·교정작업을 거쳐 회고담에 수록하였다.

1910년 9월 13일, 피에르 생제(Pierre SINGER)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헤딩(Hesdin)에서 대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큰 딸 밑으로 아들 둘, 네 번째 아들인 피에르 아래로 7명의 아이들들 더 두었다.

부친께서는 소규모의 피혁 공장을 소유하고 계셨다. 이 고장에서는 대가족을 형성하는 일이 흔했다. 땅은 비옥하고 생활은 힘겨웠으니 “노동”의 가치는 무시 못 할 성질의 것이었다. 이 고장은 언제나 전쟁과 아쟁쿠르(Azincourt), 크레시(Crecy), 온슈트(Hondeshoote), 아라스(Arras), 바폼프(Bapaume) 등등의 지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시달림을 당했다. 이 고장 주민들의 행동에는 그러한 역사가 스며 들어있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기의 길을 계속 가며 재건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한 세대에서 또 한세대로 대물림하는 것이 지난 70년 동안의 강박관념이었기 때문이다.

피에르는 금발의 곱슬머리에, 종종 응석을 부렸던 아주 맑은 목소리를 지닌 아이로 성격은 독창적이었으며 장난꾸러기였다. 그러나 그의 장난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또 그의 순진무구함 그 자체로 용서되었다. 그 어린 소년의 장난은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남아 있다.

제3부 회고담 1. 가족 220

요컨대 그는 주위에 따뜻한 일상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피에르는 4살이었고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는 8살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마르느(Marne)전투에 참전하시어 랭스(Reims) 대성당이 부타는 것을 목격하신다. 4살 때 경험한 전쟁의 추억은 증오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다. 그것은 차라리 일상의 테두리를 갠 흥미진진한 또 하나의 생활이었으며 동시에 어른들의 근심어린 세계 속으로 합류하는 것이기도 했다. 바로,

“ 우리 동네에 영국 군인이 들어왔단다.

우리 집엔 캐나다 사람, 인도 사람들이 있지.

30km 떨어진 곳 대포소리 들으러,

온 가족이 산보삼아 나가 보자꾸나.

영국의 왕과 여왕이 방문하신단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준단다.

이렇게 피난 보따리를 쌀 줄이야

가슴을 쳐봐야 이젠 늦은 일. ”

이런 노래를 보아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놀이 친구였던 9살짜리 그의 형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시골의 한 영국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떠나가던 일, 이 모두가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제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말했었다. 그는 항상 그 목적을 향하여 대단한 열의를 보였으나 그의 열망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반대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중하게 고려되지도 않았다. 그는 기회가 닿기만 하면 새벽 7시 미사를 드리러 갔다. 여동생들을 데리고 즐겨 했던 놀이는 언제나 미사놀이여서 제의까지 만들어 놓았고 여동생들에게는 미사에 참석하는 자격만 주어졌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든지 헌금을 해야 했다. 인형들에게 영세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기상 천외한 이름을 본명으로 갖다 붙여서 우리에게 제발 본명을 바꾸어 달라고 간청을 해도 한번 난 결정은 결정이었다.

제3부 회고담 1. 가족 221

그에게는 모험심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눈을 떠보니 옆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메리카로 떠납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올게요.” 부모님께서서는 당연히 걱정도 않으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피에르는 어깨 위에 장대 하나를 메고는 그 장대 끝에는 개나리 붓짐을 해서 손수건으로 동여 묶은 채 돌아왔다. “저런, 벌써 돌아왔니?!!!” “네, 비는 많이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곳도 없고 우비도 없어서요.” 모험을 결국 그렇게 끝이 났다.

어떻게 그의 성소를 믿을 것인가. 그가 0살 대 들어간 생 베르탱(Saint Bertin)학교는 생 오메르(Saint -Omer)에 위치한 교구 학교로서 그는 그 곳에서 우등생으로서의 추억보다는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좋은 친구로서의 추억을 남겨 놓았다. 장난은 계속되었고 그는 여러 번 퇴학을 맞을 뻔 하기도 했다. 그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기숙사 생활이었고 기숙사 내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였고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성격이 매우 예민했던 그러한 것들이 사유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가 그 때 학업의 때를 놓친 것에 대해 늘 후회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작은 마을에서, 피에르는 한 젊은 보좌 신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과감하며 헌신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선도자로서의 각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상상력이 풍부했고 젊은이들을 이해할 줄 알고 훈련시킬 줄 알았으며 이끌 줄도 알았다. 피에르는 신앙인이며 행동파인 그 젊은 사제의 체계를 관찰하며 그의 일을 열렬하게 도왔다.

이 때의 체험은, 차후에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모님께서서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셨으나,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하셨으므로 어린 동생들은 전혀 모르고 지냈다. 여름방학이 되자 평복 차림으로 돌아와야 했을 그가 수단을 입고 나타나자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던 아버지께서는 망연자실했다.

제3부 회고담 1. 가족 222

덩케르크(Dunkerque)에서의 군복무는 그를 잘 단련되고 건강한 정신의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교인으로서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선두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천성적인 나태함은 병영 생활을 오래 할 수 없게 하여 그는 “하사”로 제대했고 그는 “하사”에 늘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편지들을 다시 읽으며, 라리보(MGR. LARRIBEAU)주교 역시 그에게 교육자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이노래를 불렀었다. “네가 신부가 되면, 나는 수도사가 될 텐데야, 주교가 될테야.” 그는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수도사나 주교가 된 사람은 없었다.

엘리사벳 생제(Elisabeth SINGER)

제3부 회고담 2. 수녀 223

1) 명 마지아 수녀¹⁾

성 신부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다.

현재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가 있는 성북동 산은 지금과는 달리 해방 직후만 해도 산세가 가aj하고 숲이 우거져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시 가난과 폭격을 피해 이주해온 사람들이 산언저리에 움막과 판잣집을 짓고 사는 그야말로 빈민촌이었다.

1946년 혜화동 본당 주임으로 계시던 신부님께서는 늘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다. 손으로 그 산을 가리키시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너무 적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일해 줄 사람들을 모았다.”하시던 모습은 길잃어 헤매며, 배고파 하는 양들을 걱정하는 참 목자의 그것이었다.

1948년 봄, 블란서에 휴가 가시기 전에 혜화동 본원에 다니러 오셨었다. 우리들은 그때 뽀스트랑시절이었는데 강 떼끌라 원장수녀님, 김 아멜라 선생수님과 본원 수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수녀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말씀해 주셨다.

“소비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켜야 할 첫째 도리이며 단 5분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둘째 도리이며 온실 속에서 자란 꽃보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들풀이 더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그 셋째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낮추시어 하늘에 내려오셨고 성모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과 같이 소비녀들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 가는 것이 네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24

특별히 우리 소비녀회의 착복식과 허원식이 성모왕고²⁾ 7월 2일에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물으셨다. 묵묵부답인 우리에게 “그것은 탁아소운영입니다. 대방동에 이미 탁아소를 개설하였는데 나는 이 사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말씀이 끝난 후 나는 이보다 어떻게 더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싶어 “어느 정도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을 드렸다.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흑판에 분필로 선 세 개를 세로로 나란히 그으셨다. 그리고 그 선 앞에다 각각 上, 中, 下를 쓰신 다음 下線으로부터 5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위쪽에다 선을 그으시며 “이정도만 사십시오” 하셨다.

그 당시 늘어나는 소비녀 회원들을 수용하기에 본원의 규모가 좁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 집을 짓게 해 주십사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를 아신 신부님께서서는 “새로 수녀원을 지을 때는 한국식으로 지으면 좋겠고... 너무 크게 지으면 공심판 때 무너지는 소리가 무서울 터이니 적당히 지으시오.” 하며 웃으셨다. “수녀원에 성당을 짓게 되면 그 벽에다 성모님께서 우리 소비녀들에게 ‘양로원에 가라! 고아원에 가라! 환자에게 가라! 가난한 자에게 가라!’고 손으로 지시하시는 그림을 그려라!” 하시며 모양까지 그려 주셨다.

1949년 봄에 신부님께서 함덕 보육원에 다니러 오셨을 때였다.

우리 보육원에는 그때 이 말다 수녀와 권 요왕 수녀, 그리고 아직 예비수녀였던 나와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밭일을 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소비녀들! 어린 아이를 업어

1) 명마지아 수녀님의 성 신부님 회고. 1992, 9, 17. 김 미리암 수녀 작성.

2)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축일.(현재는 5월 31일)

다 밭에 내려놓고 밭일을 하면 아이도 보고 일도 하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하셨다.

그리고 권 수녀님과 나에게(이 말다수녀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불쌍한 자를 앞에 앉혀 놓고 당신들은 서서 애궁을 거두시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25

그래야 그들도 당신들이 하는 일을 알고 또 자기들의 작은 도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것 아니겠요?” 하셨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떼끌라 원장님의 성 신부님에 관한 말씀은 이러하다.

떼끌라 수녀님이 원장직을 수락하실 때의 일인데 신부님께서 수녀님에게 “어이, 떼끌라수녀! 당신이 소비녀들 맡아 가르치시오!” 하시자 수녀님은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셨단다. 그러자 신부님은 “겸손한 소비녀를 만드시면 됩니다.” 하셨고, 그리하여 당신이 그 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회고 하셨다.

1965년 성 신부님이 홍산 본당에 계실 때였다. 1964-5년경 민야보고 수녀님과 나 명마지아 수녀는 홍산 본당으로 갔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식복사집 방 1칸을 주셨다. 홍산에는 사제관과 식복사집 그리고 임시 강당으로 지은 집을 성당으로 쓰고 있었다. 총장수녀님께서 “창설자 신부님께서 시골 어려운 본당에 가지었으니 가서 도와드리라”시는 말씀이 계셨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본당이였다. 아침미사에 신부님택 식구 엘리자벳씨와 일꾼 베드로, 옆집 윤선생 모자와 미사복사, 용기장이집 할머니와 손자 손녀, 수녀 둘을 합치면 모두 11명이다. 주일에는 약간명이 미사에 나오고 장난이 주일이면 검사해서 3-400(처음에는 주일미사가 100명정도) 여명이 넘는다. 첫 번 주일미사 연보금이 2,700원이다. 100원, 10원 그것도 없어서 계란 1개 가져다 바친 사람도 있었다. 거지도 10원은 안 받는다고 말했더니 약간 봉헌금이 올라가기는 했다. 홍산은 농촌이면서도 성당 근처에 4-5개에 달하는 예배당이 있었다.

천주교는 미리부터 뿌리가 내려있고 사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에 약간명의 신자와 냉담자가 살고 있었다.

냉담자는 “구제품 밀가루 얻어 먹으려고 성당에 나가는 것이 손해는 아니더라 그래서 나갔었다”는 사람이 태반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1명 뿐이다. 본당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부스럼과 중이염 병자가 많았다. 안주교님께 가서 간유와 비타민을 많이 얻어다 먹었더니 깨끗이 나왔다. 가능한 한 환자에게 주사도 놓아주고 불편을 도와 주려고 노력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26

신부님께서서는 수녀원 집도 짓고 앞으로 성당을 건축하실 꿈도 가지고 계셨다. 또한 본당에 수녀에 대한 신부님의 기대도 있었다. “수녀는 구약을 가르치시오. 나는 신약을 가르치겠오.” 하셨지만 모인 사람은 없었다. 단체도 조직할 수 없었다. 농촌이라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겨우 미사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외에는 집에 있질 않았다. 다 서울로 올라갔다. 똑똑하다는 남자, 여자는 다 올라간 것이다. 예배당이 많아서 홍산 사람들이 이런 곳으로 갔다. 그리고 부락부락 마다 예배당이 있어서 신자들이 적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전교 방식을 세웠다. 우선 어디에 가든지 먼저 환자 찾아 사귀고 대세를 주며 그 가족을 성당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냉담자를 찾아 회개를 권하

고 교리를 가르치며 서서히 교리강령본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고 그림을 설명하곤 했다. 이 방법은 그런대로 그곳 주민들에게 수용이 되었다.

옥산에서 더 간 곳이 어떤 병자에게 교리를 가르치자 신부님께서 그 부락에 가지어서 성체 성사 주시고 황주교님께서 오시어 견진성사 주시었다. 신부님께서는 당신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고 계시면서 아이들은 적으면 2-3명, 많은 6-7명이 노리게 가지고 놀고 있었다. 사목적 요구조건이 생기면 지체없이 활동하시고 먼 곳에는 자가용으로 가시기에 운전수 역시 짐을 떠날 수 없었다.

한 일화가 있다. 수녀들이 회색 하복을 입기 시작할 때 옷만들 돈이 없었다. 신부님께 “야고보 수녀님과 나의 수도복 해주세요?” 하고 청했더니 즉시 돈을 주시었다. 그해 연말 결산 보고서 작성할 때 이 일을 잊으셨던 모양이다. 수녀들은 아침 미사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며 두 주먹 불끈 쥐신 신부님께서 들어오신후 “어느 수녀가 이리 돈 많이 쓰나”하시고 획 가지었다. 노기찬 언성이다. 가난한 시골 본당이어서 더 하셨겠지만 연말결산시 “어느 수녀가 돈 많이 쓰나” 하시며 일일이 지출명세들을 점검하셨고 행여 불필요하다 싶은 지출 명목이라도 눈에 뜨일라치면 크게 호령하여 꾸짖으셨다. 그렇게 알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 사시지 않으시는 분이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27

성가대 문제로 풍금을 칠수 있는 박 마리오왕 수녀님이 오시었다.

본당 전교회장 1인분의 봉급을 교구청에서 보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지 민야고보 수녀님이 본원으로 가지었다.

1966년 여름 방학 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수욕하러 바다에 갔던 적이 있다. 남자들과 신부님께서는 수영도 하고 여자들은 끼리끼리 물속에서 놀았다. 박 마리오왕 수녀와 나는 수영 할 생각도 못하고 물가에서 놀았다.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신부님께서는 “왜 수영 안해요? 건강에 좋은데, 여자 아이들 데리고 저쪽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나하고 여기서 하고” 말씀하셨다. 마치 메다 부치시는 듯 한 말씀으로 느껴졌다. 수녀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싶으셨는데 기대가 어긋나신 모양이시다.

아이들 교육으로 주일학교를 하였는데 이는 병어리를 국문이라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성신부님은 레지오 마리에 훈화하셨다. 그리고 신부님은 집에서 자리를 지키셨다. 신부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병 중에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성신부님은 비밀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셔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1996년 여름, 본원에 왔다가 신부님과 같은 차편으로 홍산으로 내려 간 적이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신부님은 1등 차표를 가지고 계셨고 나와 마리오왕 수녀는 이미 3등 차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신 신부님께서는 “소비녀 1등차 안타기를 허원해야겠어” 물론이 말씀은 농담이셨지만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았다.

같은 해의 일이었는데, 먼 시골길을 다니는데 자전거가 편리하겠다 싶어 신부님께 자전거를 사주십사고 청을 넣었다. 바로 다음 날 아무 말씀도 없이 서울에 올라 가서서 자전거 2대를 사가지고 오셨다. 어린애들처럼 기뻐하는 우리에게 “소비녀들도 침단을 걸어야 합니다. 나 역시도 뒤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셨다.

우리들이 착용하는 수도복이 많이 간소하게 바뀐 후 새로운 수도복을 입고 신부님을 뵈러 갔었다. 바뀐 새 수도복이 몹시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던지 “나는 성의(聖依)를 입어야 하는 수도원을 세운 것이 아닌데...” 하시며 불만을 토로하셨다.

1967년 나 마리아 수녀는 인후염이 심하여 말을 할 수 없고 기침을 많이 하기에 본원으로 오고 후임으로 김 십자가 요왕 수녀님이 가시었다.

창설 25주년(1966) 기념 행사가 끝난 후 정원으로 나오시면서 신부님은 작은 소리로 내게 “아,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수녀원을 세우지 않는 건데...” 하셨다. 그 말씀은 수녀원이 양적으로 커지는 것만큼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어...다. 주위에 많은 수녀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었지만 신부님은 바로 옆에 있던 나에게 아주 나직나직이 “착한 표양을 보여 주시오!” 하시며 당부하셨다. 나는 “신부님, 왜 수녀들 교육은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여쭙었더니 “교만해질까 봐서였습니다. 내게 있어서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2) 김돌로로사 수녀¹⁾

성 신부님과의 짝막한 대화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노 주교님이 명하시어 성 신부님께서는 미아리 공소에 다니시며 사목 활동을 하셨다.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인지라 일본경찰이 감시해서 어쩌나 어렵게 굴었던지 성 신부님께서는 미아리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할 때 후보를 성모의 칠고 성당으로 이룸하셨다. 그래서 성 신부님 계실 때 성모칠고 축일날이 되면 본원 수녀들은 미아리(현 길음 본당)로 미사를 가곤 했었다.

※ 나는 1952년 남곡리(잠실) 성심원에 가서 2달 살았었다. 남자 고아원이었다. 이때 내가 성 신부님께 무엇을 붙여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답을 해 주셨다.

“거기 고아 하나 하나를 감실로 알고 예수님으로 잘 모시시오!”

1958년 성 신부님께서 신학교에서 쉬고 계실 때 찾아 뵙고 몇 가지 말씀을 들었다. 그 당시 성무일도는 없었고 라틴어로 된 성모소일과를 했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여 하였다. 성 신부님은 앞으로 사람들이 성무일과를 번역해 써도, 소비녀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성모소일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셨다. 당시 각 수도원은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에 첫 침례육을 지키기 위해 밤샘 조배를 했는데 성가회는 일이 많아서 이를 시킬 수 없다고 성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건 쓰지 말고 빵떡 모자 쓰라고 하셨다. 이러한 일화들을 볼 때 성 신부님은 50-60년을 미리 내다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논산교리시간 이야기 : 1960년 논산성당에 가서 성 신부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교리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주셨다.

“천주님께 기구할 때 간절해야 은혜를 받는다. 책상위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들고 있는 과자를 발꿈치를 들며 간절히 원할 때 어찌 안 줄 수 있겠느냐! 천주님께 기구할 때도 어린아이가 발꿈치를 들며 간절히 원하듯이 그렇게 원한다면 은혜를 주신다. ”

1) 1993.5.6 창립자 사제관에서 김돌로로사 수녀 인터뷰, 김미리암 수녀 작성.

성 신부님께서 논산 계시다가 휴가자 본국에 가시던 때 (1962)에 본원에 들리셨다. 나는 이때 신부님을 뵈올 기회가 있었다. 성 신부님께서 우리보고 “불쌍한 사람들의 집에 갈 때는 사복을 입고 가서 일하고 올 때는 수도복을 입고 오라”고 하셨다.

나는 신부님께 “그저 빈손으로 일만하면 됩니까? 그들은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이 먼저이지 무슨 일을 해줍니까?” 하고 논란을 벌였다.

성 신부님께서 비행장에 가시면서 같은 차에 탄 나에게 “아까 수녀가 한 말이 옳다. 그들이 배고픈 것, 헐 벗은 것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0

그러나 내가 말 한 가정도 있다. 이런 가정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돈벌러 직장 나갈 때 애들 돌보고 빨래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 소비녀가 할 일이다.” 또 성 신부님께서서는 우리가 인쇄소, 탁아소도 하며 옷벗고 일해야 한다고 하셨다.

한공렬 주교님 축하식 끝나고 논산을 들렀을 때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

“소비녀가 될 자격은(지원자 될 자격) 양로 한 분 양육할만하면 됩니다. 소비녀들은 소비녀의 수 만큼 양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원에서도 본당 수녀원 한 곳에 움을 파서라도 버려진 양로를 모시고 돌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우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녀들이 움막을 왜 삼시로 드나드나 하고 교우들이 주시하게 되고 이어서 수녀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교우들이 양로를 하루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자연적으로 양로들을 부양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셨다.

‘69년 이후 미아리 본원에 오셨을 때 내가 “왜 규칙에 지참금 가져 오는 것을 넣으셨습니까?” 하고 여쭙니, “난 몰라요! 공 신부님이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은 것 뿐이요. 규칙 만들 때 이재현 신부와 공 신부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 규칙은 교황청에서 신생수도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라고 하셨다.

‘75년 재수련 때 나에게 성 신부님은 “나 걱정거리 있어요” 하셨다. “나, 수녀원 세울 때 이렇게 큰 수녀원은 생각 안했습니다. 지금 너무 크고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고 하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1

3) 이레오날드 수녀¹⁾

“총장 수녀는 대비녀 (大婢女)가 아니요. 더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은 총회가 끝난 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성 신부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었다. 내게 걱정하는 마음이 많음을 읽으시고는 “주께서 항상 수녀님과 함께 계시어 도와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믿으시오.” 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그리고 창립자 신부님으로서의 강복을 청하자 “나는 창립자 소리 듣기가 참 부끄럽소.” 하시면서 송구스럽다는 몸짓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다.

신부님께서 “나는 창립자 소리 듣기가 부끄럽소.” 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셨는지 초창기 수녀님들은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신부님께서 수도회를 창립하실 때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실 뿐 아니라 계속 본당 사목에 종사하셨던 까닭에 수도회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심으로써 수녀들의 영성지도를 많이 해주시지 못했다는

1) 1993.5. 원고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뒷받침을 못해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가난’에 대한 신부님의 신조와 주님의 안배하심을 믿으셨던 신부님의 굳건한 믿음을 실천하셨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신부님의 공로를 하느님께로 돌리시는 신부님의 겸손하신 마음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학생 수녀 시절,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기기 어려운 경우를 나는 신부님에게서 보았던 적이 있다. 1973년 여름, 나는 외국에서 하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려던 참에 여자 수도회 국제연합회 총회에 한국대표 대리로 참석을 하고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몇 개월동안 친구였던 영국인 수녀의 수녀회에서 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11월 초쯤, 로마에서 있을 국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로 파리까지 간 다음 다시 로마로 가는 상당히 긴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2

때마침 성 신부님도 휴가를 받으셔서 파리에 와 계셨었다. 영국의 남쪽 한 도시에서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떠났으나 런던에서의 열차 폭발 사고로 인해 얼마간 차내에서 기다린 탓으로 파리에 예정보다 늦은 시간인 저녁 7시경에 도착하게 되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캄캄했었다. 기차에서는 먹을 것을 팔지 않았고 또 혼자 여행중이었으므로 수녀 혼자서 무얼 먹는다는 것이 오히려 쑥스럽기도 하여 물 한잔 마시지 못하였던 터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참으로 시장하셨다. 파리의 기차역에는 내가 며칠 머물기로 되어 있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파리분원 수녀님 한 분이 나와 계셨고 성 신부님도 나와 계셨었다. 그때 나의 반가움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고 신부님도 대단히 기쁜 표정으로 반겨주셨다. 그러나 신부님은 만나자마자 우리에게 잘 가라 하시고 혼자 어둠 속으로 사라지시는 것이 아닌가. 신부님이 가지자 나는 어둠 속에서 마중 나온 수녀님 몰래 눈물을 삼켰다. 먼길을 오느라 지칠대로 지쳤고 또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나는 젊은 나이탓도 있었겠지만 너무 피곤한 끝이라 섭섭함이 더 컸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수녀원까지 또 한잠을 가야 했고 그러다보니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녁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그냥 먹었다고 대답을 하고는 방으로 가서 쉬어야 했었던 그날의 그 심정. ...

한국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학생 수녀가 외국에서 긴 여행을 하다가 신부님을 만났으니 제과점에라도 데리고 가 물 한잔과 빵 한쪽 썸 사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나도 그렇다. 저녁은 고사하고 물도 한잔 못마신 처지였으니 “신부님, 배고파요.”하고 솔직히 여쭙었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우 피장파장이란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못한 것이나 신부님이 저녁을 먹었느냐고 묻지 않으시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일이 있는지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건대, 나는 신부님의 그때 처하신 입장,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그분 마음의 무력감 같은 것을 어슴푸레한 기억 속에서 되새겨 보게 되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3

신부님은 고향에 휴가를 가셨지만, 25세에 신품을 받은 즉시 선교사가 되어 떠나는 고향은 이미 옛날의 그 고향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조차 나그네가 되어 계셨을 것이다. 그 곳에서 그분 자신도 누군에게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고 자동차라든가 하는 교통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셨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신부님께서 어느 빵집이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결국 그때 그분은 기차역에까지 지하철을 타고 나오신 것만도, 특히나 그 어두운 시간에 그리 하신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머니에 필요 이상의 돈을 지니지 않으시는 분이셨으므로 가지신 돈도 필시 몇푼 없으셨을 것이다. 더구나 블란서 돈과 한국돈의 차이 때문에 아마 계산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빵 한쪽에 한국에서는 얼마인데 프랑스 돈으로 얼마인가를 혼자 계산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신부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날 나는 미사봉헌 예물을 들고 신부님 방에 간 일이 있었다. 봉투에는 10,000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꺼내 보시고는 “성 신부 도둑놈 아니요. 공장 노동자 하루 일급이 10,000원도 안돼요, 8,000원 이라고 들었어요. 나 미사 30분 밖에 드리지 않는데 10,000원 받으면 도둑놈이야.” “아!, 그러니까 이 돈으로 미사 두 대 혹은 세대 드려주자.” 하시면서 미사예물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질색을 하셨다. 사실 본당에서 일하는 수녀들의 이야기로는 그때 10,000원 이하의 미사예물은 없다고 했다.

성 신부님과 따로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신부님이 늘 강조하시는 ‘겸손’의 덕이 그분의 “살아있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 4월 30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던 최 울릿따 수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대였다. 장례미사를 의정부 2동 성당에서 하게 되었고, 병원장직을 겸임하셨던 본당 신부님께서 미사주례를 하셨었다. 미사가 끝난 후 사도예절을 시작하게 되자 주례신부님은 창설자이시며 지도 신부님이신 성 신부님께서 사도예절을 하시고 총원장 수녀에게 고별사를 하라고 하시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4

이때 제대에는 10명 가까운 사제들이 합동미사를 올리셨었다. 성 신부님은 돌연 총원장 수녀에게 사도예절도 하라고 하셨다. 다른 신부님들은 창설자이시며 지도 신부님이신 분이 그러시니까 그냥 저에게 향로를 넘겨 주시고 성수채도 넘겨 주시어 사도예절 주례를 하게 하셨다. 그때 당황하고 떨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뻐다. 너무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기도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더듬더듬거리며 읽어갔는데 손님들은 그것을 아마 총원장이 슬퍼서 기도문도 제대로 못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부님께서 사도예절까지 총원장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나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분에게 있어 수도회 총원장은 예수님의 대리자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셨음이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수도회 회칙을 새로 개정할 때 새 회칙일 집필할 책임을 맡은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창설 당시의 카리스마를 온전하게 전수하는 것이어서 자주 신부님을 찾아 뵈었다. 그러나 그 분은 매번 “아, 공의회정신은 당신이 더 잘 공부했으니, 기도하면서 잘 연구하시오.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지금은 당신이 회칙을 새로 만들고 있으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창설자요.” 라고 하시며, 관심 깊게 보시기는 하셔도 일체의 논평이나 언급은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에 많은 수도 신학자들이 ‘재창립’을 이야기 한다. 쇄신은 재 창립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성 신부님께서서는 이런 학술적 용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셨다. 분명 그 분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의 구원사업을 계속 하시리라는 믿음을 단순하게 표현하신 것이다. 신부님의 유언서에 “나의 신덕은 다만 교황을 믿는 것 뿐

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그것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분에게 있어 ‘교황’님은 ‘예수님’이셨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6세건, 요한 23세건 그 누구이건 간에 그분에게 있어서 교황은 절대적이리 만큼 존경의 대상이었고 지상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5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나의 신덕은 지상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신 교황을 믿는 것 뿐이다.” 라는 뜻이 된다. 연세가 젊든지, 연로하시든지, 국적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교황’이신 때 문이었다.

어느날 주교님께서 지나가시다 성가회에 들리셔서 지도 신부님을 만나러 가셨다. 인터폰 연락이 늦어져서 주교님께서 바로 문 밖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신부님께서 이를 아시게 되었다. 방에 계시던 신부님은 주교님께서 오신 것을 아시고는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 내려 오셔서 주교님을 영접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신부님께서 수도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리자는 총원장이라 여기셨고 그래서 그 장례미사에서의 사도예절을 나에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교회의 법에 절대 순종하고 조금도 거역하지 않으신 분, 더구나 전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고 기쁘게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셨다. 사도신경까지도 노래로 하기 원하실 만큼 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하시고 성무일도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장엄하게 노래로 하기 원하셨다. 그러면서도 교회법이나 주교회의 또는 교구장에게서 오는 문서의 지시는 한획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행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셨었다. 그런 분이 몰라서 ‘수녀’에게 사도 예절을 시키신 것일까? 살아 있는 믿음의 아이러니라고 나는 표현해 보고 싶다. 혹시라도 그것이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심 하셨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분이시다.

우리 회의 창립 정신을 가르쳐 주십사고 말씀 드리면, “가난하시오. 겸손하시오. 기뻐하시오. 그리고 교회에 순명하시오.”하는 평소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나도 모릅니다. 지금 성신께서 당신들 안에도 말씀하고 계시니 잘 들어 보시오.” 하셨다. 새 교회법이 나올 때 까지 임시 승인을 받았던 새 회칙 “성가정의 빛”을 써서 교구장님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신부님께 보여 드렸을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시니 그것을 믿으시오.” 하시며 축복의 기도만을 해주셨다.

창립 당신의 카리스마에 대한 연구를 시키기 위해 김 레오 수녀를 로마로 유학을 보내줬노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것 역시 하느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오. 성신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오.” 하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약속하셨었다. 김 레오 수녀가 유학에서 돌아와 본회의 정신에 대해 강의, 피정 등을 계속하고, 회칙을 새 교회법에 조명하며 마지막 정리를 할 때도 또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6

서울 성가 소비녀회란 이름을 다시 찾고, ‘기뻐하라 소비녀’의 열가지 말씀이 회헌에 기록될 때도 그분의 말씀은 같으셨다.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차 있던 믿음의 표현들, 지극히 단순하신 삶의 모습들은 언제나 한결 같으셨다. ‘기뻐하라 소비녀’의 열 가지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인 것처럼 신부님의 삶의 모습 중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순수하고 살아 있는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아마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의 후배들

이 창립자의 정신과 삶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때 그를 통해 풀어야 할 많은 신비가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수도회 창립자의 신비이기도 하리라.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기 그지 없어 보이는 단순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 그 속에 감추인 신비를 소비녀들의 내면에서부터 하나씩 열어 보여 주시고, 신부님 말씀대로 “친히 창설하였으니 친히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신비체 가족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소비녀들은 창립 정신을 알아 듣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성가 소비녀회는 주님의 축복 속에 항구히 존속할 것이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7

4) 정 다니엘 수녀¹⁾

성 베드로 신부님!

나는 성 신부님 추천으로 성가회에 입회하였으므로 신부님께 대한 존경심이나 관심이 남달랐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생활하신 모습을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보았을 때에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아 한 장면 한 장면 기억속에 새로운 것 역시 그러한 나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부님은 유난히 코가 크시고 파란 눈에 머리에선 빵모자를 쓰시고 수단은 입으시고 자전거를 즐겨 타신 분이였다.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신부님 인상은 좋으신 분이시라기 보다는 어려운 분이셨다. 그러한 기억들 속에서도 더욱 선명한 것은 신부님께서 어린이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자 아이들 보다 남자 아이들을 더 좋아 하셨다. 그 중에서도 복사 아이들은 신부님 방이 그들의 놀이 방이었고 그들만은 언제나 무사통과였다.

신부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 이름 보다는 헤이- 헤이를 소리 높여 부르신다. 강론 하실 때나 교리를 하실 때의 신부님 모습은 열의가 대단하셨다. 또 성가도 작사 작곡하여 잘 가르치셨다. 그리고 시편 성경을 즐겨 읊어 주셨고 살베 레지나라는 성가도 즐겨 불러 주셨다.

신부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린이들에게 영세 허원 재신식²⁾을 시키셨다. 영세 허원 재신식 때 아이들은 화관을 쓰고 촛불을 들고 참석했으며 “눈비가 올 때나 ...”, “영세 허원을 새롭게 하나이다.”를 노래로 불렀다. 재신식을 치른 후에도 아이들은 하루종일 자랑스럽게 그 화관을 쓰고 돌아다녔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8

신부님은 특히 어린이를 가르치는 열의가 대단하셨다.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시면서도 급한 마음에 더듬거리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한국말을 재미있게 표현하셨는데, 모자를 대가리 뚜껑, 치즈를 썬 우유, 버터를 먹는 빨래 비누라고 하셔서 모두 그 말씀들을 흉내내며 즐거워 하였었다.

신부님은 아이들과 장난하시는 것도 좋아하셨다. 그때 어린이들은 새벽미사에 참석한 후에 신부님 댁에 가서 교리를 배웠는데 교리 중에 졸려서 하품하는 아이가 있으면 신부님은 장난스럽게 돌을 던지곤 하셨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항상 허름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의 코 묻고 때 묻어 피뢰죄한 얼굴을 닦아 주셨다.

성탄 때에는 아이들에게 각자 구유를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구유 전시회를 열었고 가장 잘

1) 대전 문창돈 수녀원에서 1992.3.7 인터뷰 한 것(김 미리암 수녀)과 원고 ('92년 5월)를 합침.

2) 유아 영세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철저히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주일학교 상급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배운 교리에 대해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어린이들만이 재신식 예절을 행하였다.

만든 어린이에게 ‘십자가 요왕’이란 책을 선물하시기도 하셨다. 아이들에게 진짜 성탄을 맞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였으리라,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신 까닭에 신부님이 계시던 사제관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노는 아이들로 법석이였다. 그 북새통 한가운데, 신부님께서 책상에 앉아 일을 보시던 모습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제관 정경이였다.

내가 성가 소비녀회에 입회한 동기는 신부님 추천 때문이다. 내 스스로 선택 한 것이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신부님을 따라왔던 곳이 성가회이다. 당시 나는 본당 수녀님이셨던 샬트르 성바오로회 수녀님들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지라 수녀님들은 미사 후에 부르시어 책을 빌려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작은 일을 시키셨다. 제의방에 데려가시어 그곳에서 꽃병에 물갈아 주는 일 복사옷 치우는 일 등을 시키셨다.

어느 대축일에 수녀님이 부르셨다. 제의실에 잠깐 있으라하시고는 당신은 수녀원에 가셨다. 그 잠깐사이 문득 복사 옷을 입고 싶은 생각이 들어 슬쩍 한번 입었는데 성 신부님의 소리가 들렸다. ‘제의방에 누가 있어? 빨리 집에 안가고 거기서 뭘해!’ 하시며 문을 열고 들어 오셨다. 나는 순간 문 뒤에 숨어서 얼굴을 벽 쪽에 대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39

신부님도 깜짝 놀라시며, ‘이게 누구야?’ 하시며 ‘지금까지 여자 복사는 없었어. 빨리 벗고 집에 가라’ 하셨다.

그 후부터 신부님 뵈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신부님을 피해 다녔다. 이런 신부님께 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다. 본당 수녀님들은 나를 샬트르회 지원자로 준비해 주셨고 나도 역시 지시대로 따랐다. 그러나 신부님은 나에게 대한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셨다. 나는 추천서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수녀님들은 추천서를 왜 써주지 않으시는지 의아해 하셨다. 즉 나에게 대해서는 수녀님들이 신부님 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하면서 ...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신부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막달레나, 이리 와봐 ! 내일 나하고 서울 가자. 갈 데가 있어!’ 하셨다. 그러시고는 갑자기 나를 데리시고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신부님께서서는 여인들이 머리에 이고 있는 보따리를 받아서 선박 위에 얹어 놓으시느라 바쁘셨다. 한참 후에 자리에 앉으셨다. 기차 안에서 신부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안하셨고 나 또한 신부님께 어디 가는 것인지를 한 마디도 여쭙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말한마디 못하고 다라 나섰는지 알수 없다.

신부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 곳은 바로 혜화동에 있는 성가 수녀원이였다. 당시 원장 수녀님이셨던 고시몬 수녀님은 나와 성 신부님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성 신부님이 나를 소개 시키시길 ‘이거 소비녀로 받아! 순하고 착해.’ 하셨다 고 시몬 수녀님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고 신부님과 나를 보시며 너무 어리니 좀 커서 오라고 하셨다. 수녀원에 다녀온 후 2달이 지난 후 신부님의 은경축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부님께서 나에게 성가회수녀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면서 대강 입회준비를 하고 수녀님들 가실 때 가라고 하셨다. 그날 신부님은 소비녀들에게 나에게 선물 많이 가져 왔어. 대신 내 선물 이거 받아 하시며 나를 가리키셨다. 그래서 나는 때 아니게 혼자서 성 신부님의 은경축 선물로 입회하게 되었다. 그 후로 수녀님들은 나를 부르실 때는 은경축 선물이라 하셨다.

입회 후 신부님께서 가끔 내게 편지를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0

항상 편지 첫머리에 ‘찬미, 예수 막달레나! 너 안녕하십니까’라고 쓰셨다. 이러한 표현은 성

신부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신부님의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회상해 본다.

5) 김 베아뜨릭스 수녀

1차 인터뷰¹⁾

신부님께서서는 5-6년 병상의 고통을 잘 참으셨다. 방광에 고무호수를 끼고 사시는 고통을 감수하신 것이다. 이 삶은 신부님께서 정결을 중시하시는 만큼의 큰 희생이 따른 것이었다.

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수녀들의 영적 지도를 못하시는 것을 안타까와 하셨고 괴로워 하셨다. 내가 젊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말씀 하셨다. 그러나 신부님은 하느님께 소비녀를 맡기신 것이다. 그만큼 신앙이 깊으셨던 것이다. 또한 교회의 장상에게 깍듯이 순명하셨기에 소비녀회를 떠나신 것이다. 그러한 순명의 정신은 그 분이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신부님께서서는 우리 소비녀들을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셨다. 순박, 단순하셨고 그의 안중에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셨다.

본가에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이 대단하셨다. 아이를 가운데에 놓고 예수라 모시며 기도했단다.

대건 중고등학교를 인계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재정이 어려워 주교님께 가서 돈을 얻느라 고심하셨다. 가난한 시골이어서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는 탓으로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 1962년 췌별 여자 중고등학교의 인가를 받으시고 (1월) 그해 불란서로 떠나신 후 3월에 학교가 개교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1

췌별 양로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사람들 2,500여명에게도 급식을 시켜 주셨다. (논산 시민에게) 그만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이다.

신부님께서서는 “양로원을 운영하면 황금 어장이다.” 라고 표현 하시곤 하셨다. 하느님께 가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유아 영세를 하고 난 후에 신앙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영세 허원 재신식 예절을 하셨다.

신부님은 오로지 사목 밖에 모르셨다. 공소 방문하시고 나환자촌 방문하시고 굶은일을 찾아 하셨다. 나환자촌에는 신부님을 도와 환자를 치료하려 한 달에 한 번 의사들이 내려오곤 했다.

성무일도를 못하시는 3년 간은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묵주기도만 하셨다.

소비녀회에서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수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소비녀회 창립 초기, 구더기 나오는 노인을 모시고 살 때 신부님께서 밤에 오시어 손수 노인을 돌보셨단다. 그리고 6.25동란 때 신부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단다. 잡수실 것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특히 고기가 귀한 때여서 더 하셨단다 - 나간 수녀님 말씀-

1) 1993.4.1 창립자 사제관에서 인터뷰(김 미리암 수녀)

2차 인터뷰¹⁾

1961년 신부님은 성당을 신축하느라고 병이 나셨기 때문에 본국에 쉬러 가셨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휴양 차 본국에 다녀오신 것이다. 그리고 '73년도에도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다. '78년도에도 가셔서 신장 수술도 하셨다. 홍산에 계시면서 고생하셔서 본원에서는 요왕 수녀님과 마리아 수녀님을 파견하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2

후에 성가소비녀회에서 모신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때 나는 부산에 있었다. 내가 정신으로 신부님의 수발을 든 것은 '71년도부터이다. 수녀원에 입회하고는 신부님을 휴가 때만 뵈었다. 불란서에 다녀 오신 후 처음 본원에 오셨을 때는 이나시오 수녀님이 모셨는데 성 신부님이 자꾸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고 시몬 총장 수녀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성 신부님을 모시라고 했다. 성 신부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것은 원하지 않고 시간 잘 지키는 것만 원한다고 하셨다. 시간관념이 너무 철저하셨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는 시간 지키는 것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나는 71년 5월에 종신 서원하고 그해 10월에 신부님을 모셨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모셨다. 나는 신부님을 모시면서 일과신공부터 시작해서 공동생활을 다 지켰다. 식사는 본원과 안나의 집에 가서 했다. 신부님 음식 남으면 남은 것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음식을 해드렸다. 신부님의 청빈 생활을 알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공동시간이 되면 내게 “어서 가슈!” 그러셨다. 나는 공동생활을 하고 남는 시간에 신부님 집을 했다. 성 신부님 잡수실 것은 주로 감자다. 손님이 오실 때는 신부님과 함께 읍지로에 있는 외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했다. 신부님의 머리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떨쳐 버리지 못하셨다. 수녀원에 오셔서도 인근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벌어 먹고 살도록 재봉틀 몇 대를 사서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 신부님은 내가 두 손 놓고 있는 것을 못 봐 주셨다. 내가 피곤했을 때 가끔 신부님의 이런 면을 원망했다. 신부님은 내가 뭐라도 해야 좋아하셨다. 가만 있으면 너 할 것 없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다.

논산에서는 양로원, 나환자촌, 공소들을 한 바퀴 도셨고 특히 성광원에는 혜화동 신자인 의료진이 한 달에 한 번씩 진료하도록 주선해 주셨다. 그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셨다. 수녀원에 오셔서 주위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안나의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3

즉, 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안나의 집을 짓게 한 것이다. 처음 안나의 집을 지을 때 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에 볼 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곳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셨다. 신부님은 불란서에서 오는 세계 신문을 매주 접하셨다. 불란서에서 오는 잡지가 많았다. 신부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셨다. 늘 시대를 앞서 가셨다. 성 신부님은 10년을 앞당겨서 보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미리 일을 예측하시곤 하셨다. 우리 회도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설립하신 것이다. 수도회가 커지고 부해지자 신부님은 말씀은 못 하시면서도 마음 속으로 많은 고심을 하셨다. 늘 책임감에 싸여서 고심하셨다. 그래서 80년에 들어서면서 점점 건강이 좋지 않아지시자 수도회가 화목이 없다고 걱정하셨다. 수녀들이 사랑 없이 살면 주식회사 밖에

1) 1993.4

안 된다고 하셨다.

‘72년도에 유서를 작성하신 것은 홍산에서 그렇게 아프셨고 파리의방전교회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유서를 쓰게 한 데서 연유된다.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본부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다. 신부님은 앞을 내다 보시고 써 놓으신 것이다.

내가 ‘80년도 중반기부터 신부님 미사 복사를 다 들어드렸다. 신부님은 눈 초점이 안 맞으셨기 때문에 나보고 경본까지 읽게끔 하셨다. 제대 앞까지 가서 하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다. 참 힘들었으나 신부님을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사집전을 도와드렸다. ‘85년부터 ‘87년 6월 8일까지 근 3년을 내가 미사를 하다시피 했다. 수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 드리는 것을 불안해 하셨다. 성체분배까지도 내가 할머니 들께 하니 신부님은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총장 수녀님이셨던 레오날드 수녀님께 자꾸 당신 일을 내가 다 한다고 반복하셨다. 그러니까 수녀님께서도 신부님 대신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다. 신부님은 항상 수도회가 커지고 부해지는 것을 걱정하셨다.

주일에 강론하시거나 강의하실 때마다 미리 작성해서 하셨다. 준비 없이 하시지 않았다. 후에 한국말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배워야 되겠다고 나에게 책을 사오라고 하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4

나는 서점에 가서 국어책을 사오기까지 했다. 그렇게 노력하셨다. 꼭 일주일 전에 타이프로 강론과 강의를 준비하시곤 하셨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지도신부님이시던 구인덕 신부님과 만나서 몇 명이 허원했는지를 비교하시고는 그곳 수련자들은 많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거의 허원을 한다고 좋아하셨다. 일주일에 한 번 구 신부님께서 성 신부님께 오시고 일주일에 한번 성 신부님이 구 신부님께 가셨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서대문 본부에 가셨다. 월요일만 되면 꼭 나가셨고 안 나가시면 손님들이 오셨다. 나는 손님 신부님들이 오시면 있는 대로 아낌없이 해 드렸다. 신부님이 병석에 계실 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구 신부님은 빠지지 않고 오셨다. 구 신부님께도 나는 성의를 다해서 성 신부님께 찾아오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해 드렸다. 신부님은 손님 접대하는 것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신부님이 움직이지 못 할 만큼 병이 깊어졌을 때 우리 수녀회에서는 바깥 사람으로 하여금 신부님 간호를 맡도록 했는데 신부님의 마음을 아는 나는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정결을 매우 중시하시던 분이려 바깥 사람이 당신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신부님이 예수님 대리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바깥 사람이 신부님을 돌봐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어른들께서는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신부님께서도 정결을 강조하셨고 또 그렇게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다.

신부님은 늘 하느님 현존 속에서 사셨다. 늘 세상이 신비하다고 생각하시며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하시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리고는 “창조가 가득하다. 아! 신비스럽다.” 고 감탄사를 연발하셨다. 나는 그 옆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신부님을 모시면서 영성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어진 것 안에서 사랑과 성의를 다 할 때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았다.

성 신부님 모시는 것이 바로 회를 대표해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명감을 다하여 임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245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 냈다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신부님을 모시면서 내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내게 있는 온 정성을 다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나는 조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때때로 성모님께 “성모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가면서 했다. 나는 이 분이 하느님께 갈 때까지 성모님처럼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방해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었다.

성 신부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는 활동가셨다. 수녀원에 계시면서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못 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신부님은 규칙대로 사시면서 창립자답게 사셨다. 교회 장상을 특별히 존경하셨고 논산으로 소임이 났을 때 순명으로 따르셨다.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를 경영하실 때에는 모든 일을 원 라리보 주교님과 의논해서 하셨다. 논산 지방 사람들은 농업지 주였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을 거둘 수 없어서 가을까지 미루어야 했는데 선생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주교님께 청하여 없다고 하시면 신부님은 정신이 둘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다. 그 정도로 순명하시며 사셨다. 이 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

나는 성 신부님의 임종을 보면서 인간이 흠으로 돌아가듯이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며 인간의 허무함을 체득했다.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제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힘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셨다. 성 신부님 생애에 있어 더욱 본받아야 할 점은 늘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신 것이다. 나는 성 신부님을 보면서 ‘하느님 현존을 어떻게 체득하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신부님은 하느님 안에서 사셨다. 모든 사건과 자연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늘 하느님과 연관 시켜 생각 하셨고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셨다. 나는 오랜 세월을 공동생활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한편으로 성 신부님을 통해서 이러한 영성들을 배웠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6

그래서 나는 별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 내가 공동생활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우리 공동체와 하나이며 우리 회의 회원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신부님으로부터 배운 이러한 풍성한 영성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늘 평화 가운데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월 피정 대 그룹 토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환자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환자를 버리고 월피정 하느라 자리를 뜨는 것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대 내가 굳이 그룹 통의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성 신부님 모신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신부님께서서는 한국 땅에 묻히셨지만 국적을 바꾸지 않으셨다. 한번은 갱신 날짜를 잊어버려서 벌금을 냈는데 그날 유난히 미사예물이 많이 들어 왔다. 이것을 보신 신부님은 벌금 물어서 속상했는데 돈이 더 들어오니까 “아! 하느님이 더 많이 주셨다.” 하시며 기뻐하셨다. 항상 일상생활을 하느님과 연결시키시는 신부님! 누가 다녀가도 하느님이 보내 주셨다고 생각하셨다.

병 중에서도 성가회가 부자가 된다고 수없이 걱정하셨는데 월곡동 성가 병원이 복지병원이 되었다고 설명해 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안하고 걱정되셨던 것이 조금 가셔지신 듯했다. 전에는 성가수녀원 만든 것이 큰 실수라고 내 책임이 크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셨다. 신부님께서 우리 회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크게 느끼셨는지 짐작이 간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신 것이리라.

아이들을 예뻐하셔서 잡아 먹고 싶다고도 표현하셨다. 논산에서 애들이 놀러 오면 신부님 어깨에, 혹은 책상에 매달려서 침 흘리고 어지럽혀도 귀찮아 않으시고 다 받아 주시고 같이 놀아 주셨다. 하얀 수단을 입으시고 애들을 안으면 금방 더러워져서 신부님이 모시는 아주머니가 싫어해도 신부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7

절대로 저리가라고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예뻐하셨다. 어렸을 때 이처럼 신부님께 신앙을 배워 굳건한 뿌리가 내린 신앙인이 되었고 이제 아들 노릇을 하며 돌아가신 신부님의 장례를 끝까지 봐 주었던 것이다. 신부님의 사랑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어렸을 때 신부님이 익혀주신 신앙이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달아지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부님께서 어렸을 때 신앙을 박아주어야만 커서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가르쳐 주셨다. 수녀원에 계시면서도 유치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좋아하시면서 다 참석하셨다. 아침에 유치원 애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즐거워 하셨는데 유치원이 폐지되자 이제 이 집은 죽은 집이라고까지 하시며 몹시 섭섭해 하셨다.

노비시아 강의를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또 무슨 말을 해 주어야 좋을까 하고 궁리를 하셨다. 몸이 아프셔서 미사 집전을 못하시고 고백성사를 못 하실 때 제일 괴로워하셨다. 또 한 번은 사순 때라 주일마다 신부님 뵈러 오던 노비시아 식구들이 절제한답시고 오지 않자 신부님은 수련장 수녀님이 당신을 보석으로 알고 있다고 섭섭해 하셨다. 신부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셨으므로 듣기 좋게 불평을 하신 것이다. 신부님은 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유머를 많이 쓰시면서 당신 뜻을 표현하셨다.

신부님을 모시면서 나는 역설적으로 하느님께서 고통은 사랑하자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돌봐 드리지 못 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 성 신부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성 신부님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이 분을 모신 것이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8

90킬로나 되던 그 분이 바짝 마르신 상태의 물골로 돌아가시게 될 때까지 그 비참한 속에서 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꼈다. 그 분의 고통을 내가 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 아픈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분은 고통스러워도 앓는 소리 한번 시원하게 내지 않으셨다. 앓는 소리라도 시원하게 내면 고통이 그만큼 감소하는 데도 참고 계셨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저 입을 꼭 다무시고 음. 음 소리만 하셨다. 신부님은 연옥에서 당하실 보속을 지상에서 다하시고 가셨다. 방광에 이상이 생겨 생식기에다 고무호스를 끼고

오줌을 빼내었으므로 피도 함께 나왔는데 이 때는 몹시 아파하셨다.

성 신부님은 조배시간에 수시로 수녀들이 고해성사를 봐도 한 번도 마다 않으시고 해 주셨다. 성 신부님이 본당 사목을 하시는 동안 복사를 했던 아이들이나 귀여워했던 애들을 커서 까지도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것은 신부님께서 늘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신부님께 고해성사는 우리 집에서 하시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야단 치셨다.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당신 딸 때문에 편하게 산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다. 내게도 항상 감사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다. 나는 성 신부님의 죽음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그 자체를 내 삶 중에 위대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싶다.

성 신부님은 당신이 영세를 준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몇 년, 혹은 몇 십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꼭 기억하셨다. 그만큼 기도의 폭이 넓으셨다.

신부님은 일생동안 그리고 내가 모시는 동안에도 본국에 휴가 가시는 것 빼고는 여행이라는 것을 모르셨다.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 포항 성심회 피정을 지도하러 가시거나 마리스타수도원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가신 것 밖에는 없다. 책바오로 지도 신부님이신 외국 신부님께는 가끔 가셨다. 또 마리아회의 소 신부님 찾아 오셔서 성 신부님과 의논도 하셨다. 오로지 사목에만 종사하셨다. 그리고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가서 피정한 것이 다였을 만큼 외출도 삼가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9

성 신부님이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이 병문안을 자주 오시고 파리에서 온 편지를 신부님께 읽어드리거나 또 답장을 써서 이렇게 썼다고 읽어 드리면 신부님이 흐뭇해 하셨다. 신부님은 겁이 많으셔서 조그마한 일에도 눈을 휘둥그레 뜨시고 겁을 내셨다.

투병 초기 때에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수용하셨다.

형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의군인 남동생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으셨다. 형제 중에 막내 여동생도 장애자고 이로 인해 두 여동생이 동정녀로 살면서 보살피고 있다.

신부님은 구남매 중에 세 번째이고 그 중에 두 명의 수녀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헬렌 수녀님과 제일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던 것 같다. 한 번은 마지막 휴가 갔다 오셔서 동정녀들의 삶을 보시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늙으니까 참 안 됐다고 마음 아파 하셨다.

신부님은 본당에서 혼배를 시켜 주면 그 사람이 안정되게 가정을 꾸미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셨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49

관심을 가지시니까 한번 방문할 것을 두 번 방문하게 되고, 애로점이 있으면 충고도 해주셨다. 이런 부부들은 신부님이 수녀원에 들어오신 후에도 신부님 생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곤 했다. 본당에서도 신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 신자 집안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곤 하셨다. 꼬마에게까지도 관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이 인간에게까지 고루 전달되었고 그 사랑 안에 흠뻑 빠져 들어가신 것이다.

나의 30여년 수도생활 동안, 창설자 신부님을 모신 20여 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수녀님 한분 한분께

이 지면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잘 것 없는 저의 모든 삶을 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모두 봉헌하고자 결심한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50.

6) 김 화밀리아 수녀

누구나 잊지 못할 추억 한 두 가지는 있을 법하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나 사람, 혹은 사물이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 크게는 개개인의 삶에 독특한 정서적 자산이 되기도 한다. 나의 유년 수첩에 새겨진 성 신부님과의 만남의 현란함…… 역시 오래도록 내게 남아 있는 소중한 기억중의 하나이다. 나의 유치원 시절과 국민 학교 시절에 대한 추억이다. 거의 15년 전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4-5년 전부터 성 신부님이 본당 신부로 계셨으므로 내 유년 시절에 자리한 성 신부님의 추억은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이마에 맨 처음 물을 부어주셨고, 유치원이 파한 후에는 보자기로 쥐를 만들어서 우리와 놀아 주셨는데(당시 성당 안에 있는 유치원은 꼭 사제관 앞을 지나야했다.) 보자기로 만든 가짜 쥐가 정말로 팔딱 팔딱 뛰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첫영성체를 준비하느라 사제관 뒤뜰 계단에서 배웠던 ‘교리문답’과 요리강령‘시간이다. 뜻도 모르고 딸딸 외우는 교리문답공부와 프랑스 그림교과서를 번역 출판한 서양풍의 흑백 그림 이야기는 더더욱 선명히 남는다. 그 속에 그려진 지옥과 빨 달리고 꼬리까지 달린 새까만 마귀는 왜 그리 무서웠는지 꿈에까지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요리강령 배웠던 사제관 뒤뜰 계단으로 가서 (계단 밑 지하실에는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그림 캐도가 보관되어 있음) 마귀가 못나오도록 돌 하나를 킁킁 주어 지하실 문 앞에다 놓았다가 신부님께 들켜 손들고 별셨던 일이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진짜로 마귀는 있다고, 그리고 성 신부님이 하느님 다음으로 높은 준하느님 쪽으로 여겨졌었다.

그리고, 길고 긴 섭리에 의해, 영세아버지가 창설하신 수녀회에 입회했다.

제3부 회고담 2. 수녀 251

수련 때 성 신부님 교리시간이 있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림캐도가 어느 날 수련소 강의실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다.

“예고, 저 웬수 수녀원까지 쫓아왔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건, 뒤뜰계단에 마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깔 고운 뒤뜰에서 긴 수단자락을 휘날리시며 성무일도 책을 들고 왔다갔다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은 참말로 경이롭고 또 경이로웠었다.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사제들의 수단 밑에는 으레 초록빛의 빛깔이 연상되었고, 어느 초록예찬론자가 지어낸 듯한, 이 세상을 물감으로 생각하고 전부 풀어놓으면 하느님의 색깔인 초록색으로 된다는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결과도 형성된 것이다.

성당불이 다 정전이 되었어도 감실등 만은 빨갛게 그냥 있는지라, “지상의 모든 전기불은 저 감실을 통해야만 이 세상이 환해지는구나” 생각이 들게끔 날 이끄신 성 신부님 덕분에, 지금도 나는 예수님 집에 켜진 자그만 불빛은, 나로 하여금 잠심의 길로 이끄는 펍이나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창설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이 수도회에서 내 스물이 주렁 주렁 성장하였고, 내 서툰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며 내 마흔이 새순을 트면서, 기쁨과 슬픔의 아픈 체험들 속에 내 나이테도 나이를 먹었다.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수도회의 나이테가 두터워 질수록 어쩌면 이 모든 추억들은 유년수첩에 끼워놓은 빛바랜 사진 한 장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추억할 것이다. 그 긴 섭리의 추억들을 잊지 않는 것이 현재의 나를 확인하고 사랑하는 길이므로... 그리고 이 추억으로 인하여 생긴 믿음으로 내가 사는 보람만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사랑이며, 거기에 대한 신앙이다.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쓰시는 주님!

창설자 성 베드로 신부님을 기억하소서. 아멘.’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2

1) 목 베르몽(Bermond)신부¹⁾

12년 동안 신부님과 이웃지간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동료들을 대표하여, 신부님의 은경축을 축하드리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님의 소명은 모든 사제들처럼 천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한 일부분은 한 가정에 신부 1명 수녀 2명의 성직자를 배출하실 만큼 성(聖)생활을 하신 신부님의 부모님의 은공 덕택일 것입니다. 신부님 고향의 본당 신부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자를 위해 조사(弔辭)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만, 신부님의 부친에게만은 예외로 하셨습니다. 본당 신부께서는 모든 교우들 앞에서 부친을 치하하시며 교우들 모두에게 그 분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의 모친께서 불치병에 걸려 계실 때 신부님께서 마치 정기 휴가를 받아 프랑스에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친께서는 신부님이 마음을 다치고 포교지로 돌아가는 것을 늦추실까봐 병을 숨기셨습니다. 영웅처럼 강하신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신부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모친께서는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아들 딸이 모두 모여 임종을 맞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잠시 후 모친께서는 자녀들을 보며 눈물은 흘리지 말고 성가를 불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3

“언젠가는 천국에서 성모님을 뵈오리” 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가였습니다. 그 분은 자녀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고통을,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가 성모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이는 박해시대의 용감했던 교우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늘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오늘 이 행사에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분들의 기쁨은 신부님이나 저희들의 기쁨보다도 더욱 크실 것입니다.

1949년 이전에는 저는, 신부님의 이름만 전해 들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부님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라리보(Adrien Hoseph Larribeau) 주교님으로부터였습니다. 주교님께서 저에게 “생제르(성 재덕) 신부는 참으로 훌륭한 신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바로 신부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막 받은 참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신부님은 당신의 논산 도착을 알리고 당신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에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신부님께서 열의와 활기에 찬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주에서 돌아가는 길에는 대문간에 서서 아침 태양 빛의 짧은 턱수염에 미소를 담은 얼굴로 저를 반기셨지요. 긴 수염을 짧게 자른 모습은 아주 옛되어 보였습니다.

1) 위의 글은 목 베르몽 신부가 편지 식으로 작성하여 1960.6.29 성 신부 은경축일 날 논산성당에서 강론한 내용이다. 베르몽 신부는 당시 강경본당 주임신부였고 성 신부의 고해신부였다.

논산으로 막상 내려와 보니 심각한 문제가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학교 문제였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월급도 못 주는 형편에다가 학교 운영비도 없었고 채무까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학교는 금방이라도 문을 닫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서는 그 학교 운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교님과 신부님의 생각으로는, 비록 학교 운영에서 당장에 나타나는 큰 결실은 없다 해도 천주교회에서 기본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은 훗날 무신론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공산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조만간 반드시 영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3

재정적인 문제가 다는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교사 채용의 문제였으며 그것은 신부님께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신뢰감이 가지 않는 교장은 바꾸어야 했습니다. 모 교사는 그의 직분을 다하지 않으며 또 모 교사는 정직하지 못하고, 신임 교장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 계속 남아 주기를 바랐으나 두 교사가 교장에 항거하는 바람에 교사, 학생들 모두의 마음에 드는 새 교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휴가차 고향에 다녀 오자마자 유치원을 창설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도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새 건물을 지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끝난 뒤에는 이번엔 신부님께서서는 부양 가족도 없고 돈도 없이 고통받는 할머니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들을 다 맡으려면 큰 집도 있어야 하고 먹고 옷도 입혀야 하며 또 노인들을 돌보다 줄 수녀님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아니면 그 노인들은 버려진 채로 있을 것이며 양로원을 짓게 되면 양로원은 그 노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을 신부님께서서는 누구보다도 잘 ○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께서서는 병자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 수녀님들께 치료와 약 처방을 맡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중환자들을 방문하여 임종을 맞는 환자들에게 대세를 주셨습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4

이 모든 사목 활동들이 참으로 귀하고 훌륭합니다만,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공소활동이지요. 신부님께서서는 한국에 도착하신 지 6개월 만에 페랭 신부의 보좌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신부님께서서는 지방의 한 본당을 맡게 되셨고 곧 이어 서울의 큰 본당을 맡으셨습니다. 1948년 충청남도 지역이 파리 외방 전교회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님은 논산 본당을 맡게 되십니다. 훌륭한 본당이지요. 하지만 학교 문제와 같은 막중한 책임감이 걸려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논산 본당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에는 교우수 1,800명에 11개의 공소를 가진 규모의 성당이었지만 9년 후에 교우수 3,900명과 공소 31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이 막대한 숫자는 신부님 혼자만의 힘으로 베풀었던 것이었으므로 1,000명의 교우를 떼어 새 본당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20개의 공소와 2,800명의 교우들을 관리하시게 되었죠. 그러나 신부님께서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숫자의 증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껏 이교도 속에서 살아온 신입교우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게 하며 수계를 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지요.

그 무엇보다도 고된 일은 성무 집행이었지요. 매주 토요일이면 100내지 150명에게 고해를 주고 매주 일요일엔 3차례 강론을 하며 일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주간대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학교의 각 학급에 1시간씩 교리문답을 강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10,20,30리 혹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공소로 중부성사를 주러 가야 하는 일도 종종 있었지요.

1954년부터 신부님께서서는 항상 주위에 한 두 명의 젊은 한국인 사제를 두고 한국어를 배우며 또 일요일에는 세 대의 미사 중 한 대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가 한국인 사제들은 신부님께 또 다른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즉 그 사제들이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자 신부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한 본당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사제들이 신부님께 도움을 주었다면 신부님 역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도움이란 한글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글공부를 위해 할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란 신부님께서서는 선교사로서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는데 있습니다. 열성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의무에 결코 소홀함이 없으며 훌륭한 강론과 그것을 거침없이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6

신부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우리 프랑스 선교사와 같은 성직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입문 지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신부님께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신부님께 무척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귀로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을 본받아 그들이 모두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였음을 보며 제가 이렇게 기쁘게 하물며 신부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교회의 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동료애 또한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 동료애를 지키기 위해 신부님께서서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당신 집을 방문하는 동료 신부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다. 몇 시간 되든, 며칠이 되든 신부님 댁에 있는 동안 동료들에게 최대한의 안락함을 제공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역시 동료 신부님 댁을 즐겨 방문하시곤 했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것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신부님께서서는 저를 자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당신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라면 피로와 수고를 무릅쓰고 기꺼이 저를 도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 형제라도 그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6

1952년 신부님께서서는 한국 부지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알레(Haller) 신부가 부재 중이실 때엔 그를 대신하여 지부장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지요. 그러나 너무 겁은 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부님께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드뱅(Beaudevin) 신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신부의 육중한 체구 속에는 금 같은 순수한 마음이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성 신부님! 신부님께서서는 다이아몬드식(6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시는 그 날에는 천주님께 더욱 풍성한 결실을 바쳐 천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중,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날리라.” 하시는 칭찬을 들으시길 빕니다.

2) 구인덕 신부¹⁾

천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며 그 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다릅니다. 1988년 6월 8일 오래 전부터 지병을 앓게 계시던 성 (피에르 생제, Pierre SINGER) 신부께서는 병 간호를 위해 프랑스에 와계신 여동생 엘리사벳(Elisabeht) 양이 함께 있는 가운데 당신 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성 신부께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신부님을 지켜 보던 수녀님들은 당황하여 신부님을 구급차에 옮기고 병원으로 가서 X-선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아무런 골절은 없었습니다.

신부님의 임종이 임박했다고 여겨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장례미사에 몰려 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당이 어느 정도 커야 했으므로 성 신부께서는 11년간 주임 신부로 계셨던 혜화동 성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미사 시간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미정이었지요. 왜냐하면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일을 하는 것은 하느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침상에서 부동의 자세로 성 신부께서는 당신을 천주께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1,24 : 사도 바울로의 말씀 중에서)

그의 기나긴 고난은 1992년 2월 26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 날 성 신부께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 가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 신부님의 성당이기도 한 바로 이 성당에 모인 우리는, 신부님 여동생이신 수녀님과 그의 형님 그리고 자매님들, 즉 함께 희망과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신부님의 가족분들과 이제 성 신부님께 신념에 찬 우정의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 신부님께서 성소를 받고 1928년에 오신 곳이 바로 이 신학교입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8

신부께서 가신 길을 회고해 봅니다. 사제의 길로 향한 그분의 긴 여로에서 그분을 안내하고 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가정 환경 헤댕(Hesdin) 본당의 열성, 그리고 이 곳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하나의 같은 이상을 공유하고 하나의 같은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맺어진 단단한 우정의 뒷받침, 동남부 지역 외교인들의 선교사를 고대하던 상태, 이 모든 요소들이 젊은 신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곳 신학교와 외방전교회 전체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친 경외하울 요한 드 뷔드 드 케브리앙 (Jean B. Budes de Gunbrant) 주교님을 회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흰칠한 키에 고귀한 성품, 이 훌륭한 선교사의 모습은 우리들의 젊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황성하를 공개 알현했던 잊지 못할 그 날, 교황 비오 11세께서는 그분을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주 두 번씩 주교님께서 행복한 미소와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우리의 선배들과 같은 행적으로 교회사를 기록하라고 고무시켰습니다.

1) 1992년 4월 4일, 파리 외방전교회 파리 본부에서 성 신부님을 기리는 미사 때 구인덕 신부가 준비한 강론이다. 그러나 구 신부는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강론을 못하고 본 자료집에만 실리게 되었다.

성 신부께서는 신학을 마친 후 1935년 7월 7일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같은 날 저녁 한국의 수도 서울로 임지를 받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즉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4월 30일부터 당장 교구 사목에 들어가시니 실로 다급한 부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聖) 페랭(Perrin) 신부께서 주임 신부로 계시던 충남 함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페랭 신부는 1950년 공산당들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1938년 6월 6일 성 신부께서는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의 드뇌(Deneux) 신부의 보좌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임 신부께서 중심부 교우들을 맡고 새 성당 건축에 전념하시는 동안 보좌 사제인 성 신부께서는 본당의 공소 사목과 학교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59

그러나 성 신부의 자질은 이미 라리보(Larribeau) 주교로부터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성 신부께서는 1939년 7월 17일에 서울의 세 번째 성당인 혜화동 성당의 주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성 신부께서는 그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의 몫이었던 자녀들의 교리 공부를 재구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성찬의 십자군(Croisdes Eucharistique)”¹⁾에 등록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60명이 사제가 되었고 구 두배에 해당하는 여아들이 훗날 수녀원에 들어갑니다.²⁾

1939년 9월 1일, 유럽에서는 전쟁이 터졌고, 1941년 12월 7일³⁾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500,000명의 한국 젊은이가 즉시 일본 천황을 위해 병적에 등록되었습니다.

의무 작업이란 명칭 하에 300,000명 한국 처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믿었던 바와는 달리 일본군 중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입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대 공포였습니다. 겁에 질린 10여명의⁴⁾ 한국 처녀가 성 신부께 보호를 청했습니다. 신부께서는 그 처녀들에게 혜화동 성당의 언덕 위에 위치한 사제관의 비어 있는 집 한 채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신부께서도 극빈의 상태에 계셨으니까요. 그 처녀들은 낮이면 마을로 흩어져서 일손을 도와주고 그 댓가로 양식을 얻어 왔습니다. 저녁이면 피곤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이면 이른 새벽에 미사에 참여하고 전날과 다름없는 일과를 되풀이 했습니다. 그렇게 거듭하기를 몇 주일이 지난 후 한 착상이 떠올라 이를 성 신부께 상의드렸습니다. “저희가 평생을 매일 함께 기도를 바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성가수녀회(la Congregation des Soeurs de la Ste Famille)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3부 회고담 3 사제 260

1949년 5월 2일 성 신부께서는 충남 논산 본당으로 임지를 옮겨 가십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 계시던 프랑스 선교사 전원이 이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데, 그것은 새 교구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새 교구의 건립은 1961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1942년 로마 교황청에서 서울과 대구 두 교구에 한국인 주교를 임명함으로써 파리의 방전교회는 그동안의 결실을 한국인 사제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겨우 임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1) 용심단(勇心團)이라 불렀다. (백동 반세기 - 혜화동 성당 50년사 - 천주교 혜화동 교회편 1977. p139)

2) 숫자는 과장된 듯하다.

3) 1948년 12월 8일.

4) 10여명이 아니라 7~8명의 처녀들이 임 1942년 성 신부의 지도를 받았으나 수도생활하려는 의의가 없어서 해산되었다. 그후 성가소비녀회 지원자 모임이 1943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발발합니다. 그 날 이른 아침 괴뢰군은 38선을 넘어 부산까지 밀고 들어오며 모조리 짓밟았습니다. 13명의 프랑스인 신부들이 집에서 붙들렸고 그중 일곱 분은 자취도 없이 실종되었으며 충남의 남쪽에 계시던 몇 분의 동료 신부들은 공산당의 준을 피해 다행히 부산까지 피난을 하셨는데 성 신부께서도 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1950년 9월 1일 전세는 뒤바뀌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으로 공산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년 봄에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부산에 피신 가 있던 동료 신부들이 각자의 임지로 돌아가고 성 신부께서도 논산으로 돌아오십니다. 성당은 예전의 상태 그대로였으나 사제관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수천의 피난민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성 신부께서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협력으로, 괴뢰군 침공으로 문을 닫았던 가톨릭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시 열고¹⁾ 논산에 여자 학교를 하나 창설했습니다. 버려진 할머니들을 위해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생 꿈이었던 주교좌성당과 같은 멋진 성당을 건립하심으로써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당은 곧 영세를 받고자 몰려오는 외교인들을 맞기에 비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사제 261

성 신부께서는 지쳐 있었고 그 피로는 마지막 날까지 신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홍산에서 잠시 휴양을 취한 신부는 1969년 12월 12일 성가 수녀회로 돌아가 여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여정이었으니 그 곳에서의 결실 또한 풍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신부님의 긴 여생을 돌아보면서 이 사제의 이상이 무엇이었는데는 되짚어 봅니다.

교우, 외교인, 모든 이들에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재현하는 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목자는 그의 양들을 알아보고, 또 그 양들은 그의 목자를 알아보니 그의 임무가 끝났다고는 한 순간도 생각지 않고 늘 염려 속에 살았던 그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요한10, 16)

이 복음 구절이야말로 성 신부의 일생 동안 그의 심오한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며 또한 이 구절에서 사도로서의 최고의 열정을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그가 한국의 교우들에게 남겨 놓은 추억에는 교우들이 간직하고 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유해를 지키며 기도를 바치는 이 수많은 교우들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이제 성 신부님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기도함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세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소서.” (요한17,24).

1) 대건 중고등학교를 말함. 이미 중학교는 운영하고 있었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장 금구 신부¹⁾

내가 서품을 받고 나서 처음 보좌신부로 부임해 간 곳이 혜화동 본당이였다. 본당 신부님은 프랑스인이신 Singer 성 신부였다. 나이는 아와 동갑이었으나 서품을 나보다 3년 빨리 받으셔서 본당 신무로 오시게 된 것이였다. 만 2년 동안 보좌 직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사목 활동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에 2년이란 시간이 참으로 짧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 때는 교우들이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의 관계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불러오던 때였다. 그래서 어느 날 공지 사항을 전하는 시간에 “우리 주 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입니다.” 라고 하셔서 신자들이 웃은 일이 있었다.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 형제처럼 보살피 주셨고 선배 목자로서 사목하는 데에도 많은 교훈을 주셨다.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훗날 내가 사목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성부님의 교적 공부하시는 것이였다.

성 신부는 매일 교적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 있다. 지면상으로 하는 교우들의 가정방문 시간이라 하시며 매일 매일 교적을 들여다 모셨다. 우리 사제는 목자라고 한다. 목자의 직책은 항상 양의 우리를 돌아보면서 양들이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먹이는 제대로 먹는지 등을 살펴보고, 병든 놈은 갈라놓아 주사도 놓아주고 약도 먹여 치료를 해주고 잘 먹지 않은 놈은 먹이를 바꿔 주어 잘 먹도록 해주며 우리 밖으로 나가는 놈은 다시 잡아넣어 주기도 하며 또 울타리를 튼튼히 해주어 늑대가 침범치 못 하도록 성의를 다 하여 양들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 것이 성실한 목자의 태도이다.

우리 사제들 역시 착한 목자가 되려면 교우들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자주 가정방문을 해서 그 집안 식구들의 신앙 상태를 아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그러나 매일 집집마다 방문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니 그 대신에 교적을 가지고 공부하면 볼 때마다 모르던 것을 알

3. 사제 263

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 신부님의 생각이셨다. 서 신부님은 길을 걷다가도 본당 어린이를 만나면 그 집안 식구들의 신앙 정도를 꼭 이야기 하셨다. 혹시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불들고 아버지는 누구냐? 형제는 몇이나? 성당에는 잘들 나오느냐? 등등을 묻고 난 다음에야 보내주고 돌아와서는 교적에 새로 알아낸 것을 기입해 놓으셨고 어른을 만나서도 마찬가지로 하셨다. 자녀들 중 누구는 성당에 잘 나오고, 누구는 자주 빠지니 잘 지도하라고 지적해 주셨다. 그러면 교우 숫자가 많지 않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당시 혜화동 교우가 3,000명이 넘었으니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결코 작은 본당이 아니었다. 1988년인 현재까지도 우리 교우66개 본당 가운데에 3,000명 넘는 본당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나중에 내가 본당 주임신부로 일하게 되었을 때 나도 이 방법을 따르게 되었다. 사무장이 있는 본당에서는 교적을 두 벌 만들어 한 벌은 사무실에 두고, 한 벌은 내가 보관하면서 공개하지 못 할 비밀사항까지 모두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하기를 내가 60나이가 되어 고향으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 왔는데 그 효과는 지대했다고 본다. 내가 안양에서 바쁘기도 했

1) 장금구 신부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집인 「사목 반세기」에서 발췌.

고 사무장도 있으니, 구 교적을 새 교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사무장에게 시켜도 무방했겠으나, 교적을 공부하려는 욕심으로 나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시작하였고 거의 마쳐갈 즈음에 피로를 못 이겨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것이었다. 이를 안 동료 신부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규탄하였지만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다른 어느 사목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린이 교육에 관한 신부님의 생각이다.

본당에는 연령회, 안나회, 부인회, 청년회, 성가대 등 여러 단체가 있다. 그러나 그 단체들 중 성인 단체는 마무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도한다고 해도 30%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만, 어린이 교육에 정열을 쏟으면 8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성 신부님의 생각이셨다. 그래서 우선 충력을 어린이 교육에다 쏟고 여력이 있다면 다른 단체에 힘쓰자는 것이었으므로 나 역시도 그 생각에 공감하였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264 제3부 회고담

오후에는 4학년 이상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놀아와 장난을 시키거나 가까운 산에 가서 재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였다. 단체명을 “용심단”이라고 하고 모표도 용심이라 만들어 베레모에 붙여 쓰고 다녔다. 성 신부님은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라면 사재(私財)라도 털어서 유구를 장만해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다. 신부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피로함을 느낀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되에 물뚝 없이 하루를 지내게 한다는 생각이 그 피로를 잊게 한다고 하셨다. 또 이것이 성소계발의 한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보셨던 것이다. 2년 동안 용심단을 지도하면서 신학교에 보낸 사람이 7,8명 있었는데 현재 사목에 일하고 있는 사제 중에 베네딕도 회 장 베다 신부와 이 석충 신부, 장 익 신부, 장발씨 아들 장신부들이 있고, 덕원 신학교에 가서 병사한 김 봉건 등이 다 용심단원이었으며, 이밖에도 평신도로서 교회에 충실한 봉사자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나는 어린이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처지였으나 용심단을 끌고 다니며 지도하다보니 자연 어린이들과 가까워지고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얼마나 성과를 올렸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야말로 앞으로의 교회의 기둥이 될 싹들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셋째는 여성 단체의 사목이다.

혜화동에 와보니 전임 신부님이 활동가여서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젊은 여성 단체로서 여자 청년회와 성가대가 있었다. 그런데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좋아나 일반 교우들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처지여서 뒷공론의 여지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두 신부는 의논한 끝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 사제관에는 여자 혼자만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야외로 갈 때에는 아주머니나 할머니 한분을 꼭 함RP 모시고 가자. 그러면 그 교우가 산 중인이 되어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러 가도 재미있었다는 선전만 할테니 구설수에 오르내릴 리 없다는 결론이었다. 과연 맞는 말이었음이 훗날에 증명되었다.

3. 사제 265

그리고 우리 두 신부는 항상 형제와 같이 지냈다. 힘든 일은 서로 내가 먼저 하려 하고 좋은 것은 서로 미루어 항상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생활하였다. 공소 순회를 할 때 멀고 험한 곳을 제각기 자기가 가겠다고 싸움 아닌 말다툼도 가끔 하였고, 병자성사를 청하는 교우가

있으면 서로 몰래 가방을 들고 먼저 자서기도 아였다.

다섯째, 처리하기 어렵거나 혼배 관면문제가 있으면 주임신부는 자기가 몰라서가 아니라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 함께 상의 하였다.

여섯째, 주일강론은 교대해 가면 한 주일에 미사가 몇 차례 있든지 그날 강론은 같은 신부가 하며 꼭 먼저 기록해서 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미사에 가든지 똑 같은 강론을 듣게 되고 강론 주제도 일 년분을 정해 놓고 함으로써 반복되는 경우가 없고 신부가 바뀌어도 연속되는 강론을 듣게 되었다. 시간은 15분으로 정해 두었다. 그래서 나는 강론을 잘한다는 서리는 들어보지 못 했어도 지루하다거나 짜증스럽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은경축까지는 미리 강론을 준비, 꼭 써가지고 강론을 했으나 그 후로는 피가 나서 요점만 적어가지고 강론을 한 때가 많았으니 교우들이 지루하게 느끼고 짜증스럽게 여긴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 미안口한 마음도 없지 않다.

일곱째, 주일 헌금제도를 시작했다.

그 당시 서울에는 본당이 4개 밖에 없었는데 헌금이라고 4대 축일에만 있어 왔다. 그 액수는 불과 몇 십 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본당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장 박 교수님이 제도를 바꿔보자고 제안하셨다. 자기의 경험으로 보아 매주일 헌금을 하게 되면 주일만하는 헌금의 액수가 대축일만의 헌금 액수보다 더 많을 것이란 제안이었다. 물론 회장들 중에는 반대 의견을 펴는 이도 많았다. 그러나 장 교수의 말은 “누구나다 성당에 올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는데 몇 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4대 축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헌금을 준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빈 몸으로 갔다가 헌금을 못

266 제3부 회고담

하고 나오는 때가 많이 있으니 액수가 올라갈 턱이 만무하다. 그러나 매주일 헌금이 있다고 하면 옷 갈아입을 때마다 손수건을 입지 않는 것처럼 헌금도 잊지 않게 되리라“는 이론이었다. 그래서 성 신부님과 함께 한 번 시험해 보기로 결정하고 한 두주일 공시사항으로 주일 헌금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실시했던 바 결과는 이론 그대로 나타났다. 이것이 한국에서 매주일 헌금을 시작하게 된 효시가 아닌가 한다.

여덟째, 교무금 납부 방식 변경이다.

그 때의 교무금 납부 제도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을 만큼 미미했었다. 본당에서는 가을에 회장들이 모여 앉아 교우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고지서를 보내어서 성탄 전에 바치게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60년까지 그대로 계속하는 본당이 있었다. 우리는 부임한 첫 해인 1939년에 교무금을 책정하는 회장 회의를 소집했다. “작년도 교무금이 얼마였오?” “520원입니다.” “어떻게 책정했오?”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잘 수납되었습니까?” “잘 수납되기는요. 옥신각신하다가 먹살을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따귀까지 맞은 일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방식을 바꿔보면 어떻겠오?” “어떻게요?” “본인들의 형편과 성의에 맡겨 바치도록 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돈 1,000원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520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부족한 액수는 우리 두 신부가 충당할 테니 그대로 해 봅시다.” “아 그러면야 우리는 옥먹지 않고 좋기는 하지만 어찌 그렇게야...(말끝을 맺지 못한다)” “그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폐회하였다. 그래서 봉투를 사다가 “교무금 봉투”라고 찍어 각 교우 세대에 한 장씩 돌리고 한 주일 강론을 통하여 교무

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는 직접 본당 사무실에 바치도록 했다. 이유는 교무금을 회장이나 반장이 받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말이 되어 교무금 수입 총액을 계산해 보니 2,500여원이 되었다. 5배가 넘는 액수가 들어온 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

3. 사제 267

면 담배 다섯 갑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배정 제도 때에 어렵게 어렵게 500원 수납되던 것이 자기 성의로 본당에 와서 바치는 금액이 5배라는 데서 우리에게도 의외였지만 회장들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이리이었다. 그리고 보면 구 교우들이 교회에 대하여 인색하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더 큰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좌 2년을 마치고 나는 떠났지만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나에게 있어서 사제 생활의 기초를 닦는 데는 충분하고 중요한 시기였음을 지금도 잊지 못 하며 성 신부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

4) 유영도 신부¹⁾

지금부터 55년 전의 이야기이다.

내가 성 신부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지금부터 55년 전의 일이다. 당시 성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일 먼저 부임한 곳은 인천 답동 성당이었다. 그 당시 인천 답동 성당은 인천에서 하나 밖에 없는 성당이었다. 답동 성당의 주임신부로는 불란서 파리외방선교회 전 에우제니오 신부님이 계셨고 성 신부님이 보좌신부로 계셨다. 높은 언덕에 성당이 있었고 그 밑에 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는 인천 박문 보통 학교였다. 당시는 일정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교육에 대한 간접적인 박해가 있었다. 성당은 언덕 위에 있고 한 쪽에 박문 보통학교 여자부, 한 쪽에는 박문 보통학교 남자부가 있었다. 창설자는 외국신부님이었는데 외국 신부님은 교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황해도에 계셨던 임 종국 신부님을 보좌신부로 모셨다. 임 신부님은 보좌였지만 교장신부를 하셨다. 그리고 외국 신부님이신 전 신부님은

268 제3부 회고담

은퇴하시고 임 종국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되셨는데 이 때 보좌신부님으로 성 신부님이 부임하신 것이다. 성 신부님은 20대의 젊은 신부였다. 가끔 복사들을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가지고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드름을 짜내셨다. 그리고 신부님은 “아휴! 창피해요.”하면서 여드름을 열심히 짜내시던 분이 바로 성 신부님이셨다. 그때의 목격자는 김창석 신부였다고 생각한다. 김 신부님이나 나나 그 당시 복사였고 이 젊은 외국신부님은 우리 코흘리개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잘 지도해 주셨다. 신부님의 사랑어린 열정으로 당시 많은 복사들이 신부가 되었다. 그 중에 김창석 다대오 신부, 박 병훈 도마 신부, 김 회선 요셉 신부, 이종한 신부 그리고 나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

한 번은 성 신부님이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왜정 때라 경성제국대학(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맹장 수술을 받으시는데 의사들에게 마취하지 말라고 하시니 위사

1) 1992년 3월 19일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개최한 한·불 문화교류 연구회 창립기념 간담회 요지문.

들이 웬 말이냐고 했다. 성 신부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동참하기 위해서 마취하지 않으시고 맹장수술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맹장수술은 성공했다. 나는 이 일에 매우 삼탄했다. 수만리 외국 땅에 오시어 코흘리개 초등학교 복사들을 귀여워하시고 더구나 맹장수술을 마취 없이 받으신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신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성 신부님께서 보이신 좋은 표양을 본받아 오늘날 신부가 되어 서울교구, 수원교구에서 활동하고 많이 계시다.

혜화동본당에서 성 신부님의 좋은 표양을 받고 신부가 되신 분들도 많다. 최승룡 신부님도 그 중의 한 분이시다. 가톨릭 신학교가 혜화동성당 뒤에 있기 때문에 신부님은 혜화동 본당 신부 재임 시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건강 한가 잘 지내는 가 공부 잘 하는가를 직접 물어 보시며 성소에 항구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3. 사제 269

황 민성 주교와 내가 로마에 갔을 때 신부님도 휴가차 본가에 가게셨을 때였다. 그곳에서 장면박사를 만났다. 내가 신부님과 함께 한국에서 떠나 다고 하니 장면박사는 구 분께 잘 해 드리라고 말씀 하셨다. 우리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한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한국 사절단의 일행으로 당신이 대표단 단장으로 왔는데 유엔의 승인을 얻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성 재덕 신부님과 브라운 대주교님이라고 했다. 브라운 주교는 호주의 유엔 대표단 인솔자로 참석하신 분으로 호주 출신이었다. 장면박사가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가던 길에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브라운 대주교님은 한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을 받는데 여론을 모아 주셨다. 또 성 신부님은 한국이 유엔의 승인을 결정하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 인지라 각국의 대표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날 처지여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 신부님은 친구들을 동원하여 자동차를 대표들에게 보내어 한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기 되어 있는 회의석상에 참석하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참석하여 결국 승인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열여섯 표가 다 천성을 하여 독립이 승인된 것이었다. 장면박사가 로마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윤 종학 신부¹⁾

나는 태어나자마자 성 신부님께 유아세례를 받았다. 우리 집이 논산성당 관할 공소였기 때문에 성 신부님께서 오신 것이었다. 내가 소 신학교 2학년 때 성 신부님께서 홍산 본당 주님심부로 부임하셨다.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분은 최 세구 신부님이셨는데 내가 소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본당을 떠나셨고 그 후임으로 성 신부님께서 1964년 도에 부임하셨다.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을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죽으면 나대신 너희들이 미사를 드려야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다.

1) 홍산 출신. 1992. 4. 4에산 천주교회 사제관에서 김 미리암 수녀가 인터뷰한 내용.

신부님은 한국말에 대해 좀 둔감하신 편이셨다. 그 무렵 나는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10리나 떨어진 홍산 본당으로 미사를 갔는데 하루는 신부님께서 “너희 집이 성당에서 얼마쯤 되는 거리냐?”고 물으시어 10리라고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그 후 11월에 신학교에 면회 오셔서 나를 보시고는 어머니가 종부성사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방학 때 그 먼 곳에서 미사 다니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당신이 직접 10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체험하기고 나서야 그 개념을 이해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당시, 당신이 보내신 신학생 4명(윤 종학, 윤 종수, 윤 종관,?)에게 주시려고 사탕 4봉지를 사오셨다. 상탕 한 봉지씩 받아들고 가는 우리를 보고 다른 신학생들이 어떻게 본당 신부님이 면회 오시어 사탕까지 주시냐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신부님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나의 영세문서를 보니까 당신이 영세를 주었다는 싸인 이 있다고 하시며 나를 각별히 생각해 주셨다. 당신 아들 신부들이 신품성사를 받으면 그들에게 꼭 성인 신부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신품성사를 받고 새 신부로서 성 신부님과 함께 수녀원 미사를 드렸는데 이때 신부님께서 “예수님. 우리 벨라도 천당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다.

성 신부님께 대한 추억은 늘 그분이 마를 사랑해 주셨던 것들로 가득하다. 선 신부님을 방문할 때 어쩌다 다른 수녀님을 먼저 만나고 신부님을 뵈러 가면 당신께 먼저 오지 않았다고 회를 내시곤 하셨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공동 미사를 들리기를 좋아하셨고 항상 내 아들 신부라고 자랑하셨다. 신부님은 다른 신부들과 미사 드릴 때는 주례미사 권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나와 함께 드릴 때에는 내게 주례 권을 주셨다. 또 평일 미사에서도 나와 함께 미사를 집전하실 때는 반드시 평화를 인사를 나누게 하셨다.

3. 사제 271

또 내가 군종신부였을 때 신부님을 뵈러 가면 식사를 함께 하시며 “아버지한테 온 것이다. 아버지가 밤 준다.”하시며 아주 즐거워 하셨다.

나의 신학교 시절, 어머니께서 병환이 드셔서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집안 사정이 무척 어려웠었다. 그때 신부님께서 나에게 27,000원이나 되는 큰돈을 주시면서 양복과 구두를 k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이를 잊지 못 한다. 나 역시 신부님께 담은 것을 내 후배 신학생들에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신부가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 고해소 안에서 화내지 말고 성사 잘 주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신부님은 어린 아이들이 복사하는 것보다 신학생들이 복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 “ 좋다! 신학생들은 신부되어 제단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기뻐하셨다.

내가 무제 때 서울 도림동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당시 성가회의 골룸바 수녀님, 크리스티나 수녀님, 예로니모 수녀님이 계셨다. 그런데 성가회본원에 신학교의 부제들이 봉사하러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성 신부님께서 나의 아들도 부제라고 하시며 파견되기로 한 다른 부제를 거절하시고 내가 다른 부제 1명과 함께 성 신부님 복사를 하게 하셨다. 그 부제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신부님께서 그만큼 나를 각별히 사랑하셨던 것이다.

성 신부님께서 어린이들처럼 놀이를 좋아하셨다. 보자기 같은 것으로 쥐를 만들어 툭 튀

기시면 아이들이 놀라하는 것을 몹시 재미있어 하셨다.

또 한 가지 잊지 못 할 추억은 내가 대자에게 선물하랴고 몇 개의 고상을 서서 신부님께 축성을 받으러 갔을 때의 일이었다. “ 이놈이 좋은가. 저 놈이 좋은가?” 하며 고르고 있었더니 신부님께서 “아리고 예수님이여! 예수님 보고 이놈이랍니다. 이 무례함을 용서하고서.” 하시며 과안대소하시던 생각이 난다.

272 제3부 회고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신부님께서 성가 수녀회에 대해 각별한 사랑을 가지셨고 또 성직자로서 다른 모든 후배 신부들과 수도자들의 모범이 되시려고 애쓰신 모습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홍산 에서 성가 수녀원으로 이동하시게 되었을 때 그 일을 두고 “내가 창설한 수녀원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 하면 어떻게 하나...” 하시며 무척 고심하셨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과의 생활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성가 소비녀회가 점점 커지면서 창립 초창기의 정신에서 자칫 벗어나거나 혹은 그 정신이 퇴색할까 걱정하시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수도회의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수도회가 그 하는 사업이 방대해져서 기업화됨에 따라 자칫 소비녀의 근 정신을 잃게 될 것을 저의하신 것이었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도회의 회원이 늘더라도 혹은 수도회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소비녀 본래의 정신만은 변함없이 이러가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6) 최 승룡 신부¹⁾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21)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요한 21,15)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16,15)

“어린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

3. 사제 273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마태19,29)

우리는 지금 한 성자의 죽음을 눈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틀림없이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어부가 되어 선배이신 성인 선교사들의 뒤를 따라 50년 이상을 이 땅의 어린 양들을 위해 일하셨

1) 고(故) 성 배덕 신부 고별 강론 (1992. 2 28. 길음동 성당 장례미사)

고 또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성 신부님!

신부님께서 해화동 본당 신부로 계시던 시절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당 마당과 사제관은 완전히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귀하던 각종 놀이 기구를 장만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뛰노시던 신부님.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어린이 미사”책을 엮어서 보급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 만한 “영세 허위 재신식”이란 예절을 만드셔서 여러 신부님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치르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착하신 주여, 용서하소서.” 성 신부님이 사도하셨던 “어린이 미사”노래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때 복사 단 열 명 중 여섯 명이 신학교에 갔었는데 모두 실패하고 그 중 하나만 신부가 되어 이렇게 ‘고별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소비녀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그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명의 열심한 처녀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남들이 마다하는 온갖 낯선일을 주님을 위해서 도맡게 할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논산에 십오 년 간 계시면서는 내내 공소방문, 사목활동을 하시느라 먼 시골길을 자전거로 바쁘게 다니셨지요. 나중에 허리병까지 얻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불란서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지요. 그때 어느 어머니가 열 살 쯤 된 아들을 데리고 신부님께 와서 “신부님, 요셉이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야단 좀 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목자요 아버지이신 신부님이셨습니다.

274 제3부 회고담

6·25전쟁이 끝났을 때 무의무탁한 할머니들을 위해 본당에 양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양로원이 바로 현재의 ‘췌 뿔 양로원’입니다. 또 여성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지금은 이천 명이나 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췌 뿔 여자중고등학교’의 기초를 다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생시절이었고 방학이 되면 신부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은 제가 직접 가까이서 보고 들은 일들입니다.

환갑이 거의 다 되셔서야 신부님은 본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창설하신 수녀원으로, 당신이 만드신 교야군 송인면 미아리 공소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본당에서 신부님 고별미사를 지내는 것도 하느님 사랑의 깊은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 아래 시장 골목 한옥에서 신부님께서 공소 미사를 지내시고 제가 복사를 하다 미사 책이 무거워 떨어뜨린 생각이 납니다.

1943년 성가소비녀회는 신부님이 충청도로 떠나가신 후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면서 원래 설립 의도와는 좀 다르게 거대한 수녀원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신 신부님은 수녀원의 내실을 기하고 설립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해 수녀원들의 영적 교육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신부님을 찾아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강의 준비에 몰두하고 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신부님의 이런 높은 뜻이 헛되지 않아 이같이 본래 대로의 성가 소비녀회 정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신부님께서도 무척 흐뭇해하

실 것입니다. 양로원, 무료병원 등 가장 힘들고 비천한 일에 주력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며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3. 사제 275

말년에 보내셔야 했던 병상생활, 그 5년간의 긴 투병 생활 역시 거의 초인적이셨습니다. 수녀님들도 정성껏 모셨겠지만 신부님은 무의식중에도 언제나 평화롭고 어린이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강복을 드릴 때마다 ‘이대로 빨리 돌아가십시오.’하고 빌었습니다.

제 본명은 테오필로입니다. 희랍어로 “하느님 사랑”이란 뜻입니다. 신부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오! 테오필로! 하느님 사랑”하고 부르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백번도 더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생전에 사랑하시던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다른 한편, 신부님께는 영광스런 개선의 날이기도 합니다.

신부님이 뿌리신 사랑의 씨는 사방에서 그리고 영원히 꽃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혜화동에서, 미아리, 논산, 홍산, 수녀원, 양로원, 자선병원, 신부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수도회 설립자는 대부분 성인품에 오르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 베드로,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276 제3부 회고담

4. 평신도

1) 김 천식¹⁾

강 디모테오 수녀님께

저는 김천식 디베리오로, 1931년생입니다. 미국에는 1978년에 이민 왔으며 아직 미국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민 온 후 한국에는 주 번 방문했으며 신부님도 뵈고 왔습니다. 이네 한국에 가도 신부님을 뵈 수 없다고 생각하니 허전합니다.

제가 성 신부님을 가까이 뵈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즉, 신부님께서 혜화동 본당에 부임해 오시고 2차 대전으로 귀국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오래 전 얘기이며 제기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본 신부님의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부님께서는 어린이, 가난한 사람, 노인 등 소외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목하는 사제였습니다. 어른을 통해서 아이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을 알고 그 가정을 파악하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일 어린이 미시는 보좌신부가 집전하고 본당 신부인 성 신부님은 항상 아리들과 같이 성가를 부르고 아리들에게 전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항상 아이들과 같이 신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방패놀이 찰뽀 등 놀이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프랑스에서 가져 오신 만화 성인전

1) 위의 글은 김 광식 신부의 형님이 1993년 부활절에 디모테오 수녀님께 띄운 글이다.

등 영화를 신부님 방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놀이가 끝나면 다 함께 다시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하였으며 기도 중에는 모두 팔을 얹어 옆 사람과 손을 잡게 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아리들에게도 아리들의 부모가 훌륭하다는 것을 틈틈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가 새로 감실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종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애일… 맛있는 생선을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등으로 말입니다. 당시는 TV도 없었고 영화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으므로 주일 오후에 성당에 모이는 어린이는 약 오, 육십 명 가량 되었습니다. 모두들 맘을 흘려 가며 재미있게 하루를 놀다 가게 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작사 작곡, 노래도 만드시고 아리들에게 가르치고 노래하게 아였습니다. “호, 웨이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 말라 그전에 짧은 뱃사공, 멀리 가서…” 등 노래를 부르면서 신학교 운동장으로 행진해 가고 또 돌아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부님은 겸손하셨고 거의 모든 시간을 교우와 같이 지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도 부탁했으며 성인 신부가 되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낫선 한국에 오시어 훌륭하게 적응하시고 예수님 닮은 생활을 실천하신 사제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신부님으로부터 보미사도 배우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복사도 하였습니다. 당시로 매일 미사가 아침 5시, 깜깜한 아침에 일어나 혼자 성당에 달려가 미사참례하고 도 학교 가고 하던 생각을 하면 신부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철저했으며 그 모든 것을 불평 없이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 신부님의 훌륭한 지도,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성직자의 탈선 기사가 공공연히, 심심치 않게 신문, 라디오에 보도되는 것을 생각할 때 성 신부님은 참으로 훌륭한 사제였으며 성인 사제였음을 실함합니다.

278 제3부 회고담

P. S : 성가회 최 나타나엘 수녀는 저의 처제입니다. 안부 전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에 오시는 기회 있으면 연락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김 천식 드림

2) 석 용산 스님¹⁾

병원과의 인연이 열은 사람이라. 신체 어느 부위를 고치고 치료하는 위사 선생님이 기억될

1) 이 글 원래의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의 사」이나 편집과정에서 편의 에 의해 제목을 삭제했다. 석 용산 스님은 충청남도에서 출생. 팔공산 파계사에서 득도. 10년 지장기도 성취. 현 대구 불교 교육회관 공덕원 원장, 부산 불교 교육회관 지장원 원장. 대구 불교문화원 원장, 미국 버지니아. 뉴욕 불교선양회 회주, 인도네시아 불교교육원 원장.

리는 없다. 그러나 내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 주시고, 메말랐던 가슴에 감사를 내리시어 나약하고 방향 잃은 영혼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의사를 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 분은 성 베드로라는 파란 눈의 불란서 신부님이셨다. 증조부, 조부, 부친 모두 삼십 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기에 청상과부들의 한숨 속에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너무 일찍 고독을 배우게 되었고, 삶의 회의와 아픔을 배웠다. 초등학교 일학년, 할머니 손에 이끌려 성당을 찾던 그 날, 두 손 꼬옥 잡아 주시던 그 크고 따스하던 손! 자애롭기만 했던 맑고 파아란 눈과의 만남은 내 삶의 리듬을 바꾸어 말 없고 우울하며 언제나 외톨이였던 아이가 명랑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부님 방에서 배우던 성경의 문답공부들, 신부님이 주신 크고 달았던 눈깔사탕, 멋진 신부님 파이프!

학교가 파하면 곧장 신부님한테로 달려갔던 그 세월들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참으로 큰 치료의 시간들이었다.

먹물 옷 입고 사문이 된 지금에도,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먼발치로만 보아도 두 손 모아 함장함은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 옛날 아버지 같던 성 신부님의 모습 때문이리라!

4. 평신도 279

내 두 번째 잊지 못 하고, 신앙마저 냉담 상태 상태가 되었으니 갈등과 회의는 또 다시 영혼을 병들어 가게 했다.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의 갈등은 수많은 책들과의 씨름으로 이어졌고, 그 중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은 입산의 길까지 인도하게 되었다. 결국 세 과부의 목숨 건 만류도 뒤로 하고, 삭발염의한 승려가 되었다.

끊임없는 방황 속에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외로웠던 영혼이 자신을, 그리고 이 옷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길 거의 이름 없는 풀들과 작은 벌레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영혼이 되었다. 내 인생의 스승 두 분은 바로 성 신부님, 그리고 그 책으로 지으신 원효 스님이시니, 두 분은 나의 잊을 수 없는 의사임에 틀림없으리라!

그 분들을 그리는 가슴으로 이 글을 맺는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고려원 출판, 1993년 2월

3) 김홍신¹⁾

...중략...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닐 때 세례를 받았다. 그가 집 안에서 큰소리 칠만한 것은 한 가지, 아버지 어머니와

280 제3부 회고담

‘영세동기생’이라는 점이였다. “나는 잘 기억하지 못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유치원에 갔다 오기만 하면 가자고 그렇게 조르더라고요.”

1)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 씨라는 제목으로 생활성서 임경숙씨가 생활성서 1992년 8월호에 실은 글.

바로 아래 여동생과 아홉 같이나 차이가 있어 함께 어울릴 형제가 없었던 그는 유치원 다닐 때, 지금은 작고하신 성 베드로 신부 (성가소비녀회 창설자)가 읽어주던 만화책 덕분에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된 것 같다 한다. 유치원생이랴 고작 너댓명 정도였지만, 성 신부는 ‘땡땡’리라는 불산서 만화를 번역해 일일이 한글로 써 붙여서 아리들에게 보여 주고 읽어 주곤 했던 것이다. 고바우 영감처럼 머리털이 하나만 쪽 나와 있는 그 주인공 사내가 어찌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잘 하던지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읽은 덕분에 그는 일찍부터 한글을 깨우쳤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복사 시험을 보았다.

“복사가 되려면 신부님하고 선배 복사를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시험을 봤어요. 그땐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는데 혀가 닳도록 경문을 외워, 신부님이 세 마디 던져서 답을 할 때 세 번 틀리면 재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1등을 했어요. 성 신부님이 나를 두드리고 끼칠 까칠한 수업을, 난 따끔따끔 아픈데도 내 불에 비비고 야단이었어요.”

그의 신앙 열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때 신부가 되려고 준비를 했을 만큼 대단했으나 권위의식에 젖은 새 주님신부에게 깊이 실망한 다음부터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신부가 싫으니 성당도 가기 싫어지고, 갈수록 좁어진 신앙은 거의 반 냉담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중략...

〈1992년 8월 생활성서〉

4. 평신도 281

4) 한현석 엘리사벳¹⁾

신부님을 처음 뵈은 것은 6.25 이후 김석배씨 부친이 신도안 공소를 짓고 나서이다.

그 때 나는 그 곳으로 피난 갔었다. 신부님의 한국말은 서투르셨어도 매우 유쾌해 모이셨다. 홍산에는 신부님 사택, 내 집, 수녀원, 이렇게 세 집이 따로 있었다. 나는 신부님 집 살림을 도맡아하였다. 신부님께서는 요리책을 가지고 다니셨다. 18살짜리 청년과 15살짜리 여자를 고용하여 성당 밭 2,000평에 농사를 지으셨다. 나는 이것들을 총 관리하며 가람들에게 대세를 붙이고 전교도 하였다. 신부님은 아시는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되어 드려야 했다. 신부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논산 성당을 떠나 이 곳 홍산 시골 본당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몸이 좋지 않으셨다. 처음엔 살림 도구 하나 없이 오셔서 우리 집 식기 5개를 가져다가 해 드렸다. 그 후 나는 신도안 공소에 있는 나의 살림 모두를 홍산으로 싣고 가서 신부님을 모살펴 드렸다. 이불도 없어서 새 이불까지 마련해 드렸다. 부인회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모회란 이름으로 부인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신자수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차츰 몇 백 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대세 붙여 줄 사람도 없는 형편이었다. 신부님께서는 잡수실 것조차 없으셨지만 감자라도 삶아 주면 된다고 하셨다. 어느 날 신부님 댁에 갔더니 감자 3개만 냄비에 넣고 가라고 하셨다.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영혼의 구령이었다. 나병환자에게 대세를 붙인 적도 있었다. 홍산 본당 출신 신학생은 4명이었는데 방학 때 성 신부님은 주로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셨다. 때로 어른들도 가르치곤 하셨다. 늘 자전거를 타시고 공소 방문을 다니셨고 수녀원도 지으셨다. 홍산에서 신부님은 잡수시는 음식

1) 인터뷰장소 : 부창동 성당 사부실. 날짜 : 1992. 3. 8. 주소 : 논산읍 부창 1동 7번지 박 종례씨 방 (당시 신도안 공소 전담했었음.)당시 77세의 할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 양복이 라곤 단 한 벌 뿐이었는데 빨지도 않으시고 그냥 닦아 입으셨다. 홍산은 참 가난하였다. 본국에서 소포가 자주 왔는데 신부님 입으시라고 내의며, 슈타를 보내오면 신부님은 할머니들 입으시라고 내어 놓으셨다. 신부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쓰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다. 편지만 하면 불란서에서 보내 주는 구호물자, 옷, 옥수수, 밀가루 등을 사난한 사람들에게 배급해 주셨다. 구호 사업 덕분에 신자들이 몇 백으로 불어났다.

오 일보 요한 신부님(덕산)과 최 세구 신부님(인천교구)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녀가셨다. 신부님은 외국에서 먹을 것을 보내오면 다 모아 두었다가 모임 있을 때 꺼내시곤 하셨다. 목신부님도 한두 말 목었다가 가셨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들 찾아오시는 신부님들께 참 잘 해주셨다. 신부님의 제일 큰 사업은 신학생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신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오면 한 달 동안 먹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구두와 옷을 사 주시고 차비까지 마련해 주셨다.

동생 수녀님이 홍산에 한 달간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무척 다정하게 지내셨다. 그때 성당 단체로는 레지오 마리아와 남자 청년회가 있었다. 성체강복과 성체를 모시고 성당을 한 바퀴 돌아오시는 성체거동, 그리고 성모의 밤 행사도 빠짐없이 했다. 아리들이 사제관에 너무나 놀러 와서 내가 힘들었다. 신부님께서는 아이들이 수단에다 코를 흘려도 좋아하셨다. 신부님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생전에 열심히 하셔서 부임회장까지 지내셨다는 어머니는 성체대회 때는 늘 앞장서셨는데 그 뒤로 개가 따라갔다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시신 앞에 개가 와서는 시신으로 모신 침대에 발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가 신부님을 보시지 못 하고 돌아가셨으므로 몹시 슬퍼하셨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셨던 목신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70세까지 본국에 한 번 가지지 않고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며 슬픔을 애써 참으셨다. 그 다음으로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신부님은 내색 없이 마음으로만 아파하셨다.

4. 평신도 283

신부님께서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누런 채소만 잡수시면서도 음식을 못 해 준다거나 잘 해 준다거나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다. 또한 집안 갈림에는 돈을 쓰시지 않고 항상 밖의 일에만 돈을 쓰셨다.

불란서에 있는 형제들이 허름한 차를 하나 사 주셔서 손수 운전을 하시며 다니셨다. 그런데 하루는 신부님이 나무를 건너시다가 사고로 어떤 여자를 조금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때부터 신부님은 운전을 그만 두시고 운전수를 두고 다니시면서 전교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생활을 하셨다.

5) 김 석배¹⁾

구 사제관 뒤에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었다. 이곳을 수리하여 노인 한두 분을 모시고 편안

1) 논산 부창동 성당 사무실에서, 1992. 3. 8 인터뷰. 1928년생.

히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사를 제공하며 보살펴 주셨다. 바오로 회 수녀님들이 오셔서 이 일이 맡아 해 주셨다. 노인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자 현 썬벨 학교 강당에다 양로원을 짓고 수녀들로 하여금 봉사케 했다. 이 양로원을 지을 때 좋은 사업을 하시니 원조기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자 성 신부님께서 “당신들이 돈을 주고는 후일에 간섭하면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냥 주었다. 이때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가 났고 현 위치의 양로원이 건립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양로원을 뒤에 바오로 회에 맡기신 것이다.

레지오 마리아는 1958년 경에 시작되었다. 당시 대전교구에는 레지오가 없었으므로 성 신부님께서 광주 세나투스에 직접 연락하셨다. 광주에서 지도자를 파견하여 논산성당에서

284 제3부 회고담

천주의 모후 뿌레시디움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광주세나투스는 레지오 마리아에 분부였다. 그 때부터 단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강경에도 뿌레시디움이 생기는 등 각 본당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논산, 강경, 나바위 3개 본당의 뿌레시디움을 합쳐 루르드의 성모 꾸이아를 만들었다.

음성 나환자촌은 조인원 신부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셨다. 이 분이 떠나시고 대전학교가 본당 소속의 학교로 되자 성 신부님께 운영권이 맡겨졌다. 이 때 성 신부님은 교장 업무와 여러 가지 운영난으로 애를 많이 쓰셨고 고통도 많이 받으셨다.

본당 사업에 있어 청년회가 본당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청년회가 모든 일 처리와 대축일 준비를 맡았다.

성 신부님께서 품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고 가난하게 사셨으며 부지런하셨다. 어린이부터 청년, 부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을 위해 온통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가난하게 사셨고 무척 고생하셨다.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귀여워하셨다. 사제관에서 늘 아이들과 살이 놀아 주셨다. 가끔 그곳에 가면 실내가 소리를 쳤더니 성 신부님께서 “어린이들이 내 손님이지 당신 손님이 아닌데 왜 야단을 칩니까?” 하고 도리어 나를 꾸짖으셨다.

신부님에 대해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매주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목 세영 신부님께 가서서 전심 식사를 함께 하시고 고해성사를 보셨던 일이다. 포장도 안 된 10Km거리를 자전거로 달려가셔서 즐겁게 식사하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이야기를 나누셨다. 목 신부님께 논산에 있는 개신교가 두 파로 갈라져 서로 싸운 다고 기분 좋게 말씀드렸더니 목 신부님께서 형제가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리도 좋으냐고 야단치셨다는 것이었다.

성 신부님은 매년 한 번씩 성체거동 행사를 하셨다. 온갖 정성을 쏟으셔서 가는 길가에 꽃가루를 깔고 성당 주변 외곽도로를 한 바퀴 돌아오셨다.

4. 평신도 285

공소 방문을 성실히 하셨다. 신도 내는 무당, 점장이, 사이비 종교들 40여 종파가 계룡산 밑에 밀집해 있는 곳인데도 성 신부님은 이곳에 새 신자들을 영세시켜 공소를 개설하셨다. 연무대 공소를 새로 본당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셨다.

어린이 미사를 너무도 재미있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떠들 사이도 없었다. 성 신부님 때문에 바로 어린이들의 천국이였다.

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며칠 동안은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가 포용해 주는 가운데 임종을 맞으셨다는 어머니는 일을 많이 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생전의 어머니께서는 신앙심이 깊고 열심 하셔서 평생 성체를 모셨다고 하셨다.

신부님은 은경축을 논산에서 지내시고 현재의 성당을 건립하신 뒤 본국에 다니러 가셨다. 그런데 본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홍산 본당으로 부임되셨다. 이때에 성 신부님은 하느님의 소명이라 생각하시면서도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드셨던 것 같다.

6) 막 귀우, 김 만석, 나 종관¹⁾

성 신부님은 논산 신자들 가정의 손가락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신자 사정에 밝으셨다. 신자들과 항상 가까이 하였고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외우시면 꼭 기억해 주셨다. 이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성인 신부님으로 불리었다. 성당 안이나 밖에서 팔짱을 끼시고 묵주기도를 드리며 왔다갔다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주일마다 성체강목이 있었다. 이때

286 제3부 회고담

(1959, 60, 61년경)은 양로원, 썬별 학교, 성광원이 있었다. 당시 양로원에는 할머니 몇 분이 계셨다. 양력 설 때 조그만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신부님께 세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으셨다. 세배 값으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서 기뻐하셨다. 한 마디로 성 신부님은 성직자다운 분이셨고 성인이셨다. 신부님은 항상 아리들을 귀여워하셨다. 한문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강론 때 문자도 곧잘 쓰셨다. 미리 말씀하실 내용을 영문타자로 찍어 강론 하셨던 기억이 난다. 성 신부님은 사랑이 너무도 많은 분이셨다.

지금의 성당 앞에 있는 성모상은 일본에 계신 신부님의 동생 수녀님이 기증하신 것이다. 신부님은 신자들의 본명을 기억하셨다가 꼭 본명으로 불러 주시곤 하셨다. 특히 성 신부님께서 레지오 마리아를 대전 교구에 맨 먼저 도입하셔서 전파하셨다. 홍산 본당에 계실 때는 논산성당에 부탁하시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가서기도해 주기도 하였다. 운동에 무척 취미가 있으셔서 청년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 다니시며 운동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한 번은 30-40명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보여 주시며 다 당신 조카들이라고 하셨다. 신부님이 정릉 계실 때 금경축을 맞으셔서 찾아뵈었었다. 휠체어를 타신 신부님께서서는 우리 각각에게 그 동안도 기억하고 계셨던 본명을 하나하나 불러 주셨다.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셨다. 성사도 자세하게 보여주셨다. 논산이 원조 구역인지라 성 신부님께서서는 끝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 성당 지을 때도 신자들에게 기금을 걷지 않으셨고 다만 경향잡지 (1년 대금 300원)를 구독할 경우 교부금을 면제해 주셨다.

신부님은 불란서제 자전거를 타고 공소 방문을 다니셨는데 30리 나 되는 길도 기꺼이 달려 오셨다. 굉장하신 분이셨다. 현 부창동 성당(옛날 논산)옆에 루르드 동굴도 만드셨다. 이곳에서 성모성월 생사를 하곤 했다.

단추가 달아난 다 떨어진 수단을 입으시고 묵주기도를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우리와 만나면 언제나 말을 전제시고 우리들이 이야기나 청을 잘 받아 주시던 기억이 난다. 어린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셔서 어린이들이 성당에서 팔짱을 끼어도 괜찮다고 하시어 아리들도 팔짱을 끼고 다니고 하였다.

1) 대교동 신자들임. 대교동 성당 사무실에서. 1992. 3. 7.인터뷰. 당시 박 귀우씨 56세, 김 만석씨 65세, 나 종관씨 59세.

7) 김 막달레나¹⁾

6.25전 성 신부님이 부임하시고 처음 신사를 나드렸을 때 신부님의 인상은 무척 성실해 보였다. 굉장히 겸손하시어 양말도 기워 신으시고, 팬티까지 기워 입으셨고, 삼자를 삶아 잡수시는 걸로 끼니를 많이 때우셨다.

성가정 축일에는 부부가 함께 나오라고 하시어 강복해 주시고, 부부 중심의 생활을 많이 강조하셨다. 또한 젊은이들을 감화시키고 선도하시려 애쓰셨다.

어린이 교리 반에서 아리들을 위해 염소와 송아지 소리까지 흉내내시며 가르치셨고 아리들과 같이 미역도 감우시고 친구가 되어 놀아 주셨다. 우리 아버님(김현령씨, 고인)께서 성 신부님 댁에 가셨을 때 여러 명의 아리들이 정신없이 수선을 떠는 것을 보시고 떠든다고 야단치시면 신부님께서는 아리들은 떠들고 놀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성 신부님께서는 늘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 하셨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열심한 생활로써 모범을 보여 주셨으며 저녁때에 젊은 여자들과 면회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셨다. 일반적으로 성인 신부님으로 불리셨다.

공소 순회 하시며 성사를 주셨는데 어떤 날은 설사병이 나서서 눈이 쾅하니 들어 간 것을 봐 온 적도 있었다. 편찮으신데도 공소 성사를 주러 오신 것이었다.

288 제3부 회고담

신부님은 유우머 감각도 있으셔서 말씀을 재미있게 하셨다.

성모회, 안나회, 레지오 단체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예수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대단하셨다. 성모성월에는 저녁에 모여 미사를 지내고 성월 책을 읽고 만과를 하시는 등 무척 열심하셨다. 남지도 때의 쓰실 만큼 근검 절약하셨다.

그처럼 검소히 살으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에는 아낌이 없으신 자선가이셨다. 성당도 지으셨는데 외국에 편지를 보내시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8) 윤승길²⁾

성 광원의 초창기 이름은 양생원이다. 1956년 3, 4월경에는 현재 위치의 앞 동네에 자리했었는데 외진 곳으로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 또한 정부로부터 어떤 대책도 없었다.

당시 10세대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더러 신자도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치료를

1) 김석배씨 부인. 1992. 3. 4. 전화로 인터뷰 (대전 32-3033). 당시 63세.

2) 성 광원 제8대 대표자로 충남 논산군 광석면 울리에 살고 있다. 성 광원 사무실에서. 1992. 3. 7. 인터뷰. 당시 62세.

받다 웬만큼 완치가 되면 이곳으로 와서 살았다.

처음 양생원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논산 시내에 거주하는 한 나환자의 어머니가 성 신부님께 와서 간절히 청했다. 자기 아들이 라 다두가 나병이 걸려 마을에서 못 살고 외진 곳에서 사는데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성 신부님께서서는 라 다두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 진료 받을 보내 주신 것이 계시가 되어 이때부터 나환자를 위한 병원 진료가 시작되었다. 이 외진 곳이 나환자촌으로 전락된 경위

4. 평신도 289

이다. 이들은 대부분 결식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료반이 이곳에 올 때는 서울 N. W. C의 보조로 밀가루, 옥수수 등과 구호품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야만 나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이 후 나환자 집단이 점점 불어났고 성 신부님께서서는 이를 확장하시려 구제 신청을 해서 논산 본당을 통해 정식으로 밀가루, 옥수수 가루가 나왔다.

그 후 성 신부님 후임으로 오신 노 신부님께서 성 신부님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후원 하시게 되었다. 그 분은 전주에 있는 나환자 정착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며 답사와 실태 조사를 하시고 나소 성 광원을 설립할 계획을 하시고 진행시키셨다. 1960년 5월부터 성 광원이 라 했는데 이는 당시 보사부 만성병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전진문씨가 이름 하였다.

참으로 50년대는 생계 문제가 힘들었던 시대였다. 다리가 아파도 얻어 와서 먹고 살아야만 했다. 또한 나환자 2세를 위한 교육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성 신부님이 논산 주임 신부로 계실 때는 이곳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다. 성 신부님 주선으로 흙벽돌로 된 집 7채와 소집(우산)1채를 지었다. 복숭아나무도 심어 주셨다. 판공 성사 대가 되면 수단을 입으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어 성사를 주시는 등 그들의 영적 보살핌도 잊지 않으셨다. 차츰 나환자들이 모여 들고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정부의 음성 나환자 정책 사업으로 충남 나협회에서 임야를 제공해 준 것이 그 시작이 되었다. 1960년 5월에 20정 7단 즉, 22,440평을 마련하여 주었고, 그 후 63년도에 대전교구 재단 소유의 8,520평을 다시 사 주었다.

마침내 성 광원은 천주교 신앙 나환자촌으로서 봉사단들이 도움도 받게 되었다.

290 제3부 회고담

9) 이일범¹⁾

1958-1959년 무렵의 우리나라는 식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였다.

췌랴 학교 자리에 감자 밭이 있었는데 성 신부님께서서는 이곳에다 감자를 심어 이것으로 거의 식생활을 해결하셨다. 스스로 밭을 일궈 당신 식량을 마련하셔야만 했던 당시의 형편이었다. 그러한 논산 촌에 어려운 난민들이 밀려오자 신부님은 외국에 원조를 청하시어 밀가루를 배급받게 하셨다. 이 때 신자들을 많이 확보하시었고 자선에도 크게 이바지하셨다. 점

1) 대전 중고등학교 서무실에서 1992. 3. 7. 인터뷰. 논산 대건고등학교 서무과 근무. 1930년생

집 신자들이 불어나 예전의 2배가 되자 성당을 새로 지을 결심을 하시고 교황청에 원조를 청하시어 1961년에 마침내 준공을 보셨다.

당시 성 신부님은 매우 근검한 생활을 하셨는데 자전거 하나로 공소 33개 순회하시면서 미사를 거행하시고 성사를 주시고 임종자들을 돌봐주셨다. 그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 다리가 통통 부으실 정도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시며 다니셨다. 늘 파이프로 장수연(봉지에 든 잎사귀 담배)을 피우시며 고생이 많으셨다. 다니시다가도 반듯한 돌이 있으면 자전거에 실어와 성당 짓는데 보태셨다.

대건 중고등학교는 처음 썬뿔 여중고 자리에 있었으나 1956년 10월 15일 현 위치에 신축된 교사로 이전했는데 성 신부님께서 조 인원 신부님으로부터 그 경영권을 인계 받으셨다. 1954년 10월 20일, 교지를 9,063평 확보하여 56년 9월 20일 본관 2층 6학급을 증축한 것이 그 때의 재건 학교이다. 성 신부님께서 학교 일에 전심으로 도움을 주셨고 당시의 한영택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의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그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해 주셨다.

4. 평신도 291

10) 김 창용¹⁾

성 신부님은 신부님의 회갑 무렵에 처음 뵈었다. 당시 나는 회장은 아니었지만 성당의 일을 맡고 있었다. 성 신부님께서 오셔서 회장이란 직책을 주셨다. 나는 본당 가까이에 살면서 나무를 깎아 집을 지었다. 지금의 성당 건물과 사제관 건물에는 나의 손이 가지 않은 데가 없다. 나는 보수 없이 일했다. 신부님은 아리들을 몹시 사랑하셨다. 우리 어린 것들이 신부님께 놀러 갔을 때 신부님께서 조목조목 우리 집 사정을 물으셨다고 한다. 그 다음은 나에게 직접 물어 보셔서 나는 공사하다가 빗을 졌으나 집을 팔아 갖고 지금은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신부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며 150평에 해당되는 터를 사주셨다. 나는 흙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그 때 만든 집이다. 성 신부님의 은혜는 지금도 잊지 못 한다. 또 수녀원을 짓고 수녀님들이 오시게 되었다. 명 수녀님, 민 수녀님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후에 한 분 더 오셨다. 당시 엘리사벳씨가 신부님을 모셨는데 신부님이 서울로 사시게 되자 수녀원 가까이에 창고를 지어 닭을 키우며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녀는 양지박지에 셋방을 얻어 살면서 닭을 키웠는데 똥 냄새가 심해서 성당에서 좋아하지 않자 그만두고 논산으로 갔다.

홍산에서의 신부님 업적은 신용협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어찌 한국이 이렇게 살기 힘들냐? 여러분이 10원, 100원을 보태어 서로 협동해서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사제관 한 쪽을 조합 사무실로 내어 주시며 모든 업무를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변 바오로에게 일임하셨다. 그는 월급을 조금 받으며 그 일을 했다. 차츰 시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들어와 돈도 제법 모아지게 되고 변 바오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도 커져 갔다. 그런데 어떤 날

292 제3부 회고담

지출 수입이 맞지 않자 신부님께서 변 바오로를 신용하지 않으셨다. 변 바오로는 이 때 이 일을 그만 두고 홍산을 떠났는데 지금도 냉담자로 살고 있다. 변씨가 떠난 후 노순화(젼마)

1) 홍산 본당 사무실에서 1992. 4. 3. 인터뷰. 당시 78세.

에게 조합 일을 맡겼다. 한 달에 5,000원을 받고 그녀는 사무실 일을 했다. 무척 착실하였다. 이곳에서 일하다 그녀는 천주의 섭리회에 입회하여 현재는 아눈시아따 수녀로 살고 있다. 성 신부님의 본당에 관계된 업적은 수녀원을 지은 것 밖에는 기억이 없다. 성 신부님은 최 신부님 후임으로 호시었는데 신자가 많이 증가 되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지금도 성 신부님을 성인 신부님이라고들 한다. 레지오 마리아 논산에서 도입하여 홍산 본당에 보급시키기도 하셨다. 성 신부님은 꼭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같았다. 그토록 아이들을 좋아하셨고 신부님 방에는 항상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통탕거리며 놀고 있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셨다. 3-4키로 떨어진 곳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시고 대세, 연도, 장례에 참석하셨다.

11) 김 사경 말뚱¹⁾

성 신부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 위에다 실은 짐이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 당시 홍산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었다.

그 때 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어도 차를 가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마침 홍산 본당의 회장을 통해서 성 신부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성 신부님 차는 불란서에서 보내 온 것이었다. 당신은 불란서에 계실 때 운전을 하셨단다. 불란

4. 평신도 293

서에서 타이어도 가져왔다. 신부님은 주로 차를 일주일에 한 번 논산에 가지거나 한 달에 한 번 대전 파리외방전교회에 다녀오시는 정도였고 예산, 함덕에 성사 보러 가지곤 하셨다. 강경에 계신 목 신부님께서도 가셔서 성사를 보시기 하셨다.

성 신부님께서 논산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 양로원, 췌뿔 여중고, 대전 중고등학교, 논산 본당 건축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논산본당 손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특히 논산 성당을 지을 때는 매일 저녁 연탄을 떼지 않고 그 대신 벽돌 한 장을 더 구입하셨다고 한다.

신부님은 또 홍산 계실 때 대천 쪽으로 도로를 내시려고 운동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루지 못하고 서울로 가셨다.

어린이들을 좋아하셨고 섬소하게 사시며 여행 한번 하시지 않고 오로지 교회 일만 하셨다. 당시 이곳은 거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신부님께서 없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 상천공소에 염소도 사 주시고 신식 가마니틀도 사주셨던 것이 생각난다. 서울로 가실 때 홍산 본당을 못 짓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셨다.

1. 성 제덕 신부의 영성 295

1) 홍산에서 성 신부님의 운전 기사였음. 홍산본당 사무실에서 1992. 4. 3. 인터뷰. 당시 50세.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297

1. 성재덕 신부의 영성

1) 창설자 성 베드로 신부님

김 레오 수녀

고(故) 성 재덕 (Pierre Marie Singer)베드로 신부님은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라는 수도회를 창설하셨고 그 사명을 죽음으로써 완수하셨다. 창설자들은 실로 독특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에 응답하여 복음과 세계 사이의 간격을 감지하고 아주 정확한 안목으로 그것을 보며 창의적 사목 전략을 통하여 그 간격을 메우려 움직인다. 동시에 쉬지 않고 자신의 공동체 회원들을 회개로 부르며 복음 실천을 위하여 미지 속으로 들어가려는 통찰력(Vision)을 나누는 사람들이다.¹⁾그들은 우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

성 신부님은 1940년대 우리나라 사회 상황을 이렇게 통찰한다. “그때 누구나 다 전쟁으로 인한 전사지, 부상자,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가 생길 것을 예측하였습니자. 이러한 경우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성교회가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²⁾

298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카리스마의 총화 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 신부님의 하느님 체험은 당시 사회적 안에서 수도회 설립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하였다고 하겠다.³⁾ 그의 체험은 내려오시는 성삼의 사랑이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사랑,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1) 아버클 신부, 수도회 제창립, 서울대교구소속 방인수녀회 영성확립을 위한 세미나 I(회표지),1987, 24-25.

2)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 1968, 13-18.

3) 니콜라스 신부, 카리스마 구조분석, 성동 상동,50.

카리스마 총화요소=하느님 체험, 사회적 의식, 카리스마적 결단, 봉사의 수단, 일상생활방식.

계시도다 하신 그 사랑, 성가소비녀회를 12월 25일(1943)에 시작하신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랑은 성삼의 생명입니다. 사랑은 성부께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오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려 하시니 그 사랑 또한 우리 성가회의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¹⁾ 그는 유언서에서 열심한 수도자가 되라고 권고한다. “열심히 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는 일이니 날마다 묵상시간에 천주님과 대화 합시다. 그때에 수십 번 주님께 사랑하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의 본뜻을 더 잘 알게 연구하시오…신성의 유일한 길은 그것뿐입니다.”

내려오시는 성삼의 사랑은 소비녀들의 사도직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가난하고 무의무탁한 이들 안에서 “주님의 강생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²⁾

창설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How to do). 하느님 사람의 체험을 당시의 상황 안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내려가는 방법, 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창설자들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능력 중의 하나인 것이다.³⁾

“모든 수도회의 목적은…그러나 때를 따라 교회의 요구는 변합니다. 비컨대 왜정 때는 국가에서…오늘날은 국가에서 아동교육에, 병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에 오늘날의 수도자들은 그 봉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⁴⁾ 그는 1968년에 벌써

1.성 재덕 신부의 영성 299

이러한 말을 하였다. 상황의 변천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달라져야 한다. 그 사도직의 성격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적인 면을 결지○한다. 왜냐하면 방법은 존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단· 죽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그의 열망은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는 무엇보다 교회의 장상에게 순명하기를 원하였다.

“여러분은 성가회원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딸입니다.”⁵⁾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범적으로 잘 공경하시오. 저들에게 순명하시오.”⁶⁾사실상 그는 교회의 장상에게 순명하기 위해 자신이 창설한 성가소비녀회를 떠나있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

“1948년 본인은 프랑스로 약간의 도움을 얻고자 떠났습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원 주교님께서 대전 교구장으로 임명 되어 가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주교님께서 논산에서의 선교 업무를 맡기시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한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쭙었지요. 원 주교님은 수도원이 서울 교구 소속이니까 노 주교님께 부탁하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녀원에서 할 일이 많았지만 본의 아니게 수녀원을 떠나 논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⁷⁾ 실제로 그가 수녀원을 설립하고 돌본 것은 5년여(1943-1949)에 불과하였다. 그는 그 후 20년이나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를 떠나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1)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 1968, 13-18.
 2) 고(故)성 재덕 베드로신부 유언서 중에서.
 3) 아버클 신부, 수도회 재창립, 상동, 21-2
 4)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 1968, 13-18.
 5)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 1968, 13-18.
 6) 고(故)성 재덕 베드로신부 유언서 중에서.
 7)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40주년특집, 1983. 16.

창설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주교들이나 또는 그 회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¹⁾

300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창설자로서 할 일을 계속하지 못 하였다는 자책은 소비녀(小婢女)들에게 소원(疏遠)함을 주는 주원인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유언서에서 그는 “나의 영적 딸들아! 소비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아버지 성 신부”라고 썼다. 그러나 생존 시에는 성가회 창설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내적 상황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순명과 더불어 따라오는 모순적 도통의 시간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나는 가끔 성가회 설립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집니다. 천주께서 맨 처음에 당신 사업을 위해 잠깐 동안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는 그 연장이 좋지 못 했기에 바로 내버리셨습니다. 성가회를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고 천주이시니 설립자란 말을 들을 때마다 천주의 영광을 흠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²⁾ 가난하고 순명에 투철했던 한 사제, 교회를 사랑했던 창설자, 영적유언을 주고 떠나간 침묵의 성자.

성가소비녀들은 이제 창설자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재창립의 과제가 눈앞에 펼쳐진다. “때를 따라 교회의 요구는 변합니다. 주님의 강생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내려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일일 분이고 순명으로 하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교회의 장상에게 드린 그의 순명은 성가소비녀회의 카리스마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요로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였다. 그의 말대로 창설자는 바로 하느님이셨음도 더욱 명백해진 것 같다.

* 고(故) 성 재덕 베드로(Pierre Marie Singer)신부님

1910. 9. 13프랑스 헤당에서 출생

1928. 9. 21 파리외방전교회 입회

1935. 7. 7/11. 1 사제서품 및 한국진출

1936. 4. 30-1969. 12. 28 본당 보좌, 주임을 역임하던 시기. 혜화동 본당 주임으로 계시면서 1943. 12. 25일 성가소비녀회 창설.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301

1969.12. 20-1992. 2. 26 신부님은 1969년도부터 성가소비녀회에 상주, 지도로 해오셨으나 1985년 이후 병환이 악화되어 그 후 선종하실 때까지 병석에 계셨다.

2)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의 영성

영성이란 그 어의상으로 볼 때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구체화된 종교, 윤리적 가치에 다른 정신적 삶의 개화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주장이나 실천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개인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1) 아버클 신부, 수도회 재창립, 서울대교구소속 방인수녀회 영성확립을 위한 세미나 I (원표지), 1987, 24-25.

2) 서울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 1968, 13-18.

신비적 삶을 살게 한다. 그리스도적 영성은 평신도의 영성, 사제의 영성, 수도자의 영성이 서로 다른 각도의 길을 제시한다고 할 때 그만큼 다양성을 띠게 된다.

성가소비녀회의 고유한 정신은 강생정신이라고 한마디로 성 신부님께서 못 박으신바 (성 신부님과 대화 2쪽), 성가소비녀회가 설립될 당시(1943년 12월 25일 성탄축일 미사 강론 중)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내기셨다. 그러면 오늘 천주께서 신자를 통해 특히 수도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리신다. 우리 성가소비녀들이 할 일은 바로 예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야 되는 것이다.” 하셨다. 여기서 거듭되는 알, 내린다는 말이 있다. 내기셨다. 내리신다. 내려야 된다. 이것은 과거에도 내리셨고 지금도 계속내리시며 또 미래에도 내려야 하는 시체의 향씨성을 가지고 내림의 사상이 드러난다. 성 신부님의 이 내림의 사상은 바로 하느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그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확고한 체험을 가지시고 이를 실천에 옮기자고 하신 분이시다.

1(대전제) 예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내리셨다.

2(소전제) 오늘 천주께서 신자를 통해 특히 수도자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리신다.

302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3(결론) 우리 성가소비녀들이 할 일, 예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야 된다.

이와 같이 간단 명료한 삼단논법의 형식을 통하여 소비녀의 정신과 사명을 말해준다. 이 말씀은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이 탄생한 자리요 요약이며 그 핵심이다.

성서에서 내려간다는 말은(Katabaino)비유적으로 곤고와 수치의 가장 낮은 상태로 단죄를 받는다는 뜻으로,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를 성 싶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마태 11, 23)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의 동작은 먼저 위에 있었음을 전제한다. 높은 곳에 있지 않고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할 수 없다. 낮춤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어떤 역동적인 힘의 공간을 형성된다.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 떨어질 때 그 힘으로 발전(發電)이 되듯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뜻이다. 성가소비녀회가 예수 성탄인 12월 25일에 창설되었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

예수 탄생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한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벌어졌고 그에 따른 우주와 인간, 동물계의 반응이 일어났다.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는 지극히 가난하고 보잘 것 없이 벗은 몸 그대로를 통하여 그의 전능과 영광을 보여주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하기만 한 아기에게 그의 탄생을 인도하는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 찾아온 삼왕의 경배가 있었고, 천사들의 출현과 목동들의 환호가 일어났으며 주위의 동물들도 이에 순응하였다. 보호 받아야 할 연약한 몸으로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별을 움직였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였다. 약하고 가난하고 묵묵한 그의 낮춤은 무한한 사랑을 이끄는 힘을 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움직이는 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의 하강으로 형성된 역동의 공간은 인간 구원을 위한 무한한 에너지를 함축하는 공간이다. 그는 세상에 까지 내려와서 가난한 인간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다. 그의 낮춤은 도약의 발판이 되어 절정에 이르는 승리로 뛰어 올랐다. 소비녀들이 가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303

나한 사람들에게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들은 이미 높은 곳에 있음을 전제한다. 내려갈 수

있는 힘의 공산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존재의 공산을 형성하고 가난한 이들과의 공존의 터를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낮춤에 관하여 사도 바오로가 필립보서 2, 6-11에서 말한 것을 회헌2조에 인용하였다. 사도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을 내리셨다와 올리셨다는 두 가지 패턴으로 말한다. 즉 내려간 만큼 그 에너지로 인하여 또한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신분에 까지 내려갔기에 하느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는 것이다. 필립비서를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a :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6b : 곧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7 :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ㄷ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8 :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 :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11 :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6a(대전제) : 먼저 높이 계셨던 분 = 하느님과 본질이 같이 같은 분

6b-8(소전제) : 스스로 비우시고 내려오심

9-11(결론) :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심 : 주님

이와 같은 구조 도식은 성 신부님 말씀의 구조 도식을 방불케 한다.

6a 대전제 : 예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내리셨다.

304 제4부 성 계력 신부론

6b-8 소전제 : 오늘 천주께서 신자를 통해 특히 수도자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까지 내리신다.

9-11 결론 : 우리 성가소비녀들이 할 일은 바로 예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야 된다.

결론 부분에 있어,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높임과 내림의 사명을 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간접적인 높임의 결과를 추론하게 된다.

6b-8 :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낮추셨다. 그것은 곧고와 수치의 가장 낮은 상태로 스스로 내려던짐을 행하심이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부터가 막대한 내림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종의신분을 취하신 것이라고 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림의 성격은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다. 다 내어 놓으셨다는 것은 비웠다는 뜻이며(KENOS KENO : 비게하다, 자신을 낮추다),여리서는 낮추셨음을 말한다. 신적 본질에 해당하는 영광을 포기하셨다.

9-11 :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드시 이유는 먼저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영광 상태로 되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높여 주셔서 주님이 되셨다. 그 영광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고 오직 하느님이신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위하심이다. 주님이 되신 그 결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나눔을 성취하셨다.

소비녀들의 내림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갈채나 영광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부께로 가는 전제가 되기 위함이다.

성 신부는 내렸다는 말을 가난과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성 신부는 스스로 가난하게 살았고, 수도회 설립 시에도 당신의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 신부는 소비녀들에게 영육의 강인함을 강조하고 또 이를 심어 주었다. 그는 가난 정신이 투철하였기에 또한 순명 정신이 강했다. 성 신부는 성직자에게 순명할 것을 자주 이야기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305

하였고, “순명해야 한다. 교회에 순명해야 한다, 교회의 딸이다, 교회에 순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일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셨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마저 떠나 오랫동안 본당 활동을 해야 하는 순명까지 불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는 내적으로 가난 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겸손하였고 따라서 즉시 주교님 말씀에 순명하여 본당으로 떠날 수 있었다.

II

소비녀(小婢女)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념으로 여종(婢女)이라 하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비천한 일을 묵묵히 감수하며 천시당하는 계층의 여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궐에서 임금님의 시종을 드는 한 인간에 매인 신분의 여자를 상상한다. 그러나 성가회의 작은 여종은 그러한 유 여종이 아니라 구 여종은 “종의모습을 추하고 오셔서 가나하게 사시며 겸손된 봉사로써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성가정을 받드는 여종”(회헌 9쪽)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여종,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이 되었기에 스스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종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영이 계시다. 하느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들은 낮춤과 높임의 역동적인 삶의 공간을 자유로이 출입하며 순종을 배워야 한다. 성가소비녀회는 1943년 12월 25일 밤에 탄생한 이름이다. 성 신부님께서 자정 미사 강론을 마치신 후

“...혜화동 성당 성모상 앞에서 두 명의 지원자, 김청자, 김 발바라가 순명하기로 약속하였다. 성모님의 말씀‘주님의 종이오니’와 한국 순교자 성녀 기 골롬바, 아네스 자매가 재판장 앞에서 한 대답을 생각하며‘소비녀’라 부르기로 하고 성가정을 후보로 모호시어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라 명명하였다.” 라고 한다(성가회 역사 2쪽). 소비녀란 말은 종이란 말

306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과 소녀(小女)즉 작은 여자란 말이 합쳐서 된 말이다. 소녀 사이에 여종 ‘비’자를 하나 더

넣어 소지녀가 되었다. 만일 이 ‘비(婢)’자가 여종‘비’가 아니고 낮출 ‘비(卑)’라면 ‘작고 낮은 여자’라는 뜻의 소비녀가 될 것이니 종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맞지 않는다. ‘소비녀(小婢女)’를 풀이하면 ‘작은 여종 계집’인데 중복되는 계집을 빼면 작은 여종이 된다. 이 소비녀란 말은 야훼이 종이신 우리 주 어찌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정녀들의 호칭으로서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적합한 말이다. 그리고 또 성가소비녀회라는 말도 ‘성가(聖家)’라는 말과 ‘회(會)’라는 말이 첨가됨으로써 그들 영성의 도장고 사회성을 일목요연하게 들려주는 명칭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가정의 작은 여종들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러한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일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요한 3,13)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 죽음 · 부활 · 승천에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자신들을 부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위 종이다 그들은 세속에서 말하는 종의 영상을 천상적 삶에 병화 시킨 유비적(類比的) 신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는 성가정의 작은 여종들의 절대적 값어치이다.

성가정의 작은 여종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자렛 성가정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매일 예수 · 마리아 · 요셉과 함께 있기로 노력해야 한다.

여종다운 그 노력의 특징은

“성가정의 겸손과, 가난과, 노동을 본받으며 나자렛 가족과 같이 침묵의 명상생활을 하며 애주애인의 덕을 닦는다.” (성가정의 빛 9쪽)는 것에 있다.

1. 성 계덕 신부의 영성 307

III

성 신부님의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성 신부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쳐 주셨나 하는 것은 “기뻐하라 소비녀”라는 몇 가지 말씀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소비녀들의 겸손과 생활의 척도이다.

1.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라.
2. 네 정신과 육신이 못 생겨도 기뻐하라.
3.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하라.
4. 네 뜻이 정해지지 않아도 기뻐하라.
5.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기뻐하라.
6. 너를 말쑥으로 두어도 기뻐하라.
7. 너를 한 번도 참여시키지 않아도 기뻐하라.
8.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하라.
9. 너를 모든 사람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아도 기뻐하라.
10.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하라.

1.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묵상하여야 한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날은 아리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머니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49,15) 인간은 누구나 망각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나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만은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 주실 수 있다. 항상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의인의 기쁨을 가져야 한다.

2. 항상 하느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의로운 두려움을 갖는 의인은 외적인 용모나 세속적 명예, 인기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영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인간 내부의 것을 보신다는 것(이사 16, 7)을 알기에 기뻐한다.

3. 4 인간은 누구나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생활에 나아가려는 소비녀들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므로 좌절에 부딪쳐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

추는 아나뎀의 정신으로써 성모님의 Fiat을 따라 하느님의 뜻에 희망을 두며 기뻐한다.

308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5. 6 소비녀는 세속적 권위나 지배욕 같은 것을 향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버림으로써만 소비녀로서의 바른 권위와 자기 위치에 합당한 자부심과 지도력을 갖게 된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해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디디고 설 때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되는 깨어있음 속에 살기 때문이다.

7. 8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질 또는 실력 같은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권고는 참으로 온유하고 관용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소비녀들의 능력은 모두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받은 그것을 다시 봉헌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은 그것을 기뻐한다.

9. 10 다른 사람보다 더 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거나 천한 일 시킴을 받는다는 것은 보다 존중받고 우대를 받고 싶은 특전의 욕망을 거스른다. 그러나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르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마태 23, 12)고 하시며 당신 일생을 구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안다면 겸손의 높은 단계에 있음이다. 천한 일은 흔히 돈 없고 권세 없고 지위도 명예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맡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그러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은 박해를 견디고 승리한 순교자들의 진복에 참여할 것이니 기뻐한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신명 6,13; 마태 4,4)는 말이다.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삶은 시한부적인 지상에서의 삶(Bios)으로 끝까지만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의 삶은 영원한 생명(Zoe)으로 통하는 것이 된다.

성가 소비녀회의 회원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정신은 하느님의 영(Ruah Elohim)으로부터 그의 기원을 갖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보내어진 성령 안에서 창설자이신 성 베드로 신부님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창설자 서 성 베드로 신부님의 가르침

성가 소비녀회의 겸손 : 내림의 층

- 너를 몰라보고 잊어버리는
1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라
- 2 네 정신과 육신이
못생겨도...
- 3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 4 네 뜻이 정해지지
않아도...
- 5 너를 믿어 주지 않아도...
- 6 너를 말재로 두어도...
- 7 너를 한 번도 참여 시키지
않아도...
- 8 너를 쓰지 않아도...
- 너를 모든 사람보다
9 더 중히 여기지 않아도...
- 10 네게 찬한 일을
시켜도...

성가 소비녀회 사랑

성 신부님과의 대화
1943. 12. 25

땅에까지

가난이탈(청빈)

겸손

스스로 낮춤(순명)

사랑(정결)

1.애부애인

2. 공동생활

3. 봉사준비

가난한 사람들

“희망 명칭은 서울성가소비녀회라 일컫나니 회의 명칭이 의미함과 같이 회원들은 겸덕과 청빈과 노동을 숭상하여 성가의 일가족과 같이 애주애인의 덕을 지키며 침묵의 관상생활을 하며 서로 지극한 침묵을 도모할 것이다.”(성 신부님 서울성가소비녀회의 회헌 제2조)

소비녀들의 겸손한 생활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내림의 충계와도 같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신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이들의 가쁨, 의인이 한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야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영적인 기쁨, 그것은 성모님의 마니피캇과도 같은 소비녀들의 찬가이다.

3) 遺言書 講解

성 신부님께서 유언서를 작성하신 것은 성가회를 시작한지 29주년 이후인 1972년 12월 25일이었다. 이는 홍산 본당에 계시다가 성가회로 오신지 3년 되던 해였고 이 유언서를 쓰신 후에도 19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 성가회 시작한지 29년이 되는 해에, 그것도 12월 25일 성탄 때에 유언서를 작성하신 것은 성가 소비녀회 설립일인 1943년 12월25일에 그 의미를 두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두에 “여러 가지 전조로써 내가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전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가지 준비는 관련 어떠한 준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주님이 무슨 병이나 고통을 주시더라도 다 받아들일 것이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의 결심이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러 가지 전조라는 것 중의 하나는 건강상태였을 것이다. 그는 그러한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의 성총을 구하고 있었다.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311

1949년 5월 2일부터 1964년 7월 1일까지 논산본당 주임 사제로 있는 동안 성 신부님은 눈부실 만큼 활발한 사목활동을 하셨다. 대전 중고교를 확장 건립하고, 논산 성당을 신축하는 한편 성당 구내에 쉼별 양로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직을 맡으셨으며 유랑 결식하는 나환자들의 정착지인 성 광원을 세우셨다. 또한 쉼별여 중·고교를 시작하도록 주선하는가 하면 레지오 마리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대전과 대구 지역 신자들에게 성모님의 군단이 되어 활동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느라 동분서주 하다 보니 자연 건강에 무리가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시대였고 또 성 신부님 자신이 가난한 생활을 하시면서 미처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하였던 것이다. 교통이 좋지 않던 시절이어서 먼 시골길을 자전거로 누비다시피 하시며 이 공소 저공소로 다니시느라 무리하셨기 때문에 60년대에 들어서서는 몸이 편찮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말씀 없이 참으시다가 병환이 위중 하여진 후인 1961년에야 휴양 차 본국으로 가셔서 1963년 까지 계시다 오셨다. 다녀오신 그 이듬해인 1964년에 홍산으로 이동 되어 가셨고 그 후 본회에 오

신 후에도 몇 년 휴가차 본국에 다녀오셨다. 그리고 1982년에는 수련자들에게 해 주시던 가의도 중단하셔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 큰 수술을 받으신 후 부터는 쪽 병상에 누워 지내셔야 했다. 선종하시기 19년 전부터 이와 같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내다보고 있었으니 고통을 예감하는 이의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주님께 고백한다. 생전에 받은 은혜들을 열거하면서 : 부모님이 낳으시고 길러 주신 것, 사제로 불러 주신 것,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주신 것 들을 감사하며 자신의 마음이 변치 않고 이날 까지 한결 같이 살게 해 주셨음을 감격한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그 은혜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한다. 더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며 신덕 오리로 믿는 바 그 신앙 안에서 죽는 행복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312 제4부 성 제력 신부론

다. : “ 나의 희망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 마음뿐입니다. 나의 신덕은 다만 교황 성하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도전래의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믿는다는 그의 신앙고백이다. 그는 가톨릭 계시종교를 믿는 순진한 신자였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의 하심 속에 나의 함이 들어 있다는 자신의 허구서와 나약성을 절감하며 내세를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유언서의 첫줄에서 성가 소비녀들에게 라고 그 대상을 밝혔듯이 조님께 고백을 드린 후에 그는 소비녀들을 부른다. 초대 회칙서에서 “회의명칭은 서울 성가 소비녀회가 일컫나니...” (제2조) 하였고 평시에도 아무개 소비녀라고 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유언서에도 소비녀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사용하셨다. <1976년 당시 본회의 회헌과 규칙서였던 성가정의빛에는 성가수녀회(성가소비녀회)라고 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이 이름을 쓰지 않았던 시기이다> 小婢女라는 이름은 분명 성 신부님께서 창설자로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당시의 영적 딸들에게 영적인 이름을 지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이 부분의 말씀에는 먼저 자기성찰이 따른다. 소비녀들과의 삶에서 없을 수 없었던 자신의 과오나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을 생각하며 영적 자녀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겸손한 창설자의 모습이다.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구해 주기를 당부한다. 행복한 자신을 흠족히 느끼면서 자녀들의 효성에 감사하였다.

마지막 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성 신부님은 주님과 소비녀들에게 감사하고 용서를 청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내적 준비를 한 다음 창설자로서 잊어서는 안 몇 가지 가르침을 주기 위한 언급이 이어진다.

이 유언서의 전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성 신부님 자신에 관한 말씀

1. 죽음 예고와 그 준비 : 은총을 구함
2. 주님께 드리는 신앙고백 : 무수히 받은 은혜를 감사
사랑의 표를 확인, 용서를 청함- 희망을 가짐
3. 영적 딸들인 소비녀들에게 ;용서와 기도를 청함
효성에 감사
4. 마지막 부탁이 있는 것: 25주년 책을 참조

II . 소비녀들을 위한 말씀 (마지막 부탁)

1. 열심 중에 살으시오 : 주님을 사랑함이 첫째이며, 기도와 묵상으로 그 사랑을 깊이 해야 함 <애주>
2. 서로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시오 : 가족적 화목, 합심은 너희의 문장 <애인>
3.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 자유로이 간난을 선택하는 수도자, 총원장에게 천빈을 특히 당부하심. 주님의 강생은 내려가는 방법이다. <사도직>
4. 교회의 지도관르을 공경할 것 : 그들에게 순명하고 사제 성소를 위하여 기도, 극기, 희생할 것 <순명>

25주년 책에 쓰신 내용도 이 유언서와 대동소이한 것이며 말씀하신 형식이나 순서도 아주 비슷하다. (16-18쪽):

1. 애주애인
2. 공동생활
3. 봉사준비
4. 가난한자들

이렇게 요약까지 해 놓으셨다. 여기서 봉사 준비라는 것은 영성적 측면 즉 주인의 뜻만을 기다리는 중의 자세요. 회칙서에서 규칙 34조의 성가소비녀의 재적 자세이다. 껴어있는 중, 무익한 중, 기뻐하라 소비녀의 자세 (루가 12,35. 17,7-10)

유언서에서는 4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범적으로 잘 공경하라는 말씀을 더 뚜렷이 하기 위해 번호를 붙이신 것 같다.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25주년 책에서는 “여러분은 성가회원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딸입니다. 본회 이전에 교회를 생각합시다.” <18쪽>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언서 3번째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은 25주년 책에서는 4번째의 말씀과 동일하다.

314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성 신부님께서 소비녀들에게 하신 부탁은 첫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 사랑을 최사의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 : 개인적, 수도적 차원에서의 하느님을 사랑함이다. 그는 “...날마다 묵상 시간에 천주님과 대화 합시다. 그때에 수십 번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의 본뜻 뜻을 더욱 잘 알게...”라고 하시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반복적인 기도 방법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자유로운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으로 알아듣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전 애정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아 드리는 것이 기도이며 열심이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량상 친하게 지내는 일이다. 이것은 소비녀 한사람 한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 바로 나 자신을 주께서 직접 불러주신다는 인격적인 성소활인이 된다. 신성의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관상적이며 신비적인 뜻을 담고 있다. 주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이렇게 지시하신다. 모든 적에 의미를 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있으며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 부착 시키는 관상으로 사도적 사랑과 합치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소비녀들 상호 간의 사랑이다.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화목하며 합심이 우리의 문장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신다. 문장이라는 것은 휘장 (뱃지, badge)과 같은 것이다. 신분, 명예, 직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에 붙이는 표지인데 소비녀들의 휘장은 합심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

과 다를 바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 35)아빌라의 예수의 테레사성녀는 수녀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하면서 영성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지옥과 같은 사랑이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수녀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하고 참다운 사랑입니까? 그런 수녀는 갖가지 덕에 잘 나아갈 것이고 회칙도 완전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의 우정

1. 성 제덕 신부의 영성 315

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느 본성적 애정보다 더 나은 것이니...” 하였다. <완적의 길 7장 38>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최상위에 두지 않을 때 인간은 흔히 피조물인 인간적 애정에 빠져 들게 마련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 신부님께서도 “받는 자보다 바치는 자에게 기쁨이 더 큼니다.” 하셨으니 이러한 소비녀들의 합심은 그들의 창설자를 현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소비녀들의 사도직은 가난하고 무의무탁하며 소외당하고 약하고 힘없는 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처한 여건 속에 함께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당신 자신이 먼저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셨고 또 실제로 가난하게 사셨다. “어느 날 신부님 댁에 갔더니 감자 세 개 만 남비에 넣고 가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다. 누가 무언가를 청해보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어주는 것을 보고 신부님께서 잡수실 것조차 없는데 그러시냐고 여쭙었더니 나는 감자라도 삶아 먹으면 된다고 하시던 분이셨다. 양복이라곤 단 한 벌 뿐이었는데 빨지도 않으시고 그냥 닦아 입으셨다. 홍산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가난하였다. 본국에서 소포가 자주 왔는데 신부님 입으시라고 내이며 쉼타를 보내오면 신부님은 할머니들 입으시라고 내어놓으셨다. 신부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쓰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다. 편지만 하면 불란서에서 보내오는 구호물자들, 옷가지들과 옥수수, 밀가루 같은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급해 주셨다. 구호사업 덕분에 신자들이 몇 백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그의 삶은 복음적 가난을 보여 주는 그의 언어가 되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심으로써 그의 사도직에 동참하셨기 때문이다.

소비녀들의 사도직은 이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감수성에 호소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인과율, 권위, 동질성의 도구, 의무 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관계, 과정, 효과,

316 제4부 성 제덕 신부론

확인, 상호작용, 화합의 도구, 자유 등의 언어일 것이다. 소비녀의 사도직 안에는 그렇게 고유한 표현으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느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들이 충만히 내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충만성을 가시적으로 이끌어 낼 때 비로소 사람들이 보고 알고 듣고 무언가 거룩한 힘에 끌려 올 수 있는 매체적 방식이 된다.

창설자는 사도직의 방법을 가르친다. 성가회 정신은 강생정신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러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삼의 생명으로부터 나

와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까지 내려 오셨으니 우리도 그 가난한 이들에게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세속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수도들이 할 수 없겠느냐고 반문하셨다. 그것이 바로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성 신부님은 당신 자진이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천빈을 총원장에게 부탁하셨다. 신부님은 이 일이 수도회를 재창립하듯이 해야 할 일임을 감지하셨다. 창설자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수도원을 지키고 살아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장상들은 어떻게 그 회의 향방을 포착하여 회원들을 이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로 남게 된다. 믿음으로 투신하고 있는가? 재창립이 본질적이라는 원칙에 투신하고 있는가? 장상들이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지 못 할 때 그들은 누군가 그 역할에 투신할 만한 예언자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녕 그 회의 존망으로 가늠하는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비녀회 창설에 관한 모든 생각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실히 의식하였다. “여러분이 가끔 성가소비녀회의 설립 목적과 정신. 또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그야 성가회를 설립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고자 하는대로 불매...” 한편 그는 그것들을 명백히 암시하였다. “모든 수도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와 인간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대에 따라 교회의 요구는 변합니

1. 성 재덕 신부의 영성 317

다. 비컨대 왜정때는 국가에서 어린이 교육에 힘쓰지 않았으며 병자들을 돌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늘날의 수도자들은 그 봉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

이 말씀은 25주년 후인 오늘에 와서 온전한 효과를 내게 되었으니 성가복지병원이 그러하고 소명학교가 그러하다. 그의 창설자로서의 영감은 이렇게 하여 현실적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야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사가 예언서의 관상적인 찬미를 재발견하게 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같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들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떡을 양식을 내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55,8-11)

마지막으로 성 신부님은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성직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 극기, 희생을 바쳐달라고 청하십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성사시키고 백성들을 성성으로 이끄는 통로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alter christus)”이기 때문이다. 성 신부님 자신도 가제 육성에 기꺼이 협력하셨다.” :“덕산의 오일보 요한 신부님과 인천교구의 최 세구 신부님이

318 제4부 성 제덕 신부론

한 달에 한번씩 다녀가셨다. 신부님은 외국에서 먹을 것을 보내오면 가 모아 두었다가 모임 있을 때 꺼내시곤 하셨다. 목세영(Bermind)신부님도 한두달 묵었다 가셨던 기억 있다. 그렇게들 찾아오시는 신부님들께 성 신부님은 참 잘 해 주셨다. 신부님의 제일 큰 사업은 신학생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신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오면 개학해서 학교로 락 옹ㅇ 먹여 주시고 돌아 갈 때는 구두와 옷을 사주고 치비까지 해 주셨다.”

성 신부님은 한국에서 57년 동안 사셨다. 거의 전 생애를 타향에서 생활하시는 가운데 본당과 성가소비녀회에서 각각 반반을 지내신 셈이다. 혜화동 본당에 계실 때에는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하시누라 애쓰셨고 논산 본당에 계실 때에는 복지 및 사목 활동에 분투하신 모습이 역력하다. 본 회로 돌아오신 것이 1969년인데 구 후로는 수녀원에서 조용히 지내셨다. 미사, 고백성사, 수련소 강의 정도만 하셨다. 본당에 계실 때의 눈부신 활약상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논산에서 학겨다, 양로원이다, 나환자들이다, 성당신축이다. 공소방문이다 하여 너무 바쁘게 일하시면서 의식주 그 모든 것이 편안치 못 하셨음을 수녀들이 알고는 수녀원에 계시는 동안에 수녀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생활을 돌보아 들리며 모시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셨느라? 당신이 창설자로서 사제로서 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소외감이 왜 없으셨을까마는 소비녀들은 그러한 창설자를 두둔하였다. 그런 적분으로 성가소비녀회는 오히려 더욱 빠르게 자율적으로 성장하였고 더욱 강인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 그것이 구분과 소비녀들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나는 믿는다.

창설자 성 베드로 신부님의 영성은 글자 그대로 가난과 겸손이었다. 말씀대로 살으셨고 주님의 사도로 일하셨고 고통을 참아 받으셨다. 앙트완느 슈브리예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성 신부님을 다시 뵈는 듯 하다.

1. 성 제덕 신부의 영성 319

우리의 1행동과 옳은 일을 사람들에게 모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겸손과 사랑으로 끝자리를 찾아야 한다.

옷과 태도를 자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인사와 칭호와 자랑스러운 명칭, 존경과 공경의 표시를 추구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

자기의 업적을 믿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한다. 자기의 성공을 뽐내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쓸데 없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첫째 자리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첫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사이에서 으뜸가는 사람과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람과의 차이 어린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비천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당신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생애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

강생으로 세상에 나심으로 성전에서 바쳐지심으로 목수인 요셉이 아들로 통하는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심으로 당신 생애의 이 어린시절에

일반적인 생활 규칙을 지키시고

은혜와 특전 또는 어떠한 면제도 요구 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취하지 않으신 것은 죄 뿐이고 그 나머지 일에는 모두

일반 법칙을 따르신다.

이러한 영성으로 평생을 묵묵히 살으셨던 성 신부님, 장례예절도 소박히 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던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고통에 동참하시고자 마취를 거부하고 맹장수술을 받으셨을 정도로 고통을 인내하셨던 분!

성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후 한국 교회사 연구소에서 한불 문화 교류연구회 새오이 구성하고 그 창립 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1992. 3 18. 17시. 가톨릭회관 6층 교회사 연구소)

320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성 재덕 신부와 프랑스와 한구, 양국 교회의 교류”라는 주제로 연구 모임을 가졌었다. 세분의 발표자 중에 한분이셨던 유영도 신부님RP서는 “파리UN총회에서의 한국교회와 성 재덕 신부”라는 제목 하에 발표 하셨다. 그 말씀 가운데 성 신부님께서는 한국이UN의 승인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단다. 성 신부님은 당신 친구들을 통하여 한국 독립을 승인하는 여론을 모으고 호텔에 머물고 있는 각국 대사들에게 자기용을 제공하여 거의가UN총회에 참석하게끔 하여 이 일을 성공시켰다 한다. 1948년 당시 성 신부님은 휴가차 파리에 계셨고 혜화동 신자인 장면 박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으셨던 것이다. 후일 한국에서 성 신부님의 공로를 안 기자들이 인터뷰를 청하자 성 신부님은 거절하셨다. 사실 수련소 강의를 하시면서도 또 이야기를 해 주실 기회가 종종 있었어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논산이나 홍산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전혀 알지 못 했다. 성 신부님은 참으로 숨어 계신 분이셨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며 지금도 숨어 계시다.. “가난함과, 가난한 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 주임의 강행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까지 내려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 말씀과 함께.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1) 성가소비녀회의 창설 과정과 성 재덕(Pierre Singer)신부¹⁾

김 미리암 수녀

故 성 재덕 신부는 1910년 9월 13일 북부 프랑스 헤댕(Hesdin)에서 신심이 두터운 가톨릭 가정에서 13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명량하며 열정적인 성격에 장난기가 다분했다 한다. 성 신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28년 9월 21일 (18세)파리의 방전교회에 입회하였고 1935년 7월 7일 사제서품과 동시 한국에 파견되었다. 이리 사이공, 중국을 거쳐 같은 해 11월1일 부산에 도착하여 서울주교관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한

322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국말, 일본어를 익혔다. 이후 1936년 4월 30일 대전교구 합덕과 이천 담동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있었다. 이곳에서 공소 사목을 배웠는데 너무 열심한지라 병을 얻어 입원하기도 하였다.

1939년 7월 7일 서울교구 혜화동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여 존당 사목에 열위를 다하였다. 당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교무금 제도와 주일헌금 제도실시와 「어린이 미사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였고 주일학교 영세 허위 재신식을 창안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제기동과 미아리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켰다. 특히 그는 1943년 12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하였고 1948년 6월 휴가를 얻어 프랑스로 귀국하였는데 이때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장면 박사를 도와 대한민국 독립을 승인 받아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성 신부는 휴가를 마치고 1년 뒤 1949년 5월 2일 소비녀회를 떠나 논산성당 주임으로 부임되었다.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였던 논산에서의 14년간의 사목 투신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 불릴만큼 열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논산 대건중고등학교의 운영을 인계받아 교사를 신축하여 새 건물로 이전시켰고, 썬밸 여자중고등학교설립, 썬밸양로원과 나환자 정취마을인 성광원 설립, 논산성당 건립 등의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62년 2월 치료차 불란서 본국으로 귀국하였다가 1964년 7월 18일 대전교구 홍산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1969년 12월 29일 다시 성가소비녀회의 지도신부가 되어 1982년까지 수련소 강의를 담당하였고 본 수녀회의 영적지도를 맡았다. 이어 노환으로 요양을 취하다가 1992년 2월 26일 82세의 일기로 선종하였다.

이상과 같은 성 신부의 활동을 통해서 볼 때 그 일관된 정신의 흐름은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가난하게 살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혜황동에서 성가

1) 「교회와 역사」 제203호. 1992. 4. pp. 8-10.

소비녀회를 창설하여 불쌍하고 가난한 무의무탁한 자들을 돌보았던 점과 논산에서 썸뿔양로원과 성광원의 설립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특히 논산에서 그는 속옷까지 지워서 입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몸소 실천하였고 본국에다 구호물자와 구호금을 청하여 논산 일대의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적 323

사람들 2,500여명을 급식케 하기도 하였다. 이 빈자를 위한 정신은 성가소비녀에게 「가난함과 가난한자, 미소한자들을 사랑하시오」 라도 남긴 그의 유서에서도 잘 알수 있다.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성 신부의 정신은 파리외방 전교회 신부들의 활동에서도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차리외방전교회 소속인 메스트르 신부에 의해 실천되었다. 그는 1857년 프랑스본부의 원조를 받아 성영회 사업으로 기아나 고아들을 양육하였다. 이 사업은 1866년 박해로 폐쇄되었지만 1855년 블랑주교의 고아원과 양로원설립, 프랑스에서 파견된 샬트르성바로로 수녀회가 운영한 1898년 서울의 진료소, 1900년 제물로 진료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성 신부의 빈자를 위한 구빈정신은 바로 1857년의 메스트르 신부의 복지사업의 한 계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가소비녀회의 창설

1940년대 한국의 배경

성 재덕 신부의 성가소비녀회 창설은 1940년대 해방을 전후한 한국 사회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하여 갖은 탄압을 내리기 시작하여 1940년부터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하며 신궁, 신사에 가서 절할 것을 억지로 시켰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함경도에서 포교하는 독일인 신부와 수사들의 여행을 제한하였고 마침내는 그들을 연금하기까지 하였다. 1941년 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일제의 탄압정책은 극도에 달하였다. 일제는 제일 먼저 평양교구의 미국인 주교를 위시하여 신부 35명을 구금하였으며 또 광주와 춘천의 아일랜드 신부와 주교32면을 이듬해에는 구금된 기국인 신부들을 본국으로 추방하였고 모든 외국인 주교들은 일본인 주교로 대치하려했다. 또 한 사립학교를 모두 국유화하기 시작하였고 1942년에 먼저 서울의 용산신학교가 폐쇄되었으며 덕원의 신학교도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324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제 탄압은 더 할 수 없이 가혹해졌다.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제는 1944년여 여름부터 신부나 신학생들을 노무자로 징용하였고 평양이 대성당을 휘시하여 곳곳에서는 성당들이 군용으로 징발되었다. 일군은 샬트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용산 고아원까지 점령하였다. [경향잡지] 가 폐간 되었고 일제의 만행은 고해소까지 침입하고 성당 종을 공출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교인을 박해하였다.

이때 농어촌은 몹시 피폐했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었다. 일인들의 치부와 경제적 수탈의 결과로 생활이날로 궁핍해 갔기 때문이다. 밥은 죽으로 쌀대신 잡곡으로, 잡곡은 만주의조로 대신했고 쌀겨를 극소량 섞어 만든 나물죽으로 연명해 갔던 것이

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한국민 전체가 빈민계층화하여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농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빈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는 절인의 사태요 각 철도 정거장은 유랑민으로 가득 찼다. 또 어린 농촌 처녀들은 공장지대인 목포 군산 인천등질 떠났고 일제는 이러한 와중에 농촌의 수만은 수녀 부녀자들을 일군의 위안부로 끌고 갔다. 그 수가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940년대 초 혜화동 본당 주임신부였던 성 신부는 경찰서에 호출되어 주사를 받는 등 일본 경찰의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어로 강론하라는 억압을 받기도 하였다. 성 신부는 일본에 대한 적국 프랑스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제 관헌에 위해 혜화동 성당에서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미사예절 집전함 허용되었고 외부 출입과 일반인들과의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렇게 일제의 탄압으로 활기를 잃은 천주교회는 해방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활동을 전개했다. 일제에 의해서 폐간되었던 [경향잡지]와 [가톨릭 청년이] 속간되었고 일간지 [경향신문]이 창간되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종래의 초등교육에 머물러 있던 학교들이 중 등 및 고등교육으로 개편되었다. 해방 이후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 천주교 순교자 현

2. 성 제덕 신부 와 사도직 325

양회'의 일제 시대에 뜻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가 1946년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아 마침내 그 창설이 실현됨으로써 신자들에게 한국 순교자에 대한 신심을 높이고 심어주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교회 조직 면에서 충청남도가 독립된 포교지가 되어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맡았다. 함곡순교복자수녀회가 개성에서 창설되었고 연길 교구의 올리베따노 수녀들이 청주에 진출한 것도 이 시기이다. 서울교구는 정부수립을 향한 혼탁한 국내 정세에서 청년들을 단합시키고자 1946년 7월 '서울교구 청년 연합회'를 재편성하였고 이어 '여자 청년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와 같은 1940년대의 한국이 상황에 부응하여 성가 소비녀회가 창설되었고 해방과 더불어 그 활동이 폭도 넓혀가고 있었다.

성가소비녀회 창설 경위

1943년 일제의 한국 침탈 강행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성 신부는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부상자, 굶주리고 혈벗은 고아가 많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이에 누구보다도 성교회가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는 활동 수녀회로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 하나 밖에 없었던지라 서울 4개 본당중 성 신부가 부임하고 있던 혜화동 본당이 신학교와 갈멜수녀원이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톨릭 정신을 얻기에 적합하고 한국 여성들의 모임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곳이라 보았다. 그리하여 당시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던 공안또니오 신부, 이 재현 신부와 함께 의논하여 이곳에다가 수녀회를 설립하기로 결론을 얻었다.

당시 서울에는 농어촌에서 상경하여 공장의 임시 직공으로 혹은 품팔이 또는 장사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교우처녀들이 성 신부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들 가난한 처녀들은 수도자가 되는 것이 수원이었으나 학력의 부족으로 또는 정원 초과로 자리가 없어 그 당

시 서울의 유일한 활동 수녀회였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입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326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있었다. 그 중에서 이곳저곳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신심 생활을 하던 처녀들이 있어 이를 눈여겨보던 성 신부는 1943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이들을 가르쳤고 마침내 아무런 준비도 없이 1943년 12월 25일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하였다. 성탄대축일 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2명(김루시아, 감발바라)의 지원다가 순명하기로 약속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성 신부는 성모님의 말씀“주님의 종이오니”와 복녀 감골롬바, 김 아네스가 재판장 앞에서 대답한 것을 생각하여 “소비녀”라 부르기로 하고 그 후에 “성가소비녀회”라 명명하였다. 이들 예비 수녀들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성 베드로 시늬는 본국 (프랑스)에서 원조를 구할 길도 막혀 본당구내 방복사집에서 1944년 3월 2명의 예비수녀들이 정식으로 공동생활을 하였다.

처음에는 참으로 영웅적인 마음으로 집도 직업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소비녀들은 용감히 일을 하였다. 알지 못하는 병자를 찾아 대세를 주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하고 낯선 사람의집에서 일하고 품값을 받아 오기도 하면서 최대의 가난한 생활로 하루 하루를 살았다. 이런중에서 노기남 주교의 허락으로 현 가톨릭 교리신학원 자리 건물을 기증 받아 이것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시도하고 공부하며 특히 애덕 실천을 하게되었다.

1945년 6월 샬트르 성바오로회 기오떼끌라 수녀와 동년 12월 김아델라 수녀를 초빙하여 정식으로 수도원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 6명의 첫허원자를 배출하였다. 전쟁이 점점 치열해 지자 프랑스 신부들을 포로수용소에 수감할 것이라는 말이 돌아 성 신부는 자신이 수감되더라도 소비녀들이 함께 뭉쳐 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학교 이재현 (요셉)신부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 1945년 7월 노기남 주교님의 승인을 얻어 소비녀회가 공식적으로 조직 되었다.

그리고 1949년 2월 로마 성청으로부터 본회 규칙서를 정식으로 인가 받았다.

특히 성 신부는 창설 당시 소비녀들에게 영육으로 강인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정신을 심어 주셨다. 물론 당시 상황이 그러했지만 그는 물질적인 지원을 근절하고 소비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327

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발정신을 키워 주었던 것이다. 즉 성 신부는 소비녀가 벌어서 불쌍한 사람 한명씩 먹여야 함을 강조하시어 창립초에도 걸인, 노인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합덕, 도림동, 수원본당의 파견시 “소비녀들은 저희들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먹이고 저희들이 생활할 테이니 본당신부는 관여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각 본당에 파견된 수녀들은 본당에서 보수 없이 봉사하였다. 수녀들은 한편으로 남의 바느질, 일을 해주며 생활을 유지했고 그중에서 얼마를 떼어 불쌍한 사람 봉양비로 남겼다. 그는 본당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함을 강조하여 다른 회 수녀가 그 본당에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안하는 곳은 일을 도맡아하게 하였다. 즉 성가소비녀회는 성가정의 겸손과 간난 노동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회로서 가난한자, 병자, 부의부탁한자들을 수용하여 간호 모호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가소비녀회의 신비체 가족을 이루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 고유목적은 부친성가양로원, 용문의 희망의 집, 나환우 정착마을인 상록촌, 서울 월곡동의 무료복지병원인 성가복지병원으로 이려져 성가소비녀회의 고유전신이 실천되고 있다.

성가소비녀회는 창설 초기 극심한 곤궁과 6·25, 1·4후 퇴로 인해 일시 해산되거나 흩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1949년 성 신부가 논산성당으로 부임하면서 지도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샬트르성바오로회 수녀들에 의해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1952년에 샬트르성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떠나고 초대원장으로 김 엠마누엘 수녀가 추대되면서 자체적으로 수녀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1950년대에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양로원, 보육원, 의료계통의 활동과 함께 현재 정릉에 위치하고 있는 본원의 택지 구입과 신축공사, 현 복지병원의 전신인 하월곡동 성가병원의 축대공사, 부친이 넓은 당 매입도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성가소비녀회는 회원들의 내적인 심화에 역점을 두면서 전교, 교육의료, 각종 사회사업 분야에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80년대 후반부터 창설자 성 베드로 신부님의 뜻에 부합코자 고유정신에 충실을 꾀하려는 식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450여 명의회원을 둔 대 수녀회로 맑르전하고 있다.

328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결론을 대신하여 성 신부의 활동과 성가소비녀회 창설의 의의를 나름대로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성 신부의 성가소비녀회의 창설은 일제의 정신대 동원으로부터 당시 처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아였고 일제하에서 쇠진했던 천주교위 사회활동에 각성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해방 후 새로운 신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자선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자들을 위한 봉사생활로 예수애인의 교회정신을 실천하였다.

국가차원에서 UN의 대한민국 독립승인에 도움을 주었고 6·25 이 후 논산 일대 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에도 기여하였으며 「어린이 미사 노래」를 보급하여 전국에 어린이 미사에 혁신적인 활기를 일으켰다.

2) 성 재덕 신부와 혜화동 본당에서의 사목활동

성 재덕 신부와 혜화동 본당에서의 사목활동 1)

성 재덕(Pierre Singer)신부가 주임이 되어 처음으로 부임한 곳은 혜화동 본당이다. 이곳에서 성 신부는 제4대 부임 신부로서 1939년부터 1948년까지 사목 활동을 하였다.

혜화동 본당은 1909년 한국에 진출한 베네딕도회가 닦아 놓은 터전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1927년에 본당으로 창설됨과 동시에 초대 본당 신부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지베드로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 후 이 본당은 발전을 거듭하여 성 신부가 부임한 당시에는 본당의 신자수가 3,000명에 달할 정도가 되었고 관할 공소도 14개소에 이르렀다. 연령회, 청년회, 성가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329

대, 성프란치스코 재속회 등이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혜화동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본당 사목을 돕고 있었다.

당시 혜화동은 성북구 일대에 위치하여 도심을 벗어난 공기 맑고 한적한 곳이어서 시내에

1) 「교회와 역사」 제206호, 1992. 7. pp.4-6.

서 이 일대에 새로 집을 짓고 이사오는 부자들이 많았다. 또한 교육기관이 밀집한 곳이어서 혜화동 본당에는 서울에서도 지식인들이 많은 곳이었다.

성 재덕 신부가 혜화동에 부임했을 당시 한국 사회는 일제 말엽으로 탄압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교에도 극히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일제는 외국 선교사들을 구금,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신부나 신학생들을 노무자로 징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성당에서 바치는 공식 기도마저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하고 교회 안에 「국민정신 총연맹」의 지부를 결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였다.

한때는 성 신부도 일제 관헌에 의해 혜화동 본당에서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미사예절 집전만 허용되었고 외부 출입과 일반인과의 접촉은 일제 금지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사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갔다.

혜화동 본당에 부임하기 이전에 성 신부는 충남 단진의 합덕 본당에서 2년, 인천의 답동 본당에서 1년간의 보좌 생활을 하였다. 당시의 합덕 본당은 제7대 페랭(백필립보)신부가 부임 신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는 성 신부가 성인 신부로 존경했던 분이기도 하다. 페랭 신부는 그때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20개나 되는 공소를 순회했는데 성별, 연령별로 일정표를 작성하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성사를 받게 하는 등 신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고 한다. 열심한 기도 생활과 극빈의 생활을 하였고 예수성심을 특히 공경하였으며,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 그 중에서도 향촌 사회에서 신뢰를 받았다. 이분의 사목생활은 성 신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 신부는 그 후 1938년 6월 인천 답동 본당에 부임하여 임종국 신부 밑에서 1년간 보좌 생활을 하면서 공소 사목을 배웠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생활로 주위 사람들에게

330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감화를 주었다. 이 두 곳에서의 보좌 생활은 바로 성 신부가 본당 신부로서의 기초 작업을 다진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곳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그빈 활동과 청빈생활,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고 그의 사목방향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 신부는 혜화동 주임신부 때 “예수의 말씀대로 착한 목자가 되려면 교우들이 신앙 상태를 먼저 양르아야 한다”고 하여 매일 시간을 정해 교적 공부를 하였다. 즉 매일 신자들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교적을 가지고 공부하면 불 때마다 모른던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성 신부는 길을 가다가도 본당 어린이를 만나면 그 집안 식구들의 신앙 정도를 이야기 하였고 혹시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그 어린이에게 가족 상황과 종교 생활을 알아보고는 집에 돌아와 새로 알아낸 것을 교적에 적어도곤 하였다. 그리고 잘 빠지는 교우들에 관심을 두고 지도하였으며 보좌 신부에게 이를 지적하여 주기도 하였다.

어린이 교육과 용심단

혜화동 본당에서의 성 신부 사목 중에 두드러진 것은 어린이 교육이었다. 성 신부는 “본당에 연령회, 부인회, 청년회, 성가대 등 여러 단체가 있지만, 성인단체는 아무리 정결을 다하여 지도한다고 해도 30%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어린이 교육에 정열을 쏟으면 80%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며 어린이 교육에 전념하였다. 특히 주일 학교와 「용심단」은

바로 성 베드로 신부의 주된 관심사였다.

당시 혜화동 본당의 주일 학교 학생은 3백 명 내외로 주일 미사 후 교리 공부가 끝나면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가 어린이들과 갖가지 게임을 벌이며 정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성 신부는 본당 복사단과 품행이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주일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용심단을 조직하였다. 본당에서는 성소계발을 목적으로 이 소년들로 하여금 신학교의 분위기에 자주 접촉토록 배려하여 매 주일 오후마다 신학교 운동장에 가서 신학생들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적 331

과 축구, 야구 등의 게임을 벌이며 신학생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하였다. 이 용심단원들은 영세하지 않고 좋은 동네 아이들도 많이 성당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놀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당시 빨간 한자 글씨로 ‘용심(勇心)’이라 새긴 베레모를 쓰고 다녔다. 이 용심단 어린이들 중에 현재 사제로서 사목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네딕도회의 장베다 신부와 이석충 신부, 그리고 장익 신부등이 있다.

어린이 교육사목 중에 하나인 주일학교 영세 허원신식도 성 베드로 신부 재임 당시인 1943년경부터 혜화동본당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유아 영세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고리를 철저히 주입시키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주일 학교 상급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일 학교 지도 신부인 보좌 신부가 영세 허원 재신 교육을 담당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일 1시간씩 고리를 가르쳤고 가을의 그리스도 왕 축일 때 재신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은 그 후 1948년까지 계속 되었는데, 《경향잡지》에서는 당시 혜화동 본당에서 이루어진 이 재신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어려서 영세할 때 대부, 대모의 입을 통하여 천주를 믿고 마귀를 끊어 버리겠다고 한 약속을 당사자가 철년 다음 제 정신 제 입으로 말하게 하는 당연한 예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라과와 아메리카 각지에 널리 보급,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서는 늦게야 4년 전부터 백동에서 시작되어 해마다 계속되어 오는데, 금년에는 지난10월 10일 주일에 아동들의 영세 허원 재신식을 거행하였다.

이 준비로 동 14일 오후 4시에는 원 주교, 부감목 이 신부, 약현 이바오로 신부, 본사 윤마태오 신부, 미아리 오 마티아 신부를 초빙하여 성당 안 제대 앞에서 24명(소학교 5년생) 아동들의 십이단, 문답, 도리, 감략(鑑略, 즉 聖敎鑑略으로 성서해설서)등 시험을 행하였으니, 이 시험 점수를 문답 학교 출석 점수와 합하여 성적표를 만들 것이라는데, 주일 학교 출석이 불량한 아동들은 도외 되어 시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남녀 아동 24명은 며칠 동안 피정 신공을 행한 후 19일 주일 미사와 오후 2시 성체 강복 때 노기남 주교와 여러 신부, 부형 자모 기타 많은 교우 앞에서 씩씩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영세 허원 재신식을 행하여 일동을 감격시켰다.

당일 성당 정문에 달려 있는 아름답게 꾸민 성적표에는 1등 이 모데스타, 2등 양 아네스, 3등 김 가롤로 등이 적혀 있어 일반의 주목을 끌었으며, 성체 강복 후에는 주교, 신부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다과회가 아담하게 열렸다. 이처럼 필요한 영세 허원 재신식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는 서울 혜화동 본당으로 그 절차와 방식을 문의할 것이다.(경향잡지, 1947년 11월 1일자)

성 재덕 신부의 사목 활동

혜화동 성당에서 있는 성 신부의 사목 활동으로는 교무금 제도의 혁신과 주일 헌금 제도 실시, 제기동 본당 신설, '성가소비녀회'의 창설, 미아리 공소의 본당 승격, 성체거동 행사, 가톨릭 성가대와 가톨릭 여자 청년회의 활성화, 그리고 1947년 본당 신부 자문 기구인 유지 위원 조직 등을 들 수 있었다. 또 교우 의사들이 전교와 위급 환자들에게 대세를 줄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한 '가톨릭 의사회'도 있었다.

이중 '성가소비녀회'의 창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와 역사》 203호에서 언급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서울교구에서는 처음으로 혜화동 본당에서 실시했던 교무금 제도의 혁신과 주일 헌금 제도를 살펴보자고 한다.

당시 교무금은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우들의 성의에만 맡겨져 일 년 중 춘추관공 때만 신자들이 냈었다. 때문에 본당의 경제적 자립이 힘든 상태에서 파리의방전교회의 원조로 본당 살림을 꾸려가야 했다. 물론 본당의 재정상 이유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교우들의 의무인 교무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성 신부와 장금구(그리스도스토모) 보좌 신부는 교무금 납입 방법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교무금을 배정하였는데 교우들의 원성이 있어 그 뒤에는 교우들의 정성대로 자

2. 성 제택 신부와 사도직 333

원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각 가정에 교무금 납입 봉투를 돌리고 교무금 납입 의무에 대한 강론을 한 결과 좋은 성과를 보았다. 이와 함께 4대 축일 때만 헌금하던 것을 매 주일마다 헌금하게 하는 주일 헌금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혜화동 본당에서 처음으로 성체거동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1946년 6월이었다. 대·소신학교와 혜화동성당, 그리고 동성상업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가톨릭 요지인 혜화동 로타리에서 볼 수 있던 당시 성체거동은 장관이었다 한다. 그 뒤 1947년 6월 본당 자체로 또한 차례의 성체거동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서울교구 연합 성체거동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1942년 5월 성모의 달을 맞아 한국 교회 최초로 '성모의 밤'행사가 혜화동 본당에서 개최되었던 일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 성 신부의 신심 생활의 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 신부는 일제 탄압이라는 시재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목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고 교무금 납입 방법의 개혁과 주일 헌금제 실시 등 성당 제도의 개선과 영세 허위 재신식, 성체거동들의 예절을 처음으로 거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돈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의 본당 승격과 수도원 창설, 그리고 어린, 청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사목의 폭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가소비녀회'의 창설과 어린이 교육은 혜화동 본당에서 있는 성 신부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의의 있는 사목 성과라 할 수 있다.

성 신부는 그 후 1948년 6월 1일 휴가를 얻어 일시 프랑스로 귀국 했는데, 이후 혜화동 본당은 메리놀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하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 신부는 휴가를 마치고 1949년 5월 2일자로 충남 논산 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다.

3) 성 재덕(成載德 Pierre Singer) 신부와 논산본당¹⁾**활동 배경**

1049년 성 신부는 논산 본당 제8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1961년까지 사목활동을 하였다. 논산 성당은 1921년 전북 화산(나바위) 본당에서 분리되었는데 루블레(Rouvelet) 신부가 부임하여 논산을 망월동에서 첫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듬해 논산 부창동에 사제관과 성당을 신축하였다.

성 신부가 부임했던 1949년도의 논산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고 그 중 논산 중앙에 2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때문에 논산은 지방의 소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신자가 약 2500여 명인 논산 성당은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교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58년에 논산 성당은 대전교구로 편입되었다.

성 신부는 이곳에서 6·25와 1·4후퇴를 겪었다. 이두 전란 때 부산으로 피난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6·25전란에는 교회가 공산군에 징발되었고 사제관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주위 일대는 거의가 전란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빈민촌을 이루었다. 성 신부도 기아에 찌들리는 생활로써 감자만을 주식으로 하는 생활을 하였다.

당시 논산은 구호대상지역으로 책정되어 미국에서 천주교회측으로 많은 구호물자가 왔다. 이와 함께 성 신부는 모국인 불란서 에 원조를 청하여 논산 일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신자들도 점차 급증하게 되었다.

사목 활동

성 신부는 늘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신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중시하였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335

다. 신자들과 만나 그 집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밀접하게 지냈다. 성인 교리 문답 교육을 위해 6명의 교리 교사가 있었는데 성 신부는 이들에게 성당 가무와 재정을 담당토록하고 자신은 전교에 몰두하였다.

성 신부는 공소 사목에도 열성을 기울였다. 33개 공소 자전거를 타고 눈비를 가리지 않고 순화하면서 성사와 대세를 주고 교리를 시험하며 미사를 거행하여싼. 신앙 생활도 철저하여 매주 월요일이 되면 강경 본당에 가서 목세영(睦世永 Bermond) tIsqnRp 고백성사를 보았다.

또한 그는 성체거동 행사를 매마다 거행하였는데 1955년의 성체거동은 참으로 장관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일대 천안, 대전, 공주, 부여, 이리, 안대, 나바위, 강경 등의 본당이 합세하여 참가 인원이 오천여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논산 본당에서 창미사가 끝난 다음 성체거동을 따라 대전 중고등학교 외곽 주위 도로를 돌았고 다시 성당으로 귀환했다. 이때 교통이 차단되어 지나가던 군인들과 여행자들도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이어 이 성체거동에 참가하였

1) 「교회와 역사」 제207호. 1992. 8. pp.2-5.

다.

성 신부는 사목활동 중에서 어린이 사목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였다. 늘 어린이들을 주위에 두었고 그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놀이도 하며 함께하였다. 또한 사제관에 환등기, 어린이 놀이 기구를 마련하여 두고는 어린이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놀게 하였다. 또한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즐겁게 하였고 많은 어린이들을 사제 성고로 이끌었다.

다음은 1959년 9월 29일 불란서 본가에 보낸 서신 내용이다.

‘내가 사제관 밖에 나서자마자 내 주위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따릅니다. 나를 보고 내 긴 수단에 달라붙곤 하지요. 이들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교리학교 학생100명의 어린이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교리 교실에 가서 앉자마자 어린이들은 내 위에 기어오릅니다. 나와 잠깐 이야기하러 오는 학생들은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336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이는 성 신부가 어린이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 지를 말해준다. 당시 그는 5평 정도의 교실을 짓고 어린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셨다.

성 신부의 생애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어로 된 어린이 미사책 보급이다. 1949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미사경본」을 번역하여 인쇄에 넘겼다. 이 미사책은 노래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미사에 접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당시 어른들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말로 된 어린이 미사책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하여 제3판까지 간행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전국 어린이들이 신나게 노래로 미사를 들릴 수 있었다.

활동 성과

1. 성당, 사제관, 대전중고등학교 건립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 신부는 논산 성당 신축, 사제관 건립, 대전 중고등학교 교사 신축 등의 대 사업을 이루었다.

1954년에는 6·25 동안에 불타 없어진 사제관을 65평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임하면서 대전 중학교의 대리 경영을 맡아 직접 간접의 경제면 운영 면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다. 1947년 현 위치의 부지를 매입하고 본관 2층 6학급을 증축하여 재건 중고등학교의 일부가 현 썬밸 여자중고등학교의 위치에서 새 교사로 이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 신부는 자금 조달이 어려움과 교사들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1962년 10월에는 237평의 성당이 준공되었다. 신자가 점점 급증하여 성당이 비좁게되자 성 신부는 교황청에 원조를 청하여 1960년 2월 성당 착공에 들어갔다. 성 신부는 성당 건립에 보탬이 되고자 담배조차 끊고 겨울에는 하루에 연탄 한 장을 아껴 때시며 지냈다. 그

2. 성재덕 신부와 사도직 337

리고 반듯한 돌이 있으면 주어모으면서 성당 건립에 주력하였다. 신자들에게는 별도로 성당 건립 기금을 마련치 않고 교부금으로 대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을 들여 세운 성당이

준공되자 홍산 본당 주임으로 부임되었다.

2. 췌밭양로원

1952년 10월 하순경 논산 성당 문전에 스러져 있는 걸인 노파를 당시 논산 본당에서 일하고 있는 오채경(말지나)수녀가 성 신부의 지시로 노인에게 대세를 주고 부엌방을 마련하여 간호하였다. 그 후 일주일 남짓하여 선종하자 장례까지 치르어 주었다. 이밖에도 성 신부는 길가에 쓰러진 걸인과 계룡산 갑사의 보살이라고 하는 걸인 노파를 데려와 수녀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였다. 그 후 사망에서 무이무탁한 노인들이 모여와 입주를 간원함으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 1953년 10여 명의 할머니들을 구 사제관 뒤편의 창고를 개조하여 부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성당 구내에 설립된 양로원은 구 후 라리보 주교의 경제적 원조로 본격화되었다. 성 신부가 초대원장 신부로 부임하였다. 1965년 재단법인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인가 받았다. 처음에는 성당 구내에 3동의 가옥으로 되어있던 양로원이 같은 구내에 본당, 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대지의 부족과 환경의 대지위에 새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3. 성광원(星光園)

성광원의 처음 이름은 양생원이라 했다. 양생원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라 다두라는 나환자의 어머니가 논산 성당의 신자였다. 1956년 3, 4월경 그녀는 성 신부를 찾아와 자기 아들이 마을에서 못 살고 외진 곳에서 사는데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당시 10세대 정도의 나환자들이 외진 곳에서 정부의 대책도 없이 소외된 채로 있었다. 이들은 걸

338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성 신부는 그녀의 청을 들으시고 진료반을 보내주시어 나환자 이동 병원 진료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정 석주, 박 병태, 김 재영 외 17명으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구호를 받게 되었다.

성 신부는 황무지인 이곳에 흙벽돌집 7채와 소집(우사)1채를 지어 주시고 복숭아나무도 심어주셨다. 환공성사 때는 빠지지 않으시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어 성사를 주셨다.

1960년 5월에 양생원을 성광원으로 개칭하고 논산군 광석면 울리산 49위 2번지부지 22,440평을 매입 계약했다. 이는 충남 나협회의 주선으로 정부에서 매입 기증한 땅이다. 당시 나환자들은 59명이었고 이때 비로소 나환자 정착지로 책정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현재 50세대 150명이 거주하고 있고 성당과 수녀원도 건립되었다.

4. 췌밭 여자등고등학교

1960년 11월 논산의 대전중고등학교가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는데 성 신부는 그 구교사를 인수 받아 1961년 12월 29일 [해성 중고등 학교]의 명칭으로 중·고 각 6학급씩 설립인가 받았다.

논산은 1972년 70만 대군으로 칭하여지는 육군 제2훈련소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논산은 읍에만 3만, 군 전체로는 20만의 인구가 정착하게 되었다. 때문에 논산은 결정적으로 여자 중고등학교가 필요하게 되어 주민들이 여학교 설치를 도청에 호소하였다. 그런데도 도청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응하지 않아 여학생들은 백리 밖의 대전이나 20 리 밖의 강경의 여

학교로 통하게 되었다. 이에 성 신부는 이 교사에서 여학교를 시작할 것에 착안하고 서울 성 바오로 수녀원 본부에 이 사업을 의뢰하였다. 당시 대전교구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며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339

만일 교구에서 경영치 못 할 경우에는 나라에서 인수하려했기 때문에 수녀원에 의뢰했던 것이다. 그래서 살트르 성바오로수녀원에서 아양 받아 1962년 3월9일 「쎄뵈 여자중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5.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과 시약소 설치

1958년경 성 신부는 대전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여 신자들의 신앙과 봉사정신을 돈독케하였다. 성 신부가 광주 세나투스에 직접 연락하여 [천주의 모후]쁘레시디움으로 시작하였다, 구 후 대전교구 각 성당으로 파급되었다. 이 외에는 논산 성당의 단체로는 청년회, 안나회, 성모회 등이 있었다. 청년회에서는 교리교육, 성가, 성당 행사를 맡았고 안나회는 주로 대세나 장례에 참석하는 연령회였다. 그리고 안나회에서는 대개 교회 내의 손님 접대를 도왔다.

성 신부는 1049년 9월 1일 논산에 처음으로 시약소를 설치하였다. 살트르 성바오로수녀원에 의뢰하여 수녀 한 명으로 시작되었다. 각 마을의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하고 약을 팔았다. 본당에 설치된 시약소는 여러 잇점이 있었다. 외진 곳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찾아오는 외인에게 좋은 전교가 되었다. 또한 시약소의 약들을 주금씩 돈을 주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본당의 빈약한 재정에 부담을 주지도 않았다.

논산에서의 성 신부의 사목 활동은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어린이를 위한 사목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이 일관되게 전개되었다. 이곳에서의 사목활동은 그의 일대기에 가장 정열을 쏟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40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4) 홍산 본당과 성 베드로 신부¹⁾

홍산 본당의 지역적 배경

홍산 성당은 성 신부가 본당 사목 중 마지막으로 활동한 곳이다. 이곳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는 존상에서 과중한 사목으로 인해 심각한 허리병을 얻었다. 이에 병관으로 196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국인 불란서에 있는 성직자 병원에서 치료와 휴양을 하였다. 1964년 6월 한국에 귀국하면서 홍산 본당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던 것이다. 그 후 1969년 12월 당신이 창설한 성가소비녀회 지도 신부로 가기까지 5년 반 동안 이곳 홍산본당에서 활약하였다.

홍산은 금사리 본당의 관할 공소로서 신부님들의 휴양지였다고 한다. 조금만 시골로 가난한 논민이 대부분이었다. 신자들은 한 곳에 모아지지 않은 채 산재해 있었고 중심부인 홍산은 그나마 수적으로도 작았다. 그러나 6·25 이후 성당을 통해 구호물자가 배급되자 사람들이 성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히 영세자가 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

1) 「교회와 역사」 제209호. 1992. 10.pp.2-4.

대 중반기에 500여 명의 신자를 확보한 공소가 되었다.

당시 금시라 본당 주임신부였던 최 세구(Robert Jezegou)신부가 1955년 현 본당 소재지의 대지를 발견 하였다. 최 신부는 이듬해 논·밭으로 되어있는 대지를 매입하고 1957년 말 강당을 착공하여 1958년에 완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홍산 성당은 1958년 금사리 본당으로부터 분리 설정된 대전 교구 소속본당이 되었다. 1961년 현재의 사제관을 건립하였고 제2대 주임인 김 동익 신부까지는 금사리 본당 주임을 겸임하였다. 그러므로 홍산 본당은 성 신부가 부임하기 전에는 주일미사를 집전키위해 금사리 본당 주임이 다녀가는 공소격의 본당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직 341

성 신부가 홍산에 부임하던 1960년대 초에는 도시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중이다. 홍산의 젊은 청년과 처녀들은 홍산을 떠나 도시로 일하러 갔고 나머지 장년층들이 홍산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었다. 때문에 홍산의 가난한 신자들은 생계 유지마저 힘들었다. 그러므로 성당은 현상유지조차 힘든 상황이었기에 대전 교구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 신부의 사비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성 신부는 생필품도 본가에 청하여 구입하였고 본국으로부터 원조를 청하여 구호물품과 밀가루 옥수수 등을 가져다가 주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때 신자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구호품이 끊기자 냉담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구호품 신자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홍산 본당은 12개의 관할 공소를 가졌고 이들 공소는 넓은 지역으로 산재해 있어서 공소 관할에 어려움을 주었다. 가까운 지역에 조그만 규모의 중고등학교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 보다 큰 도시의 학교에 진학하고 있었다.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는 200명 정도가 참석할 정도였고 홍산에 거주하는 신자는 얼마 안 되어 평일 미사에는 6-7명 정도가 참석할 정도였다. 때문에 성당을 도와 일할 일꾼이 없었고 활발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홍산 본당의 활성화

성 신부 부임시 홍산본당은 어떠한 단체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대세를 주는 일꾼 하나 없었다. 성 신부는 당시 논산 본당 관할인 신도내 공소에서 혼자 살면서 전교를 하고 있던 50세 정도의 한현석 엘리사벳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녀는 일본에서 전문대학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사작인 사유로 일생을 전교부인으로 살고자 6·25 때부터 신도내에 정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산을 정리하여 홍산본당 사택으로 와서 살면서 신부님의 사제관 일과 성당과 전교의 일을 맡았다.

성 신부는 살림도 장만하지 않은 채 가자로 식사를 이어갔던지라 엘리사벳은 사제관의 이불, 살림도구 일체를 자신의 가산 정리한 것으로 장만하였다. 그녀는 사제관 소유의 땅

342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2,000평을 농사지며 교리도 하고 방문하여 대세르도 주었으며 부인회인 성모회를 조직하여 본당의 일을 돕게했다. 성 신부는 엘리사벳 모아온 예비신자들에게 영세를 주었고 공소 방문을 하면서 본당의 틀을 잡았다. 또한 그는 청년회를 조직하여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

였으며 논산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초청하여 홍산에 부급시키면서 본당 신자들의 활성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1965년에는 수녀원을 건립하여 이듬해 당신이 설립한 성가소비녀회 수녀 두 명을 초청하였다. 성 신부는 신약을, 전교수녀는 구약을 가르치며 전교에 열의를 기울였으나 예비신자들이 모여들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농촌이었고 주위에 개신교 교회가 5개나 들어서서 예비신자 모으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전교방법을 세웠다. 우선 수녀가 사람들을 방문하여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서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대세를 주어 가족들을 성당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두 번째는 냉담자를 찾아다니며 회개하게 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성당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들이 적용되어 영세자들이 많이 나왔다.

수녀들은 성당 주위에 사는 영양실조나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을 찾아 간유와 비타민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전교수녀 중에 하나인 명 마리아 수녀는 간호원을 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환자들에게 직접 주사도 놓아주고 치료도 해주었다. 먼 지방은 수시로 치료하러 다니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짜전거를 구입하여 전교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일로써 성 신부의 일관된 사목은 어린이들 교육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였다. 이곳 홍산에서도 성 신부의 주위에는 아이들이 떠나지 않았고 그는 직접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함께 놀고 수영도 하면서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깊게 하였다. 오한 지역민의 가난을 본국에 구호물을 청하여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공소에는 가마니틀이나 돼지 새끼를 사주어 소득을 올리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적 343

본국에서 당신 앞으로 부쳐온 물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눠주고 자신은 흰 양복 1벌과 기운 속옷을 입고 지냈다 한다.

홍산에서 성 신부의 제일 큰 사목은 신학생들이다. 당시 5명의 신학생들이 있었고 이들은 방학만 되면 성 신부의 사제관에서 지냈다. 성 신부는 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이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았다. 개학되어 돌아갈 때는 구두와 양복을 사서 보냈고 손수 알사탕을 사가지고 신학생 면회도 하였다. 신학생들에게 ‘너희 내가 죽으면 내 대신 미사를 드려야한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였단다. 이들 신학생들 중에 현재 대전 교구 소속인 윤 중학, 윤 중관, 윤 중수 등 세 명 신부가 본당사목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과 성소계발에 대한 성 신부의 관심은 그가 본국에 있는 누이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내일 9월 13일은 나의 나이 54세가 되는 날이다. 오늘은 주일인데도 나는 혼자 있지 못하게 되었다. 내방에서 몇몇 아이들이 나무토막 쌓기 놀이와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린다.”(1964년 9월)

“나는 나의 현책 300권으로 도서관을 시작하였다. 매우 50여 권이 대출된다. 그들이 다음 주일에 가지고 올 것이다. 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선교활동이라 생각 한다...중략... 나는 13세의 소년을 또 신학교에 보냈다. 내 작은 본당에서 5명의 신학생이 배출된 것이다. 이 소년은 건강이 좋고 8명의 가족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그는 매우 독실하고 3

년 전부터 매일 미사를 드리러 온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1,800명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도 월등하게 잘한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도기를 빚는 자로 아주 가난하다.”(1967년 12월)

홍산 신용협동조합 설립

우리나라 신협은 1960년 5월 1일 부산의 중앙분당 신자들과 메리놀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聖家 신용협동조합이 그 효시가 되었다. 이 조합은 메리 가브리엘라(Mary Gabriella Mulherin)수녀의 정성어린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2개월 후인 6월 26일에 서울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주축으로 한 가톨릭 중앙 조합이 창립되어 신용협동조합이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번지게 되었다. 1964년 4월에는 55개의 조합이 모여 한국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 5개월에는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였다.

홍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너무 가난한 지역이었다. 당시 극동무진, 인성무진 등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어 농민들과 노동자, 영세한 상인 등의 소외계층들이 이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었다. 이에 성 신부는 홍산 신바들을 부르시어 ‘너희가 10원, 100원 보태어 서로 협동해서 가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는 신용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9년 2월 성 신부는 협동 운동의 지도자이며 가톨릭신학대학교수인 변 갑선 신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신자들에게 신협운동의 중요성을 계몽케 하였다. 이어 1969년 3월 21일 조합원 36명, 출자금 18,000원으로 홍산 산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김동근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성 신부는 사제관에 사무실을 재고 직원 한명을 고용하여 신협사무를 보게 했고 당신은 뒤에서 지도하였다.

홍산 신협은 홍산 천주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신자조합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홍산 천주교회 관할 구역 거주자들과 공동 유대를 가지며 성장하였다. 평등, 공정, 상부상조적 자조와 빈곤타파, 착취제거를 목표로 한 신협은 홍산 일대 가난한 서민들에게 구리대금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신협운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불신풍조가 많았던 이곳에 서로 믿고 상부상조하는 신용사회를 전착시켰다. 1972년 10월 신용협동조합

2. 성 재덕 신부와 사도적 345

법에 의거한 법인 창립으로 창립하였다. 1976년 11월 홍산 천주교회 사무실에서 홍산 남촌리 100-15로 이전하였고 1978년 6월 남촌리 100-158번지로 다시 이전하여 '81년에는 대지 5평에 건평 56평인 자체회관을 구입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92년 9월 현재는 조합원 2,400명에 자산40억을 돌파하였다.

성 신부가 뿌린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1) 제4대 성 베드로 신부 시대 (1939-1948)¹⁾

주교로 승품 된지 장장 43년 만인 1933년에 선종한 뫼텔 민(閔)대주교 후임으로 서울 교구장이 된 라리보(Larribeau)원(元) 주교는 오기선 신부 후임으로 인천 답동(畓洞)본당의 보좌로 있던 성(成) 베드로(Singer, 한국명 成載德)신부를 혜화동 본당 4대 주임 신부로 파견하였다. (1939년 7월 7일).

이로써 본당 사목은 초대 지(池)베드로 신부에 이어 다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교무금 제도의 혁신과 주일 헌금 제도의 실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무금은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의 성의에만 맡겨져 일 년에 봄, 가을로 관공 때만(그것도 공소에서는 대부분 곡식)바치는 것으로 겨우 체면을 세웠을 뿐이니, 본당의 경제적 자립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파리의방전교회의 원조로 본당 살림을 꾸려 가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재정상이 이유도 있었으나 그 보다는 교우들의 의무(義務)인 교무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 베드로 신부와 보좌 신부였던 장 금구(莊金구 크리소스도모)신부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47

는 교무금 신입 방법(申입 方法)의 개혁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교우 각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교무금을 배경하였다. 교무금 등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회장들은 교우들의 많은 원성을 듣기도 하였다.

이 교무금 등급 제도는 그 후 교우들의 정성대로 자원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회장들은 회의적이었다. 교우들의 정성에만 맡기면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일 년에 100원도 납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장들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전에 없이 각 가정에 교무금 신입 봉투를 돌리고 교무금 납부 위무에 대한 강론을 한 결과, 그 첫해인 1939년 가을에 1천 7백 원이 납부되었고 다음 해에는 2천 7백 원으로 대폭 증액되는 성적을 올렸다. 이 금액은 그 당시 황소 한 마리 값이 50원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실로 상당한 금액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일은 본당 창설 초유의 일로써 본당 자립의 밝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일이었다.

이와 같이 교무금에 대한 교우들의 성의와 자발적 참여 위식이 증명되자 주일 헌금 도 아울러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까지만 하여도 매주일 미사 헌금이란 것이 없고 4대 침례 때만 헌금 하였던 바 한 침례 때 바쳐지는 액수는 평균 5원, 일 년에 네 번이니까 고작 20원이 주일헌금으로 바쳐졌을 뿐이었다. “매 주일마다 헌금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습관이 되어

1) 栢洞半世紀-혜화동성당 50년사-, 천주교 혜화동 교회편, 1977, pp. 137-153.

으레 봉헌하는 것인 줄로 인식이 되겠으나 4대 침례 때만 헌금하면 헌금을 준비하여 오는 것조차 잊기 쉽다.” 라는 어느 회장의 기발한 제의에 모두 찬성하여 시행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과연 매주 5원 이상의 액수가 헌금되었다. 대침례 주일미사에 5원이 바쳐지니, 보통 주일미사에도 그 정도의 액수는 헌금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부들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었다. 주일 헌금 제도는 경성(서울)교구에서 혜화동 본당이 최초로 실시한 전통을 수립했다.

348 제4부 성 제덕 신부론

제기동 구역에 본당 신설

소우이 조선 총독부가 용산의 대신학교를 돌연인가 없는 학교라고 폐쇄하던 1942년 동대문 밖 제기동에 본당이 신설되어 그 일대의 교우 600-700명이 분리되어 나갔다. 제기동 본당은 혜화동 본당 최초의 분립(分立)본당으로서 성 베드로 신부의 주선으로 교구에서 미리부터 2백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본당 신설을 준비해 왔다. 제기동 본당 초대 신부로는 대신학교 교수이던 파리의방전교회 고 여한 신부가 부임하였다.

주일학교와 용심단(勇心團)

성 베드로 신부는 주일학교 아동 교리 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아 보좌신부와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사목적 비중을 많이 두었다. 주일학교 학생은 3백 명 내외로 주일미사 후 교리공부가 끝나면 본당신부와 보좌신부가 어린이들과 갖가지 게임을 벌이며 정서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경성제대(京城帝大, 현 서울대학교)예과 학생이던 나 상조(羅相朝, 현 서울 대교구 신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이 지도를 분담하기도 했다.

본당에서 많은 귀여움을 받던 용심단원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본당 복사단과 품행이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용심단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었다. 본당에서는 이 용심단에 대해 일종의성소계발의 목적을 두었으므로 이 소년들로 하여금 신학교의 분위기에 자주 접촉토록 배려하여 매주일 오후마다 신학교 운동장에 가서 신학생들과 축구, 야구 등의 경기를 갖게 하며, 신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도록 조치했다. 신학생들로서도 장차 신부가 되어 사목할 때를 대비하여 소년들의 심리 과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용심단원들은 영세 받지 않은 동네 아이들도 많이 성당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던 부모들도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빨간 한자 글씨로 「勇心」이라 새긴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용심단 어린이들 중에는 장익(張益)요한 신부(현 서울 대교구)등 후에 성장하여 성직에 오른 분들도 있다.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49

교리 경시대회의 입상 성적

1939년 11월 19일 계성학교에서 개최된 경성 가톨릭 여자청년회 연합회 주최 제3회 교리 경시대회에 참가한 혜화동 본당은 단체부문에서 제1회부터 연속 3회 우승하여 우승기를 획득했다.

「경성 가톨릭 부인회 연합회에서는 연례에 의하여 금월 19일(註: 1039년 11월 19일)즈음 현 계성 소학교 여자부 내에서 제3회 전 경성여자 교리 시험대회를 개최하여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개인 교리 시험을 행하고 오후 1시 반부터 동 2시 반까지는 중현, 약현, 백동 각 교회 대표 8인을 선정하여 지방(註: 본당) 대항 시험을 행하고 동 4시 중현교회 대강당 내에서 성적 발표, 상품 수여, 우승기 수여식을 만당한 방청인 앞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개인 사합 입상자는 1등 1인 백동 이 아가다, (중략)4등 4인 백동 홍 테레사, (중략)5등 5인 백동 윤 베로니까(이하 생략), 이 발바라, 제씨이오 지방 대항 시험의 결과를 보면 백동 1등, 중현 2등, 약현 3등으로서 백동은 3년 동안 계속 우승하였으므로 우승기는 강당을 진동하는 박수소리 중에 영구히 백동으로 넘어가 이 날 백동 교회는 의기충천하였다.」(註: 경향잡지 통권 33권 913호, 1939년 11월 27일자).

주일학교 영세 허원(서약) 재신식

영세 허원(서약) 재신식이란 갓난아기 때 유아영세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철저히 주입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주일학교 상급 학년을 대상으로 1943년경부터 실시하였다.

주일학교 지도 신부인 보좌신부가 영세 허원 재신교육을 담당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일 1시간씩 교리를 가르치고, 가을 그리스도 왕 침례 때 재신식을 거행하였는데 재신식에 임하기 전 외부에서 윤 형중(尹亨重 마태오)신부 등, 5-6명의 신부들을 시험관으로 초빙하여

350 제4부 성 제덕 신부론

그동안 배운 교리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이 시험에 합격한 어린이들만이 수녀들의 허원식과 같이 아름다운 회관을 머리에 쓰고 재신식 예절을 행하였다.

그때 경향잡지는 다음과 같이 영세 허원 재신식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어려서 영세할 때 대부 대모의 입을 통하여 천주를 믿고 마귀를 끊어버리겠다고 한 약속을 당자가 칠년 다음 제 정신 제 입으로 발하게 하는 당연한 예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라파와 아메리카 각지에 널리 보급, 실시되어 왔으나 오리 조선에서는 늦게야 4년 전부터 백동에서 시작되어 그 후 해마다 계속되어 오는데 금년에는 거(去)10월 19일 주일에 오후 4시에는 원(元) 주교, 부감목 이 신부, 약현 바오로 이 신부, 본사 마도 윤 신부(註: 尹亨重 신부), 미아리 마리아 오 신부를 초빙하여 성당 안 제대 앞에서 24명(국민학교5년생) 아동들의 십이단, 문답, 도리, 감략 등 시험을 행하였으니, 이 시험 점수를 문답학교 출석 점수와 합하여 성적표를 만들 것이라는데, 주일학교 출석이 불량한 아동들은 도외 되어 시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남녀 아동 24명은 며칠 동안 피정신공을 행한 후 19일 주일미사와 오후 2시 성체 강복 때 노 주교(盧基南 주교)와 여러 신부 부형 자모 기타 만당한 교우 앞에서 씩씩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영세 허원 재신식을 행하여 일동르 감격시켰다.

당일 성당 정문에 달려있는 아름답게 꾸민 성적표에는 1등 이 모데스타, 2등 양 아네스, 3등 김 가롤로 등이 적혀 있어 일반의 주목을 끌었으며, 성체강복 후에는 주교 신부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다과회가 아담하게 열렸다.

이처럼 필요한 영세 허원 재신식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는 서울 혜화동 본당으로 그 절차와 방식을 문의할 것이다.」(註: 경향잡지 1947년 11월 1일자).

영세 어약 재신식은 류 봉구 보좌신부보다 훨씬 뒤에 온 조창회보좌신부 시절에도 계속 되

어 1948년까지 거행되었다.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51

성가 수녀회의 창설

대동아 전쟁으로 시국이 어수선할 때인 1943년, 성 베드로 신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성가 수녀회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하였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성 신부는 본국(프랑스)에서 원조를 구할 길도 막혀 적수공권(적수공권)으로 본당 구내에 있던 복사 지(池) 바오로 위집에서 4명의 예비 수녀회가 인가를 받은 창설일이다. 수녀원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 서울에는 농어촌에서 상경하여 공장의 임시 직공으로 혹은 품팔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교우 처녀들이 성 베드로 신부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들 가난한 처녀들은 수도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학력의 부족으로 혹은 정원 초과로 자리가 없어 그 당시 서울에 하나뿐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입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갈멜 수도원이 있었으나 관상생활만 하였다).

이 처지를 딱 하게 여긴 성 베드로 신부는 대신학교 공(孔)안또니오 신부(Gombert, 한국명 孔安國)와 소신학교 교장이었던 이 재현() 요셉신부(註 : 공 신부, 이 신부는 6·25동란 때 납북, 치명)와 사의 끝에 이 신앙 깊은 처녀들을 위하여 수녀회를 창설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의 성가수녀회(聖家修女會)이다.

수도원을 설립하기에 혜화동 본당이 적합하였던 것은 혜화동 본당이 수도 서울에 있고 또 신학교 옆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 신부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가톨릭 정신을 함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지목되었던 때문이었다.

설립자인 성 베드로 신부의 증언을 들어보자.

“1943년12월 25일 성탄축일 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네 명의 지원자는 순명하기로 약속했다. 성모님의 말씀 ‘주님의 종이오니’와 복녀 김 골롬바, 김 아네스가 재판장 앞에서 대답한 것을 생각하여 ‘소비녀’ 라 부르기로 하고, 또 그 후에 「성가소비녀회」하고 명명했다.

352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처음에는 그야말로 영웅적으로 시작을 하였다. 이들은 집도 직업도 돈도 없었다. 나 역시도 전쟁으로 프랑스에서 한 톨의 원조도 받을 수 없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비녀들은 용감히 일을 시작하였다. 알지도 못하는 병자를 찾아가서 대세를 주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낯선 사람의 집에서 일하고 품값을 받아 오기도 했다. 이런 중에서 차차 집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녀, 특히 애덕 실천을 하게 되었다. 천주께서는 이들의 가룩한 마음씨와 굳은 신념 속에서 하는 노력을 보시고는 강복하사 지원자를 점점 늘어나게 하셨다.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프랑스 신부들을 포로수용소에 수감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아서 내가 수감된다 하여도 소비녀들이 함께 뭉쳐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학교 이 재현(요셉)신부님과 규칙을 만들어 노 주교임의 승인을 얻게 되어 이 같은 소비녀회가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합법적으로 수련 수녀원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원장 수녀와 수련장 수녀 두 분이 있어야 했는데 마침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지구장이셨던 장베아뜨스 수녀님 (6·25동란 때 공

산군에 납치되어 죽음의 행진 중 학살당함)이 수도자의 넓은 정신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에게 훌륭한 강 떼끌라 수녀님과 김 텔라 수녀님 두 분을 보내 주시어 그 때부터 정식으로 수녀들의 김 아텔라 수녀님 두 분을 보내 주시어 그 때부터 정신으로 수녀들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혜화동본당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불우 형제들의 굶은 일을 돌봐 주기 위하여 창설된 이 한국적 수도회는 그 후 지금의 가톨릭 교리 신학원 자리에 수도원을 마련하여 생활하였고 또 수도원 건물 일부를 혜화동 본당 유지 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던 김 봉학(金奉鶴) 그레고리오가 건립, 기증하여줌으로써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미아리에 터전을 닦고 오늘날 221명의 총회원 (1976년 10월 30일 현재)을 거느린 대 수도원으로 발전하였다.

3.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53

미아리 공소의 본당 승격

성 베드로 신부는 1942년 2월에 현 미아리 성당 마당 아래에 있던 교우 소유의 한옥 기와 집에 공소를 설치하고 공소 이름을 「성모칠고 공소」라 하였다. 그리고 김 명환(金明煥 마리아. 註 : 현 성 베네딕도회 김 영근 베다 신부의 모친)을 공소 전교회장으로 모시고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공소 교우는 60명가량 되었다. 성 베드로 신부는 당시 서울에는 순례 성당이 없어 미아리 공소를 순례 성당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미아리 공소는 공소 설치 2년 만인 1944년에 신 인식(申仁植)신부를 초대 주임신부로 모시고 본당으로 승격되어 제기동에 이은 두 번째 분립 본당으로 복음 전파의 기차를 높이 들게 되었다.

일제 말엽의 본당 형편

전쟁에서의 폐색이 짙어진 일본은 1944년 여름부터 전국 도처에서 신부를 구속하고 젊은 신부와 신학생을 군인 또는 노무자로 징용하며 성당을 군대용으로 접수하는 등의 발악을 계속하였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하여 갖은 탄압을 내리기 시작하여 1938년부터는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1940년부터는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며, 신궁, 신사(神宮, 神寺)에 가서 절할 것을 억지로 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모두 천주교회의 방침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한 것과 신사에 가서 절하게 한 것은 일본말을 알지 못하며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는 외국인 신부들에게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뿐더러 외국인 신부들은 거의 일본과 싸우는 처지에 있는 적국의 사람이었으므로 어떠한 구실만 있으면 이들을 조선에서 내쫓고자 하였다. 먼저 일본 총독부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당을 빼앗고 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문 닫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 신부가 다스리던 평양 교구의 성당 중 평양 시내에 있던 성당을 빼앗아 일본군이 쓰게 하고 미국인 신부들을 시외로 내쫓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총독부의 교회 탄압정책은 특히 진주만 공격과 때를 같이 하여 더욱 심하여져

서 1941년 12월 8일에는 평양 교구의 오 세아 주교를 비롯한 미국인 신부 등 32명을 잡아 가두고 다음 해에는 미국인을 미국으로 쫓아 보내고 말았다.

354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그뿐만 아니라 불란서인 주교 및 신부들에 대하여서도 외부적 활동을 못하게 하고 말은 바직책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였다.」(註：柳洪烈 著 增補 한국천주교회사 p. 437-438.)

본당은 다행히 이와 같은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성 베드로 신부는 경찰서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일본어로 강론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때마다 성 베드로 신부는 “한국인에게 강론을 하니, 한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당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일본인 형사가 찾아와 간첩 혐의를 찾기 위해 성 베드로 신부의 쓰레기통[○]르 뒤지는 등 감시가 심하므로 본당에서는 함부로 회의조차 열 수 없어 각 동(洞)별로 반당을 두고 연락만을 취하게 하였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보기 힘들고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는 대다수가 여자들이었다. 교세는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았으며 연간 영세자 수는 50명에서 100명을 헤아렸다.

성 베드로 신부는 8·15 해방을 한 달 남짓 앞둔 1945년 7월 7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학생 25명에게 성세 성사를 주어 해화동 파출소 일경(日驚)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성 베드로 신부는 일본과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제 관헌에 의해 해화동 성당에서 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미사에질 집전은 허용되었고 외부 출입과 일반인들과의 접촉은 일제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의학대학) 학생들은 1944년부터 교리를 배우기 위해 가까운 해화동 성당으로 내왕했다. 경성여의전 학생들이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된 동기는 그 학교 학생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있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박순성 수녀와 홍순자 수녀의 전교로 시작된 것으로서 이 두 학생 수녀의 인도로 해화동 본당 성 베드로 신부로부터 교리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3. 해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55

고등교육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요 감시(要監視) 리스트에 오른 적성국 선교사인 성 베드로 신부와 자주 접촉하는 사실에 주목한 일제 관헌은 교리를 배우러 다니는 여의전 학생 7명을 필동 헌병대로 후출하여 조사를 했다. 헌병대 조사관은 성당에 무슨 목적으로 다니느냐, 성 베드로 신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등 고치꼬치 문초했다. 학생들은 성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성 베드로 신부는 반일반전적(反日反戰的)인 정치성을 띤 이야기는 입에 담은 일도 없고 인간에 유익한 보음 말씀만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조사관은 다른 종교도 많은 데 하필 천주교를 믿으려는 저의가 무엇이나면서 성당에 다니지 않겠다는, 다시 말해서 배교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엄포를 놓으며 불교나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했다. 학생들이 이에 불응하자 헌병대에서는 하루 종일 학생들을 헌병대에 구금하였다가 밤늦게 석방하면서 천주교를 믿되 이국인 신부 말고 한국인 신부로부터 교리를 배우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헌병대에서 주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우후 휴강 신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학교를 빠져나와 헌 해화동 로터리에 있던 길가 나무숲에 숨어 경찰의 동정을 살핀 뒤 몰래 성당 뒷문을 통해 성 베드로 신부를 찾아가 교리를 배웠다. 이렇게 1년 동안 교리를 배운

학생 7명(성 베드로 신부의 증언은 25명)은 드디어 1945년 7월 7일 성 베드로 신부로부터 성세 성사를 받았다. 그때 영세한 학생들로는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최 평화(崔平和 벨라데타, 경성여의전 5회 졸업생)등이 있다.

한편 소신학교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 성당이 폐쇄되어 학생들은 1944년과 1945년 2년 동안 아침 미사를 혜화동 성당에서 본당 교우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다.

356 제4부 성 제덕 신부론

성체거동(聖體舉動)행사

대·소신학교와 혜화동 성당, 그리고 동성 상업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종현(명동)성당 일대와 쌍벽을 이루는 가톨릭 요지인 혜화동 로터리에서는 그 야말로 장관이었던 성체거동 행렬을 볼 수 있어 가톨릭 요지로서의 면모를 더해 주었다.

본당 자체의 행사로 거행된 제1차 성체거동은 8·15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6월이었다. 이 때 본당 교우들은 동성학교 교정에 모여 미사를 드린 후 행렬을 지어 혜화동 로터리를 돌아 대신학교 교정으로 가서 성체강복을 올리고 해산하였다.

동년 9월에는 교구 주최로 신학교 교정에서 개최된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金大建)신부 순교 1백주년 시복 현양미사」에 참가하였다. 본당 청년회원들을 선두로 하여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모시고 종현 성당으로 행렬을 지어가서 유해를 안치하였고, 1947년 6월에는 본당 자체로 또 한차례의 성체거동 행사를 행하였다.

일제 하 전제 중에는 이러한 성체거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혜화동 일대의 주민들은 처음 보는 성체거동 행렬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혜화동 본당의 성체거동은 서울교구 연합 성체거동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가톨릭 청년회와 성가대

본당 가톨릭 청년회가 서기창 2대 주임신부 때부터 활약하였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그 후 인텔리 청년들이 속속 입회하면서 본당 행사는 물론 서울교구의 주요 행사마다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7년 1월 4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가톨릭 청년회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제1차 총회(1939년8월19일, 서울)등에 본당 청년 유지들인 류 홍렬과 이해남, 박 병래, 장면, 한창우 등이 참가하였고, 이들 본당 청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톨릭 청년회의 전조선(全朝鮮)조직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톨릭 지식인은 모두 혜화동에 집결해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으니 이들은 혜화동이란 본당 단위에서보다 초 본당, 초교구적으로 활동하였고 그나마 일제하 전쟁 중에는 조직적인 집회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57

그러다가 해방이 된 후인 1946년에 본당의 가톨릭 청년회가 재출범하여 초대 회장 이 해남(李海南)을 비롯하여 1948년도에는 양 성준(梁聖俊 베네딕도)등이 회장을 역임했다. 그 당시의 청년회 임원들은 총무부장에 당시 명동 성당의 유일한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였던 허준(許?)이, 그리고 사업부장은 홍 길후(洪吉厚), 학생부 임원으로는 대학부에 김 학준(金學

俊), 남자 고등부에 장 진(張震) 등이 일하였다. 고문은 김 봉학(金奉鶴), 장 면(張勉), 김 정회(金貞熙), 박 병래(朴秉來) 등이었고, 류 홍렬(柳洪烈), 한 창우(韓昌愚), 김 옥윤(金玉允), 전 창기(全昌基), 박 갑성(朴甲成), 임 백규(林白圭) 등이 평의원으로 활약하였다.

1946년에는 본당 성가대가 조직되었고 초대 지휘자는 박 경환(朴敬煥), 2대 지휘자는 안 용구(安容九) 였다.

가톨릭 여자 청년회의 활동

본당 가톨릭 여자 청년회는 1947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동성중학교 강당에서 「어린 딸은 어떻게 되나?」란 제목의 연극을 공연했다. 성교회 가르침에 어긋난 이혼의 비극성을 묘사한 이 연극 공연은 대호평을 받아 경향 각지에서 연극 대본 주문이 쇄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해난(李海南) 작 「영지국 수부계(靈之國 受付係)」란 연극 대본도 권당 3백 원 씩 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각 본당으로 팔려갔다. 이 연극은 인간이 사후에 심판관 앞에 불리어 나가 전생에 지은 죄의 중량에 따라 천국 또는 연옥, 지옥행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49년 9월 25일에는 복자 김 아네스와 김 골롬바의 순교 실화를 소재로 한 성극(聖劇)인 최요안(崔要安) 작 「복사꽃 지는 날」을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와 같이 본당의 가톨릭 청년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으므로 본당신부의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도 그만큼 컸다. 청년회를 지도하던 조창희 보좌 신부는 각본당의 청

358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년 사목을 돕기 위하여 1946년 12월 25일 「청년미사」를 편찬, 122페이지에 달하는 초판본 1만부를 자비로 출판하여 배포하였다. 이 「청년미사」는 1947년 재판될 때에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 232페이지로 페이지 수가 늘렸고 「미사공과」로 개제되기도 하였다. 1·4 후퇴 수복 후에는 가톨릭출판사에서 판권을 인수하여 내용의 변동 없이 17판까지 발행되었다.

유지 위원회의 발족

본당 신부의 자문기구인 유지 위원회는 1947년에 조직되었다.

위원장에는 김 봉학(金奉鶴, 양조장 경양), 위원은 장 면(張勉), 박 병래(朴秉來), 우 재봉, 이 선길(李先吉), 김 정회(金貞熙), 김 옥윤(金玉允), 등이었다.

가톨릭 의사회의 발족

가톨릭 의사회는 1948년, 교우 의사들로 하여금 전교와 위험환자들에게 대세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모병원장 박 병래의 발기로 창설된 의사들의 친목 단체였다. 서울 대학병원과 성모병원, 경성여자 의학 전문학교 및 기타 개인 병원의 의사들을 총망라한 초본당적인 성격을 띤 본당 가톨릭 의사회가 발전되어 나중에 서울 대교구 가톨릭 의사회 초대 회장은 성모병원장 박 병래(朴秉來), 회원으로는 김 용규, 김 현규 형제 등이 활약했다. 그밖에 본당사(本堂史)에 기록할 만한 일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중현(명동)성당에서 주일 미사 강론이 한 번 뿐일 때 성 베드로 신부는 주일 미사 4대에 모두 강론을 하였던 바 한국어가 서툴러 가끔 본의 아닌 실수를 하기도 했다. 예컨대 “모든 교우”를 “못된 교우”로 발음하는 등의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하셨던 것이다.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59

다음은 본당 복사들에 관한 이야기로써 지 경옥(池景玉 바오로)복사가 초대 지(池)베드로 신부 때부터 2대 서기창 신부, 3대 오 기선 신부에 이어 성(成) 베드로 신부 부임 후까지도 일을 하였다. 방연용(方淵容 요셉) 복사가 본당 사부를 보면서부터 지복사는 춘추 판공 때 신부님을 수행하여 공소를 순회하며 전교에 힘썼다.

구레나룻 수염에 이마에는 커다란 흑이 달려 「흑부리 방 복사」라고도 불리던 방 요셉 복사는 일제 시대에 순사까지 지냈으나 원래 마음이 어질어 도둑을 잡기는 고사하고 잡은 도둑도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 마디 충고를 하고는 슬그머니 놓아 줄 만큼의 흥이였으며 교리에 밝고 필적도 놓으며, 순종을 잘 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방 복사는 성 신부 때부터 정원진(鄭元鎭 루카)신부가 부임할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였다. 방 요셉 복사는 고인이 되었고 지 바오로 복사는 현재도 생존하여 요아킴회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삼선동에 살던 감 석호(金錫浩요셉)는 제2대 서기창 신부 시대인 청년시절부터 활약하여 제3대 오기선 신부 시대에도 몇 명 안 되는 청년 성가대 대원으로 오르간을 반주하는 등 열심이었고, 성 베드로 신부 때에 와서도 매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1942년-1943년경에는 미사 때마다 구수한 음성으로 미사 전문을 낭독하고 신공을 선창하였으며, 특히 연령회 봉사 활동에 남달리 열성적이었다. 서울 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운전기사였던 그는 1966년 12월에 선종하였는데 그의 부인 이 진실(李眞實모니카)역시 초창기부터 안나회 회원으로서 교회 활동에 봉사하였다.

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다. 1946년이었던 가 어느 한해에 나환자인 남자 한 사람이 본당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동물처럼 살았으나 죽을 때는 인간답게 죽고 싶다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나환자를 가련히 여긴 성 베드로 신부는 나환자를 수위실에 거쳐케 하고 매일 손수 상처를 씻어 주며 돌보아 주었다. 그 나환자는 2주일 쯤 영세하고 영세한지 3일 후에 죽어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것이다.

윤형중(尹亨重 마태오)신부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본당 신부의 초청으로 본당 교우들에게 사순절 특별 강론을 행하였다.

360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또 한 가지는 혜화동 성당의 명물인 느티나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느티나무 두 그루는 성 베드로 신부가 1939년 본당 부임 기념으로 식수한 것인데 수령(樹齡)이 40년은 되는 고목이지만, 지금도 푸르고 성성하여 성당을 찾는 교우들에게 여름이면 녹음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류 봉구(柳鳳九 아우구스티노)신부 후임으로 제3대 보좌신부를 보직했던 최 상준(崔尙俊 시몬)신부는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열심히 성사를 집행하고 특히 성가 지도에 열의를 보이더니 과로가 겹쳐 성모승천 대축일에 객혈까지 하여 병사가 더욱 악화되더니 1948년 10월

12일에 선종하였다. 최 상준 신부는 1915년생으로 1943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었다.

최 상준 신부가 성사를 준 이들 중에는 중앙 중학교 교사로 있던 나 운영(羅運榮 베드로, 작곡가)도 있었다. 그는 1944년에 1월 4일에 영세를 받았다.

일제하에, 특히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일제 관헌의 감시로 미사성체를 제외한 집회에 많은 애로가 뒤따랐으니 8·15 해방 후에는 모든 것이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1948년)되기까지는 좌우익의 충돌로 사회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건준(建準)위원장을 지낸 근민당(勤民黨)당수 몽양 여운형(呂運亨)선생이 1947년 7월 19일 혜화동 로터리 우체국 앞에서 백주대낮에 암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던 때였던 만큼 야간에 통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성당 할로터리에서 거물 조객의 암살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특히 본당 교우들은 야간에 성당을 출입하기가 더 불안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탄절에는 길 건너 파출소에 성탄 자시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젊은 보좌신부였던 조 창희 신부의 지휘로 청년회 회원들이 「성탄 자시미사 특별 경계 반」까지 편성할 정도였다.

3. 혜화동 본당에서의 활동 361

1948년 9월 5일 오전 10시, 본당에서는 보기 드문 성격의 장엄미사가 봉헌되었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신생 대한민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교우였던 장 면(張勉)박사의 장도를 축복하고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기를 기원하는 장엄 미사였다. 미사가 끝난 후 오전 11시에는 동성중학교 강당에서 서울 가톨릭청년연합회가 주최한 장 면 박사의 장행회(壯行會)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철구(金哲珪)신부의 긴급동의로 『교황 성하께 드리는 조선 천주교신자들의 감사 메시지』가 채택되었다. 유엔총회 참석 후 귀로에 한국 정부 특사 및 한국 교우 대표의 자격으로 교황청을 예방할 예정이었던 장 면 박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비오 12세 교황 성하께 전달토록 결정하였다.

성 베드로 신부는 본당에 부임한 후 2-3년이 지난 어느 때이었는데 한동안 사제관에 취사장이 없이 류 봉구(柳鳳九 아우구스티노, 제2대 보좌신부) 신부와 함께 신학교에 올라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류 봉구 신부는 프랑수아 성 신부 덕분에 대용 커피인 도토리 커피를 마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1942년 5월에 한국 교회 최초의 「성모의 밤」이 혜화동 본당에서 개최된 도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메리놀 외방 전교회에 사목권 위임

1939년부터 1948년까지 장장7년 동안 본당신부로서 많은 공을 남긴 성 베드로 신부는 한국에 파견되어 온 후 처음으로 휴가를 얻어 1948년 6월 1일 본국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파리의외방전교회의 본당 사목은 끝나고 메리놀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본당을 사목하게 되었다. (성 베드로 신부는 신병 요양을 마치고 1년 후에 다시 한국에 부임하여 충남 논산, 홍산본당 등에서 사목생활을 한 후 현재는 은퇴하여 그가 창설한 성가수녀회 지도신부로 있다.)

4. 신문기사

1) 시청각 교재 작성- 성가수녀원 성 신부 능률적인 아동 교리 교육 위해

능률적인 어린이교리 교육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성가수녀원 성 재덕 지도 신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신학생 이기정씨와 2명위 수련 수녀의 협조를 얻어 시청각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다. 성 신부는 약 100편의 구약 신약 성극 등의 필름을 이태리 프랑스 지에서 수입하여 번역을 이미 완료하고 현재 이 번역물에 효과를 넣어 녹음하고 있는 중이다. 각 분당에서 전교하는 성가회 수녀들이 소형 영사기와 녹음기를 갖고 가서 어린이 교리시간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4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성 신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리교육은 현대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리외방 전교회 소속인 성 신부는 1935년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교 사업을 벌여 오다 1943년12월에 성가 수녀원을 창설하였다. (가톨릭시보 1970. 8. 30)

2) 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 재덕 신부 선종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 재덕 신부(Pierre Singer)가 2월 26일 오전 6시, 성가소비녀회 수녀원에서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82세.

4. 신문기사 363

고 성 재덕 신부의 장례미사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 길음동성당에서 거행되고 유해는 경기도 포천 수녀원 관할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1910년 불란서에서 출생한 성 재덕 신부는 35년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 성가소비녀회의 설립 및 본당사목들 폭넓은 사목 생활을 해 왔다.

성 신부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돕기 위해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했으며, 48년에는 파리에서 열린UN총회에서 장면씨를 도와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승인을 받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가톨릭 신문 1992. 3)

3) “가난함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야.”-유언 중에서-

서울 성가소비녀회(총장 김정자 수녀)의 창설자 성 재덕(Pieere Singer)신부가 2월 26일 서울 성북구 정릉 1동 성가소비녀회 본원 사제관에서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82세. 고인의 영결미사는 2월 28일 상오 10시 인근 길음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와 두봉 주교를 비롯, 고인이 속한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들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으며 유해는 포천 성가소비녀회 묘지에 안장됐다.

고 성 재덕 신부는 1910년 프랑스 헤맹에서 13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28년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한 그는 1935년 사제로 서품되고 그해 11월 한국에 부임했다. 이후 충남

합덕과 인천 담동성당에서 보좌 생활을 거친 그는 1939년 혜화동본당으로 부임, 미아리 공소(현 길음동본당의 전신)를 신설했으며, 당시로써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어린이 미사’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고아와 과부들과 병자들이 생겨나게 되자 성 신부는 이 들을 돕기 위해 수녀회를 세우기로 하고, 마침내 1943년 12월 25일 성가소비녀회를 창설하였다. 성탄 대축일 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두 명위 지원다가 순

364 제4부 성 재덕 신부론

명하기로 약속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성 신부는 성모님의 말씀“주님의 종이오니”와 ㅅ口 골롬바, 김 아네스가 재판관 앞에서 대답한 것을 생각하며, ‘소비녀’라고 불리다가 ‘성가소비녀회’라고 정식으로 명명했다.

성 신부는 이후 대전교구 논산 본당과 홍산 본당 주임으로 사목활동을 하다가 1969년 성가소비녀회 지도신부로 부임, 1982년까지 수련소 강의를 담당하는 등 수녀회를 지도하다가 노환으로 요양을 취해 왔다.

성 신부가 창설한 성가소비녀회는 오늘날 종신서원 수녀 260여명을 포함, 400여명의 가족을 둔 큰 수녀회로 발전했다. 한 때는 편의 상 그냥 ‘성가회’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지난 1986년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다시 원래의 이름인 ‘성가소비녀회’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가저의 겸손과 가난과 노동을 숭상하여 나자렛 가족과 같이 애주(愛主)애인(愛人)의 덕을 닦고, 침묵의 관상 생활을 하는 것을 정신으로 삼는 성가소비녀회는 “불쌍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 병자. 무의무탁자들을 수용하여 간호, 보호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가소비녀회의 신비체 가족을 이루는 것”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성가소비녀회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사도직을 전개하고 있다. 성리 월곡동의 무료 복지 병원인 성가복지병원을 비롯, 부천 성가양로원, 용문 희망집, 나환우 정착 마을인 상록촌 등 곳곳에서 가난한 ‘소비녀’들의 사랑의 보살핌이 끊임없이 이르고 있다.

지난 62년부터 부천에 소명여자중고등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여성 및 유아 교육에서 힘써 왔지만, 수녀회의 본래의 정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금년을 마지막으로 소명여자중고등학교를 인천교구에 넘겼다.

4. 신부기사 365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생활 자세는 창설자인 성 재덕 신부의 ‘기뻐하라 소비녀’라는 권고 말씀에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만일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라. 네 정신과 육신이 못 생겨도 기뻐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믿어 주지 않아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말쑥으로 두어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한 번도 참여시키지 않아도 기뻐하라. 만일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하라. 만일 너를 모든 사람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아도 기뻐하라.”

한편 이날 영결 미사 중에는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가난함과 가나한 이

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성 재덕 신부가 20년전인 1972년 12월 250일에 친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낭독돼 소비녀들은 물론 참석한 모든 신자들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창설자 성 재덕 신부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를 사랑하는 그의 정신은 ‘소비녀’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평화신문 1992. 3. 18)

366

찾 아 보 기

- | | |
|-----------------------------------|-----------------------------|
| 1복지병원246 | 공동생활 76 77 78 80 83 309 313 |
| 25주년 1 | 공소 329 |
| 50주년 251 | 공소사목 322 |
| N. C. W. C(미국의천주교전재부흥위원회)338 | 김레오 수녀 37 10236 239 297 |
| 가톨릭 321 325 | 김루시아 104 821 |
| 가톨릭 교리신학원 1 352 326 | 김마리아 104 |
| 가톨릭 신학교 268 344 | 김막달레나 10 287 |
| 가톨릭 의사회 332 358 | 김만석 10 285 |
| 가톨릭 회관 320 | 김명환 353 |
| 가톨릭구제회 338 | 김미리암 수녀 269 |
| 가톨릭시보 362 | 김바르톨로메오 주교 91 |
| 가톨릭여자청녀회 332 | 김발라바 104 305 |
| 가톨릭중앙조합 344 | 김베아뜨릭스 수녀 19 62 64 240 |
| 가톨릭출판사 358 | 김봉건 264 |
| 갈멜수녀원 75 81 101 103 325 351 | 김봉학 352 357 358 |
| 갈바리아산 109 | 김사겸 10 292 |
| 갑사 337 | 김석배 10 281 283 |
| 강경 284 293 | 김석호 359 |
| 강경분당 91 | 김수환 추기경 363 |
| 강경회 335 | 김십자가 요왕 수녀 228 |
| 강디모테오 수녀 276 | 김아네스 326 364 |
| 강떼끌라 수녀 77 88 225 326 104 223 352 | 김아텔라 수녀 77 104 326 352 |
| 강생정신 85 | 김엠마누엘 수녀 83 327 |
| 개성 325 | 김옥윤 357 358 |
| 건진성사 226 | 김용규 358 |
|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354 358 | 김응주 109 |
| 경성제국대학 268 | 김재영 338 |
| 경합잡지 286 324 331 350 | 김정자 수녀 363 |
| 계룡산 285 337 | 김정희 357 358 |
| 계성소학교 349 | 김창룡 10 291 |
| 고시몬 수녀 239 242 | 김창석 신부 268 |
| 고별강론 272 273 | 김천식 9 276 278 |
| 고요한 신부 348 | 김철규 신부 361 |
| 고해소 271 | 김청자 305 |

김학준 357
 김현규 358
 김현령 287
 김홍신 9 279
 김화밀리아 수녀 250
 김희선 신부 268
 까타콤바 89
 나바위 284 334 336 384
 나상조 신부 348
 나운영 360
 나자렛 319
 나중관 10 285
 너협회 338
 남기밀라 수녀 82
 남곡리 229
 남안나 104
 노기남 주교 74 86 87 105 228 326 332
 노래곡 8
 노순화 292
 논산 10 14 90 95 105 229 242 253 254255
 260 269 273 275 284 311 322 327 333 334
 335 336 338 361 364
 논산 중고등 학교 245
 느베르 읍 124
 니콜라스 신부 298
 답동 267 322 329 346 363
 당진 329

루블레 신부(Rouveiet) 334
 류봉구 350 360
 류홍렬 356 367
 르메르(Maitre Marc LEMAIRE) 19
 마니피캇 310
 마르느진투 220
 마리루시 수녀 67
 마리스티수도원 248
 마리아회 248
 막달레나 34
 말따 수녀 82 83
 망월동 334
 메리놀외방전교회 333 361
 메리가브리엘라(Mary Gabrieiia Muiherin)
 334
 메리놀병원 344
 메스트르 신부 323

대건 중고등학교 240 290 284 311 322 335
 336 338
 대건학교 15
 대교동 285
 대동아전쟁 75
 대방동탁아소 224
 대신학교 1
 대전 335
 대전교구 322
 대전천주교유지재단 337
 대천 293
 대털이공소 91
 대한민국 322
 덕산 282 317
 덕원 신학교 264
 덩케르크 222
 도림동 271 327
 도밍교회 121
 동성상업학교 333
 동성중학교 361
 두봉주교 363
 드뇌 신부(Denenux) 258
 라리보 주교 222 253 259 337 346
 레지오마리에 227
 랭스대성당 220
 루르드 123 269 286

명동성당 85
 명마지아 수녀 9 223 225 242 342
 명예수련장 88
 목계영 신부(Bermond) 91 318 252
 목수 277
 목포 324
 무료복지병원 327 364
 무의무탁자 364
 뤼펠 민 대주교 346
 미아리 228 274 275 322 352 353 363
 미아리 본당 102 230
 민야고보 수녀 225 227
 바오로 6세 234
 바오로수녀원 81 85
 바티칸 공의회 234
 바폼므(Ba paume) 219
 박갑성 357
 박경환 357

의정부2동 성당 233
 위정부 성모병원 233
 이구두라 104
 이기정 362
 이나시오 수녀 242
 이데레사 104
 이레오날드 수녀 9 231 243
 이리 335
 이뤘다 104
 이말다 수녀 224
 이복포로병원 91
 이석충 신부 264 331
 이선길 358
 이일범 10 290
 이재현 신부 74 85 87 103 230
 325 326 351 352
 이종찬 신부 268
 이진실 359
 이해남 356 357
 인천 324 346
 인천답동 101
 인천분당 81
 일러두기 6 7
 일본군 324
 일제 323
 임백규 357
 임종국 신부 81 267
 자선병원 275
 자선활동 328
 작은여종 305
 장 베다 신부 264
 잔금구 신부 9 262 332 346
 장례미사 272
 장례예절 319
 장마리아 수녀 82
 장면 269 320 322 356 357
 358 361 363
 장바울라 104
 장발 264 265
 장베아트릭스 수녀 352
 장상 수녀 114
 장익 신부 264 331 348

천주강생 26
 천주의 섭리회 292
 청년미사 358
 청년회 329
 청원기 65
 청주 325
 초대명예원장 88
 초등교육 324
 총장수녀 66
 최나타나엘 수녀 277
 최상준 360
 최세구 신부 269 282 328 340
 최승룡 신부 9 268 272
 최요한 357
 최윌릿따 수녀 233
 최평화 355
 축사 4 7
 춘천 323
 카리스마 2 234 235 297 298 300
 크레시(Crecy) 219
 크리스티나 수녀 271
 탄압정책 323
 태평양전쟁 323 324 325 360
 파리 322
 파리외방전교회 7 19 80 101 223 248
 254 260 293 300 321 323
 325 328 332 346 348 362 363
 파이에신부 253
 관공성사 329
 페랭 신부 254 258 329
 편찬사 1 7
 평신도 264 276
 평양 324
 평화신문 365
 포항 성심회 248
 표신부 102
 프랑스 322 323 324 326